

한국상고사학회 제49회 정기학술대회

한국 상고사 외연의 확장과 변방의 재인식(1) -환동해 지역-

주최  국립중앙박물관 한국상고사학회

주관 한국상고사학회

일자 2018. 12. 14.(금)

장소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

한국상고사학회

후원

고려문화재연구원 | 기호문화재연구원 | 백두문화재연구원 | 서울문화유산연구원 | 성림문화재연구원 |
세종문화재연구원 | 울산문화재연구원 | 전남문화재연구원 | 전라문화유산연구원 | 전주문화유산연구원 |
중앙문화재연구원 | 충청문화재연구원 | 한강문화재연구원 | 한빛문화재연구원 | 호남문화재연구원 |

한국 상고사 외연의 확장과 변방의 재인식(1)

-환동해지역-

주최



국립중앙박물관
National Museum of Korea

한국상고사학회

주관

한국상고사학회

일자

2018. 12. 14. (금)

장소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

후원

고려문화재연구원, 기호문화재연구원, 백두문화재연구원,
서울문화유산연구원, 성림문화재연구원, 세종문화재연구원,
울산문화재연구원, 전남문화재연구원, 전라문화유산연구원,
전주문화유산연구원, 중앙문화재연구원, 충청문화재연구원,
한강문화재연구원, 한빛문화재연구원, 호남문화재연구원

한국상고사학회

■ 제49회 정기학술대회 일정

1부

오전 사회 : 장은정 (국립중앙박물관)

시 간	내 용	발 표 · 토 론
10:00 ~ 10:30	개회사	김 재 홍 (한국상고사학회 회장)
	환영사	배 기 동 (국립중앙박물관 관장)
	장내정리	
10:30 ~ 10:40	취지 설명	강 인 옥 (경희대학교)
10:40 ~ 11:10	주제발표 1	김 재 윤 (부산대학교)
	선사시대 동심원문 암각화를 통해서 살펴본 환동해문화권의 범위와 교류 영역	토론 : 임 상 택 (부산대학교)
11:10 ~ 11:40	주제발표 2	홍종하·신동훈 (서울대학교 해부학교실)
	최근 소의 기원에 관한 국제적 연구 경향과 한반도 신석기시대 소 뼈 연구에 관한 제언	토론 : 김 현 석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11:40 ~ 12:10	주제발표 3	심 재 연 (한림대학교)
	환동해지역의 비종원계 철(철기) 생산 가능성 검토	토론 : 최 영 민 (아주대학교)
12:10 ~ 12:50	점심 식사	
12:50 ~ 13:35	황금인간의 땅 '카자흐스탄 황금 유물 특별전' 단체관람 (학회 참석자 전원 무료 입장)	

2부

오후 사회 : 박영구 (강릉원주대학교)

시 간	내 용	발 표 · 토 론
13:35 ~ 14:05	주제발표 4	유 은 식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濊文化의 형성과 확산양상	토론 : 이 종 록 (고려대학교)
14:05 ~ 14:35	주제발표 5	신 광 철 (국립경주박물관)
	강원도 말갈의 정체성과 고구려의 南進에 대한 고고학적 접근	토론 : 김 진 광 (한국학중앙연구원)
14:35 ~ 15:05	주제발표 6	홍 형 우 (강릉원주대학교)
	함경도, 연해주 일대 여진과 말갈의 유적에 대하여	토론 : 막심 스토야킨 (국립문화재연구소)
15:05 ~ 15:20	장내 정리 및 휴식	
15:20 ~ 17:20	종합토론	
	좌 장 : 강인옥(경희대학교)	
	토 론 : 발표자 및 토론자 전원	
17:20 ~ 17:30	논문경진대회 시상식	
17:30 ~ 17:50	총회 및 폐회사	
17:50 ~	만찬	

■ 제49회 정기학술대회 발표자료집 목차

- | | | |
|---|----------------------------|------------|
| 선사시대 동심원문 암각화를 통해서 살펴본
환동해문화권의 범위와 교류영역 | 김재운
(부산대학교) | pp.7~31 |
| 최근 소의 기원에 관한 국제적 연구경향과
한반도 신석기시대 소 뼈 연구에 관한 제언 | 홍종하, 신동훈
(서울대학교) | pp.33~46 |
| 환동해지역 비중원계 철(철기) 생산 가능성 검토 | 심재연
(한림대학교) | pp.47~60 |
| 濊文化의 형성과 확산양상 | 유은식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 pp.61~84 |
| 강원도 말갈의 정체성과
고구려의 南進에 대한 고고학적 접근 | 신광철
(국립경주박물관) | pp.85~131 |
| 함경도, 연해주 일대
여진과 말갈의 유적에 대하여 | 홍형우
(강릉원주대학교) | pp.133~155 |

선사시대 동심원문 암각화를 통해서 살펴본 환동해문화권의 범위와 교류영역
-고아시아족과 통구스족 문제를 검토해서-

김재윤 (부산대학교)

목차

I. 머리말

II. 연구성과 및 문제제기

III. 환동해문화권과 인접한 지역의 동심원문 암각화

1. 아무르강 하류의 사카치 알리안
2. 우수리강 세레미체보
3. 눈강 유역의 백성 쌍탑 1기
4. 한반도 동심원문 암각화

IV. 환동해문화권과 인접지역의 동심원문 암각화 시간성 검토

1. 9000년 전 백성쌍탑 1기와 아무르강 하류 동심원문 암각화
2. 한반도 동심원문 암각화의 시간성 검토

V. 선사시대 환동해문화권의 범위와 교류지역 및 종족기원에 대한 문제점

1. 환동해문화권의 범위와 교류지역
2. 고아시아족과 통구스족의 기원문제

VI. 맺음말

I. 머리말

러시아 연해주와 한반도와의 선사시대 교류는 환동해문화권(강인욱 2007)으로서 연해주와 한반도 강원도와의 관련성이 주로 연구되었다.

환동해문화권은 선사시대부터 역사시대까지 계속되었으며, 시간에 따라서 범위나 추이가 다를 수 있다. 그간 신석기시대 및 청동기시대는 토기 및 석기, 청동기 등이 교류를 입증하는 자료로 연구되었다. 신석기시대는 6000~5800년 전에 오산리C지구 III~V층(김재운 2013, 2017), 진주 남강 유역에서도 그 흔적이 확인(강인욱 2009, 김재운 2018a)되는데, 3100~2900년 전 시니가이문화의 토기와 석기가 강원도 철정리C지구 2호, 내성리, 천동리 유적을 통한 것으로 밝혀졌다(김재운 2018a).

또한 6000년 전 보다 더 이른 6500~6000년 전에는 아무르강 하류의 말리세보문화와 오산리C지구 VI층과의 관련성이 연구된 바 있고(김재운 2015, 2017), 이는 토기 뿐만 아니라 극동전신상토우 및 동물형토우와 같은 유물로도 입증된 바 있다(김재운 2008).

그런데 필자는 이제까지 아무르강 하류를 신석기시대 환동해문화권의 영역에 포함시키는데 약간 유보적이었으나, 토기와 토우 이외에도 암각화도 공통적인 문화성격을 보인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인간의 교류 라는점에서 토기와 같은 일상생활품 이외에도 토우나 암각화와 같은 비실용적 이지만 정신세계를 의미하는 유물과 유적도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암각화와 같이 바위에 그림을 새기는 행위가 남아 있는 장소가 유라시아 전역에 퍼져 있다는 점은 광역적인 비교연구는 필수적이지만 환동해문화권과의 비교는 초보적이다.

그간 본고에서는 환동해문화권에서 비교적 연구되지 않은 암각화 가운데 동심원문양이 아무르강 하류, 우수리강, 두만강을 거쳐서 영남지역에 분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지하고 이를 비교하고자 한다.

눈강 유역의 백성 쌍탑 유적의 1기에서 아무르강 중류 및 하류와 관련된 유물이 확인되고, 사카치알리안 및 세레미체보 유적과 거의 비슷한 얼굴모양 마스크 문양이 새겨진 토기편이 출토되었다. 이 유적의 주제 중 동심원문과 이를 바탕으로 그려진 얼굴모양마스크의 연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계기로 판단했다. 영남의 동심원문암각화는 단독 혹은 일명 ‘검파형암각화’와 같이 그려지기도 하는데, 고령 안화리(그림8-6)에서 확인된 암각화는 동심원문양 위에 겹쳐서 검파형암각화가 표현되어 두 주제가 동시기에 그려진 것이 아닐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눈강 유역의 백성 쌍탑1기의 유물과 아무르강 하류의 사카치알리안, 우수리강 유역의 세레미체보 유적과의 비교를 통해서 동심원문암각화가 그려진 시간성을 구체화하고, 한반도 유적도 비교(그림1)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최근 연구들은 아무르강하류와 중류가 서로 관련이 있고, 눈강 유역의 자료에도 이러한 정황이 보인다. 그렇다면 아무르강하류의 문화가 인접한 지역까지 넓게 교류함으로써, 환동해문화권의 범위와 교류영역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눈강, 아무르강 중류 및 태백산맥에서 분기된 소백산맥 동쪽의 영남지역에서 보이는 환동해문화권의 정황을 이 문화권이 동북아시아에서 고립된 지역이 아니라 인접지역과 교류한단을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이다.

끝으로 사카치알리안 유적에서 확인된 얼굴모양 마스크는 나나이족의 얼굴로 소개되었고(오

클라드니코프 1971), 아무르강 하류의 신석기시대 주민을 고아시아족 선조로 생각하던 오클라드니코프의 입장(오클라드니코프 1965, 1966)이 재정리(오클라드니코프·데레비얀코 1973)되었으나, 신석기시대 고아시아족설이 한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환동해문화권의 연구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오클라드니코프가 민족지자료를 활용한 경위를 밝히고, 문제제기하고자 한다.

II. 연구성과 및 문제제기

러시아에서 암각화는 주로 알타이 산맥 등 중앙아시아지역과 아무르강 하류에 그려진 암각화가 대표적이다. 그 중에 아무르강 하류에 위치한 사카치알리안은 강변의 화산암에 그려졌다(그림2). 주제는 동심원문양 뿐만 아니라 새, 사슴, 호랑이, 전쟁에 참가한 말, 사냥하는 장면 등 아주 다양하다. 그 중 동심원문을 기반으로 한 얼굴형마스크 등 여러 모양의 얼굴주제는 연대 뿐만 아니라 현존하는 아무르강 하류의 나나이족 얼굴로 소개되면서 집중적으로 조명받았다(오클라드니코프 1971).

사카치알리안의 연대는 주변에서 발굴된 유적출토 유물과 암각화 주제를 비교하면서 이루어졌다. 최초의 조사자인 오클라드니코프(1971)는 대략 네 시기정도에 걸쳐서 그려졌을 것으로 추정했는데, 최근에는 신석기시대 연대 조종으로 세 시기 정도에 걸친 것(라스킨 2015)으로 보기도 한다(표1).

사카치알리안의 주제와 유사한 암각화가 우수리강에 위치한 세레미체보 유적에서도 확인되며, 사카치알리안과 동시기의 것으로 판단되었다(오클라드니코프 1971). 두만강 유역에서는 동심원문만 집중된 유적이 지초리에서 확인되었는데(서국태 2004), 동심원 및 회오리문양, 뇌문 등은 과일군 청룡리유적, 염주군 반궁리 등지에는 뇌문과 타래문이 함께 출토되고, 서포항 유적에서는 타래문이 번개문 보다 이른 시기에 출토됨으로 지초리의 암각화는 신석기시대 중기에서 후기로 넘어가는 중간 정도에 위치하면 기원전 5000년 전반기의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서국태 2010).

반면에 한반도 영남에 위치한 순수한 동심원문만 그려진 고령 안화리, 진천동 입석, 밀양 안인리, 함안 도항리 등지에서 확인되고 있다(그림 7). 뿐만 아니라 검파형 암각화와 함께 그려진 고령 양전도, 영천 보성리, 고령 안화리 등도 확인된다(그림 8). 동심원문 암각화는 대부분 청동기시대로 보고 있는데 지석묘와 관련되었기 때문이다(울산반구대암각화박물관 2011, 2012).

동심원문암각화가 대부분 지석묘관련 시설에서 확인된다 하더라도 이를 암각화의 제작시기로 단정할 수 없다. 밀양 안인리 4호는 묘역식지석묘로 암각화는 중앙상석이 아닌 가장 자리의 돌에서 확인되었다. 석검과 함께 그려져서 청동기시대로 추정되었지만(그림8-7) 두 그림이 겹쳐져서 그려진 것이 아니라 각각 그려져서 다른 시기 일 가능성도 있다.

지석묘와 관련된 동심원문 암각화는 축조될 당시에 이미 암각화가 그려져 있었을 가능성도 있으며, 지석묘 시기를 암각화가 그려진 시기로 단정할 수 없다. 복천동(그림 7-4)에서도 이미 그려진 돌을 석곽으로 이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청동기시대로 추정된 것은 수영천변에서 청동기시대 유물이 채집되었기 때문인데(홍보식 2011), 만약 신석기시대 유물이 채집된다면 그 연대는 또 변동의 가능성이 있다.

사카치알리안, 울산 천전리, 울산 반구대 등 여러 유적의 예를 보아서 같은 장소에 그려진 문양이지만 주제가 다를 경우는 시기가 반드시 일치 하지 않다. 그래서 영남의 동심원문암각화는 석검이 그려진 점, 지석묘와 관련된 점으로 보아 지석묘 축조 시점을 암각화의 하한으로 생각할 수 있다.

종합하면 유사한 문양주제이지만 러시아의 사카치 알리안, 세레미체보 유적, 지초리 등은 신석기시대, 한국에서는 청동기시대의 것으로 본다. 한반도 암각화 연대결정의 어려움이 가장 크게 드러나는 것은 고령 양전동 암각화이다.

동심원문 암각화 및 일명 ‘검파형암각화’가 그려진 고령 양전동 유적은 청동기시대 설과 삼국시대 설로 나눌 수 있다. 청동기시대 양전동암각화가 보고된 당시에 유적 주변에서 무문토기와 마제석부 등이 발견됨으로 청동기시대~초기철기시대로 편년되었다(이은창 1971). 영일인비리 유적의 마제석검이 그려진 손잡이 부분을 양전동형암각화의 조형으로 보는 의견은 청동기시대 설을 지지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송화섭 1994). 그 이후에도 경주 안심리에서 확인된 유사한 주제로 그려진 암각화가 지석묘의 상석에서 확인됨으로 청동기시대 설이 더 확고해졌다(이상길 1996). 석장동 암각화가 발견되면서 마제석검과 양전동형암각화의 사다리꼴모티브의 중간모습, 사다리꼴 모티브 등이 확인되면서 인비리 보다는 석장동 유적이 가장 이른 양식으로도 꼽히기도 한다(장명수 1995·2001). 분류기준을 달리한 연구자는 인비리가 석장동 보다는 이르다고 보았지만 청동기시대에 제작되었다는 설은 변함이 없다(이하우 2011).

반면에 양전동형암각화가 삼국시대에 해당될 것이라는 의견을 낸 것은 三上次男(1977)이다. 일본 구주 고분문양과 비슷한 점이 그 근거이다. 고령지산동고분30호분의 개석에서 양전동형암각화의 사다리꼴 모티브 일부가 확인되면서 이 유적의 연대를 양전동형암각화의 하한으로 보는 의견도 있다(전호태 2013, 강봉원 2017). 이를 확대해서 양전동형암각화 가운데 양전동암각화를 영남의 다른 유적과 구분해서 고령이라는 특성과 연결시켜 가야 건국신화와 연결시키고 국가제도가 이루어진 장소로 보는 관점(전호태 2017)은 그간 양전동형암각화가 청동기시대의 것이라는 데 대부분의 연구자와는 차이가 있다. 강봉원은 전호태의 의견과는 차이가 있는데 5세기까지 내려올 수 있는 유적은 지산동고분군30호분의 개석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다른 유적들은 또 다른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강봉원 2017).

만약 양전동암각화가 삼국시대의 것이라면, 일명 ‘검파형암각화’가 그려진 다른 암각화 유적 뿐만 아니라 동심원문이 같이 그려진 유적도 여기에 포함 될 수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

암각화 제작시기의 직접적인 증거는 발굴을 통한 유물에서 나온 문양과 암각화의 문양을 비교 한 방법이 더 유용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사카치알리안, 세레미체보 유적 등도 연대추정되었다(표1, 오클르다니코프 1971). 반구대암각화가 신석기시대부터 제작되었다는 주장(하인수 2012)도 동삼동 유적에서 출토된 사슴문양토기 와 비교에 의한 것인데, 비슷한 추정법이다. 이러한 연구법은 암각화가 밀집된 알타이 및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도 많이 사용된다(블라지미르 D. 쿠바레프 (이헌종·강인욱 역) 2003)

그런데 눈강 유역에서 발굴된 백성 쌍탑 유적의 1기 유물에서 사카치알리안의 동심원문을 기반으로 한 얼굴모양 마스크와 매우 유사한 토기편이 확인되었다(그림 6-10,11). 보즈네세노프카 문화의 토기와 비교된 사카치알리안의 하트형 얼굴마스크 보다 이른 시기의 유물이고, 타래문토기와 비교를 통한 동심원문 마스크의 연대추정(표1)보다 더 구체적인 자료가 쌍탑 1기에서 출토되었다.

특히 쌍탑 1기의 토기는 아무르강 중류의 노보페트로프카 문화의 토기가 확인되어서, 눈강과 아무르강 중류와의 관련성이 뚜렷하게 보인다(그림6-16~19). 또한 러시아 아무르강 하류의

最古 신석기문화인 오시포프카문화와 노보페트로프카문화가 서로 관련성이 있다는 연구(셰프코무드·얀시나 2012)와도 상응하는 자료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쌍탑1기와 사카치알리안 및 우수리강의 세레미체보 유적(그림 4, 5)에서 확인된 동심원문양을 기반으로 한 얼굴모양 마스크를 비교해서, 동심원문암각화의 시간성을 밝히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동심원문암각화가 두만강 유역 및 영남지역에서 확인됨으로 이를 비교할 수 있다. 전고(김재윤 2008)에서 필자가 고찰한 바 있는 극동전신상토우와 함께 이 유적과 유물은 일상생활이 아닌 정신세계와 관련 된 유물과 유적으로 환동해문화권의 범위를 가늠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코자 한다.

그런데 오클라다니코프의 사카치알리안 조사는 민족문제와도 관련되어 있다. 그는 아무르강 하류 및 연해주 신석기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현존하는 나나이족, 울치족, 니히브(길랴)족 등의 기원으로 생각했다(오클라다니코프 1966). 신석기시대 주민이 고아시아족일 것이라는 그의 생각은 후에 정정(오클라다니코프·데레비얀코 1973)되지만, 수정 전의 생각이 이미 한국(김정배 1973)에서 인용되어서 현재까지도 이용된다(한민족백과사전¹⁾).

그러나 현재의 고고학자료로 보아서 환동해문화권의 교류로 인해서 한반도 남부지역의 신석기문화형성자체에 관여했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주지하다시피 한반도 남부의 고유한 신석기문화가 있었고 그 가운데서 일부 요소가 환동해문화권과 교류로 인한 정황이 확인되는 것이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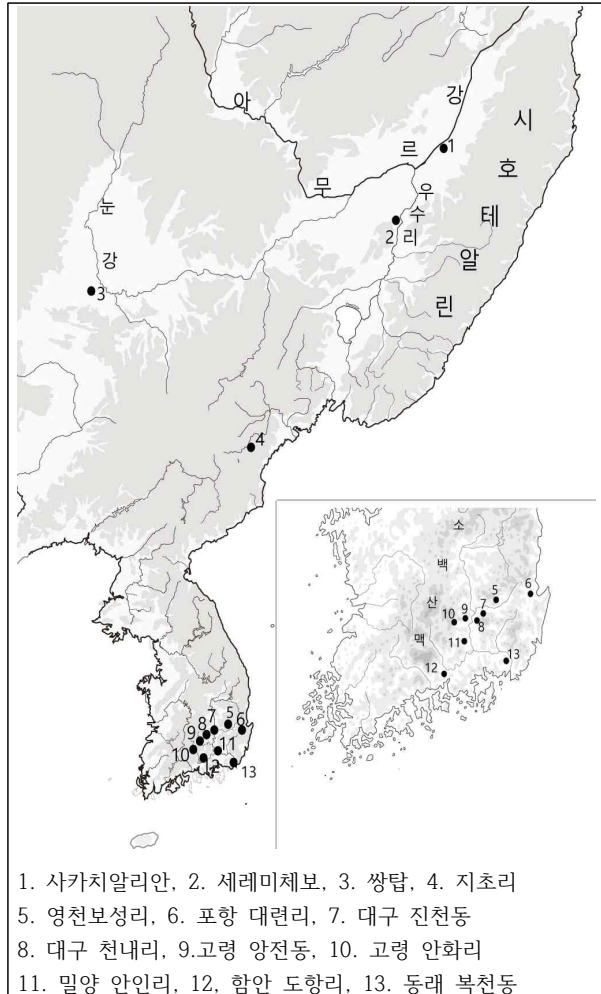


그림 1 유적

1) <http://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한국&ridx=0&tot=22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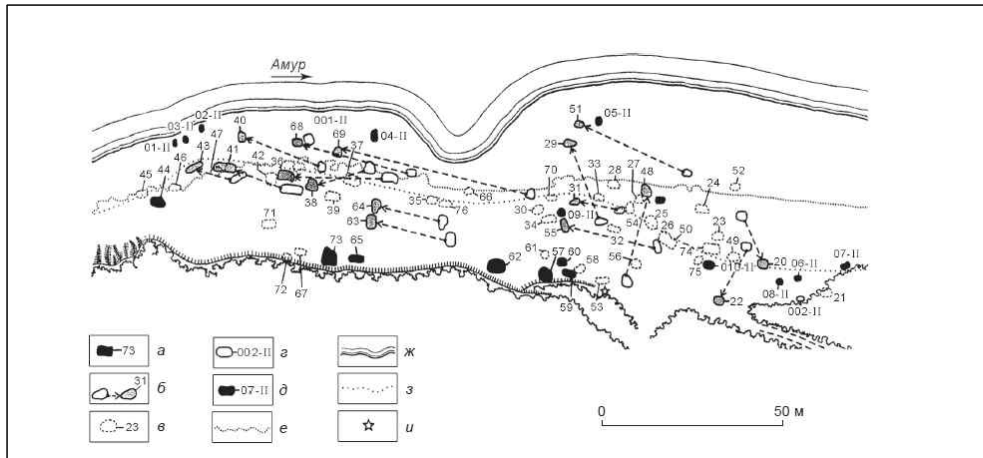


그림 2 사카치알리안암각화의 위치변화도(라스킨 2007)

따라서 본고에서는 환동해문화권의 동심원문암각화를 비교해서 동심원문암각화의 시간성을 확보하고, 문화권의 범위 및 교류영역에 대해서 고찰코자 한다. 특히 전고(김재운 2008)에서 先환동해문화권으로 여겼지만, 아무르강 하류가 토기 및 토우, 암각화 등으로 보아서 신석기 시대 일부시간에는 환동해문화권으로 포함할 수 있는 점을 논하고자 한다. 또한 그 교류범위가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북부지역은 눈강 유역까지, 남부지역은 영남지역과도 관련성이 있으며, 이는 환동해문화권의 범위가 아닌 간접영향권으로 교류영역에 포함될 수 있다. 환동해문화권이 동북아시아에서 고립된 곳이 아닌 주변지역과 교류했던 정황으로 역설할 수 있다. 또한 환동해문화권의 형성배경은 산맥과 동해를 매개로 한 자연환경 입지에 의한 것이지, 종족문제와는 별개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III. 환동해문화권과 인접한 지역의 동심원문 암각화

1. 아무르강 하류의 사카치 알리안 유적

암각화가 그려진 바위는 바로 강가에 위치하며 화산암에 암각화가 새겨졌다(그림2). 이 유적이 발견된 것은 19세기 말에 발견되었다. 최초의 학술조사는 1950~60년대 오클라드니코프가 조사했고, 2000년대에 새로이 조사되었다. 6지점에서 103개의 돌에서 각 돌에 1~12개의 표현물이 확인되었다²⁾.

암각화는 선사시대의 것은 대부분 쪼기 기법으로 표현되었는데, 외곽선을 돌리고 내부에 표현을 한 것도 확인된다. 흙의 깊이는 0.3~1cm가량이다. 전반적으로 사실적인 표현이 대부분 많고 기하학적인 표현은 드물다. 경우에 따라서 몇 개의 표현물이 그룹을 이루는 경우도 있는데, 그 중에는 얼굴과 새가 그려진다.

2) 사카치알리안은 아무르강의 범람과 함께 심하게 훼손되었고, 오클라드니코프가 조사한 지점과 현재의 암각화 위치가 심하게 바뀌었음이 문제제기 되었다. 그림 2(라스킨 2009)의 화살표 방향으로 표시된 것이 오클라드니코프가 보고한 지점과 현재의 지점을 비교한 것이다.

암각화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인물을 표현한 것인데, 그 중에서도 얼굴이다. 전신상(그림 9-1,2)도 3곳에서 확인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도면은 2개만 확인가능하다. 사람의 얼굴은 타원형, 달걀형 타원형, 하트형, 사다리꼴형, 삼각형이 있고 원숭이 혹은 거북이 등도 일부 확인된다. 얼굴은 다른 문양에 비해서 대부분 볼록한 돌을 선택해서 시문해서 윤곽을 드러나게 하였다. 그 외 짐승, 새, 뱀, 배(舟), 태양상징, 성혈과 동심원문양 등이 있다(오클라드니코프 1971).

얼굴의 내부는 비교적 간단한 문양으로 충진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눈을 동심원으로 표현한 후 얼굴을 그렸다. 유적 곳곳에서 동심원이 확인되며, 동심원문과 코, 입만 그려진 미완성품도 확인된다(그림 3-1~4). 즉 동심원문을 기반으로 얼굴모양 마스크를 그린 것이 많다. 그 외에 단독의 동심원문, 회오리 문양(그림3-5~7)도 확인된다.

동물문양은 두 가지 표현법이 있다. 사슴의 내부는 동심원이나 나선으로 채워진다. 오클라드니코프는 이것은 동물의 내장을 그대로 표현한 것으로 보았다. 창자, 심장, 신장, 간 등이다. 이러한 표현법을 렌트겐 기법 혹은 해골기법이라고 한다(오클라드니코프 1971). 여기서 고식의 동물문양은 기하학적으로 표현되지 않고 그대로 표현되는데, 특히 사슴이 그러하다. 맹수의 동체부를 표현하는 방법과는 차이가 있다. 맹수는 등이 둥글게 굽은 것으로 표현되는데, 머리가 매우 크다. 다리선은 동체부에서 연장되는데, 가로 방향의 선이 두 부분을 구분한다 (오클라드니코프 1971). 한편, 맹수는 반구대암각화의 표현법과 유사하다는 의견이 있다(김재윤 2017b). 사카치알리안 연대는 인접한 곳의 발굴에서 출토된 유물과 암각화의 비교로 알려졌고, 여러 시기에 걸쳐서 제작된 것으로 보았다(표 1).



그림 3 동심원문과 회오리 문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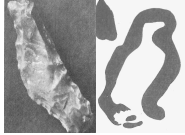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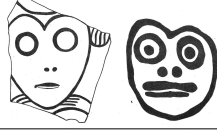



그림 4 사카치알리안(1~3, 7~9, 11, 12, 14, 17~23)과 세레미체보 유적(4~6, 10, 13, 15, 16)의 동심원문눈 얼굴모양

사카치알리안 유적의 12000~10000년 전 당시 후기구석기시대의 플라이스토세 유적에서는 새 모양으로 추정된 석제품이 출토되었는데, 새그림이 가장 이른 시기로 생각되었다(표1, 오클라드니코프 1971). 또한 6000~5000년 전 신석기시대 토기 가운데 콘돈포취타유적에서 타래문 토기가 확인되며 이 토기의 문양과 유사한 방법으로 그려진 동심원문암각화의 얼굴모양마스크도 이때 그려진 것으로 보았다. 또한 하트모양의 얼굴문양은 보즈네세노프카 문화 토기와 비교해서 이 시기의 것으로 보았다(표 1).

최근 연구에서는 12000~10000년 전은 오시포프카문화에 해당한다고 정정했고, 얼굴문양은 신석기시대 발달단계(4000~3000년 전)로 보아서 오클라드니코프와 연대차이를 보인다(표1). 신석기시대 이외의 중세시대 그림은 음각으로 그린 것으로 보았고, 전쟁에 참가한 말, 사냥하는 장면 등이 그려진 것으로 대략 8세기 가량 그려진 것으로 보았고, 라스킨은 철제도구로 그려진 것으로 철기시대부터 중세시대(4~13세기)까지 내려갈 가능성도 상정했다(라스킨 2015).

표 1 사카치알리안 유적의 연대

주제		오클라드니코프 1971	라스킨 2015
새, 사슴		12000~10000년전 (플라이스토세)	오시포프카문화
동심원문 사람얼굴마스크		6000~5000년 전	4000~3000년 전
하트형 사람얼굴		보즈네세노프카 문화	
선각된 전쟁에 참가한 말, 사냥하는 장면 등		8세기 (말갈 혹은 퉁구스 족)	4~13세기

2. 우수리강 세레미체보

19세기 말에 처음 확인되었고, 1968년 1970년, 1978년도에 오클라드니코프가 조사했다. 암각화는 아무르강의 지류인 우수리강의 강가에 세레미체보 마을 보다 약간 하류에 위치한 절벽에 원래 살던 주민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3개의 지점으로 나누어져 암각화가 그려져 있는데, 각 지점은 6개, 20개, 7개의 표현이 그려져 있다. 표현물은 0.3~1cm가량 깊이로 쪼기 기법으로 표현된 것이다. 몇 개는 음각한 것도 있다(오클라드니코프 1971).

대부분은 사람과 동물과 관련된 주제이다. 가장 많은 것은 얼굴만 표현된 것인데, 단독으로

그려진 것이 대부분이고, 쌍을 이루는 것은 1개소(그림 4-5,6) 확인된다.

타원형, 달갈형, 하트형, 상단은 타원형, 하단은 사각형이니 것, 원숭이 혹은 거북이 모양의 것도 있다. 눈은 둥글거나 끝이 뾰족한 '짜진 눈'을 표현한 것(그림 5-4,7,8)이 있다.

얼굴내부를 충진했는데, 이마의 주름, 눈 등은 사카치알리안과 유사하다. 일부 표현에서는 얼굴의 외곽선에 방사선의 모양으로 그려놓아서 '빛'을 형상화 하였지만(그림 4-4,5), 사카치알리안과 달리 머리 위쪽으로만 표현되었다. 목이 길고 발가락이 세 개 인 것은 백조 혹은 거위인데, 이는 사카치알리안과 다른 시기의 것이다.

오클라드니코프는 사카치 알리안

과 마찬가지로 얼굴형 암각화 중 동심원문(그림 4-4~6, 10, 13, 15,16)을 기반으로 한 것은 6000~5000년 전으로 보았다(오클라드니코프 1971).



그림 5 사카치알리안과 세레미체보 유적의 '짜진 눈'얼굴모양마스크

3. 눈강 유역의 백성 쌍탑 1기

백성 쌍탑 유적은 1기, 2기, 3기로 구분되며, 그 중 신석기시대는 1기와 2기이다. 1기에서는 회괭과 묘광, 회구 및 기둥구멍 등이 확인되었다. 1기의 주요한 유물은 용기문토기이다. 2기는 무덤 4기가 발굴되었다.

토기의 기형은 다양한데, 발형토기(그림 6-1,5,6,8), 잔발형토기, 고배형토기(그림 6-4) 등이 확인된다. 토기의 문양은 주로 용기문과 무문양이 주요하고, 구연단에 구순각목이 확인되며, 일부 토기에는 침선으로 그린 것도 있다.

토기의 문양은 구연부근에 용기띠가 횡방향으로 부착된 것이 주를 이룬다. 주로 여러 줄 부착되었거나 혹은 종방향과 함께 시문되었다. 용기띠에 각목이 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구연단에 각목된 토기도 확인된다. 뿐만 아니라 무문양토기도 출토되는데, 저부의 바닥이 오목하게 들어간 것이다. 문양토기(그림 6-5,6) 가운데는 점토를 접한 한 흔적이 단을 이루는 것이 남아 있는 토기도 있고, 단순한 무문양도 있다.



그림 6 눈강 유역의 백성 쌍탑 1기 출토품과 아무르강 중류의 토기

이외 침선기법으로 동심원 사람얼굴문양이 남아 있는 토기는 2점(그림 6-10,11)있는데, 동심원문이 눈을 표현하고, 수염 밑 코구멍, 입이 있다. 용기띠를 부착한 토기도 침선얼굴문 토기와 유사한 형태가 있는데, 코, 입, 수염을 표현했다(그림 6-4). 얼굴문양토기는 내몽고와 통요 등지의 암각화와 비교되기도 했으나(吉林大學邊疆考古研究中心·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2013), 이 유적은 용기문토기가 새롭게 조사된 후투목알(後套木嘎) 유적의 2기와 같은 성격이고, 아무르강 중류의 노보페트로프카 문화와 같은 것으로 평가되었다(왕립신 2016). 뿐만 아니라 러시아에서도 아무르강 중류의 노보페트로프카문화와 오시포프카문화가 관련성이 있다는 연구(세프코무드·안쉬나 2012)로 보아서 백성 쌍탑 1기의 성격은 내몽골보다는 아무르강 중류 및 하류역과 관련성이 더 깊다³⁾.

3) 백성 쌍탑1기와 후투목알 2기, 노보페트로프카 문화 등의 토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하겠다.

4. 한반도 동심원문암각화

		그림 번호	유적성격	동심원	회오리	S자형 회오리	이중 마름모	참고문헌
동 심 원 문 암 각 화	무산지초리	1	동굴입구절벽	6	5	5	1	서국태2004
	함안도항리	2	상석	16	·	·	·	울산반구대암각화2012
	대구진천동	3	입석	3	·	·	·	
	대구천내리	5,6	지석묘	7	·	·	·	
	밀양안인리 (신안)4호	7	묘역식지석묘의 가장 끝	1(3중)	·	·	·	울산반구대암각화2011
	북천동79호	4	석관의 일부	1	1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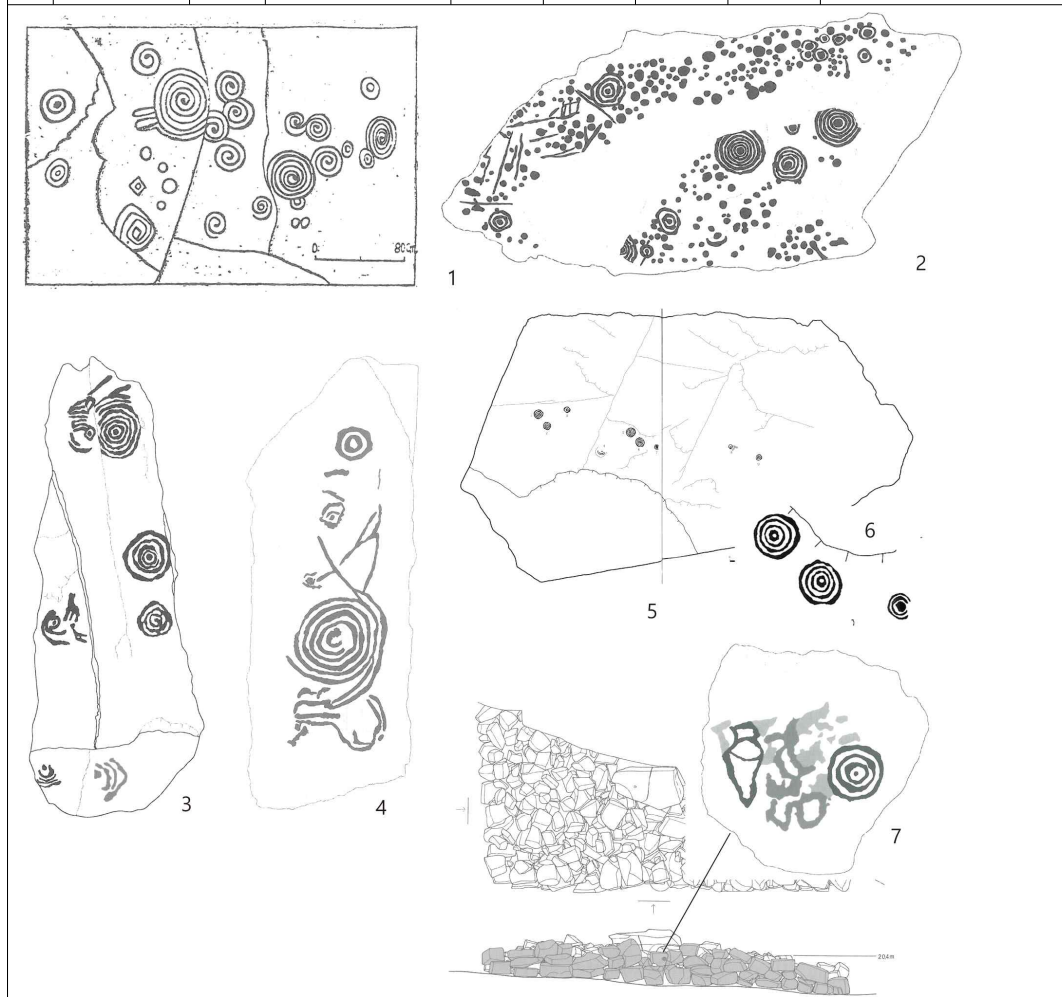


그림 7 한반도의 동심원문암각화

		그림 번호	유적 성격	동심원	회오리	사다리꼴 (검파형)	성 기	동물발	다 공	선 각	참고문헌
동 심 원 문 + 사 다 리 꼴	영천 보성리	6	절벽면 바위	1	·	16	·	·	·	·	울산대학교 반구대암각화 유적보존연구소 2016
	고령 양전동	1~4	절벽면 바위	4	1	37	2	1	1	5	
	고령 안화리	5	절벽면 바위	1	·	12	·	·	·	·	

그림 8 동심원문과 다른 문양이 그려진 암각화

두만강 유역의 지초리 유적을 빼고는 모두 영남지역에 위치한다(그림1). 두만강 지초리(그림 7-1)에서는 동심원문양이 주로 그려진 유적에는 동심원문과 그와 유사한 회오리 문양 혹은 회오리가 두 개 붙은 S자형 회오리문양 등이 새겨져 있다. 마름모와 가까운 문양도 1개 확인된 바 있다(서국태 2004).

영남의 동심원문양 암각화는 단독이거나 혹은 성혈과 함께 새겨지거나, 변형 사다리꼴 문양과 함께 그려진 유적도 있는데, 동심원문양만 그려진 유적에 비해서 문양이 다양하다(그림8)4). 그 중 양전동에서는 회오리 문양(그림 8-4)이 확인되었다. 동심원문암각화는 쪼기와 갈기 기법으로 그려졌다(울산반구대암각화 2012).

유적이 대부분 지식묘와 관련되어 있어서 청동기시대로 편년되지만, 환동해문화권의 암각화와 비교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령 인화리 유적(그림 8-6)에서 동심원문 위에 겹쳐서 사다리꼴의 검파형암각화가 그려지며 두 암각화 주제가 다른 시기일 가능성이 있다. 또한 포항 대련리(그림 9-3,4)에서는 원형의 얼굴모양에 삼각형 하단부로 표현된 전신상이 확인된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사카치알리안(그림 9-1,2)의 표현방법등이 유사하다.

또한 동심원문암각화의 시간성이 좀 더 구체화 된다면 양전동암각화의 연대문제에도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IV. 환동해문화권과 인접지역의 동심원문암각화 시간성 검토

1. 9000년 전 백성쌍탑1기와 아무르강 하류의 동심원문암각화

백성 쌍탑 유적에서는 토기문양에 동심원문양이 새겨진 것이 확인되었다. 백성 쌍탑 1기의 토기가운데, 용기문 및 구순각목문, 승선문등이 출토되었는데, 이는 아무르강 중류의 신석기시대 노보페트로프카문화(그림 6-16~19)와 관련이 있고,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고찰이 필요하다.

침선기법으로 동심원 사람얼굴문양이 남아 있는 토기편과, 용기문양으로 얼굴이 표현된 것도 있다(그림 6-10,11,14). 백성 쌍탑 1기의 절대연대가 9550 ± 45 , 10162 ± 630 , 9445 ± 710 , 10400 ± 600 , 10202 ± 1000 , 9679 ± 750 B.P.로 알려졌다(吉林大學邊疆考古研究中心·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2013).

사카치 알리안의 얼굴모양 마스크는 얼굴형을 기준으로 분류되었다(오클라드니코프 1971). 그런데 필자는 사카치알리안의 여러 지점들에 2중, 3중 등 동심원문양이 남아 있고, 코와 입까지 그려진 암각화(그림 3-1~4)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서, 얼굴을 그릴 때 눈을 먼저 그리고 얼굴형을 그린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눈의 모양에 따라서 얼굴모양을 구분할 수 있는데 크게 동심원의 눈(그림4)과 타원형으로 ‘찢어진 눈’(그림5)에 가까운 형태이다.

동심원의 눈이 있는 얼굴은 이마, 코, 입, 얼굴형 등에 따라서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특히 눈에 동심원문이 2개 혹은 3개 그렸고, 얼굴형은 타원형, 원형, 하트형, 등이 있다.

동심원문이 2개 혹은 3개 그려지며 이마의 표현도 3줄 이상의 호선을 두 번 연달아 표현했고, 코는 삼각형, 입은 장타원형 혹은 원형으로 표현되기도 했다. 원형 가운데는 얼굴에서 방사선 선이 그려진 것이 있는데, 이는 단순한 원형과는 차이가 있다(그림 4-7~16).

동심원문이 2개 그려지며 이마 주름이 1~2개 그려진 것은 표주박형 얼굴 혹은 하트형 얼굴이 그려졌는데, 코는 원 두 개로 표현되었고, 입은 타원형 2개를 겹치거나 원형으로 그려졌다(그림4-1~6). 그 외 동심원으로 눈을 표현하고 하트형 얼굴이 있고(그림 4-21~23), 원 세 개로 표현된 것(그림 4-17~20)도 있다.

4) 한반도 암각화는 여러 보고서에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음으로 표로 갈음하고자 한다.

세레미체보의 얼굴모양 암각화 역시 눈이 동심원문인 것(그림 4-4~6, 10,13,15,16)과 장타원형인 것(그림 5-4,7,8)으로 구분된다. 동심원으로 그려진 얼굴형은 원형인 것과 역사다리꼴에 가까운 것이 있다. 눈이 2~3중 동심원문으로 표현된 것은 이마에 주름이 3줄 표현된 것은 얼굴형은 원형 혹은 타원형에 가깝다. 코는 삼각형, 입은 타원형으로 표현된 것(그림 4-10)과, 코까지만 그려진 미완성형(그림 6-10,11)도 남아 있다. 또한 이와는 달리 눈, 코, 입은 유사하지만 얼굴에 채워진 문양이 세로방향으로 그려진 것도 있다(그림 4-13,15). 2중 동심원문이며, 얼굴형이 역사다리꼴에 가까운 것 중에 1점은 머리위로 짧은 직선이 12줄 그려져 있다(그림 4-13, 15). 이는 사카치알리안의 얼굴형 가운데 방사선이 있는 것(그림5-9,10)과는 방향과 길이 등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이 얼굴은 코가 2개의 원, 장타원형 입이 그려졌다.

이중에서 백성 쌍탑1기(그림 6-10,11)와 유사한 것은 사카치알리안과 세레미체보 유적에서 확인된 3중 동심원 눈, 이마표현 등도 유사하다(그림4-9~11,16).

사카치알리안은 오시포프카 문화 단계부터 그려졌을 것으로 여겨졌으나, 백성 쌍탑1기와 비교한다면 9000년 전 정도이다. 특히 오시포프카 문화 늦은 단계에 속하는 8820~9810B.P 야미흐타 유적의 토기가 노보페트로프카 문화와의 관련성이 제기된 바 있다(세프코무드·후쿠다 외 2017). 이 시점에 아무르강 하류와 중류의 교류가 있었고, 눈강 까지 이어졌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관점이다.

그렇다면 사카치알리안의 암각화와 세레미체보 암각화에서 알수 있는 점은 동심원문을 사람 얼굴표현으로 적극활용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동심원문 및 그와 유사한 회오리 문양, 동심원을 바탕으로 한 얼굴모양 및 동심원문 암각화도 9000년 전⁵⁾ 정도에 그려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 시점은 오클라드니코프가 타래문토기와 비교한 6000~5000년 전, 하트형 얼굴모양과 보즈네세노프카 문화의 토기와 비교한 연대(표1)보다 올라간다.

따라서 사카치알리안과 세레미체보 유적이 여러 시기에 걸쳐서 그려졌을 가능성이 있고, 그 중에 9000년 전께 동심원문을 바탕으로 한 얼굴모양과 여러 동심원문이 그려졌고, 하트형얼굴모양은 오클라드니코프의 의견대로 보즈네세노프카 문화 시기에 그려졌을 가능성이 있다.

2. 한반도 동심원문 암각화의 시간성 검토

한반도 남부의 동심원문 암각화는 대부분 소백산맥이동의 영남지역에 분포하고 있다(그림1). 동심원문 및 동심원문과 유사하게 원을 여러 겹쳐서 시문한 암각화가 있고, 변형 사다리꼴(검파형) 혹은 석검이 그려진 암각화와 함께 시문된 것이 있다(그림 7,8). 그런데 고령의 인화리 암각화에는 동심원문 위에 검파형암각화가 그려져서 두 문양이 시기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그림 8-6). 또한 고령 양전동 암각화에서는 SW2면에서는 검파형 문양에서 뻗어나온 방사선의 위쪽에 동심원문이 그려졌는데(그림8-1), 동심원문이 먼저 그려진 것이다. 즉 동심원문과 검파형암각화는 그려진 시간차가 있을 것을 추정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한반도 동심원문 암각화는 무산 지초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식묘와 관련되어 있어 청동기시대에 그려졌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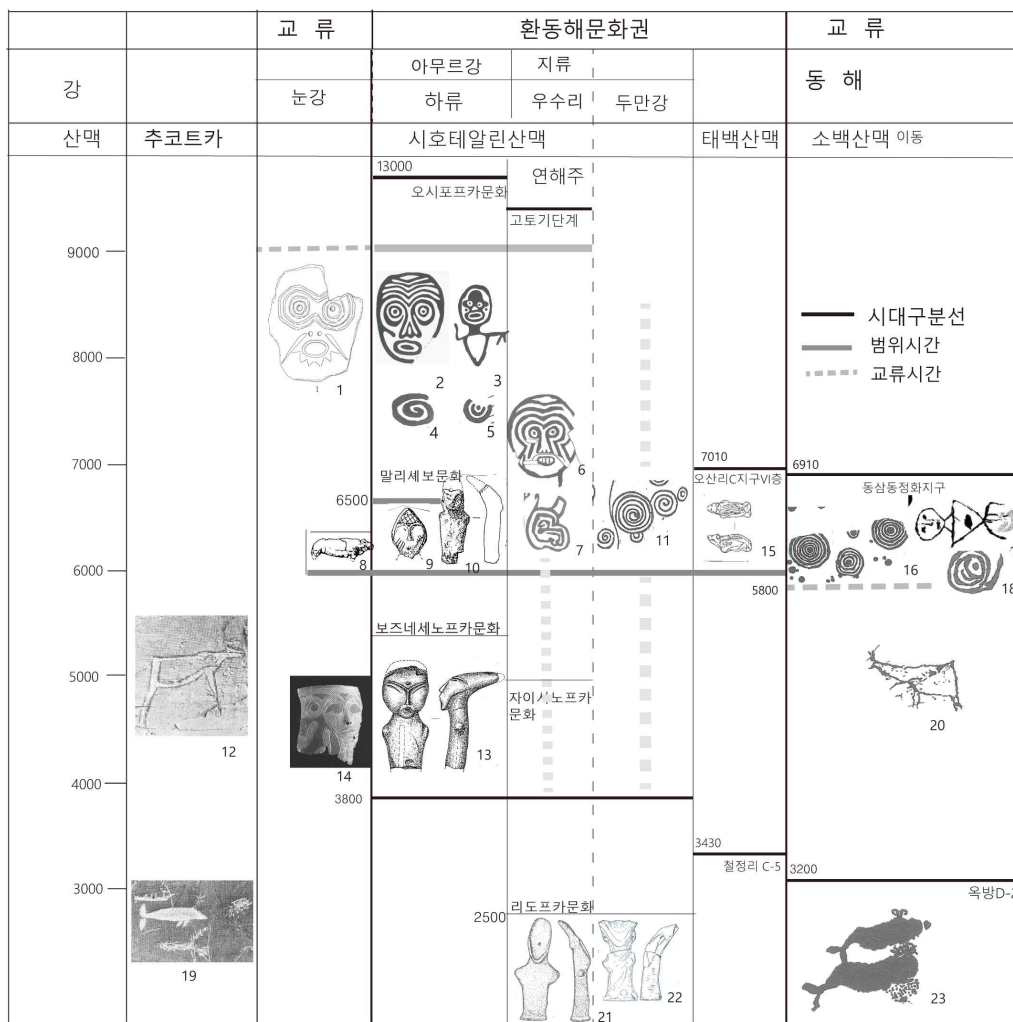
그러나 환동해문화권과 비교하면 연대는 다르다. 문제제기한 바와 같이 유적의 성격에 따른

5) 절대연대측정치의 오차범위가 10000년을 상회하는 것은 너무 커서 9550년을 기준으로 한 것에 중점을 둔 것이다.

연대추정은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발굴된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과 비교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할 수 있다.

또한 사카치알리안에서 얼굴모양 마스크 이외에 전신상이 출토된 예가 있다(그림 9-1,2). 머리는 원형이고, 몸통은 삼각형으로 표현되고 두팔이 표현되었다. 유사한 예가 포항 대련리에서도 확인되었는데(그림 9-3,4), 사카치알리안 유적의 동심원문 암각화와 얼굴모양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같은 시점에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세레미체보 유적(그림 3-8)에서 동심원문과 약간 다른 회오리문양이 확인되는데 양전동(그림 8-4)에서도 확인된다. 즉 동심원문, 전신상암각화, 회오리 문양 등은 소백산맥 이동의 영남에서 확인되며 환동해문화권이 관련성이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

표 2 환동해문화권의 동심원문암각화와 극동전신상토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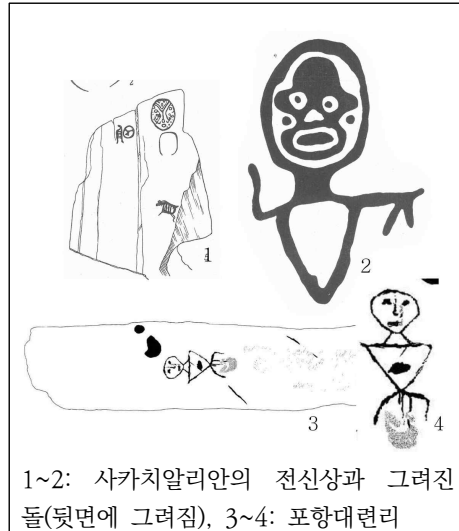
1: 백성 쌍탑1기, 2~5: 사카치알리안, 6-7: 세레미체보, 8-10: 수추, 9: 가사, 11: 지초리, 12-19: 페그티멜, 13-14: 보즈네세노프카 유적, 15: 오산리C지구VI층, 16: 함안 도항리, 17: 포항 대련리, 18: 고령 양전동, 20-23: 울산 반구대, 21: 리도프카-1 유적, 22: 서포항6기

백성 쌍탑 1기와 사카치알리안, 세레미체보 유적 등의 예로 보아서 동심원문양은 이미 신석기시대 9000년 전부터 있었다고 볼 수 있고, 두만강 유역도 세레미체보 유적이 위치한 두만강 유역과 멀지 않다. 그러나 두만강 유역에는 9000년 전 까지 올라가는 유적이 확인된 바 없고, 한반도 남부의 소백산맥 이동의 남부지역 신석기시대 유적도 9000년 전 까지 올라가는

유적이 현재까지는 없다⁶⁾(표 2,3). 또한 연해주 자이사노프카문화가 시작되는 시점인 5000B.P.부터는 강원도지역에서는 첨저토기가 출토됨으로 이 시간대는 환동해문화권이 축소되었다고 강원도는 문화권에 포함되지 않는다(표 3, 김재운 2017).

따라서 현재로서 가능할 수 있는 것은 동심원문 암각화는 아무르강 하류~우수리강 일대 및 송눈평원 일대에서 많이 확인되던 문양이고, 얼굴모양으로 활용되어 그려져서 9000년 전이다. 뿐만 아니라 우수리강과 가까운 두만강 유역에도 확인되는데, 같은 문화지역임으로 유사하거나 약간 느린 시점에 제작되었을 것이다.

또한 한반도의 동심원문 암각화도 태백산맥에서 분기된 소백산맥 이동에서만 확인되었는데, 이는 두만강유역에서도 확인됨으로 환동해문화권과 교류로 그려졌을 가능성이 있다. 좀 더 뚜렷한 것은 토기 및 석기 등으로 연구된 아무르강 및 연해주와 교류가 있었던 6500년 전 이후부터 일 수 있고, 연해주와 동해안의 관련성이 6000~5800년 전임으로 이 기간과 관련성이 높다(김재운 2015, 2017, 표 3).



1~2: 사카치알리안의 전신상과 그려진 돌(뒷면에 그려짐), 3~4: 포항대련리

그림 9 전신상인면문

V. 선사시대 환동해문화권의 범위와 교류지역 및 종족기원에 대한 문제점

1. 환동해문화권의 범위와 교류지역

선사시대 환동해문화권의 교류는 신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를 중심으로 연해주와 우리나라 강원도를 중심으로 연구되었다(표 2,3).

연해주와 동해안의 교류는 신석기시대 루드나야 문화의 세르게예프카 유형과 오산리 유적의 A,B지구 및 오산리 C지구의 III~V층에서 확인되는 오산리식토기와 용기문토기를 근거로 논의되었고, 그 시점은 6000~5800년 전⁷⁾이다(김재운 2015, 2017). 이후부터 강원도에는 첨저토기가 출토되는 5100년 전⁸⁾ 동안은 동해안에 유적이 확인된 적이 없다. 만약 동해안에서 유적이 확인된다면, 연해주와의 문화권은연대가 좀 더 길어질 수 있다.

즉 5800~5100년 전 환동해문화권의 범위는 불투명하며, 5100년 전까지는 연해주와 강원도의 생업권은 끊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시점은 자이사노프카문화가 시작되는 시점과도 비슷하다(표3, 김재운 2017a).

다시 청동기시대가 되면서 흥성문화(김재운 2004, 강인욱 2017)⁹⁾ 및 시니가이문화가 강원

6) 제주도를 제외한 한반도 남부의 신석기시대는 동삼동 9층의 6910±60B.P.(5800B.C.)부터이다(소상영 2016의 표9).

7) 이 연대는 양 지역의 문화가 시작되는 시점이 아닌 서로 관련된 시점이다.

8) 중동부지역 신석기문화는 오산리식토기 출토된 오산리C지구 3,4,5호 주거지(5750±15B.P.)(소상영 2016) 이후부터 첨저토기가 확인될 때까지 공백이 있다. 문암리의 중기유물층(5120±36B.P.)(소상영 2016의 표 13).

9) 필자는 두만강 유역 흥성유적의 돌대문토기가 강원도 영서지역으로 내려온 것으로 보고 있으며, 신

도 영서지역을 통해서 진주 남강의 평거동 유적까지 내려온 흔적이 청동유물, 토기, 석기 등을 통해서 알 수 있었는데, 시니가이문화가 내려온 연대는 3100~2900년 전께이다(김재윤 2018a).

그런데 연해주와 강원도의 신석기시대 문화권이 형성되기 이전에 아무르강 하류의 문화가 동해안까지 확인된 정황도 있다. 오산리C지구의 신석기시대 최하층인 VI층 및 문암리, 망상동 유적에서 확인되는 적색마연토기가 아무르강 하류의 말리세보문화에서 전해졌고 관련이 있는 연대는 6500~6000년 전을 확인한 바 있다. 오산리 C지구의 VI층은 제주도를 제외한 남한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유적으로, 토기 제작이 없었던 동해안에서 갑자기 적색마연토기가 확인되는 것은 이미 토기문화가 있던 곳에서 전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아무르강 하류의 말리세보문화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김재윤 2015, 2017).

그런데 토기 뿐 만 아니라 아무르강 하류에서 출토되는 말리세보 문화 및 보즈네세노프카 문화의 극동전신상토우를 근거로 신석기시대부터 청동기시대까지 아무르강 하류도 환동해문화권에 속할 가능성을 했는데 先환동해문화권으로 생각했다(김재윤 2008).

앞서 본고에서 고찰한 아무르강 하류의 동심원문암각화로 보아서 연해주와 아무르강 하류의 문화권은 9000년 전 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따라서 9000~6000년 전까지는 아무르강 하류가 환동해문화권에 포함될 수 있으며, 북부지역일 수 있다.

또한 9000년 전께는 쌍탑1기와 노보페트로프카 문화가 유사하기 때문에 아무르강 중류 및 눈강 유역도 환동해문화권의 북부지역인 아무르강 하류와 관련성이 있다(표3). 그러나 아무르강 중류 및 눈강 유역은 환동해문화권에 속한다기 보다는 환동해문화권의 북부와 교류한 간접적인 영향권으로 볼 수 있다.

6000~5800년 전 환동해문화권은 앞서 보았듯이 연해주와 강원도 오산리 부근이다. 그러나 오산리 유적 이남인 태백산맥이 끝나는 죽변유적의 토기는 오산리 및 한반도 남부지역과의 관련성이 더 크다(임상택 2012¹⁰⁾).

따라서 영남 동심원문암각화의 유적은 남해안 신석기문화가 자리잡은 가운데(6910B.P. 이후, 표3) 환동해문화권의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연해주 및 아무르강과 관련 있는 6500~5800년 전이다. 이 지역은 환동해문화권의 간접영향권으로 교류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필자는 환동해문화권의 신석기시대는 9000~6000년 전에 아무르강 하류가 환동해문화권의 가장 북부지역에 속하며, 그 이후 6000~5800년 전 연해주와 동해안만이 문화권일 가능성이 있다(표3). 5800년 전 이후로 동해안에서 유적이 확인된다면 이 시점은 더 지속적인 가능성이 있다.

석기시대와는 달리 두만강 유역의 내륙과 해안가가 문화적 양상이 뚜렷해지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와 함께 그 시점에 대해서는 별고로 하겠다. 흥성유적의 돌대문토기가 정선 아우라지에서 출토된다는 점은 이미 언급되었다(강인욱 2017)

10) 죽변 유적에서 확인되는 토기는 연해주 보다는 오산리와의 비교우위를 점하기 때문이다.

표 3 시간에 따른 환동해문화권의 범위와 교류권

강	교류		환동해문화권				교류
	눈강	중류	아무르강 하류	지류 우수리연해주	두만강	동 해	
산맥			시호테알린산맥			영동 태백산맥 영서	소백산맥 이동
	본 고		김재윤 2013,2015,2017,2018a,본고			김재윤2013,2015,2017	김재윤2018a, 본고
9000			13000 오시포프카문화	10000 고토기단계			시대구분선
			사카지알리안	세레미체보			
				7500 루드나야문화			
7000			말리세보문화	보이스만문화			6910 동삼동정화지구9층
6000			6500 말리세보문화			오산리C지구VI층 망상동	도항리, 대련리 등
			5800 세르게예프카 유형			오산리C지구V~III, 오산리A B지구	
5000			보이스만5단계	서포항1	5180		
4000			자이사노프카 문화	서포항 2~4기 (서포항상층문화)	고성문암리중기문화층 (참조토기)		
3000			3800 마르가리토프카	범의구석1호		3430 철정리C-5	3200 옥방D-2
			시니가이서부1	서포항5기(서부1)3040		3200 철정리C지구1호	3100 평거동3-1지구
			시니가이서부2	서포항6기-1 (시니가이동부1+서부2) ? 교동 2900		철정리C지구2호	
2500			리도프카문화	서포항7기-2			

청동기시대가 되면서 환동해문화권은 두만강 유역의 흥성문화 및 연해주 시니가이문화가 연해주와 강원도가 직접적인 관련성을 보이는데, 강원도 영서지역을 통해서 소백산맥이동의 진주 남강 유역에서 확인된다. 현재로서 확실한 연대는 시니가이문화의 이동성이 보이는 3100~2900년 전이다. 환동해문화권은 신석기시대와는 다른 경로인 강원도 영서지역으로 소백산맥 동쪽의 영남 남강 유역까지 환동해문화권과의 교류한 흔적이 남아 있다. 토기, 석기, 청동기 등 구체적인 양상이 확인되어서 신석기시대보다는 더 뚜렷한 관련성을 보인다. 하지만 진주 남강을 환동해문화권의 남부지역으로 결정하기에는 좀 더 확정적인 증거가 확보되어야 할 것이며, 현 상황에서는 간접적인 영향권으로 일단 두고자 한다¹¹⁾.

따라서 3100~2900년 전 청동기시대에는 환동해문화권으로 한반도와 강원도 영서지역이 포함될 수 있다(표3).

신석기시대 환동해문화권의 형성배경은 태백산맥 및 시호테알린산맥과 태평양을 매개로 한 생업권이 문화권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본다. 필자가 생각하는 아무르강 하류 및 연해주와 강원도의 ‘관련성’은 생업권을 의미하며, 고고학적으로 문화권으로 볼 수 있다는 의미이다(김재윤 2017). 전파론적인 해석과는 차이가 있다. 신석기시대 여러 기간에 걸쳐서 아무르강 하류 오시포프카문화 및 말리세보문화의 모습이나 연해주의 세르게예프카 문화양상 이동해안에서 남아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자연환경에 따른 생업권 때문이며, 동심원문 암각화가 태백산맥에서 분기된 소백산맥이동에서 주로 확인되는 것은 환동해문화권과의 교류 때문으

11) 이는 청동기시대 형성배경은 신석기시대와는 다른 생업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찰코자 한다.

로 생각된다.

이 지역이 산맥과 바다를 매개로 한 생업권임을 알 수 있는 것은 5000km¹²⁾ 이상 떨어진 곳 추코트카의 페그티멜 암각화에서 신석기시대 그려진 사슴문양과 청동기시대에 그려진 고래 그림이 반구대암각화와 같은 방법으로 그려지고, 사카치알리안의 호랑이 문양은 반구대암각화와 비슷하게 그려졌다는 것은 같은 생업권을 의미하며, 반구대암각화도 환동해문화권의 영향이 일정부분 있다(김재운 2017b, 표 2-12, 18, 19, 22).

2. 통구스족과 고아시아족의 기원문제

사카치알리안을 조사한 오클라드니코프는 암각화의 주인공을 아무르강 하류에 서 어로생활을 하는 나나이족의 조상으로 소개한 바 있다(오클라드니코프 1971). 또한 보즈네세노프가 문화에서 확인되는 적색마연토기와 타래문토기, 나선문토기 등은 예술성이 강한 유물이고, 아무르망상문양은 일상적인 것으로 구분하고, 아무르강 고아시아족의 조상이 남긴 것으로 보았다(오클라드니코프 1966).

러시아에서는 언어학적인 관점에서 시작된 통구스족의 기원연구가 18세기 중반부터 이루어졌고, 20세기 초에는 고고학, 역사학, 형질인류학, 언어학 등 전방위적인 연구에서 고아시아족과 통구스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볼로틴 2008). 그 중 통구스족과 고아시아족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는 오클라드니코프로부터 시작되었다.

오클라드니코프는 아무르강의 여러 종족인 나나이족, 울치족, 니히브족을 고아시아족, 시베리아의 순록사육거주민을 통구스족으로 구분했다(오클라드니코프 1965, 1966). 그가 아무르강의 신석기시대 기원전 3000~2000년 기의 주민이 고아시아족의 선조로 본 이유는 19~20세기 나나이족, 울치족, 니히브족 특징이 신석기시대부터 전해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아무르강 하류의 신석기시대 콘돈-포취타 유적의 집이 깊게 수혈을 파고 저장구덩이를 설치하며, 기둥구멍이 확인되는 점은 20세기초 아무르강의 나나이족에게서 확인되며, 토기의 타래문양은 여성의 옷에 그대로 장식되었고, 물고기잡이를 기본으로 한 생업방법, 개를 기르고, 어피로 된 옷을 입으며, 제사 지낼 때 돼지와 개를 봉양물로 받치는 등이 그대로 남아 있다고 보았다(오클라드니코프 1966).

통구스족은 시베리아의 바이칼 유역 타이가 지역에 거주하던 순록사육민과 토착민의 융합으로 생긴 것으로 보았고(오클라드니코프 1955), 그때 당시의 신석기문화인 글라스코보문화에서 그 원류를 찾고자 했다(오클라드니코프 1966). 특히 글라스코보문화에서 확인되는 패각, 백옥제로 제작된 옥벽, 모자, 물고기모양의 나무조각품 등은 17~19세기에 바이칼 유역의 통구스족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것으로 보았다. 통구스족의 의복 중 가장 큰 특징은 가슴가리개인데, 글라스코보문화에서는 여기에 패각과 옥벽을 달았고, 17~19세기의 것은 주로 은제를 달았던 차이점 밖에 없다고 여겼다. 물고기모양 나무조각품은 낚시할 때 회유기를 사용하는 습관이 그대로 남았던 것으로 보았다(오클라드니코프 1966). 뿐만 아니라 통구스족의 가부장제도, 가족간의 불평등, 가족구성, 노예제도 등등도 글라스코보문화의 무덤 부장품을 분석해서 유사한 관습으로 여겼다(오클라드니코프 1966).

12) 이 경로는 야쿠티아지역을 통해서 아무르강 중류, 하류 및 동해안을 따라서 내려온 경로를 계산한 것이다. 만약 해안선만을 따라서 추정하면 10,500km가량이다.

오클라드니코프(1965,1965)가 글을 쓸 당시에 밝혀진 아무르강의 문화는 콘돈문화와 보즈네세노프카 문화였으며, 콘돈문화의 특징인 아무르망상문을 연해주의 마락-르발로프 유적과 비교한 점으로 보아(오클라드니코프 1964) 아무르강과 연해주가 같은 신석기문화 양상을 보인다는 인식이 오클라드니코프에게 있었다. 그렇다면 그는 연해주의 신석기인도 고아시아족으로 인식했을 것이다.

그런데 오클라드니코프는 아무르강 하류의 종족기원에 대한 인식을 바꾼다. 그는 시베리아 바이칼유역의 통구스족이 아무르강 유역으로 남하한 시점은 기원전 1000년 기로 청동기시대 말~철기시대초로 폴체문화를 특정했



그림 10 통구스족과 관련된 유물

고, 폴체인을 만주-통구스족으로 규정했다. 폴체문화의 유적인 아무르강 하류의 아무르스키 사나토리아 유적에서 출토된 토제 배, 시위를 당길 때 손가락에 끼우는 골무와 아이의 요람(그림 10-1) 등이 17~19세기 통구스족에게 확인된다는 점을 보고 연결시켰다(오클라드니코프·데레비안코 1973).

토제 배(그림 10-2)는 아무르강의 종족 만 뿐 만 타이가지역에 사는 아니라 에벤키,에벤 등 여러 종족이 사용하며, 이를 지칭하는 발음도 유사하고, 특히 순록유목을 하는 통구스족의 특성상 아이의 요람(그림 10-1)은 필수적인데, 아무르강 하류에서 확인된다는 점에서 아무르강 주민의 형성에 시베리아 통구스족이 관여한 정황으로 본 것이다.

즉 오클라드니코프는 아무르강 및 연해주의 신석기시대인을 고아시아족으로 인식하다가, 고고학 자료가 증가하면서 기원전 천년기의 폴체문화와 관련시켰고, 만주통구스족으로 정정했다. 그리고 그가 최초로 고아시아족으로 언급한 나나이족, 울치족은 만주통구스어군, 니흐브족(길락족)은 고시베리아어족 혹은 고아시아족으로 정의되고 있다(곽진석 2011).

그런데 오클라드니코프는 아무르강과 연해주의 신석기시대 주민이 고아시아족의 원류임을 전하면서 한국을 언급했는데, 동삼동 유적의 토기 및 패총을 들어서 연해주와 한국의 신석기시대 주민이 밀접하게 접촉했을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다(오 1965).

문제는 이 연구관점이 한국에서도 받아들여져서 한국민족의 원류가 통구스 및 예맥인이 아닌 고아시아족이라는 관점(金貞培 1973)일부에서는 아직까지도 인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고고학 자료를 민족지자료로 해석하려고 했던 오클라드니코프의 노력은 필자도 일정정도(김재운 2008) 동의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필자는 토우의 용도가 민족지자료로 보아서 집과 관련된 제의성을 띠는 유물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현대의 나나이족과 신석기시대 주민으로 혈통적으로 연결되는지는 연구되지 않았다.

또한 고고학 자료가 많이 증가한 현재는 글라스코보문화가 신석기시대(오클라드니코프 1966)가 아닌 순동이 확인되는 시대이며, 한국 동삼동 유적과 연해주의 신석기문화는 크게 관련성이 없다.

필자가 연해주와 강원도의 신석기시대 자료를 비교하고, 강원도 동해안의 양양 오산리 이남의 자료 예를 들면 현재로는 죽변 및 세죽과 같은 유적의 자료는 오산리유적과의 관련성이 더 많다. 오클라드니코프의 논저 당시에는 동삼동 유적의 예는 샘플이 조사한 것을 주로 참고했

을 것인데, 그 이후에 동삼동 조사는 5다섯번에 걸쳐서 재조사되었다.

오클라드니코프는 연해주 신석기인과 한반도 신석기인의 ‘관련성’을 ‘접촉’이라고 표현했다 (오클라드니코프 1965). 하지만 이를 한반도 신석기문화의 원류로 파악하고, 더 나아가 고아시아족으로 해석한 것은 문제가 있다. 한반도 소백산맥 이동의 남부지역에는 독자적인 신석기문화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남부지역 신석기문화가 단계적으로 발전된 사실은 너무나 자명하다.

따라서 동심원문 암각화가 소백산맥 이동에서 확인된다고 해도 이는 환동해문화권의 사람들과의 교류에 의해서 남겨졌으며, 환동해문화권이 고립적인 지역이 아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한반도 남부지역 신석기문화 전체형성에 영향을 주었다고 해석할 수는 없고, 더욱이 민족 문제와도 관련시키기도 힘들다.

VI. 맺음말

환동해문화권의 선사시대 교류정황은 그간 토기, 석기, 청동기 등을 통해서 살펴보았는데, 암각화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아무르강 하류의 사카치알리안, 우수리강의 세레미체보 유적 등에서 확인되는 동심원문 암각화와 이를 기반으로 그려진 얼굴모양 암각화는 눈강 유역에서 백성 쌍탑 1기와 비교할 수 있다. 이 유적에서는 정확한 연대가 있어서 시간성이 확보된다. 그런데 동심원문암각화 및 전신상암각화는 두만강 유역 및 한반도 영남지역에서도 확인된다. 따라서 동심원문암각화를 환동해문화권과 비교한다면 시간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환동해문화권의 교역범위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도 필요한 연구이다.

그 결과 아무르강 하류와 눈강 유역과의 자료를 통해서 아무르강 하류, 우수리강의 동심원문양 및 동심원문양을 바탕으로 그려진 얼굴모양 마스크는 9000년 전 쯤 그려졌을 가능성이 있다. 두만강의 지초리는 보다 늦게 제작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영남의 동심원문양 및 대련리 전신상 암각화는 신석기시대에 그려진 것으로, 더 뚜렷한 시점은 6500년 전 이후부터이며, 환동해문화권이 끊어진 5000년 전 이후로는 가능성이 없다.

선사시대 환동해문화권은 주로 연해주와 강원도가 대상지역이었다. 아무르강 하류는 말리세보문화의 동물형토우와 토기가 6500~6000년 전에 강원도에서 확인되긴 했지만, 환동해문화권으로는 확정되지 못했다. 그러나 아무르강 하류의 오시포프카문화단계인 9000년 전에 이미 아무르강 중류의 노보페트로프카 문화 및 백성쌍탑 1기에도 그 관련성이 보이는 등 넓은 지역과 교류가 보인다. 따라서 아무르강 하류도 9000~6000년 전은 연해주, 강원도 영동지역과 함께 환동해문화권의 북부지역으로 볼 수 있다. 이 때 아무르강 중류 및 눈강 유역은 환동해문화권의 북쪽인 아무르강 하류와 교류한 지역으로 간접영향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6000~5800년 전에는 환동해문화권은 연해주와 양양 오산리 부근이다. 태백산맥과 분기된 소백산맥 이동에서 확인된 동심원문암각화와 전신상암각화로 보아서 이 지역도 환동해문화권과 교류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청동기시대 3100~2900년 전에는 연해주와 강원도의 활로가 다시, 열리는데 시니가이문화가 강원도 영서지역 및 소백산맥 동쪽의 진주 남강 유역까지 확인된다. 그러나 신석기시대에 비해서 좀 더 구체적이지만 진주 남강 유역을 환동해문화권으로 영입하기에는 좀 더 확정적인 증거가 있어야 할 것이며 현 상황에서는 환동해문화권과의 교류지역으로 보고자 한다.

따라서 환동해문화권은 동북아시아에서 고립된 곳이 아니라 지역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아무르강 중류, 눈강 유역 및 한반도의 영남지역까지 교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카치알리안 유적을 조사한 오클라드니코프는 신석기시대 종족기원을 논하고 얼굴모양마스크의 주인공을 고아시아족으로 소개했지만, 후에 기원전 일 천년기 대로 시간과 종족을 정정한다. 그러나 오클라드니코프의 신석기시대 고아시아족 설은 연해주 신석기문화와 한반도 신석기문화와의 관련성과 함께 엮여서 일부에서 아직까지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연해주의 신석기문화는 동해안 오산리 부근 까지 영향을 미쳤으며, 그 이남은 남부 고유의 신석기문화가 있는 가운데 교류했을 것이다. 하지만 연해주 신석기시대인 때문에 한반도 신석기시대 고아시아족이 성립되었다는 관점은 성립될 수 없다. 신석기시대 환동해문화권의 성립배경은 대산맥과 바다를 매개로 한 생업권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고, 동심원문암각화가 소백산맥의 동쪽지역인 영남에서 확인된 것은 환동해문화권의 사람과 어떤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강인옥, 2007, 「청동기시대 연해주와 한국의 문화교류」, 『환동해지역선사시대사회집단의 형성과 문화교류』, 제35회 한국상고사학회학술발표회.
- _____, 2009, 「기원전 13~9세기 카라숙 동진(東進)과 요동」, 『호서고고학』 21집.
- _____, 2017, 「한반도 청동기 사용의 기원과 계통-중부지역 청동기시대 초기 및 전기 출토품을 중심으로」, 『동북아시아에서의 한국 청동기시대 문화』, 한국청동기학회 창립 1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 강봉원, 2017, 「고령 장기리 암각화 고찰: 고고학적 맥락을 중심으로」, 『한국암각화 연구』 2.
- 곽진석, 2011, 『시베리아 만주·통구스족 신화론』, 지식과 교양.
- 김권구, 2013, 「반구대암각화의 편년에 대한 고찰」, 『嶺南考古學』, 第67號, 영남고고학회.
- 김원룡, 1980, 「蔚州盤龜台岩刻畫에 대하여」, 『韓國考古學報』 9, 한국고고학회.
- 金貞培, 1973, 『韓國民族文化의 起源』, 高麗大學校 出版部.
- 김재운, 2004, 「韓半島刻目突帶文土器의 編年과 系譜」, 『韓國上古史學報』, 第46號.
- _____, 2008, 「선사시대의 極東 全身像 土偶와 환동해문화권」, 『한국상고사학보』 60.
- _____, 2009, 「서포항 유적의 신석기시대 편년 재고」, 『한국고고학보』, 62.
- _____, 2015, 「평저토기문화권 동부지역의 6500~6000년 전 신석기문화 비교고찰」, 『韓國考古學報』 96.
- _____, 2017a, 『접경의 아이덴티티』, 서경출판사.
- _____, 2017b 「반구대암각화의 비교고찰-부산경남의 선사시대 지역성」, 『인문사회과학연구』 제18권 제4호.
- _____, 2018a, 「청동기시대 초기 경남 평저동 유적과 연해주 시니가이문화의 관련성 검토」, 『嶺南考古學』 81.
- _____, 2018b, 「북한 서포항 유적과 연해주 청동기문화의 비교고찰」, 『한국청동기학보』 23.
- 블라지미르 D. 쿠바레프 (이헌종·강인옥), 2003, 『알타이의 암각예술』, 학연문화사.
- 울산반구대암각화, 2011, 『한국의 암각화: 부산·경남·전라·제주 편』, 울산암각화박물관.
- 울산반구대암각화, 2012, 『한국의 암각화: 대구·경북 편』, 울산암각화박물관.
- 울산대학교 반구대암각화유적보존연구소, 2016, 『한국의 검파형 암각화』.
- 이필영, 1988, 『샤머니즘의 종교사상』, 한남대학교 출판사.
- 이은창, 1971, 「고령 장기리 암화조사 약보: 석기와 암화 유적을 중심으로」, 『고고미술』 112.
- 이상길, 1996, 「패형암각의 의미와 그 성격」, 『한국의 암각화』, 한국역사민속학회 편.
- 이하우, 1994, 「칠포마을 바위그림」, 『고문연』.
- _____, 2011, 『한국 암각화의 제의성』, 서울, 학연문화사.
- 임상택, 2012, 「동·남해안 지역의 신석기시대 초기 토기 양식 - 죽변 유적을 중심으로 -」, 『한국신석기연구』 24.
- 임세권, 1994, 『한국 선사시대 암각화의 성격』, 단국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 _____, 1999, 『한국의 암각화』, 대원사.
- 에마누엘 아나티, 이승재 옮김, 2008, 『예술의 기원: 5만년 전 태초의 예술을 찾아』, 바다출판사.
- 왕립신, 2016, 「지린 다안(大安) 허우타오무가(後套木嘎) 유적 발굴의 주요 성과」,

-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와 활용방안』, 제주 고산리유적 국제학술대회.
- 장명수, 1992, 「榮州 可興洞岩刻畫와 防牌文岩刻畫의 性格 考察」,
『擇窩許善道先生停年記念韓國史學論叢』.
- _____, 1995, 「암각화를 통해 본 고인돌 사회의 신앙의식」, 『중앙사론』 8, 중앙대사학연구회.
- _____, 2001, 『韓國岩刻畫의 文化相에 대한 연구』, 인하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 장석호, 2012, 「내몽골 암각화의 인면 형상과 한국 양전동식 암각화의 중심도상 비교 연구」,
『동국사학』 53.
- 정동찬, 1988 「울주 대곡리의 선사바위 그림연구」, 『손보기박사정년기념고고인류학논총』
- _____, 1996. 『살아있는 신화 바위그림』, 해안.
- 전호태, 2013 『울산 반구대암각화 연구』, 한림출판사.
- _____, 2017 「대가야 건국신화와 고령 장기리 알터암각화」, 『한국암각화연구』.
- 서국태, 2004, 「무산군 지초리 유적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 _____, 2010, 「무산군 지초리 바위 벽화 유적에 대하여」, 『시계의 바위그림, 그 해석과 보존』, 한국 암각화 발견 4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동북아역사재단).
- 송화섭, 1993, 「남원 대곡리 기하문 암각화에 대하여」, 『백산학보』 42.
- _____, 1994, 「선사시대 암각화에 나타난 석검, 석촉의 양식과 상징」, 『한국고고학보』 31.
- 신종환, 2008, 「선사시대의 고령」, 『고령 문화사대계: 역사편』, 고령군 .
대가야박물관·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편.
- 소상영, 2016, 『한반도 중서부 지방 신석기 문화 변동』, 서경문화사.
- 하인수, 2012, 「반구대암각화의 조성시기론」, 『韓國新石器時代研究』 第23號, 한국신석기학회.
- 홍보식, 2011, 「동래 복천동고분군의 암각화」, 『한국의 암각화: 부산·경남·전라·제주 편』
울산암각화박물관 편.
- 黃壽永·文明大, 1984, 『盤龜臺岩壁彫刻』, 東國大學校.
- 黃龍熏, 1987, 『동북아시아의 岩刻畫』 민음사.
- 세프코무드·후쿠다 외, 2017, 「아무르강 하류 이른 신석기시대에 관한 문제점:야미흐타유적의 연구조사 결과」, 『러시아 연해주와 극동의 선사시대』(김재운 역), 서경문화사.
- Болотин, Д. П., 2008, “Происхождение амурских эвенков.” Краведение
Приамурья, 3.
- 라스킨, 2007, Ласкин А.Р, Перспективы дальнейшего изучения и сохранения
петроглифов Сикачи-Аляна//АРХЕОЛОГИЯ, ЭТНОГРАФИЯ И
АНТРОПОЛОГИЯ ЕВРАЗИИ 2.
- 라스킨, 2015, Ласкин А.Р. 2015,ПЕТРОГЛИФЫ СИКАЧИ-АЛЯНА:
ИСТОРИКО-КУЛЬТУРНЫЙ КОНТЕКСТ И СОСТОЯНИЕ СОХРАННОСТИ
:Автореф. дис...канд.ист.нук., Москва.
- 오클라드니코프, 1955, Окладников А.П. Неолит и бронзовый век Прибайкалья.
М.-Л.: Академии наук СССР.
- _____, 1964, **Окладников А.П.** Древнее поселение в бухте Пхусун [в
Приморье] // Материалы по истории Сибири. Древняя Сибирь. -
Новосибирск: РИО СО АН СССР, 1964. - Вып. 1. - С. 73-83.
- _____, 1966, Окладников А.П. 1966, неолитические племена
Прибайкалья, Восточной Сибири 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СТОРИЯ СССР:

- С древнейших времен до наших дней.-Москва, 1966-Том 01.
Первобытнообщинный строй. Древнейшие государства Закавказья и
Средней Азии. Древняя Русь (до начала XIII в.).
_____, 1971, Окладников А.П., Петроглифы нижнего Амура,
издательство НАУКА, Ленинград.
오클라드니코프·데레비얀코, 1973, Окладников, А. П., Деревянко А. П. . 1973.
Далекое прошлое Приморья и Приамурья. Владивосток: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е кн. изд.
셰프코무드·얀шина, 2012, Шевкомуд И.Я., Яншина О.В. Начало неолита в
Приамурье: поселение Гончарка-1. СПб: МАЭ РАН, 2012. 270 с.
Okaldnikov A.P., 1965, The Soviet Far East in Antiquity :an Archaeological and
Historical Study of the Maritime Region of the USSR-Toronto: Univ.
Toronto Press.
吉林大學邊疆考古研究中心·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2013,
「吉林白城雙塔遺址新石器時代遺存」,『考古學報』4期.
三上次男 1977, 『東北アジア史研究1 満鮮原始墳墓の研究』, 吉川弘文館.

최근 소의 기원에 관한 국제적 연구경향과 한반도 신석기시대 소 뼈 연구에 관한 제언¹⁾

홍종하, 신동훈
(서울의대 해부학교실 생물인류학 및 고병리연구실)

목차

- I. 서론
- II. 소의 기원과 확산에 관한 통설
- III. 유전학적으로 밝혀진 소의 기원과 확산
- IV. 동북아시아 소 기원에 관한 최신 보고
- V. 한반도 발견 신석기시대 소 연구에 대한 제언
- VI. 맺음말

1) 이 연구는 2017년 교육부 이공학개인지초연구 지원사업 (NRF-2017R1D1A1B03030127)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을 밝힌다.

I. 서론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주목할만한 업적 중 하나는 동물을 길들여 가축으로 삼았다는 사실이다. 인류가 야생동물을 길들여 생산에 이용하기 시작한 이래 가축은 고기, 유제품, 가죽 제품의 원천이 되었고, 이는 인간 사회의 발전과도 영향이 있다. 전 세계 많은 전통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가축들은 소 (*Bos taurus*), 돼지 (*Sus scrofa*), 말 (*Equus caballus*), 개 (*Canis lupus familiaris*), 닭 (*Gallus gallus domesticus*) 등을 들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인류 문명 발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되는 동물로는 소를 들 수 있다 (Lin 등 2016). 인간 활동 촉진을 위해 인류가 가축화된 소 견인력을 농업, 운송, 무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하기 시작함으로써 Secondary Products Revolution이 시작되었는데, 이 사건은 인간 사회가 형성되고 확장되는 데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 (Sherratt, 1981; Bogucki, 1993; Lin 등, 2016). 때문에 고고학적 관점에서 소가 가축화 된 시기와 그 확산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일은 인간 사회 형성과 발전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II. 소의 기원과 확산에 관한 통설

현재 소는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지역을 찾아보기 힘들 만큼 광범위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소의 넓은 지역분포와 세계사적으로 중요한 동물이라는 점 때문에 현재까지 인류학, 고고학, 분자생물학 등 많은 분야 학자들에 의해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현재 한반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소는 약 1만 5백년 전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북부 등 세계 각 지역에 넓게 분포했던 야생소(*Bos primigenius*) 중 일부가 가축화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림 1)(Mannen 등 1998). 이 야생소는 크게 두 가지 다른 종으로 가축화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Bos primigenius primigenius*는 현재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와 유럽 등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Bos taurus*로, *Bos primigenius namadicus*는 인도대륙과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및 남중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인도흑소 (*Bos indicus*)로 가축화되었다 (Lai 등 2006; Jia 등 2010). *Bos primigenius primigenius*와 *Bos primigenius namadicus*가 생물학적으로 분기한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대략 10만 년 전 경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야생 소가 신석기시대 농경민에 의해 가축화된 시기를 대략 1만년 전 정도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 사회가 성립되기 이전부터 이미 두 그룹은 나누어져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Bonfiglio 등 2010).

전 세계적으로 야생 소는 현재는 완전히 멸종하였다. *Bos primigenius primigenius*의 경우 최근까지 아시아에서는 기원 전 1만년 경에는 거의 절멸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며 유럽에서는 17세기 초까지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역사 기록 상 1627년에 폴란드에서 마지막 개체가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현재는 살아있는 야생 소를 찾아볼 수 없다 (Chakraborty 2010, 신동훈 2015). *Bos primigenius namadicus*는 이와 달리 서기 13세기 경에 이미 절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Tikhonov 2008). 야생소가 가축화되어 나타난 *Bos*



그림 1 야생 소 (*Bos primigenius*)의 두개골.

(American Museum of Natural History 소장)

*taurus*와 *Bos indicus*는 등에 혹 여부에 따라 육안으로 쉽게 구분이 가능할 정도로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른 종으로 여겨지나 실제로는 교배가 가능한 단일 종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하지만 두 종이 사육화 된 지역은 서로 다른데, *Bos indicus*의 경우 인더스 강 유역에 살던 야생소 *Bos primigenius namadicus*가 가축화 되어 퍼져나간 것이고, *Bos taurus*의 경우 근동지방에서 야생소가 처음으로 가축화되어 이후 전 세계로 퍼져 나갔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같은 가설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혹 없는 소는 모두 근동지방에서 나온 소의 후손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III. 유전학적으로 밝혀진 소의 기원과 확산

전통적으로 소의 가축화 및 확산 과정에 대한 연구는 육안관찰에 의한 분석방법을 주로 사용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deoxyribonucleic acid (DNA)를 이용한 유전학적 분석이 많이 시도되고 있다. 현재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핵 DNA를 이용한 Random Amplified Polymorphic DNA (RAPD) 분석법, micro-satellite 분석법을 이용하거나, 미토콘드리아 (mitochondria) DNA를 분석하여 유전학적 연구를 시도하고 있는데 (진충우 2007), 이 중 미토콘드리아 DNA는 핵 DNA에 비해 돌연변이율이 높고 (Haag-Liautard 2008) 모계유전 (maternal transmission)을 하는 특성이 있어 다른 방법보다 유전학적 연구에 활용되는 빈도가 높다 (Brown 1979). Anderson 등은 1982년에 16,338bp에 달하는 소 미토콘드리아 DNA 전부를 분석하는 데 처음으로 성공하였는데, 이후 많은 연구자들이 다양한 지역 소를 대상으로 하여 염기서열 분석을 추가로 진행하였으며, 최근에는 유전학적 분석결과가 상당히 축적되어 관련 연구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현재까지 보고된 소 유전학적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흑 없는 소 (*Bos taurus*)의 경우 미토콘드리아 DNA유전형이 대부분 T형이며, 이는 다시 T1, T2, T3, T4 및 T5로 나눌 수 있다고 한다(Achilli 등 2008; 2009, Zhang 등 2013). 전체적으로 볼 때 흑 없는 소의 유전적 다양성은 중동 지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중동 지역에서 가축화된 후 주변으로 퍼져나갔을 가능성이 큰데 (Edward 등 2004) 이러한 유전학적 결과는 아나톨리아 (Anatolia)와 비옥한 초승달 지대 (the Fertile Crescent) 일대를 *Bos taurus* 가축화가 일어났던 지역이라 추정하였던 그간의 고고학 보고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Perkins 1969).

*Bos taurus*의 개별 유전형 분포를 간단히 살펴보면 T1의 경우 아프리카에서 주로 발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T2는 이탈리아, 발칸 반도, 아시아에서는 많이 보이나 중부 이북 지역 유럽 소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T3은 오늘날 유럽에 분포하는 소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유전형으로 신석기 시대에 이미 중부 및 서북 유럽에서 이 유전형의 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설이 있으며, 현대 한반도 사육 소 또한 매우 높은 비율로 이 유전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Bailey 등 1996, Troy 등 2001, Edwards 등 2004, Edwards 등 2007, Scheu 등 2008, Hong 등 2018). 일본과 한국, 중국 등 동아시아 소 또한 T3유전형을 가장 많이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럽과 유사하나(Lenstra 등 2014) 이외에 동아시아 지역에서만 발견되는 T4 유전자형 또한 발견되고 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Mannen 등 2004). 이 유전자형은 중국 4,500년 전 소 뼈에서 이미 확인되었으며, 현대 한국이나 일본 소에서도 적지 않게 확인되고 있는데 (Mannen 등 1998, Achilli 등 2008, Cai 등 2014), T4 또한 T3유전자형에서 파생되어 나온 것으로 근동지역 최초 사육 소의 후손에 해당된다는 점에서는 T1~T3 형과 같다 (Lenstra 등 2014).

한편, 인도에서 가축화된 *Bos indicus*의 경우에는 크게 I1, I2 두 가지 유전형으로 나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ai 등 2006). 이 중 I1은 인더스 강 유역에서 처음 가축화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후 동남아 및 중국 남부지역까지 확산되어 현지 소와 섞인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중국 남부지역 흑 없는 소 (*Bos taurus*)중에 I 유전형과 유사한 DNA 서열을 갖고 있는 개체들 비중이 높다(Lai 등 2006, Jia 등 2010, Hong 등 2018). 이처럼 현재 전 세계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사육 소는 메소포타미아 기원의 T형 혹은 인도 기원의 I 형 중 하나에 속한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는데, 이는 소 가축화와 확산 과정에서 소수의 개체가 인위적으로 선

택되어 이를 통해 유전학적 병목현상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IV. 동북아시아 소 기원에 관한 최신 보고

소 가축화 과정에 대해 아직 명확한 해답을 얻지 못한 질문 중 하나는 사육 소가 단일 지역에서 가축화하여 전 세계로 퍼져 나간 것인지, 세계 여러 곳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가축화된 후 그 후손이 뒤섞여 지금의 소 유전형을 이루고 있는 것인지에 관한 부분이었다(Bonfiglio 등 2010, 신동훈 2015). 전술하였듯 현재까지의 통설은 *Bos taurus*가 가축화된 사건이 근동지역에서만 있었던 것으로 오늘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소들은 근동지역 소의 후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축적되어 온 유전학적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데, 유럽 야생 소 유전형인 P형보다 근동지역 야생 소 유전형 T형이 현대 사육소와 보다 가깝기 때문에 현대 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T형 유럽 소들은 근동지역 소의 후손이며 유럽 야생소와는 무관하다는 주장이 확실한 근거를 갖게 되었다 (Edwards 등 2007). 또한 가축화 된 소가 초기 농경민의 이주를 통해 확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근동지역으로부터 시작되는 소의 확산이 유럽 초기 농경사회 인구이동과 유사하다는 점 또한 단일 지역 가축화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준다 (Fernández 등 2014). 이처럼 현재 사육되는 전 세계 혹은 없는 소는 근동지역에서 가축화 한 개체들의 후손이며, 세계 각지에 널리 퍼져있던 야생소는 근동지역의 것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개체는 멸종되었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유전학 연구 결과이다.

하지만 이 가설에도 몇 가지 예외를 들어 반론하는 경우가 있다. 첫째로 근동지역에서 가축화된 소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던 시점은 아직 야생 소가 완전히 멸종되었던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현지에 살고 있었던 야생 소와 새로 이주한 가축 소 사이에 교배가 일어나 그 유전형이 후세로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가정해 보면 세계 각지 사육 소 유전자에는 각 지역 야생 소 유전형이 다소 섞여 있을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 두 번째로 고려하여야 할 점은 야생 소 가축화 시도가 과연 한 지역에서만 일어났을 것인가 하는 질문이다. 전술하였듯 야생 소는 세계적으로 널리 분포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 가축화가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을 가능성은 여전히 배제하기 어려우며, 실제로 이러한 주장은 여전히 유효하다 (Bradley 등 1998, Mannen 등 2004, Bonfiglio 등 2010).

이러한 점에서 극히 소수이지만 T형과 I형 외에 다른 유전형 또한 확인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우선 유럽 야생소 유전형과 같은 P형의 경우 지금까지 현대 사육 소에서 3건의 사례가 보고되었는데, 한국 (2건), 중국 (1건)으로 그 사례는 매우 적으나 이미 멸종한 유럽 야생 소의 유전형이 지금껏 보존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간 단일 지역 유래 통설과 반대되는 주목할만한 연구결과이다(Achilli 등 2008, Stock 등 2009). Q 유전형의 경우 유라시아 및 아프리카 고대/현대 사육 소에서 확인되었는데, 이 유전형은 T형과 P형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 (Achilli 등 2008; 2009, Bollongino 등 2006, Olivieri 등 2015). R형의 경우 이탈리아 사육 소에서 발견되었으며, 특이하게도 P, Q, T 유전형과 유전적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 지역에 존재했던 옛 소의 유전형이 일부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들을 보았을 때 현존하는 사육 소 유전자가 근동지역 T형 야생 소에서만 유래된 것은 아닐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보고는 두 가지 가능성을 시사 하는데, 첫째로 T형 사육 소와 P, R형 야생 소가 교배를 통해 자신의 유전자를 후대에 물려주었을 가능성과 함께, 둘째로 근동 지역이 아닌 여러 곳에

서 야생 소의 가축화가 일어나 현대 사육 소 유전형 형성에 일정 부분 기여했을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사육소의 기원과 관련하여 중국 동북지방에서 주목할 만 한 사례들이 보고되었다. Zhang 등(2013)은 중국 동북지방 하얼빈 근처에서 발견된 소 아래턱뼈 (mandible)에 대한 동물고고학적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는데 이 소는 대략 10,700-10,500년 전에 살았던 *Bos primigenius*로서 어금니(Premolar 4, Molar 1)에 나타난 마모 정도를 고려할 때 재갈을 물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이미 중국 동북지방에서 야생 소를 길들여 사육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이 소뼈에 대한 유전적 연구 결과를 보면 그 유전형이 이전에 보고된 바 없는 형태라 하여 이를 Haplogroup C형이라 명명하여 유럽에서 확인된 *Bos primigenius*와는 다른 계통일 가능성이 있었다. 이 연구를 토대로 저자들은 중국 동북지방에서 현재 사육소와는 다른 유전적 계통의 야생 소 사육이 존재했었다고 주장하였는데, (Zhang 등 2013) 이후 이 가설을 입증할 연구가 추가적으로 보고되었다. Brunson 등(2016)은 중국 산시 성 남부 지역에서 발견된 대략 3,900년 전 *Bos primigenius* 뼈에 대한 유전학적 연구에서 C 유전형을 확인하였는데, 이 유전형을 가진 야생 소가 베이징 서쪽에서부터 동북지역까지 넓은 분포범위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Brunson 등 2016). 최근에는 Cai 등(2018)이 중국 길림성에 위치한 Houtaomuga 고고학 발굴현장에서 수집한 34개체의 *Bos primigenius* 뼈(추정연대: 6,300년 전-5,000년 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이 들 중 상당수의 유전형이 Zhang 등(2013)이 보고하였던 C형과 매우 유사함을 확인하였고 이 소뼈가 하얼빈에서 발견된 *Bos primigenius*의 후손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중국에서 보고된 일련의 논문을 보면 매우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 우선 *Bos primigenius*가 동아시아에서는 지금으로부터 대략 1만 년 전에 멸종되었을 것이라 추정하였던 기존 학설을 부정하여 최소한 3,900년 전까지도 생존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들 중 일부는 사육화 되어 있었고 그 유전형은 근동지역과 인도에서 사육화 된 계통과는 구별되는 C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다만 현재 중국 소에 대한 연구에서 C형이 지금까지 보고되지 않은 것을 보면 이 후 중국에서 사육화 된 소는 후손이 끊기고 근동에서 사육화 된 소가 새롭게 도입되어 이 지역의 주류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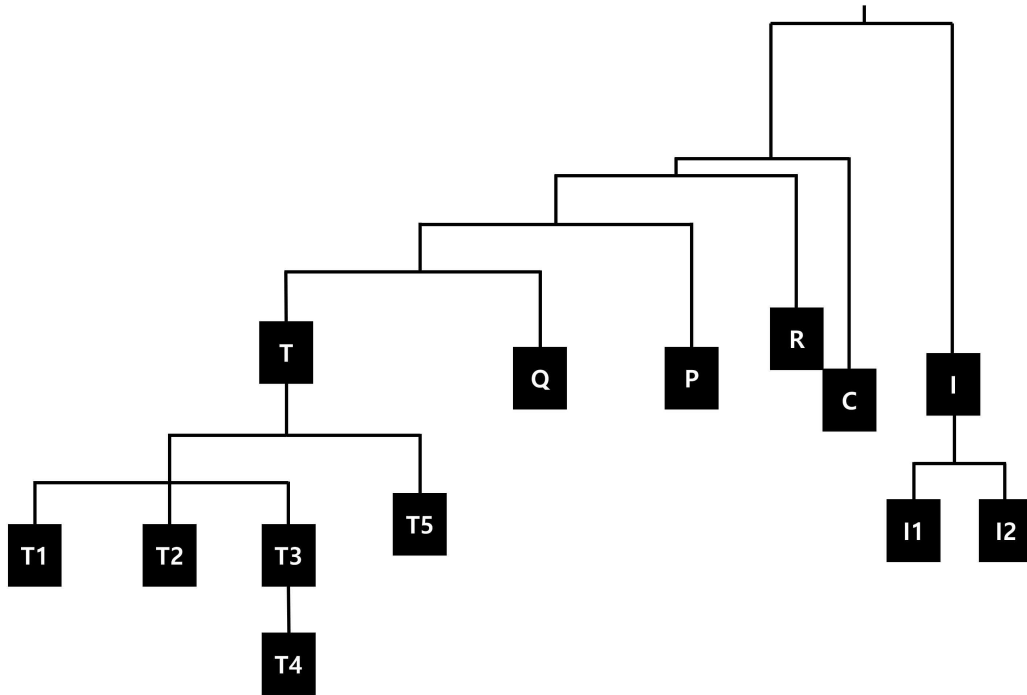


그림 2 미토콘드리아 DNA 분석에 의한 소 최신 계통도
(쉬운 이해를 위해 유전학적 거리를 명확히 반영하지는 않은 개념도)

V. 한반도 발견 신석기시대 소 연구에 대한 제언

최근 세계각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소에 대한 유전학적 연구는 우리나라 고고학에도 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우리 연구자들이 나가야 할 연구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소가 차지하는 의미는 무척 크다. 이른 시기 고고학적 발굴 보고를 제외하면 우리나라 역사에서 소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삼국지 위서 동이전에 등장하는데, 삼국사기에도 (눌지마립간 22년, 서기 438년) 牛車之法을 백성에게 가르쳤다가 (차순철 2014) 소를 밭갈이에 이용하기 시작하였다 하여 최소한 원삼국시대 이후부터는 한반도에 소가 사육되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이후에도 소는 농업을 바탕으로 한 우리나라 전통사회에서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가축으로서 존재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한우를 보면 흑이 없으며, 형태학적으로 몸집이 작고 이마가 넓고 콧등이 길고 눈이 크며 뿔이 외하방(外下方)을 향하는 등의 특징이 있어 (진충우 2007) 전형적인 *Bos taurus*의 외형을 보인다. 하지만 이는 20세기 이후 확립된 개념으로, 품종으로서의 한우에 대한 개념이 성립하기 이전 한반도에 존재했던 전통 소 또한 비슷하거나 같은 특징을 지녔을지는 알 수 없다. 이는 근대에 들어와 한우라 하는 품종 개념이 성립하면서 소 외형 통일을 시도했기 때문인데 소 털 색의 경우 20세기 들어 같은 계통으로 단일화되었다(진충우 2007, 홍종하 2016). 1938년에 제정되고 1970년에 개정된 한우 심사표준을 보

면 털 색을 각각 적색과 황갈색으로만 규정하여 두었는데, 이와 같은 일련의 작업으로 다른 털 색을 가진 소는 공식적으로 도태시켰다(진충우 2007). 이러한 이유로 해방 전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권업모범장보고(勸業模範場報告, 1928)에 의하면 우리나라 토종 갈색 털 소는 77.8% 였으나, 1970년대 농협중앙회(한우심사표준 1974) 자료에는 황갈색 털 소가 96.4%로 거의 한 가지 털색으로 통일되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보면 20세기 이전에는 우리나라에 좀 더 다양한 털 색을 가진 소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실제로 고려 시대에 처음 편찬된 신편 집성마의방우의방(新編集成馬醫方牛醫方)에는 누런색의 황우(黃牛), 백색의 백우(白牛), 검푸른색의 청우(靑牛), 얼룩색의 리우(離牛), 사슴 같은 녹반자(鹿班者) 등 다양한 색의 소가 존재했다는 기록이 있어(최태정 2009, 서상원 등 2014) 20세기 이전 한반도에 존재했던 소의 유전적 다양성이 현재 소보다 높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처럼 단순하지 않은 한국 소의 기원을 좀 더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는 한반도 내 다양한 시기 고고학 유적 출토 소 뼈에 대한 유전학적 분석이 필요한데, 안타깝게도 아직 이러한 연구가 충분히 수행되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가장 이른 시기 옛 소 뼈에 대한 유전학적 연구는 제주도 3-4세기 고고학 유적에서 수집한 소 뼈에 대한 미토콘드리아 DNA 분석으로 현대 제주도 흑우와 3-4세기 옛 소의 유전형이 매우 유사함을 확인하였다 (Kim 등 2005). 이 외에는 조선시대 소 뼈에 대한 유전적 검토가 유일한 것으로 청계천 유적에서 수집한 15세기 소 뼈의 유전학적 특징이 오늘날 한반도에서 볼 수 있는 소와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다시 확인하였다(T3형) (Hong 등 2018). 이러한 연구는 그 자체로 충분히 선구적인 것이지만 지금까지 유전학적 분석이 수행된 시료의 종류와 수가 너무 적어 우리나라 소의 유전학적 특징을 역사적인 시각에서 규명하기에는 매우 모자란 상황이다(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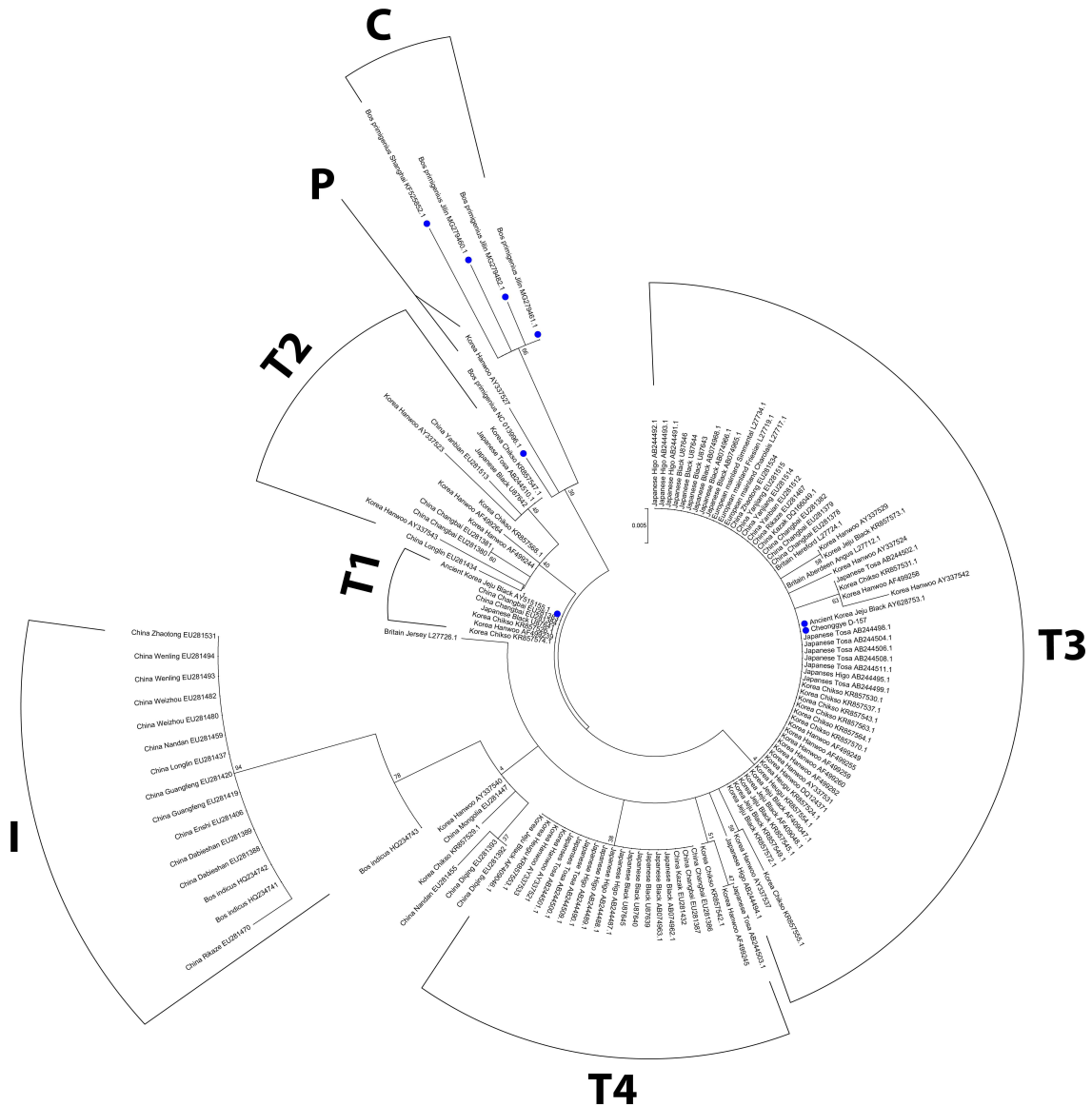


그림 3 동북아시아에서 수집한 소 미토콘드리아 DNA를 이용한 계통도
(각 샘플은 ID로 표시되었다. 각각의 샘플 간 거리가 멀수록 유전적 차이가 크다.
파란 원으로 표시된 샘플들은 고고학 발굴현장에서 수집한 소 뼈임을 나타낸다.)

그렇다면 기존의 연구에서 한반도와 지근거리인 중국 동북지역에서 최근 확인되어 보고된 *Bos primigenius*와 관련된 언급이 있었을까? 우리나라는 동삼동, 토성리, 입석리 등 다양한 신석기시대 유적에서 이미 소 뼈의 존재가 보고된 바 있지만 이것이 *Bos primigenius*인지 가축화된 *Bos taurus*인지에 대해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표 1). 다만 최근 중국 동북지역 신석기시대 유적에서 *Bos primigenius* 뼈가 발견되었다는 보고를 보면 우리나라 신석기 시대에 확인되는 소 뼈 역시 현재의 학계 동향으로 해석하자면 중국 동북지역에 존재하던 *Bos primigenius*와 연관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 판단된다. 특히 중국 동북지역 *Bos primigenius*에서는 사육의 흔적(재갈)이 나왔으므로(Zhang 등 2013) 우리나라에서 이미 보고된 신석기시대 소뼈에서도 같은 증거가 혹시 확인되는지 살펴볼 필요도 있겠다.

표 1 신석기시대 한반도 소 뼈 일람²⁾

유적	종류	출토품	최소 개체수	비고
궁산	물 소	뿔2, 위이빨1, 아래턱1, 갈비뼈1, 앞축뼈1 등	2	
목도		손등뼈1, 발등뼈1, 뒤축뼈1, 발목뼈1, 발가락뼈3		
황성동 267		이빨1	1	
비봉리		이빨2, 앞축뼈1, 발가락뼈1		
쌍굴		손등뼈1		추정
만달리위층	소	발가락뼈		
동삼동		위어금니1		
비봉리		위두번째 어금니1, 위 넷째 옆니 1		
수가리		위팔뼈, 옆니		

VI. 맺음말

소는 오랫동안 인류 사회의 발전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때문에 소의 가축화와 전파과정에 대해 고고학, 역사학, 유전학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학술적 성과를 얻고자 하였고, 이는 다양한 인문학적 가설을 검증하거나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기존 통설에 의하면 전 세계에 걸쳐 널리 퍼져 있었던 야생 소는 지금으로부터 대략 10,000년 전 동아시아에서 자취를 감추었으며 이후 근동지방에서 가축화된 사육 소에 의해 기원전 2,500년 경 대체되었다고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최근 야생 소가 중국 동북지방에서 최소 기원전 3,500년까지도 서식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확인되었는데, 이 때문에 같은 동아시아에 속한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신석기 시대 소 뼈가 야생 소와 가축 소 중 어느 것이라고 단정하기 한층 어려워졌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자는 향후 우리나라 고고학 발굴현장에서 발견되는 옛 소 뼈 연구 방향에 대한 의견을 차제에 조심스럽게 학계에 제기하고자 한다. 우선 기존에 보관되어 있는 우리나라 신석기시대 옛 소 뼈가 *Bos primigenius*의 특징을 갖추고 있는지 파악해야 하며, 해당 소 뼈에 대해서는 유전학적 검사를 시도하여 우리나라 신석기시대 소의 기원과 계통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관련 연구자 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기대하는 바이다.

2) 2015년 국립중앙박물관 이양수가 “왜 우리는 소를 연구하는가?(김해박물관)”에서 발표한 내용을 정리하여 인용하였음.

참고문헌

- 서상원, 2014, 「Microsatellite marker를 이용한 한국 가축유전자원의 분자유전학적 고찰」, 경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동훈, 2015, 「미토콘드리아 DNA D-loop 유전정보 서열에 대한 계층적 군집화 분석에 의한 동아시아 소의 계통 연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진충우, 2007, 「한우, 육우 및 수입우의 DNA 비교: 미토콘드리아 DNA control region 및 cytochrome b 유전자의 염기서열과 핵DNA의 RAPD (Randomly Amplified Polymorphic DNA) 분석」,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차순철, 2014, 「포항지역의 농지개간과 지역사회 변화 -포항 초곡리유적을 통해 본 신라의 농지개간 문제-」, 『한국고대사연구』 16: 87-117.
- 최태정, 2009, 「한국 전래 소품종 (한우, 호반우 및 흑우)에 대한 계통유전체학적 특성 규명」,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홍종하, 2016, 「서울시내 청계천 유적에서 수집한 조선시대 소 뼈 추출 미토콘드리아 DNA D-loop 서열에 대한 유전학적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Achilli, A., Olivieri, A.,Pellecchia, M., Ubaldi, C., Colli, L., Al-Zahery, N., Accetturo, M., Pala, M., HooshiarKashani, B., Perego, U.A., Battaglia, V., Fornarino, S., Kalamati, J., Houshmand, M., Negrini, R., Semino, O., Richards, M., Macaulay, V., Ferretti, L., Bandelt, H.J., Ajmone-Marsan, P., Torroni, A. 2008. Mitochondrial genomes of extinct aurochs survive in domestic cattle. *Current Biology* 18(4): R157-158.
- Achilli, A., Bonfiglio, S., Olivieri, A., Malusa, A., Pala, M., Hooshiar Kashani, B., Perego, U.A., Ajmone-Marsan, P., Liotta, L., Semino, O., Bandelt, H.J., Ferretti, L., Torroni, A. 2009. The Multifaceted Origin of Taurine Cattle Relected by the Mitochondrial Genome. *PLoS One* 4(6): e5753.
- Anderson, S., de Bruijn, M.H., Coulson, A.R., Eperon, I.C., Sanger, F., Young, I.G. 1982. Complete sequence of bovine mitochondrial DNA. Conserved features of the mammalian mitochondrial genome. *Journal of Molecular Biology* 156(4): 683-717.
- Bailey, J.F., Richards, M.B., Macaulay, V.A., Colson, I.B., James, I.T., Bradley, D.G., Hedges, R.E., Sykes, B.C. (1996). Ancient DNA suggests a recent expansion of European cattle from a diverse wild progenitor species. *Proceedings of the Royal Society B: Biological Sciences*, 263, 1467-1473.
- Bogucki, P. 1993. Between east and west: Archaeology in the new eastern Europe. *Journal of Archaeological Research* 1(2): 145-166.
- Bonfiglio, S., Achilli, A., Olivieri, A., Negrini, R., Colli, L., Liotta, L., Ajmone-Marsan, P., Torroni, A., Ferretti, L. (2010). The enigmatic origin of bovine mtDNAhaplogroup R: sporadic interbreeding or an independent event of Bosprimigenius domestication in Italy? *PLoS One*, 5(12), e15760.
- Bollongino, R., Edward, C.J., Alt, K.W., Burger, J., Bradley, D.G. 2006. Early history

- of European domestic cattle as revealed by ancient DNA. *Biology Letter* 2(1): 155-159.
- Bradley, D.G., Loftus, R.T., Cunningham, P., MacHugh, D.E. 1998. Genetics and domestic cattle origins. *Evolutionary Anthropology* 6: 79-86.
- Brown, W.M. and Wright, J.W. 1979. Mitochondrial DNA analysis and the origin and relative age of parthenogenetic lizards (genus *Cnemidophorus*). *Science* 4386: 1247-1249.
- Brunson, K., Zhao, X., He, N., Dai, X., Rodrigues, A., Yang, D. 2016. New insight into the origins of oracle bone divination: Ancient DNA from Late Neolithic Chinese bovines. *Journal of Archaeological Science* 74: 35-44.
- Cai, D., Sun, Y., Tang, Z., Hud, S., Li, W., Zhao, X., Xiang, H., Zhou, H. (2014). The origins of Chinese domestic cattle as revealed by ancient DNA analysis. *Journal of Archaeological Science*, 41, 423-434.
- Cai, D., Zhang, N., Zhu, S., Chen, Q., Wang, L., Zhao, X., Ma, X., Royle, T.C.A., Zhou, H., Yang, D.Y. 2018. Ancient DNA reveals evidence of abundant aurochs (*Bos primigenius*) in Neolithic Northeast China. *Journal of Archaeological Science* 98: 72-80.
- Chakraborty, B. 2010. Cattle in time and Space: An Osteological perspective. Unpublished Master's Thesis, Deccan College, Pune.
- Edwards, C.J., MacHugh, D.E., Dobney, K.M., Martin, L., Russell, N., Horwitz, L.K., McIntosh, S.K., MacDonald, K.C., Helmer, D., Tresset, A., et al. (2004). Ancient DNA analysis of 101 cattle remains: Limits and prospects. *Journal of Archaeological Science*, 31, 695-710.
- Edwards, C.J., Bollongino, R., Scheu, A., Chamberlain, A., Tresset, A., Vigne, J.D., Baird, J.F., Larson, G., Ho, S.Y., Heupink, T.H., Shapiro, B., Freeman, A.R., Thomas, M.G., Arbogast, R.M., Arndt, B., Bartosiewicz, L., Benecke, N., Budja, M., Chaix, L., Choyke, A.M., Coqueugniot, E., Döhle, H.J., Göldner, H., Hartz, S., Helmer, D., Herzig, B., Hongo, H., Mashkour, M., Ozdogan, M., Pucher, E., Roth, G., Schade-Lindig, S., Schmölcke, U., Schulting, R.J., Stephan, E., Uerpmann, H.P., Vörös, I., Voytek, B., Bradley, D.G., Burger, J. (2007). Mitochondrial DNA analysis shows a Near Eastern Neolithic origin for domestic cattle and no indication of domestication of European aurochs. *Proceedings of the Royal Society B: Biological Sciences*, 274, 1377-1385.
- Fernández, E., Pérez-Pérez, A., Gamba, C., Prats, E., Cuesta, P., Anfruns, J., Molist, M., Arroyo-Pardo, E., Turbón, D. (2014). Ancient DNA Analysis of 8000 B.C. Near Eastern Farmers Supports an Early Neolithic Pioneer Maritime Colonization of Mainland Europe through Cyprus and the Aegean Islands. *PLoS Genetics*, 10(6): e1004401. doi:10.1371/journal.pgen.1004401
- Haag-Liautard, C., Coffey, N., Houle, D., Lynch, M., Charlesworth, B., Keightley, P.D. 2008. Direct Estimation of the Mitochondrial DNA Mutation Rate in *Drosophila melanogaster*. *PLoS Biology* 6(8): e204.

- Hong, J.H., Oh, C.S., Cho, C.W., Shin, Y.M., Cho, T.S., Shin, D.H. 2018. Mitochondrial DNA analysis of *Bos taurus* bone collected from ruins of the Joseon period in a tributary of the Cheonggyecheon creek, South Korea. *Journal of Archaeological Science: Reports* 17: 785-792.
- Jia, S., Zhou, Y., Lei, C., Yao, R., Zhang, Z., Fang, X., Chen, H. 2010. A new insight into cattle's maternal origin in six Asian countries. *Journal of Genetics and Genomics* 37(3): 173-180.
- Kim, J.H., Oh, J.H., Song, J.H., Jeon, J.T., Han, S.H., Jung, Y.H., Oh, M.Y. 2005. Molecular Genetic Analysis of Ancient Cattle Bones Excavated Archaeological sites in Jeju, Korea. *Molecules and Cells* 20(3): 325-330.
- Lai, S.J., Liu, Y.P., Liu, Y.X., Li, X.W., Yao, Y.G. (2006). Genetic diversity and origin of Chinese cattle revealed by mtDNA D-loop sequence variation. *Molecular Phylogenetics and Evolution* 38(1): 146-154.
- Lenstra, J.A., Ajmone-Marsan, P., Beja-Pereira, A., Bollongino, R., Bradley, D.G., Colli, L., De Gaetano, A., Edwards, C.J., Felius, M., Ferretti, L., Ginja, C., Hristov, P., Kantanen, J., Lirón, J.P., Magee, D.A., Negrini, R. and Radoslavov, G.A. (2014). Meta-Analysis of Mitochondrial DNA Reveals Several Population Bottlenecks during Worldwide Migrations of Cattle. *Diversity* 6(1): 178-187.
- Lin, M., Miracle, P., Baker, G. 2016. Towards the identification of the exploitation of cattle labour from distal metapodials. *Journal of Archaeological Science* 66: 44-56.
- Mannen, H., Tsuji, S., Loftus, R.T., Bradley, D.G. (1998). Mitochondrial DNA variation and evolution of Japanese black cattle (*Bos taurus*). *Genetics* 150(3): 1169-1175.
- Mannen, H., Kohno, M., Nagata, Y., Tsuji, S., Bradley, D.G., Yeo, J.S., Nyamsamba, D., Zagdsuren, Y., Yokohama, M., Nomura, K., Amano, T. 2004. Independent mitochondrial origin and historical genetic differentiation in North Eastern Asian cattle. *Molecular Phylogenetics and Evolution* 32: 539-544.
- Olivieri, A., Gandini, F., Achilli, A., Fichera, A., Rizzi, E., Bonfiglio, S., Battaglia, V., Brandini, S., De Gaetano, A., El-Beltagi, A., Lancioni, H., Agha, S., Semino, O., Ferretti, L., Torroni, A. 2015. Mitogenomes from Egyptian Cattle Breeds: New Clue on the Origin of Haplogroup Q and the Early Spread of *Bos taurus* from the Near East. *PLoS One* 10(10): e0141170.
- Perkins, D., Jr. (1969). Fauna of catalhuyuk: evidence for early cattle. *Science*, 164: 177-179.
- Scheu, A., Hartz, S., Schmöcke, U., Tresset, A., Burger, J., Bollongino, R. (2008). Ancient DNA provides no evidence for independent domestication of cattle in Mesolithic Rosenhof, Northern Germany. *Journal of Archaeological Science* 35: 1257-1264.
- Sherratt, A. 1981. Plough and pastoralism: aspects of the secondary products revolution. (Eds. Hodder, I., Isaac, G., Hammond, N.), *Patern of the Past*:

- Studies in Honour of David Clark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pp. 261-305.
- Stock, F., Edwards, C.J., Bollongino, R., Finlay, E.K., Burger, J., et al. (2009). Cytochrome b sequences of ancient cattle and wild ox support phylogenetic complexity in the ancient and modern bovine populations. *Animal Genetics* 40: 694-700.
- Troy, C.S., MacHugh, D.E., Bailey, J.F., Magee, D.A., Loftus, R.T., Cunningham, P., Chamberlain, A.T., Sykes, B.C., Bradley, D.G. 2001. Genetic evidence for Near-Eastern origins of European cattle. *Nature* 410: 1088-1099.
- Tikhonov, A. 2008. *Bos primigenius*: The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IUCN: e.T136721A4332142.
- Zhang, H., Paijmans, J.L.A., Chang, F., Wu, X., Chen, G., Lei, C., Yang, X., Wei, Z., Bradley, D.G., Orlando, L., O'Connor, T., Hofreiter, M. 2013. Morphological and genetic evidence for early Holocene cattle management in northeastern China. *Nature communications* 4: 2755.

환동해지역 비중원계 철(철기) 생산 가능성 검토

심재연(한림대학교)

목차

I. 머리말

II. 한반도 철기 유입

1. “세죽리-연화보 철기”는 모두 중원계 인가?
2. 비중원계 철기와 일상 생활용 철기

III. 괴련철 생산 계보

1. 제련로
2. 제련용 송풍관과 철기 제작용 송풍관

IV. 맺음말

I. 머리말

최근 위만조선의 위치와 철기 생산 논의와 관련하여 철기의 자체 생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 논의는 중원에 기원을 둔 주조철기(주조철부)의 형식학적 분류를 통한 것이었다. 반면에 일상용으로 사용된 단조 철기에 대한 논의는 진행되기 않고 있으며 압록강 중류역의 괴련철 생산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한반도 일원을 살펴보면 중원지역에서 반입된 주조철기 이외에 단조 철기도 일상 생활유적에서 확인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철 생산과 철기 생산 공정에 대해서는 묵시적으로 전쟁 또는 이주를 통하여 중원지역의 기술이 유입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왔다. 하지만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확인되는 3~4세기 제련로의 조사와 부산물 분석을 통하여 중원의 철생산 목표와는 다른 철 생산이 이루어졌음이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고고학적 성과와 함께 여·철자형 주거를 상용하는 집단의 마을에는 철기를 생산·수리하였던 단야유구 또는 이를 증명하여주는 각종 파생물이 집중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 유구에서도 중원에서 기원한 선철 계통의 철기 보다는 괴련철(≒(반)환원괴)을 반복 단타하여 철기를 만들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중원계 철기의 계보와는 달리 한반도 일원에 다른 철생산 계통이 있었을 가능성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II. 한반도 철기 유입

1. “세죽리-연화보 철기”는 모두 중원계 인가?

최근 세죽리-연화보유형 재검토를 통하여 위만조선의 철기에 대한 검토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바 있다. 이 유형 검토를 통하여 중원에 기원을 둔 주조철기의 재지화에 대한 검토까지 이루어지면서 자체 생산 가능성까지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철생산 유적에 대한 정보가 빈약하여 구체적인 논의는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관행적인 위만조선의 위치 비정과는 다른 지역으로 논의되고 있어 한반도에서 진행되던 철기 제작을 논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다만, 이 유형의 논의가 한반도 청천강 이남지역의 철생산과 철기 생산 양상을 재검토할 필요성을 촉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깊다.

한반도에서 보이는 출현기 철기는 주조철기와 단조철기로 구분된다. 지금까지 이중에 형식 분류가 용이한 주조철부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일부 주조 철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 바 있다.

그러나 한동해지역 특히 한반도 중부지역 철기시대 마을에서 확인되는 철기는 도자, 철검, 철촉, 수겸(手鎌) 등이다. 이 철기 중에 철기를 재활용한 기종도 확인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유물은 괴련철((반)환원괴)을 정련, 단련 단야하여 제작한 것이다.

그런데 중원계 철기는 선철을 생산하여 이를 거푸집에 부어 만든 주조철기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물론 요동지역을 중심으로 위만조선 철기를 보는 시각에서는 중원 철기제작 방법을 받

아들여 자체철기를 제작한 것으로 보고 이러한 계통의 철기가 한반도 남부지역으로 유입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실제 양상은 이러한 주조 철기의 출현이 적어도 한반도에서 자체 제작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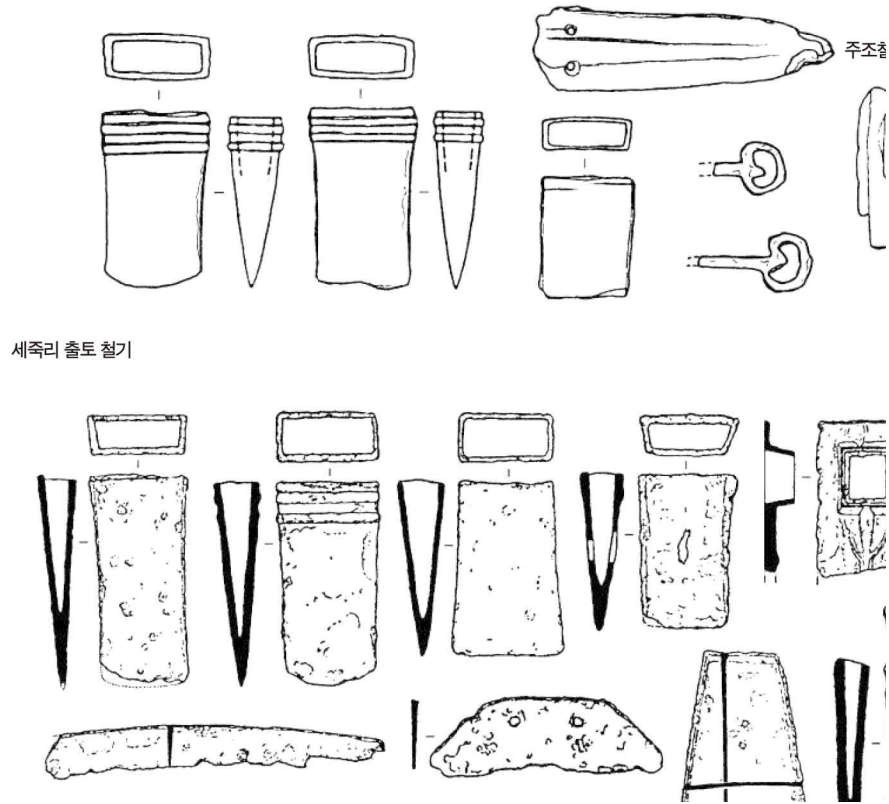


그림 1 세죽리와 연화보유적에서 출토된 철기류(정인성 2016)

한편, 주조 철기의 자체 생산 가능성은 평양 주변에서 출토된 거푸집을 근거로 그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한다. 하지만 자체 주조 철기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유물의 빈도가 매우 낮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특히, 戰國 燕 또는 漢의 주조 철기 제작 기술이 한반도에 유입이 되었다고 한다면 선철 생산 유구를 증명할 수 있는 흔적이 확인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확인된 것은 용범이 유일한 상황이다. 또한 한반도 중남부지역에서 가장 이른 시기로 보이는 철생산유적은 평택지역에서 확인되는 유구가 가장 이른 시기로 추정될 뿐이다¹⁾.

결국은 한반도 지역에서 선철 생산을 통한 주조철기의 생산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판단된다.

2. 비중원계 철기와 일상 생활용 철기

그렇다면 일상 생활유적에서 확인되는 소형 철기 등의 계통은 어떻게 볼 것인가? 중원지역

1) 물론 최근 칠금동유적에서 확인되는 제련로의 AMS 연대가 비교적 이른 시기로 나타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 원향인 선철계 철기와는 달리 괴련철을 생산하던 유구는 이른 시기에 해당하는 유구가 한반도에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삼국 형성기 또는 삼국시대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시기에 철소재와 철생산 유구가 확인된다. 철소재는 괴련철을 정련하여 만든 봉상철정이 확인(탄금대, 문성리)되고 철생산 유구는 한반도 중부지역 충주일원에서 확인되고 있다. 충주지역의 제련 공정은 조사과정에서 수습된 각종 부산물에 대한 금속학적 분석 결과 괴련철 생산을 목표로 조업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²⁾.

한편, 시기적으로 수습 관계와 시기차가 있지만 여·철자형 주거를 상용하던 중부지역에서는 단야유구와 관련 유물이 집중적으로 확인되었다. 여·철자형 주거 상용집단의 단야유적은 한강 수계와 영동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직접 단련단야를 통하여 철기를 제작한 단야공방은 지금까지 동해 송정동유적과 동해 망상동에서 확인되었으며 단야과정에서 생산된 파생물(노바닥재 또는 완형재, 입상재, 단조박편, 각종 철재), 노벽, 송풍관 등이 확인되고 있다. 단야 관련 유구에서 확인된 유물의 금속학적 분석은 극히 적은 양이 금속학적 분석이 이루어 졌다. 분석 결과 괴련철(≡(반)환원괴)를 원료로 정련·단련 단야 한 것임이 밝혀졌다. 이러한 것은 중원지역에서 기원한 주조철기가 아닌 단조철기의 계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표 1 중부지방 단야 관련 유물·유구 출토 일람(심재연 2018 수정)

유 적 명	유구 호수	관련 유물	비고	참고문헌
강원 영동				
삼척 호산리유적	2호(주)	송풍관		江文研 2013
東海 松亭洞유적 (중심도로)	I -1(주)	철재	分析 (신경환 외 2012)	江陵 2012b
	I -2(주)	송풍관, 완형재, 철재, 철괴		
	I -5(주)	철재(완형재?)		
	I -12(주)	철재, 철괴		
	I -19(주)	송풍관		
	I -22(주)	송풍관		
	I -28(주)	송풍관, 완형재, 철재, 철괴		
	I -34(주)	철재		
	I -40(주)	철재		
	I -43(주)	송풍관		
	II -7(주)	송풍관		
	II -9(주)	송풍관		
동해 송정동 621-2번지 유적	2(미상유구)	송풍관 편		江文研 2007
東海 松亭洞遺蹟 I (958-8번지)	1(주)	송풍관 편		예맥, 2008
	3(주)	추정노벽 편, 철재		
	6(주)	송풍관 편 3점, 철재, 철편(!)		
東海 松亭洞遺蹟 II (851-6번지)		송풍관 편 2점		예맥, 2009b

2)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2014, 『중원지역 제철유적 출토유물의 자연과학적 분석보고서』,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신경환·이남규·장경숙·이재용, 2008, 「충주 칠금동 제철유적 시료의 분석적 고찰」, 『충주 칠금동 제철유적』, 중원문화재연구원.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2018, 『충주 칠금동(392-5번지 일대) 제철유적 발굴조사보고서 I』.

東海 松亭洞遺蹟Ⅲ	폐기장	송풍관	分析 (신경환 외 2010a)	예맥, 2010a
	단야공방지	송풍관, 노벽, 완형재, 입상재, 단조 박편, 대석		
東海 松亭洞 聚落Ⅱ	5(주)	송풍관		江考研 2011
동해 송정동유적 (848-16번지)	4(住)	집게		韓國, 2016
동해 망상동유적Ⅱ	단야공방지	노적(爐跡), 송풍관, 철재, 입상재, 단조박편, 철편	分析 (신경환 외 2010b)	예맥 2010b
강릉 안인리유적	8(주)	송풍관 편		江陵, 2011
	14(주)	송풍관 편		
	15(주)	송풍관 편		
	18(주)	송풍관 편		
	19(주)	송풍관 편		
	23(주)	송풍관 편		
강릉 병산동유적 (공항도로)	A-1(주)	송풍관 편		江陵 2012a
	A-9(주)내	송풍관 편, 철재, 모루		
	A-33(주)	모루(?)		
강릉 병산동유적 (320-3번지)	3(주)	송풍관, 철재		江文研 2006
강릉 병산동유적 (320-2번지)	폐기장 1	송풍관, 철재, 철편, 입상재, 박편	分析 (신경환 외 2018)	江考研 2016
	폐기장 2	송풍관, 철재, 철편, 입상재, 박편		
	폐기장 3	송풍관, 철재, 철편, 입상재, 박편		
강릉 강문동유적 (136-3번지)	구(溝)	송풍관		國岡 2016
江陵 橋項里遺蹟	A-24(주)	송풍관 편		江陵 1998
양양 동호리유적	1호(주)	鐵鑿		예맥 2014
	11호(주)	송풍관		
북한강유역				
양구 고대리유적	11호(주)	완형재		江文研 2015
화천 원천리유적	주거정지층	송풍관편	分析(최영민 2013)	예맥 2015
춘천 춘천리·울문리유적	A-31호(주)	철재	분석 (신경환 외 2010c)	예맥 2010
춘천 울문리유적Ⅱ	3호(주)	송풍관편, 철재	분석 (신경환 외 2016)	예맥 2016
	5호(주)	송풍관편, 철재		
춘천 우두동유적	주·수혈	송풍관편, 철재, 봉상철정, 우물	분석 (신경환 외 2017)	漢江 2017
홍천 철정리유적Ⅱ	A-3·C-2호(주)	송풍관	홍천강	江文研 2010
가평 마장리유적		송풍관편,	가평천	한영희 1982
가평 향사리유적	10호(주)	송풍관편	조종천	高麗 2010
가평 대성리유적	8호(주)	철재		京畿 2009
	12호(주)	裁斷 철편, 鐵鑿		
	14호(주)	철재, 鐵鑿, 鐵鑿, 裁斷 鐵片		
	16호(주)	철괴		
	19호(주)	철괴, 철재		
양평 양수리유적	5호(주)	송풍관*		韓國 2016

(770-7번지)				
양평 양수리유적	3호(주)	송풍관*		西海 2017
남한강유역				
영월 삼옥리유적	3·4(주) 4(수)	완형재, 철재		예맥, 2009a
영월 주천리유적	공방지(?)	노적(爐跡), 철재	分析(竹 2010)	예맥 2010c
영월 방절리유적 (558-19번지)	주	철재		國防 2018
횡성 읍하리유적	10·11·29(주)	노적(爐跡), 송풍관		연세 2013
횡성 화전리유적	2·3호(주)	철재, 철광석(!), 송풍관		강원
여주 연양리유적	2호(주)	단조박편, 철재, 노적(爐跡)		國立 1998
하남 미사리유적	601호(수)	철재, 노벽편(?)		漢沙里 1994
한강본류				
구리 토평동유적	10호(주)	鐵錐		서울 2017
남양주 장현리유적	43호(주)	범심, 송풍관	왕숙천	中央 2010
임진강유역				
연천 삼곶리	2, 4, 11, 19, 20, 주 6, 수 5	노적(爐跡), 철재, 단조박편, 입상재		김기룡 2011
중랑천				
양주 마전동	5 주	송풍관		한성 2018
안성천(황구지천)				
화성 기안리유적	단야로 12기	노적(爐跡), 철재, 단조박편, 입상재	分析(畿甸 2007)	畿甸 2007
용인 고림동유적	A 5주	봉상철기(77?)	分析	한신(2018)
	A10주	봉상철기(41, 43 ?)		
	A28수	봉상철기(25), 삼지창(26)		
	B 2구상	송풍관(149~161)		
	B 3구상	송풍관(49~50)		
	B 4구상	송풍관(13~15)		
	B 9주	송풍관(①~⑩)		
	B 11주	송풍관(24)		
	B 12주	송풍관(26)		
	B 22주	송풍관(13)		
	C 2주	송풍관		

이 유적들의 연대는 기원후 1세기경을 상회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철원 와수리유적 철촉 등을 보면 기원전에 괴련철을 단련하여 제작하였을 가능성은 있다.

따라서 시기적인 문제, 지역의 편이가 발생하고 있으나 선철을 이용한 철기 제작 전통과는 다른 괴련철(≒반환원괴)을 이용한 철기 제작 전통이 중부지역에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Ⅲ. 괴련철 생산 계보

1. 제련로

그런데 일련의 괴련철 생산 체계는 중원지역에서 발생한 선철 생산 체계와는 다른 것으로 보인다. 이 괴련철 생산 체계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초원지역을 매개로 유라시아 대륙에서 광범위하게 생산되고 있는 것이 최근 확인되고 있다.

소위 ‘지하식 제련로’를 사용하는 조업 방식은 현재 남시베리아 하카시아지역, 몽골지역(몽골공화국, 부랴트공화국 등)에서 확인되고 있다. 그러데 이 지하식 제련 방식과 유사한 괴련철 생산 방법은 서구 유럽과 서아시아지역에서는 중원에서 기원한 주조철기 생산법이 알려지기 전에 보편적으로 사용되던 방식이다.

한편, 몽골지역 동쪽으로 그 실체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지만 단편적으로 확인되는 자료를 통하여 아무르강유역과 연해주지역에도 괴련철을 사용하여 철기를 제작하였을 가능성이 연대 문제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소량의 자료(하바로브스크변경주 니즈네탐보르스크고분군 : 우릴문화)가 확인되고 있다.



그림 2 니즈네탐보르스크 고분군
(네스테로프 S. P. 2018)



그림 3 타쉬트릭문화기 단조 철기
(아바칸박물관 필자 촬영: 기원 1C)

초원지역에서 확인된 제련로 중에 대표적인 유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초원지역을 중심으로 중원지역의 선철 생산 공정과는 다른 유적이 광범위하게 확인되고 있다(무라카미 2018). 특히, 그 조사 내용이 알려진 남시베리아 하카시아 지역(史記에 堅昆으로 불리는 지역), 몽골지역이 알려져 있다. 양지역의 제련로를 살펴보면 수혈을 2개소 판 다음 양 쪽을 연결하는 지하 통로를 조성한다. 초기에는 자연송풍을 이용하여 제련을 하다 작업 수혈과 제련로 노벽에 송풍관을 설치하여 제련하는 것으로 변화한다. 이후, 작업 수혈에서 송풍을 하는 것이 소멸하고 제련로 노벽에 송풍관을 설치하는 것으로 변화하였다고 한다.³⁾

이러한 방식의 제련 작업은 중원지역에서 발명된 선철 생산 체계와는 다른 공정이다. 중원 선철 생산 체계는 대량의 철을 생산, 주조하여 대량의 철기를 생산할 수 있다. 그러나 초원지역에서 이루어진 철 생산 체계는 많은 양의 철을 생산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조업 방식이다. 실제 에히메대학의 무라카미의 실험에서는 송풍관 근처에서만 소량의 철이 생산되는 것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초원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 철생산 방식은 당시 각 지역 집단의 필요에 따른 소량 생산을 통하여 자급하는 체계였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하카시아지역과 몽골 헤레렌강유역의 호스틴볼락 제철유적에서 보이는 철생산 양상은 소량 생산되는 철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필요한 수요를 충족하였는지 밝히는 과제가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알려진 자료로 볼 때 하나의 집단에서 필요한 철 생산과 철기의 생산은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생산하였을 가능성이 하카시아 지역에서 확인되고 있다. 지금까지 잘 알려진 유적으로는 트로츠키노-류유적과 툴체야유적이다. 이 유적들은 타쉬트릭문화기에 해당하는 유적으로 알려져 있다. 제련로의 조성은 하나의 작업구덩이를 조성한 후 주변에 시간차를 두고 환상 또는 단독으로 제련로를 조성한 후 연속조업을 통하여 필요한 철을 생산하였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조업 방식에 대하여 암자라코프는 3가지로 구분⁴⁾하고 있다.

첫 번째는 두 가지 송풍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다. 즉, 작업용 수혈에서 송풍 터널을 통하여

3) 무라카미와 암자라코프와 견해가 다름

4) Amzarakov P., Murakami Ya., 2018, 「러시아 Khakassia, Minusinsk 분지의 고대 야금술에 관한 연구」, 『최신 동북아시아 고대 제철유적의 발굴 성과와 그 의의』, 국립중앙문화재연구소.

송풍하는 동시에 구지표면에 조성한 로에 송풍관을 설치하여 송풍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동시에 송풍하는 방법으로 철 회수율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실제 회수율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림 4 암자라코프 P.(2018)

두 번째는 장작과 숯을 사용하여 제련로의 바닥을 채워 손실되는 광석을 절약하고 작업공에서 들어오는 송풍을 하지 않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첫 번째 방법보다 철 손실율을 줄이고 있기 때문에 회수율이 높다고 한다. 즉, 작업 공에서 송풍하는 방법이 생략됨으로서 모종의 송풍기술이 채택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5 암자라코프 P.(2018)

세 번째는 제련작업에서 지하 송풍 터널과 송풍기술이 사라지고 구지표면에서 송풍하는 기술로 변화하는 것이다. 아마 이 단계에서 로 사방에 송풍관을 설치하여 송풍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의 하카시아지역에서 확인되는 제련 기술은 초기 자연송풍제련에서 구지표면을 통한 송풍으로 제련 조업 방식이 변화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하카시아지역에서 확인되는 제련기술의 양상은 몽골 호스틴볼락에서 보이는 제련 기술과도 유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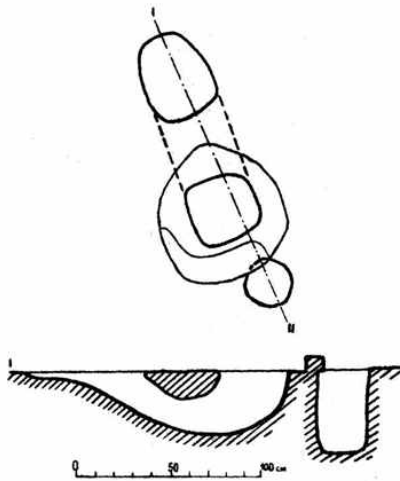


그림 6 이불가성 제련로
(미야가세브 D. 제공)

적어도 기원전후 초원지대를 중심으로 진행된 철 생산기술에는 지하식 제련로라는 동일한 조업 방식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조업방식은 최근 이불가성지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제련로도 구조가 약간의 차이가 보이지만 작업공과 제련로 사이에 송풍용 터널이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사하다.

그렇다면 한반도 일원에서 확인되는 괴련철 생산을 목표로 한 제련로는 비록 평택지역을 중심으로 이른 시기의 것이 확인되고 이후 중원지역으로 중심지가 변화하였지만 중원지역에서 확인되는 제련로는 괴련철 생산을 목표로 조업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현재까지 조사된 제련로의 계보는 막연히 중국 중원에서 확인되는 제련로를 모델일 것이라고 인식되어 왔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최근 칠금동유적의 조사를 통하여 이 지역의 제련로는 아무리 늦게 보아도 3세기경에는 지하식 제련로가 가장 발달한 형태의 구조로 조성된 것이 확인되었다. 칠금동유적 제련로의 단면 구조는 초원지역에서 확인되는 세기지 유형 중에 3단계에 보이는 제련로의 조업 방식과 동일하다. 즉, 무라카미(2018)가 주장하는 3단계 제련로(원형의 로에 환상으로 송풍관을 설치하여 송풍을 하는 법), 또는 암자라코브(2018)가 주장하는 3형의 송풍방식과 동일하다는 점이다.

초원지역에서 확인되는 제련로는 평지에 두개의 수혈을 파고 한쪽 수혈은 지표면에 노벽 일부를 설치하고 나머지 수혈과 송풍용 터널을 조성하여 연결하는 구조이다. 이 방법은 한반도 중부지역에서 확인되는 제련로의 송풍방법과 유사하다. 즉 대형송풍관을 통하여 노 내부에 송풍하는 방법, 그리고 배재구를 통하여 배재부에 철재를 배출시키는 방법의 원형은 초원지역 지하식 제련로와 유사하다. 또한 암자라코브가 이야기 한 것처럼 지표면에 노벽을 제거한 후 생산된 괴련철(≒(반)환원괴)을 회수하는 방법은 한반도 중부지역에서는 배재구를 통한 철재 제거와 배재구를 일부 확장하여 노안에 생성된 철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발전한 제련로와는 달리 이전 시기로 소급될 수 있는 제련로도 중부지역에 존재하였을 가능성 문제이다. 지형의 변화가 크지 않은 초원지역에서는 제련로 확인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그러나 중부지역에서는 자연 지형의 변화로 인하여 잔존상태가 불향하다는 근본적인

약점이 있고 작금의 조사 방법으로는 그 존재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초원지역 몽골을 중심으로 확인되는 제련로는 흉노시대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시기에 조성된 마을로 버러성지유적이 있다. 수차례의 발굴 조사 결과 최근 온돌이 시설된 3호(Locus 33) 주거지 내부에서 단야용 철재⁵⁾가 수습된 바 있다. 이 주거지의 연대는 ① 395BC(35.2%)348BC, 315BC(60.2)208BC, ②는 181BC(95.4%)18AD로 측정되었다. 버러유적은 한반도 중부지역에서 주로 확인되는 철자형 주거지로 한반도 중부지역의 양상과 그 계보를 같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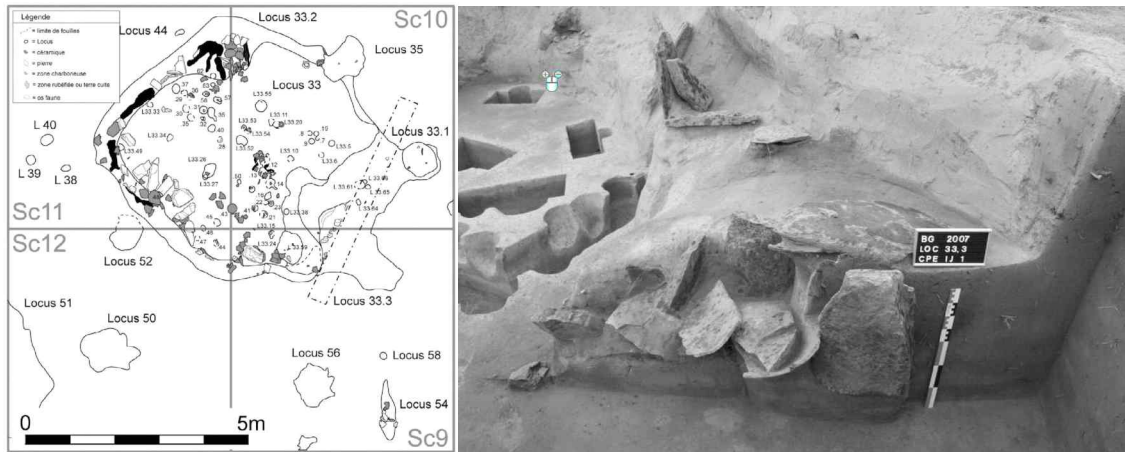


그림 7 버러성지 3호(Locus 33)호 주거지 평면도 및 구들 세부(Ts. 투르바트 외, 2008)

2. 제련용 송풍관과 철기 제작용 송풍관

중부지역에서 주로 확인되는 철기 제작용 송풍관과 초원지역에서 확인되는 철 생산용 송풍관을 비교해보고자 한다. 공정상에 차이에도 불구하고 형태적인 유사성이 주목된다.

5) 한편, 제련제로 추정되는 철재 1점이 혼입된 것이 확인되었다(사사다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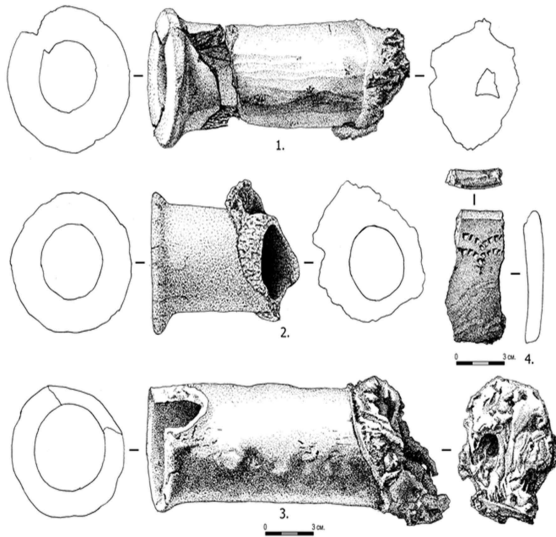


그림 8 트로츠키노-류유적 출토 송풍관
(П. Б. Амзараков,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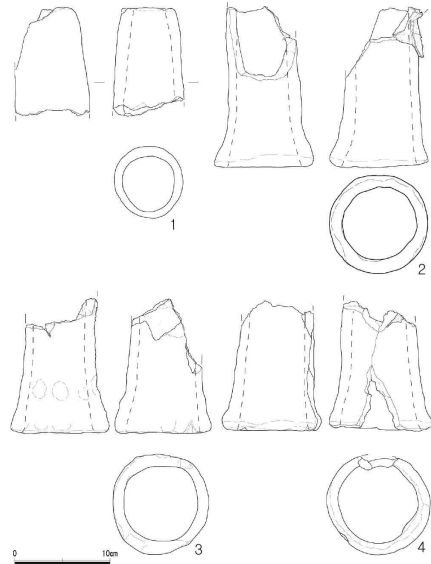


그림 9 호스틴볼락유적 출토 송풍관
(Л.Ишцэрэн, Т.Саада, 2018)

트로츠키노-류유적에서 확인된 제련용 송풍관⁶⁾은 기부 직경이 6cm 내외이다. 송풍관의 전체 길이는 6~20cm로 사용 횟수에 따라 길이의 차이가 있다. 내부 구멍의 형태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2로 볼 때 원통형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18년 현지조사에서는 기부와 선단부의 차이가 있는 것이 확인된 바 있다. 따라서 이 유적에는 적어도 2종류의 송풍관이 존재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몽골공화국 헤레렌강유역 호스틴 볼락에서도 송풍관 수점이 확인⁷⁾되었다. 특히, 2개의 송풍관이 노벽에 부착된 상태로 복원되는 것도 확인되고 있어 하카시아지역 제련로 분류 3형식과 유사한 것이 확인된 바 있다. 이곳에서 확인된 송풍관은 길이 16.6cm, 기부 외경 10.2cm, 내경 7.2cm, 선단부 외경은 3.2~6cm이다.

중부지역에서는 연천 삼곶리유적과 홍천 철정리유적의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천 삼곶리유적에서는 3점의 송풍관이 주거지에서 출토되었고 홍천 철정리유적에서는 완형의 송풍관이 A-3호 주거지에서 출토되었다. 연천 삼곶리유적 2호 주거지 출토품은 길이 약 35.6cm로 중부지역에서 출토된 송풍관 중에 가장 길다. 홍천 철정리유적 출토품은 길이 약 10.4cm이다.

6) П. Б. Амзараков, 2014, «РАСКОПКИ ДРЕВНЕГО МЕТАЛЛУРГИЧЕСКОГО КОМПЛЕКСА ТАШТЫКСКОГО ВРЕМЕНИ В РАЙОНЕ СЕЛА ТРОШКИНО ШИРИНСКОГО РАЙОНА РЕСПУБЛИКИ ХАКАСИЯ», 『Народы и культуры Южной Сибири и сопредельных территорий』, Материалы Международной научной конференции, посвящённой 70-летию Хакасского научно-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ого института языка, литературы и истории.

7) Л.Ишцэрэн, Т.Саада, 2018, «Ш. ХУСТЫН БУЛАГИЙН ТӨМРИЙН ЗУУХНЫ СУДАЛГАА», 『ЗҮҮН БАЙДЛАГИЙН ГОЛЫН САВ ДАХЬ АРХЕОЛОГИЙН ДУРСГАЛУУД』, NEW RESEARCHES ON MONGOLIAN ARCHAEOLOGY" SERIES – V, Редактор Ч.Амартүвшин 편.



그림 10 중부지역 철기제작용 송풍관(①연천 삼국리 2·11·15호住, ②홍천 철정리유적 3호住)

초원지역과 한반도 중부지역에서 확인된 송풍관은 크기의 차이는 있으나 철기 제작용 송풍관이나 제련용 송풍관은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점토로 제작하였다는 공통점을 보여주고 있다. 즉, 송풍관은 전문적인 송풍관 제작자가 아닌 철(철기)생산 장인의 자체 생산 가능성을 뚜렷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초원지역에서 유행하였던 괴련철(≡(반)환원괴) 생산을 목표로 조업을 하였던 제련로의 송풍관과 중부지역 철기 생산용 단야로 송풍관의 유사성은 확인된다. 그러므로 한반도 중부지역 일원에서 확인되는 단야로와 초원지역의 괴련철(≡(반)환원괴) 생산을 목표로 한 철 생산 공정은 유구의 차이가 있지만 동일한 철, 철기생산의 계보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IV. 맺음말

환동해지역의 철(철기) 생산 공정의 원향은 묵시적으로 중원지역에서 전파된 것으로 인식하여왔다. 그리고 그 제작 기술은 전쟁, 이주 등의 요인으로 전파되었을 것이라고 이야기 되어왔다. 특히, 선철 생산은 한반도를 포함한 환동해지역에서 용이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한계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많은 발굴과 금속학적 분석(!)이 이루어진 한반도 중부지역 자료를 살펴보면 괴련철(≒(반)환원괴)의 정련단야와 단련단야를 통한 철기 생산과 충주 칠금동을 중심으로 한 제련로가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철(철기) 생산 기술은 중국의 중원지역에서 전파되었을 것이라고 보아왔던 선철 생산 기술이 확인되지 않는 환동해지역에서는 그 계보를 달리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시기, 지역차가 있지만 초원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지하식 제련로’를 통한 철생산 기술의 전파와 발전이 환동해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검토해 보았다.

적어도 관행적으로 보아오던 중원 중심의 전파론적 사고에서 선사시대 이래로 진행되어 오던 북방지역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의 결과가 괴련철(≒(반)환원괴) 생산과 철기의 생산으로 환동해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검토해 보았다.

물론, 선철을 통한 단조철기의 생산은 가능하나 철판을 만들어 단조용 소재를 만드는 과정에 대한 자료의 부재와 금속학적 분석이 통계학적 의미를 가질 만큼 이루어지지 않아 한계는 있다는 점은 이번 발표의 한계라고 생각한다.

濊文化의 형성과 확산양상

- 중도유형문화를 중심으로 -

유은식(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목차

I. 머리말

II. 문헌자료로 본 濊의 시공간적 위치

III. 濊의 고고학자료 검토

1. 북한지역의 고고학자료
2. 중부지방 중도유형문화의 관련성

IV. 중도유형문화로 본 예문화의 형성과 확산 양상

1. 중도유형문화의 출현기 양상
2. 한중도유형문화의 형성과 확산 양상

V. 맺음말

I. 머리말

濊는 한반도 중북부지역에 위치하였던 고대 정치체로서 부여, 옥저와 함께 예족사회를 구성하는 주요집단으로 이해되고 있다. 예에 대한 연구는 주로 『三國志』東夷傳, 『三國史記』등 문헌기록을 토대로 이루어졌는데, 최근 들어 중부지방 원삼국문화와 관련해서 고고학적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고고학자료를 통해 정치체와 종족성의 동태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물질문화의 다양한 측면을 간과하거나 단편적인 자료로 잘못된 해석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물질문화를 통해 정치체와 종족성을 제한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입장(이성주 2017)에서 고고학자료와 문헌자료의 합리적인 비교검토가 선행된다면 그러한 오류를 줄일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점을 염두해두면서 본 발표문은 우선 문헌기록과 기존 연구성과를 검토하여 예의 대략적인 시공간적 위치를 살펴보고자 한다. 예의 중심지로 추정되는 북한지역 고고자료와 중부지방 원삼국문화를 검토하여 양 지역 물질문화의 유사성을 제기한다. 마지막으로 중부지방의 중도유형문화의 출현기 양상을 통해 예의 형성과정과 확산양상의 일면을 밝히고자 한다.

II. 문헌자료로 본 濊의 시공간적 위치

기원후 3세기 중엽 무렵에 편찬된 『삼국지』魏書 東夷傳에는 濊의 시공간적 위치를 알려주는 기록이 있다. 예는 남쪽으로 辰韓, 북쪽으로 高句麗·沃沮와 접하고, 동쪽으로 大海에 닿았으니 오늘날 朝鮮의 동쪽이 모두 그 땅이다¹⁾라는 기사이다. 이를 통해 예의 대략적인 범위는 한반도 중북부 일대로 비정되었다(李丙燾 1976).

예도 韓과 貊과 같이 하나의 고정된 종족집단이 아니었다. 중국인들이 東夷社會에 대한 개념과 인식의 확대에 따라 달리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권오영 2010). 先秦文獻과 『史記』, 『漢書』와 같은 漢代文獻에는 濊, 貊, 濊貊 등으로 혼용되어 사용된 점에서 그러하다. 특히 『史記』와 『漢書』에는 穢貉이 夫餘, 朝鮮, 眞番 등의 지역집단과 함께 등장한다²⁾. 이 예맥으로 불린 집단 중에는 예족집단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 분포지역을 중국 동북지역과 한반도 북부지역으로 추정하기도 한다(김창석 2014). 이 지역에서 철기문화가 성립되고 발전하는 기원전 3~2세기 무렵에 부여, 옥저, 예와 같은 濊系 文化圈(김창석 2008·2014) 내지는 濊族共同體 社會(윤선태 2013)가 광범위하게 존재하였을 것으로 이해된다. 이를테면 부여는 “濊王之印”과

1) 『三國志』魏書 東夷傳 濊, “濊南與辰韓, 北與高句麗·沃沮接, 東窮大海. 今朝鮮之東皆其地也”.

2) 『史記』卷110, 匈奴傳, “是時漢東拔穢貉·朝鮮以爲郡”.

『史記』卷129, 貨殖列傳, “北鄰烏桓·夫餘, 東綰穢貉·朝鮮·眞番之利”.

“濊城”이 있었다는 기록³⁾으로 보아 적어도 기층집단은 예로 추정할 수 있고, 옥저는 평양 정백동 1호묘 출토 “夫租濊君” 銀印의 존재로 볼 때 토착 지배세력은 예족임을 알 수 있다. 한반도 중북부지역에서도 기원전 2세기 무렵에는 예족으로 구성된 臨屯集團이 형성되었다고 보여진다(이현혜 1997).

표 1 예의 역사적 변천

연대	문헌 내용	출전
BC 2세기 무렵	임둔집단 형성	
漢 武帝 元封3年(BC108)	진번과 임둔의 고지에 眞番郡과 臨屯郡 설치	『漢書』武帝紀6
漢 昭帝 始元 5年(BC82)	임둔과 진번을 혁파하여 樂浪과 玄菟에 병합	『後漢書』東夷傳 濊
BC75年	고구려에 의해 현토군 축출, 단단대령 이서는 낙랑에 속하고, 이동의 7현은 東部都尉에 이관	『三國志』東夷傳 濊 『三國志』東夷傳 東沃沮
漢 光武帝 建武 6年(AD30)	동부도위 폐지 이후 侯國이 됨	『三國志』東夷傳 東沃沮
正始 6年(AD245)	동예가 고구려에 복속하자 낙랑태수 劉茂와 대방태수 弓遵이 영동예를 정벌하여 不耐侯 등이 항복	『三國志』東夷傳 濊
正始 8年(AD247)	魏조정이 不耐濊王으로 봉함	『三國志』東夷傳 濊
儒理尼師今 17年 (기원조정 3세기 중엽)	화려와 부내가 신라의 북쪽 경계를 침범	『三國史記』新羅本紀1

임둔은 한군현 설치시 臨屯郡으로 편제되었다가 군현 경영의 어려움으로 임둔군이 폐지될 때 낙랑군과 현토군에 분할, 이속되었다⁴⁾. 기원전 75년에 현토군이 요동방면으로 축출될 때 철령 내지는 낭림산맥으로 비정되는 單單大嶺의 이서 지역은 낙랑군이 직접 관할하였고, 그 이동 지역은 東部都尉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⁵⁾ 예집단은 嶺西濊와 嶺東濊(東濊)로 분화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윤용구 2010; 윤선태 2013; 金在弘 2015). 이것은 정백동 364호분 출토 “樂浪郡 初元 四年 戶口簿”의 현별 기록 분석을 통해서 뒷받침되고 있다. 동부도위가 설치된 영동에 지역과 낙랑군이 관할하는 영서에 지역에서 漢의 지배체제가 동일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대한 다른 의견(김병준 2015)도 있으나, 아무래도 영동에 지역은 군현지역보다는 차등적이고 완화된 통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정성민 2009). 이러한 정치사회적 상황은 종족 계통이 동일하지만 영서예와 영동예의 물질문화의 지역차가 생기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기원후 30년 동부도위가 폐지됨에 따라 영동에는 실질적으로 독립적인 漢의 侯國이 되었다⁶⁾. 이후 영동에는 고구려에 복속되는데, 구체적인 시기를 알 수 있는 기록은 없다. 그 시기

3) 『三國志』魏書 東夷傳 夫餘, “其印文言「濊王之印」, 國有故城名濊城, 蓋本濊貊之地”.

4) 『後漢書』東夷傳, 濊, “至昭帝 始元五年, 罷臨屯·眞番, 以并樂浪·玄菟”.

5) 『三國志』魏書 東夷傳 濊, “自單單大山嶺以西 屬樂浪, 自嶺以東七縣, 都尉主之, 皆以濊爲民.”

『三國志』魏書 東夷傳 東沃沮, “漢以土地廣遠, 在單單大嶺之東, 分置東部都尉, 治不耐城, 別主嶺東七縣.”

6) 『三國志』魏書 東夷傳 東沃沮, “漢建武六年, 省邊郡, 都尉由此罷. 其後皆以其縣中渠帥爲縣侯, 不耐華麗·沃沮諸縣皆爲侯國”.

에 대해서는 기원후 1세기 전반으로 보는 견해(이현해 1997)와 기원후 3세기 초로 보는 견해(김창석 2014)로 나뉘어 있다. 영예는 기원후 3세기 중반에 낙랑·대방태수의 공격을 받아 魏에 복속되었다. 낙랑군과 대방군의 영향력이 약해지면서 고구려가 다시 영동예를 복속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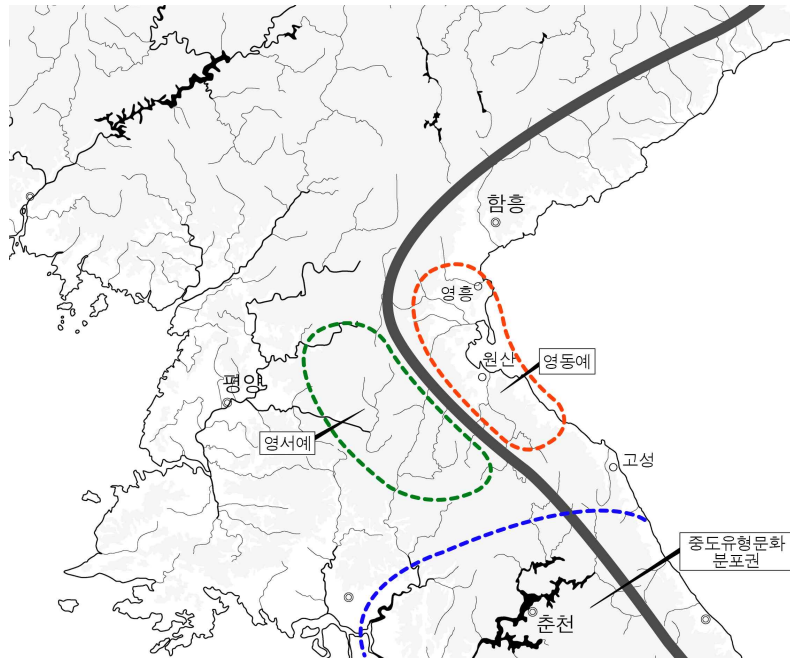
이와 같이 예에 선행하는 임둔은 기원전 2세기 무렵에는 지역집단으로 발전하였고, 위만조선→한군현(낙랑군, 현토군, 동부도위)→侯國→고구려→魏→고구려 순으로 정치적 간섭을 받아왔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외부의 영향이 점차 약화되어 독립적인 지역집단으로 발전하였고, 독자적인 사회와 문화를 유지하면서 존속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예에는 大君長이 없고 侯·邑君·三老가 下戶를 통치하였고, 不耐濊王은 백성들 사이에 섞여 살았다는 기록⁷⁾으로 보아 부여와 같은 고대국가로 발전하지 못하였고 읍락사회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이현해 1997; 정성민 2009; 문창로 2016).

다음으로 예의 공간범위를 살펴보겠다. 영동예를 구성하는 주요 집단은 동부도위 소속 영동칠현 중에서 남옥저와 관련 있는 부조현을 제외하고 6현이었다. 이 6현의 위치를 비정하는 것은 문헌기록이 충분하지 않고 고고학적 발굴조사로도 뒷받침되지 않아 분명한 한계가 있다. 역사지리학적으로 영동예의 각현들을 비정한 이병도(1976)는 임둔군의 치소인 東曉縣을 덕원군(현 원산시) 일대, 동부도위의 치소인 不耐縣을 안변과 원산 일대⁸⁾, 華麗縣을 영흥, 邪頭味顯을 문천과 고성 일대, 그리고 前莫縣과 蠶台縣을 평강과 회양으로 추정하였다. 영동예의 북계는 함경남도 정평에서 남옥저와 경계를 이루고, 남계는 평강·회양 등 강원도 북단 일대로 비정한 것이다. 이 견해는 대체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되지만, 남계로 비정된 평강군과 회양군은 태백산맥의 서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다소 조정이 필요하다. 『三國史記』地理志의 '신라 북계의 溟州는 濊의 고국이다'라는 기록 등을 참고하면 예의 남계는 강원도 고성 이남지역으로 내려볼 여지도 있다고 생각된다.

7) 『三國志』魏書 東夷傳 濊, "其八年, 詣闕朝貢, 詔更拜不耐濊王. 居處雜在民間".

8) 도유호는 불내현을 소라리토성이 있는 영흥 일대로 비정하였다.

도유호, 「신천 명사리에서 드러난 고조선 독널에 대하여」『문화유산』 62-3, 1962.



도면 1 예의 공간범위

영서에는 현도군 축출 이후 문헌에는 보이지 않아 그 실체가 명확하지 않았다. 고대사학계에서『三國史記』百濟本紀에 등장하는 ‘靺鞨’과 ‘樂浪’의 실체를 영서으로 비정하는 견해(윤선태 2001; 김창석 2014)가 지지를 받고 있으므로, 영서에는 백제의 북변과 동변에 자리잡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영서에는 ‘樂浪郡 初元 四年 戶口簿’의 3그룹에 해당되는 5현의 존재로 구체화되었다. 그 首縣인 遂成縣은 황해도 북단의 수안, 鏤方縣은 평남 양덕 일대, 呑列縣은 열수(대동강) 상류지역인 영원 일대, 溟水縣은 영변 일대, 渾彌縣은 평원으로 추정한 바 있다(李丙燾 1976). 최근에는 당시 교통로와 군사적 거점지역 등을 고려하여 패수현과 혼미현을 각각 자강도 회천과 맹산으로 조정하기도 하였다(윤선태 2013). 그런데 평안남도 영원군, 덕천시, 평원군지역은 고고학자료로 볼 때 예지역으로 보기 어렵다. 물론 이 지역의 유적과 유물이 충분하지 않아 확실하지 않지만, 청천강 남안의 영원 온양리와 덕천시 청송동에서 명도전, 포전 등을 매납한 退藏遺蹟이 확인(유정준 1958)되므로 ‘세죽리-연화보유형문화’에 속하는 지역이다. 또한 평원군은 서해안지역에 위치해 있어 영서예의 비정지로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영서예 지역은 기존의 견해보다 더 남쪽으로 내려볼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결국 예는 영동칠현으로 대표되는 영동예와 단단대령 이서지역의 영서예로 구분된다. 특히 임둔군과 동부도위의 치소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원산과 안변 일대와 ‘樂浪郡 初元 四年 戶口簿’의 3그룹의 수현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황해도 수안 일대가 예의 중심지역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삼국사기』 지리지의 기록, 예가 성장하면서 경기 북부와 강원 이남으로 확산되었다는 견해(김창석 2018), 중부지방 고고학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예의 남쪽 일부는 강원도지역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Ⅲ. 濊의 고고학자료 검토

1. 북한지역의 고고학자료 검토

濊의 문화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예의 중심지역인 강원도 북부와 함경남도 남부(이하 영동 북부로 칭함), 평안북도와 황해북도 동부지역(이하 영서 북부로 칭함)의 고고학자료를 우선 살펴보아야 한다. <표 2>에서 보듯이 청동기와 철기가 출토된 유적은 약 21개소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지표수습 또는 간략한 수습조사에 의해 확인된 것으로 자료의 해상도가 극히 낮은 문제가 있으나 대략적이지만 물질문화의 변화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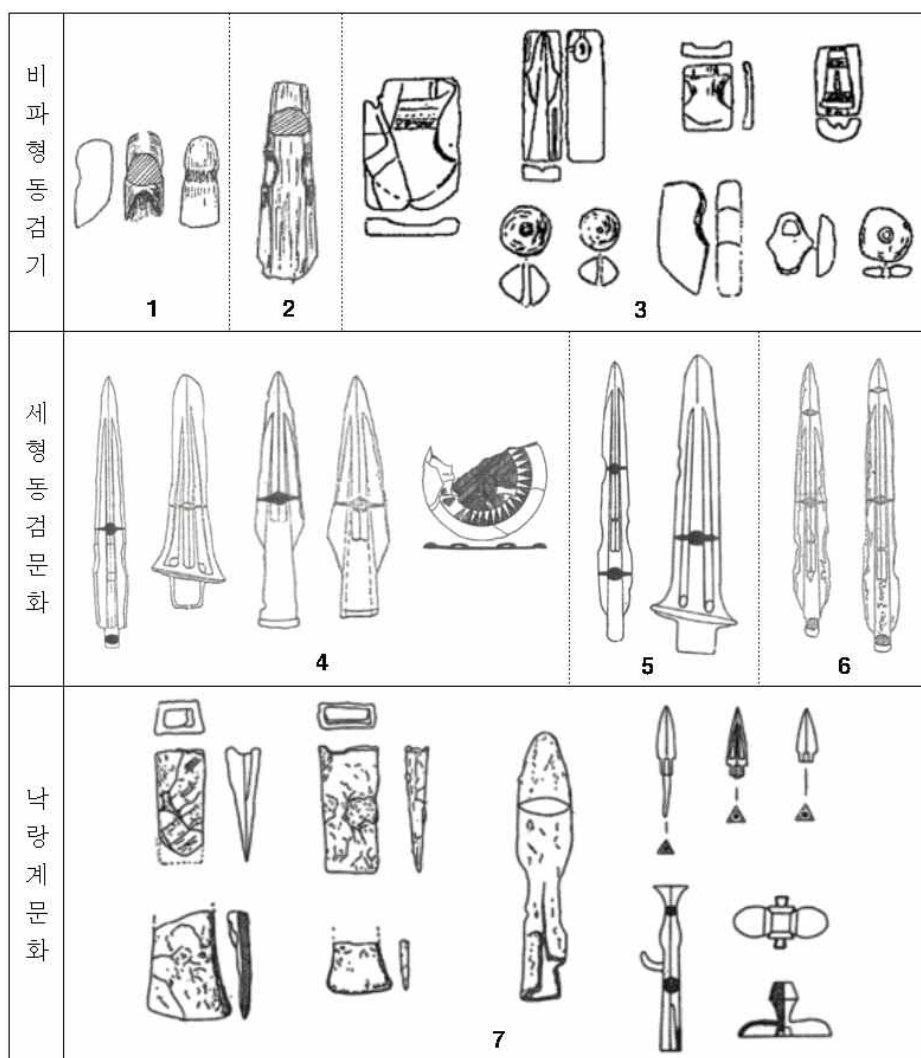
표 2 북한 동북한지역의 청동기와 철기 출토유적 현황

지역	유적명	출토유물	유적성격	출전
영동(함남)	금야군 금야읍	비파형동모·선형동부·동령 거푸집	취락유적	고고민속 1965-2
영동(함남)	금야군(인흥군) 룡산리	세형동검3, 동과1, 동모1, 세문경1, 검파두식1	움무덤	고고학자료집 4 고고학자료집 6
영동(함남)	금야군(인흥군) 련동리	세형동검2	움무덤	고고학자료집 4
영동(함남)	금야군 소라리	철부, 철경동촉, 철검 등	토성, 귀틀무덤	고고학자료집 4
영동(강원)	문천군 남창리	세형동검, 동과	움무덤	고고학자료집 6
영동(강원)	원산시 중평리	흑색토기, 회색토기	유물산포지	문화유산 1958-6
영동(강원)	원산시 중평리	세형철촉	유물산포지	량익룡 1961
영동(강원)	통천군 신대리	유구석부	유물산포지	량익룡 1961
영동(강원)	통천군 가흥리	유구석부	유물산포지	량익룡 1961
영동(강원)	통천군 하수리	세형동검	유물산포지	문화유산 1961-6
영동(강원)	통천군 통천읍	활촉거푸집, 동검용범	수습유물	조선고고연구1997-3 藤田亮策 梅原末治 1947
영동(강원)	고원군 미둔리	세형동모	동굴유적	조선고고연구1998-1
영서(평남)	성천군 룡산리	청동편, 석부, 팽이형토기	무덤	조선고고연구1995-1
영서(평남)	성천군 백원로동자구(자산리)	세형동검	고인돌	조선고고연구1996-4
영서(평남)	순천시 룡본리	비파형동검, 동부, 동모	석관묘	조선고고연구1996-4
영서(평남)	순천시 순천동	동부	유물산포지	조선고고연구1996-4
영서(평남)	순천시	세문경	유물산포지	문화유산 1958-6
영서(평남)	맹산군	세형동검, 세문경, 거푸집, 회색토기	수집유물	조선고고연구1996-3
영서(평남)	북창군 남양리	세형동검, 거푸집, 회색토기	수집유물	조선고고연구1996-3
영서(평남)	덕천시 남양동	비파형동모	취락유적	서국태·지화산 2002
영서(개성)	장풍군 국화리	동과	유물산포지	고고학자료집 6

영동 북부지역에서는 영흥평야와 안변평야가 넓게 펼쳐진 영흥만 일대를 중심으로 유적이 확인된다. 보고된 유물로 보아 대체로 비파형동검문화→세형동검문화→낙랑계문화로 변화한다.

잘 알려진 금야유적에서는 요령식동모, 선형동부, 방울거푸집 등 비파형동검문화와 관련 있는 곱돌 거푸집이 4점이 출토되었다. 토기는 구연부에 공렬문이 있고, 동체 중상위에 꼭지형파수가 달린 전형적인 금야유형토기가 공반되었다(서국태 1965). 통천군 일대에서도 동검거푸집과 유구석부 등이 수습된 유적들이 보고되었다.

세형동검문화기에 속하는 유적으로는 금야군 룡산리·련동리, 문천군 남창리, 통천군 하수리, 고원군 미둔리유적이 있다. 세형동검, 동모 등 청동기만 알려져 있어 철기의 공반여부는 불명확하다. 남옥저의 중심지역으로 추정되는 함흥, 함주, 홍원 일대 다음으로 세형동검문화 유적이 분포하는 점에서 임둔집단의 중요한 거점지역으로 추정된다.



도면 2 북한 강원도 동해안지역의 고고문화 변천

1: 통천 신대리유적, 2: 통천 가흥리유적, 3: 금야유적, 4: 금야 룡산리유적,
5: 금야 련동리유적, 6: 문천 남창리유적, 7: 금야 소라리유적

낙랑계문화기에 속하는 대표적인 유적은 화려현의 치소로 추정(이병도 1976)된 바 있는 금

야군 소라리토성이다. 이 토성 주변에서 귀틀무덤이 확인되어 서북한지역의 낙랑문화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것은 확실하다. 부채꼴 철부, 철모, 동경동축, 동북 등 다수의 낙랑유물이 출토되었다. 이 유적의 연대는 한사군 설치 이후부터 동부도위가 폐지되는 기원후 30년 무렵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유은식 2018). 이외에도 세형철촉과 회색토기가 수습된 원산시 중평리유적(량익룡 1961)도 이 시기에 속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영서 북부지역의 물질자료는 영동 북부지역보다도 알려진 유적이 많지 않다. 북한의 '조선력사유적유물 지명표(궁성희 1995-1·1996-3·1996-4)에 의하면, 평안남도 순천시 룡본동과 순천동유적에서 비파형동검이, 덕천시 남양동유적에서 비파형동모가 수습되었다. 그리고 성천군 자산리와 맹산군 일대에서 세형동검이 출토되었고, 순천시 일원에서 세문경이 알려져 있을 뿐이다.

이러한 북한의 단편적인 고고자료를 통해서 몇가지 고고학적 사실이 확인된다. 즉 영동 북부와 영서 북부지역는 비파형동검문화에서 세형동검문화로 발전하는 것으로 보아 동일한 문화권이었다. 또한 남옥저로 추정되는 함흥 일대의 문화상과도 공통되는 점이 많은데 이는 양 지역집단의 종족계통이 같다는 문헌기록을 뒷받침해준다. 마지막으로 예가 형성하고 발전하는 기원후 1세기 후반에서 3세기의 고고학자료가 없다는 점이다. 이는 남옥저지역에서도 확인되는데 그러한 연유에 대하여 향후 자세히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⁹⁾.

2. 중부지방 중도유형문화의 관련성

중부지방 중도유형문화¹⁰⁾는 경질무문토기(중도식무문토기)·회(흑)색무문토기(낙랑계토기)·타날문토기의 공반, 출입시설이 있는 묘자형 또는凸자형 주거지, 葺石式積石墓를 표지로 해서 설정된 고고문화로서 그 시공간적 분포범위를 통해 濊係集團의 문화로 처음 인식되었다(朴淳發 1996). 이후『三國志』東夷傳 濊傳의 풍습기사¹¹⁾와 중도유형문화가 유사함이 지적되어 학계의 중심 견해로 자리잡고 있다. 가령 취락유적이 산과 하천을 자연 경계로 입지하는 특징과 주거지의 높은 화재울과 방화 폐기양상(池賢柄 1999; 박중국 2017), 그리고 土器倒置埋納, 토우, 미니어처 투기 등의 의례행위 등은 예의 고유한 풍습을 반영하는 고고학자료로 보고 있다(박경신 2018).

반면에 강원도 전역과 임진·한탄강유역, 한강 하류 등에 넓게 퍼져 있는 중도유형문화의 범위 전체를 예의 공간적 범위로 간주하게 되면 마한의 위치가 충청 이남으로 내려가야 하는 문제점(윤용구 2016; 박준형 2018)도 제기되었다. 사실 중도유형문화의 정치체와 종족성을 '예

9) 기원후 3세기의 읍루유적이 연해주 남부와 흑룡강 중하류지역에서 다수 확인되는 양상과 뚜렷이 대비된다.

10) '중도유형문화'의 명칭에는 두 개의 고고학적 분석단위가 포함되어 있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즉 유형(assemblage)과 문화(culture)가 함께 사용된 사례인데, 일반적으로 유형은 문화의 하위 개념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고(이청규 1988), 유형과 문화의 개념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문화로 일괄하여 사용하는 점(최중규 2008)에서 '중도문화'로 부르는 것이 더욱더 적절하다고 생각된다(박중국 2012). 그러나 학계에서 '중도유형문화' 명칭이 널리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본 발표문에서는 이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11) 『三國志』魏書 東夷傳 濊 "其俗重山川 山川各有部分...., 多忌諱 疾病死亡 輒捐棄舊宅...."

계집단’(박순발 1996) 또는 ‘예계문화’(박경신 2018)로 표현하는 것은, 문헌기록상에 보이는 예의 중심범위와 중도유형문화의 범위가 일치하지 않는 고민이 표현된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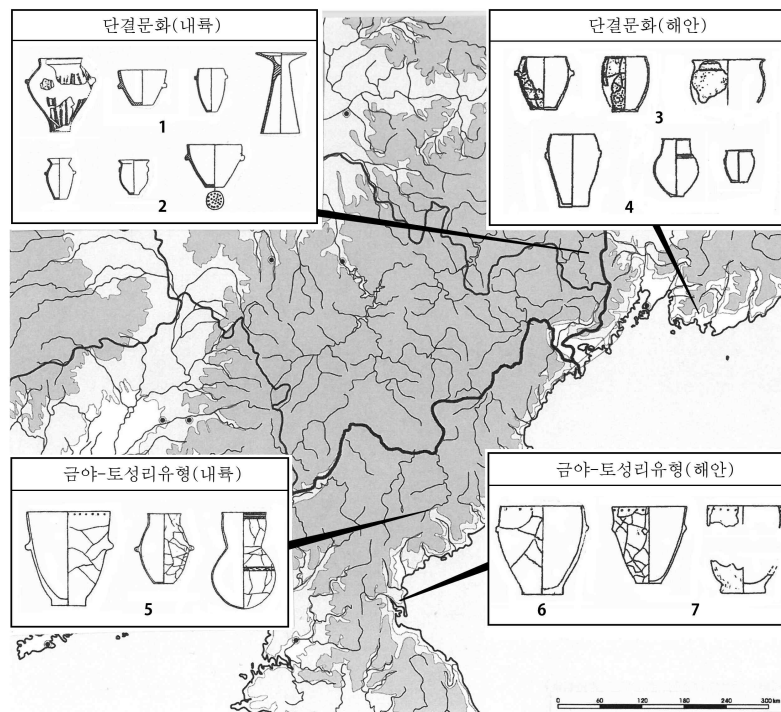
발표자는 중부지방의 중도유형문화는 예의 물질문화와 크게 차이가 없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북한지역과 강원도지역은 동일한 물질문화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영동 북부와 영서 북부지방에서 보이는 비파형동검문화와 세형동검문화가 강원지역에서도 확인되며(심재연 1998; 노혁진 2013; 강인욱 2017), 관련 유적의 밀집도가 떨어지는 점도 유사하다. 또한 금야 소라리유적에서 출토된 낙랑유물도 대성리 B지구유적, 포천 금주리유적, 가평 달전리고분, 춘천 우두동고분 등에서 확인된다(유은식 2018). 그리고 예의 물질문화 범위가 넓어지는 것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즉 북옥저의 물질문화로 추정되는 단결-크로우노브카 문화가 중국 흑룡강성 동남부의 綏芬河流域, 두만강 중하류지역, 연해주 남부까지 넓게 분포하는 점, 부여의 중심지역(길림시)에서 북으로 약 100km 떨어진 유수 노하심유적의 유물상은 부여의 중심지의 그것과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중도유형문화의 공간범위가 예의 중심지에서 다소 떨어져 있지만 동일한 문화의 범주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세부적인 지역차만 있었을 것이다.

표 3 남한 영서 및 영동지역의 청동기 출토 유적 현황

지역	유적명	출토유물	출전
영동지역	동해 망상동유적Ⅱ	유구석부	예맥문화재연구원 2010
	동해 송정동유적	유구석부	江原文化財研究所 2006
	고성 간성면	동축용범 2	藤田亮策·梅原末治 1947 金元龍 1965
	고성 거진리	동모용범	澤俊一 1923
	양양 정암리	세형동검, 세문경	金元龍 1967
	속초 조양동	선형동부	강릉대학교박물관 1992
	강릉 포남동	청동촉	李蘭暎 1964
영서지역	춘천 근교	비파형동검2	有光敎一 1928
	춘천 현암리	청동촉	예맥문화재연구원 2011
	춘천 우두동유적	비파형동검1, 동촉2	江原文化財研究所 2011
	홍천 반량리	비파형동검	國立中央博物館 1992
	횡성 강림리	세형동검2, 세문경	李康承 1977
	평창 여만리	비파형동검	김남돈 1994
	정선 아우라지유적	청동장신구	강원문화재연구소 2016
	춘천 중도유적	선형동부1, 비파형동검2	한얼문화재연구원 2014 한강문화재연구원 2016
	평창 하리 240-4번지유적	비파형동검	강원고고문화연구원 2016
	양구 고대리유적	비파형동검	강원고고문화연구원 2015

다음으로 중도유형문화의 종족성 문제이다. 일부 연구자들은 영서지역에 맥족 주민의 정치체인 맥국이 있었고, 영동지역에 예족의 예국이 있었다고 주장한다(김택균 1985·2018). 즉 양지역의 집단계통과 정치체를 달리 보는 것이다. 그 근거는 강원도 춘천지역에 맥국이 있었다는 문헌기록¹²⁾과 강원 영동과 영서의 물질문화의 세부 차이에서 비롯되었다. 즉 좁적식적석묘

(적석분구묘)와 쪽구들 등의 일부 문화요소가 영동지역에서 확인되지 않은 점을 주목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자세한 비판적 검토(김창석 2018)가 있어 더 이상의 논의가 필요 없을 듯하다. 다만 영동지역의 쪽구들에 대해 간략히 언급해두고자 한다. 동해 송정동 I(예) II-2호 주거지의 석렬(江原考古文化研究院 2011)은 후대 교란으로 보존상태가 완벽하지 않지만 그 잔존형태는 영서지역의 쪽구들과 유사하다. 길이 1.2m, 폭 0.35m의 냇돌 석렬에 대해서 발굴 보고자는 이 석렬유구를 강릉 강문동 302-1번지 등에서 출토되는 신라의 'I자형부뚜막'과 유사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강문동 신라주거지 것은 고래를 점토와 석재로 만들고, 고래 방향이 수혈 벽에서 주거지 내부로 뻗어 있는데 반해 송정동 2호주거지는 고래 일부가 수혈 벽을 따라 설치되어 있고, 이 주거지에서 신라토기가 출토되지 않는 점에서 오히려 I자형부뚜막으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쪽구들은 연해주 남부 동해안가의 불로치까, 페트로브카, 키예브카유적에서 확인되었고, 함경북도 웅기 송평동유적에서도 쪽구들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쪽구들 문화가 동해안가를 따라 영동지역까지 확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도면 3 백두대간과 시호테 알린 이동과 이서지역의 물질문화의 유사성

- 1: 단결 하층1기, 2: 단결 하층2기, 3: 불로치까,
4: 페트로브카, 5: 신명리, 6: 금야, 7: 요덕리

영서와 영동지방의 물질문화는 서로 다른 자연환경에 따른 지역성이 가미되어 있지만 동일한 물질문화 범주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단결-크로우노브카 문화의 경우, 시호테 알린 산맥 이서지역인 두만강 중하류역과 이동지역인 동해안지역의 지역차가 있다. 전자에서는 하천의 충적대지에서 유적이 확인되지만 후자에서는 주변지역을 조망할 수 있는 낮은

12) 『三國史記』 卷35, 雜誌4 地理2 “朔州 賈耽古今郡國志云 句麗之東南 濊之西 古貊地 盖今新羅北朔州”.

구릉에 유적이 입지하고 선행시기의 얀콥스키 토기가 공반하는 사례가 많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문화로 인식하고 있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청동기시대 사례이지만, 함경산맥의 이서지역에 위치한 자강도 풍서 신명리유적과 함흥과 원산일대의 금야유적에서는 모두 금야유형토기가 확인되어 동일한 문화유형으로 보인다. 다만 신명리유적에서는 서북한지역의 조롱박형토기가 공반되는 차이점이 있을 뿐이다(김동일·로철수 2013).

정리하면 영서와 영동 북부지역과 강원도지역은 동일한 문화권에 속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의 시간범위와 겹치는 중도유형문화는 예의 물질문화로 볼 수 있다. 영동과 영서지역의 물질문화의 차이는 지역성 차원의 문제로 문화계통이 다르다는 견해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IV. 중도유형문화로 본 예문화의 형성과 확산 양상

1. 중도유형문화의 출현기 양상

중도유형문화의 형성시점의 유물상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출현기 유적군을 분별하여야 한다. 기왕의 연구에서는 타날문토기의 공반여부 및 상대빈도(이강승 외 1996; 池賢柄 1999; 김성남 2004), 주거유형(池賢柄 1999; 宋滿榮 1999), 방사성탄소연대(김장석·김준규; 2016; 이창희 2016; 김준규·김영은 2017), 그리고 중도식무문토기의 기종과 기형(이준호 2003; 박순발 2009; 유은식 2011) 등이 주요한 편년기준이 되었다. 이 가운데 중도식무문토기의 기종과 기형변화가 시간성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전에는 중도식무문토기에서 시간에 따른 기형변화를 추출하기 어렵고, 하나의 토기형식이 장기간 지속한 것으로 간주한 적도 있었다. 그래서 중도식무문토기가 다량 출토되에도 불구하고 편년연구의 주된 분석대상은 아니었다. 그러나 강릉 교항리유적, 강릉 안인리유적 주거지의 중복관계를 통해 중도식무문토기의 구연속성의 변화상이 확인되었다(이준호 2003). 이것은 강릉 교항리 8호와 9호, 34호와 35호, 영월 주천리 3호와 2호, 강릉 초당동 247-11번지 3호와 2호의 중복관계를 통해서 입증되었는데, 선축된 주거지에서는 내만구연웅과 구연길이가 짧은 외반구연웅이 공반되지만, 후축된 주거지에서는 구연길이가 길고 외반도가 높은 외반구연웅이 주로 출토되고 내만구연웅의 출토빈도가 낮아진다.

그런데 내만구연웅은 미사리유적과 같이 후기 유적에서도 1~2점 공반되는 경우가 있고(김준규 2013), 짧은 구연과 긴 구연의 외반구연웅이 함께 출토되는 사례도 종종 보이고 있어 형식적 조열이 매끄럽지 않다는 지적(박중국 2017)이 있어 중도식무문토기만으로 출현기 유적을 구분하기 어렵다. 이에 점토대토기, 흑색마연토기, 파수부토기, 낙랑계토기의 공반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김무중 2017) 출현기 유적군을 추출할 필요가 있다.

1) 영서 및 경기북부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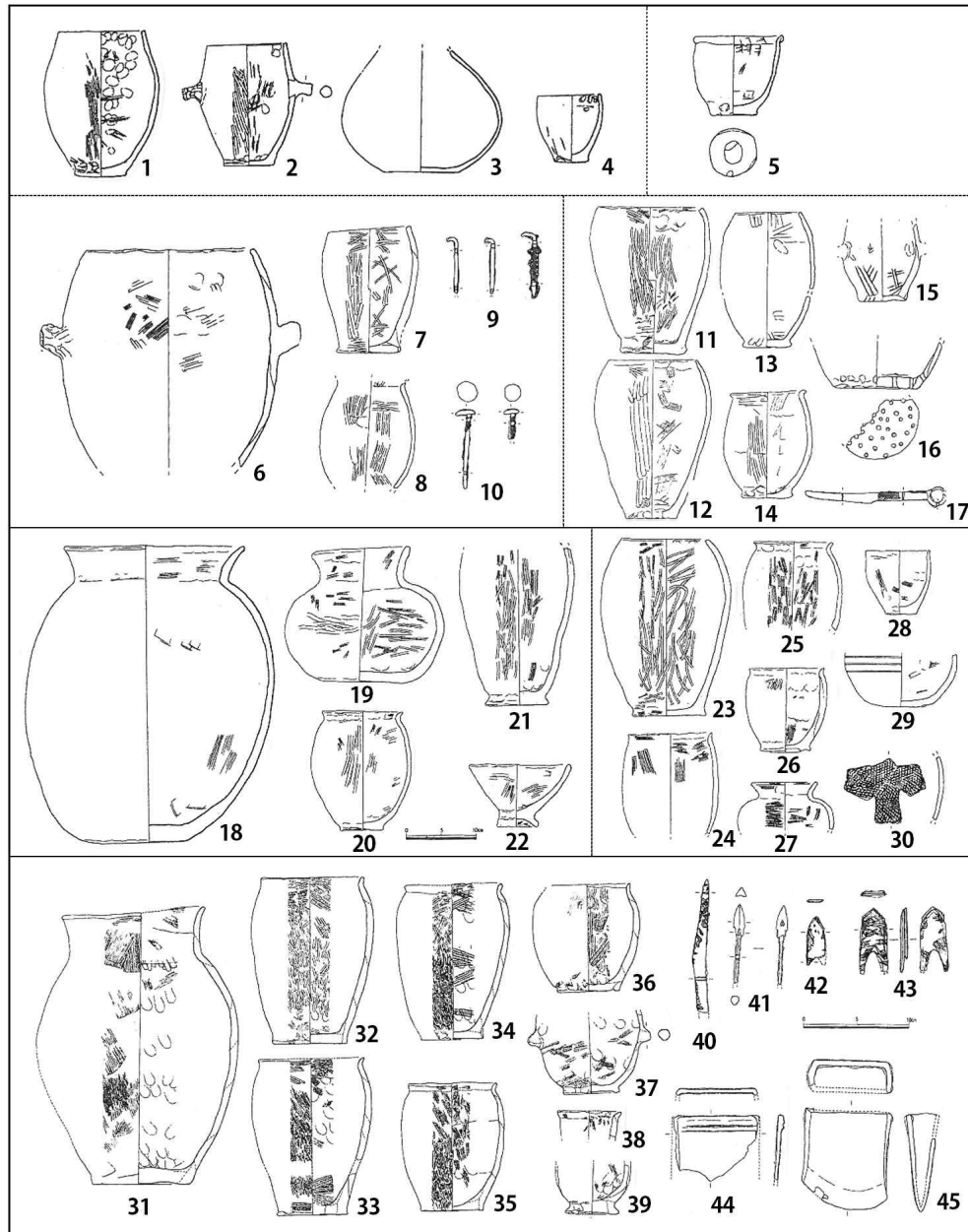
영서지역의 중도유형문화 출현기 양상과 관련하여 최근 발굴된 양수리 537-1번지 유적이 주목된다. 3호주거지와 6호수혈에서 파수부내만구연옹·내만구연옹의 중도식무문토기, 삼각형점토대토기(심발), 마연토기(호)가 출토되었다. 이것은 중부지방에서 삼각형점토대토기와 중도식무문토기가 공반된 확실한 사례로, 중도식무문토기 기종중에서 내만구연옹과 파수부내만구연옹이 가장 이른 형식임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중요하다. 타날문토기와 낙랑계토기가 공반되지 않은 점에서 박경신(2015)의 제한적인 의미의 중도식무문토기 단순기에 해당될 가능성도 있다.

또 다른 출현기 유적은 천전리 121-16번지 유적이다. 1·3·6호주거지에서 내만구연옹이 다수 출토되었고, 출토빈도는 낮지만 짧은 구연의 외반구연옹도 공반되었다. 양수리 537-1번지 유적보다 다소 후행할 가능성이 있다. 와수리 21·26호주거지와 신매대교 7·20호주거지에서는 유경호가 추가되고 짧은 구연의 외반구연옹의 출토빈도가 높으며 승문과 격자문의 타날문토기도 공반된다.

이와 같이 영서지역의 중도유형문화 출현기 유적에서는 재지의 (삼각형)점토대토기+중도식무문토기(내만구연옹, 파수부내만구연옹)+타날문토기가 공반되지만 평저단경호, 분형토기, 옹 등의 전형적인 낙랑계토기는 조합되지 않는다. 특히 중도식무문토기는 내만구연옹의 출토량이 70%를 상회하고, 동체가 세장하고 굽이 있는 형식이 주로 출토된다. 단결-크로우노브카 문화계통의 파수부내만구연옹의 출토량 비중도 높다. 반면에 타날문토기의 출토빈도는 현저히 낮다.

중도유형문화 출현기 주거지는 출입구가 없는 방형계와凸자형주거지가 확인된다. 이 가운데 철자형주거지는 출입구 쪽 벽선이 둔각을 이루고 출입구 반대쪽 벽면은 거의 일직선을 이루는 소위 ‘오각형’ 평면 형태가 다수를 점한다. 특이하게 신매대교 7호와 같이 장축 길이가 20.2m에 달하는 초대형 세장방형도 확인된다. 난방 및 취사시설은 무시설 내지는 점토띠식 노지만 확인되고, 주거지 벽면에 부가되는 쪽구들과 부뚜막시설은 조합되지 않는다.

중도유형문화의 출현시기는 가장 이른 시기로 판단되는 양수리 537-1유적 6호수혈의 삼각형점토대토기 연대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이 삼각형점토대토기에 대해서는 시흥 오이도 및 해남 군곡리 패총의 방사성탄소연대값을 비교하여 기원전 2세기 후엽에서 기원전 1세기 전반으로 보는 견해(박경신 2018)와 이른 시기의 삼각형점토대토기로 판단하여 기원전 2세기로 보는 견해(서길덕 2018)가 있다. 이외에도 6호 수혈에서 출토된 중도식무문토기 저부 내면의 토기부착탄화물의 방사성탄소연대가 $2050 \pm 20\text{BP}$ 로 측정되어 기원전 1세기로 추정하기도 한다(이창희 2018). 발표자는 기원전 1세기 전반의 대성리 B지구의 연대보다 후행하는 점, 단결-크로우노브카 문화가 북한강유역까지의 유입기간, 영남지역의 삼각형점토대토기의 중심시기 등을 감안하여 기원전 1세기 후반으로 추정하고 있다.



도면 4 영서 및 임진·한탄강유역의 중도유형문화 출현기유적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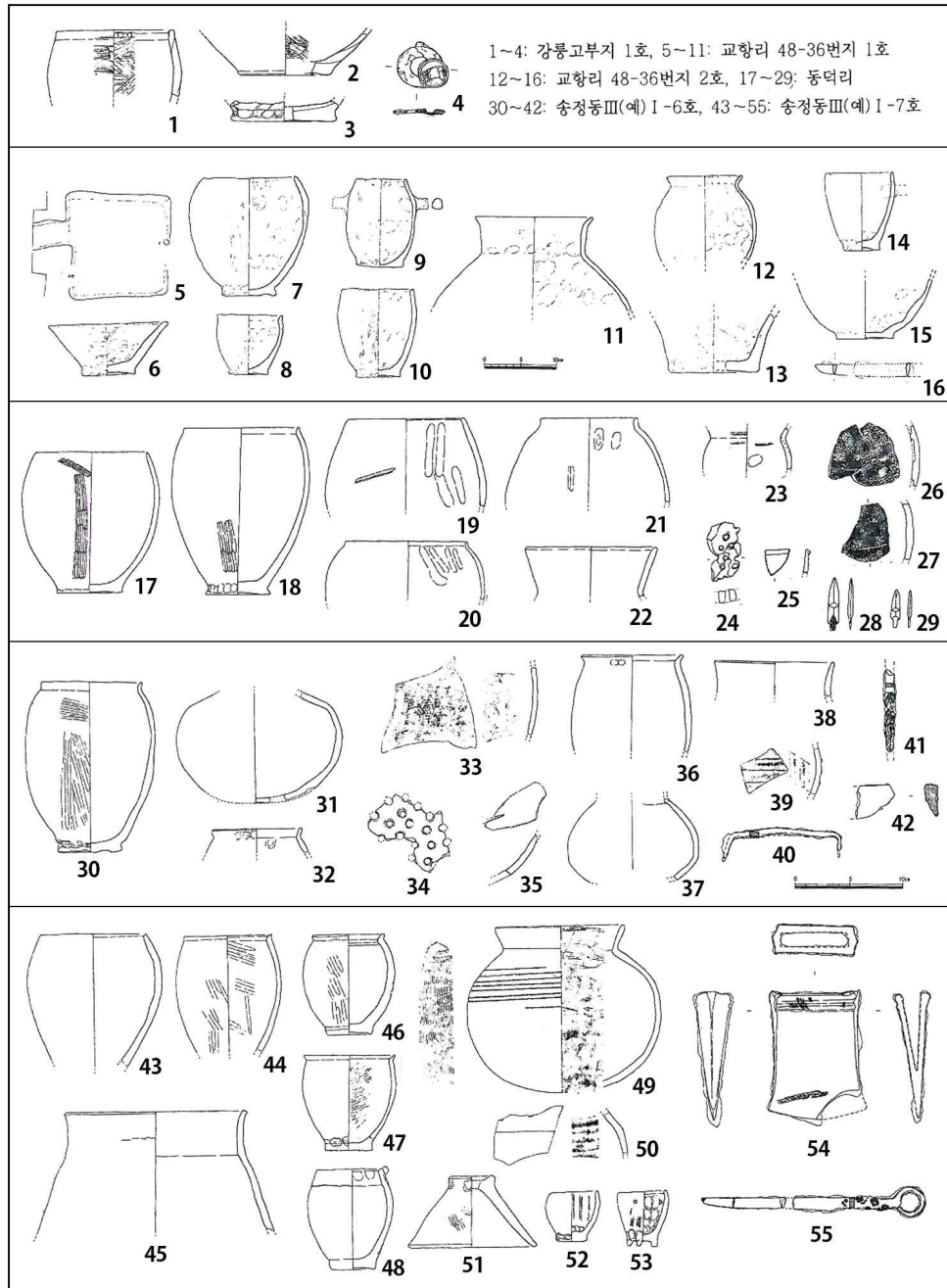
1~4: 양수리 537-1번지 3호주, 5: 양수리 537-1번지 6호주,
6~10: 천전리 121-16번지 3호, 11~17: 천전리 121-16번지 6호,
18~22: 신매대교 20호, 23~30: 신매대교 7호, 31~45: 와수리 26호

2) 영동지역

영동지역의 중도유형문화 출현기 토기 양상은 영서지역과 다소 차이가 있다. 출현기 유적은 송정동Ⅲ(예) I -5·6·7호주거지, 가평리(문) 2호주거지가 대표적인데¹³⁾, 이 유적들에서는 낙랑계

13) 강릉고부지 1호주거지(江原文化財研究所 2005)와 교항리 48-36번지 1-2호주거지(한국문화재재단 2016)에는 낙랑계토기가 공반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유적들은 1-2기의 주거지가 조사된 소규모 유적이어서 유적 전체

토기, 점토대토기, 흑색마연토기 등이 공반되는 특징이 있다. 점토대토기의 공반양상은 일찍부터 주목된 바 있는데(박순발 2009; 심재연 2009), 최근 조사된 송정동Ⅲ(예) I-6·7호주거지에서 점토대토기편과 흑색마연 동체부토기가 출토되어 그 공반관계는 더욱 확실해졌다. 출현기의 중도식무문토기는 내만구연웅의 비중이 높고, 짧게 외반된 토기와 유경호도 공반되었다.



도면 5 영동지역의 중도유형문화 출현기 유적 출토유물

영동지역 중도유형문화의 출현 연대는 강릉고부지 1호주거지 출토 오수전, 송정동Ⅲ(예) I

의 양상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추후 조사결과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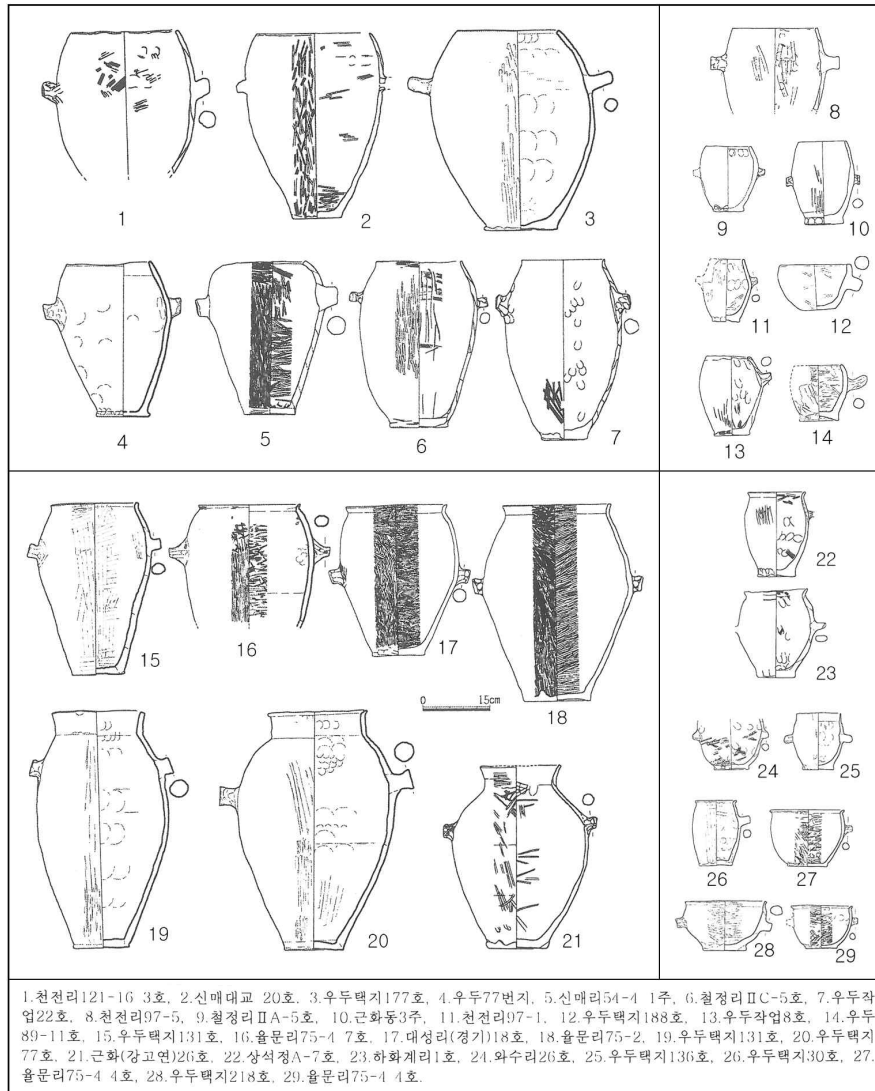
-7호 주거지 출토 二條凸帶鑄造鐵斧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강릉고부지 출토 오수전의 五와 銖의 형태를 통해서 동한의 建武 40년 무렵에 주조된 것으로 밝혀져 있어 동 주거지는 기원후 1세기 중후엽으로 비정되었다. 송정동Ⅲ(예) I-7호 주거지 출토 二條凸帶鑄造鐵斧는 유수 노하심고분의 32호묘와 41호묘 출토품보다 후행하고, 제주 용담동유적 출토품에 선행하는 것으로 보아 기원전 기원후 1세기 말로 비정된다(박경신 2016). 이 연대는 공반된 타날문 단경호와 낙랑계토기의 연대와도 대체로 부합된다. 따라서 영동지역 중도유형문화의 출현 시기는 약 기원후 1세기 후반 무렵으로 추정할 수 있다.

2. 중도유형문화의 형성과 확산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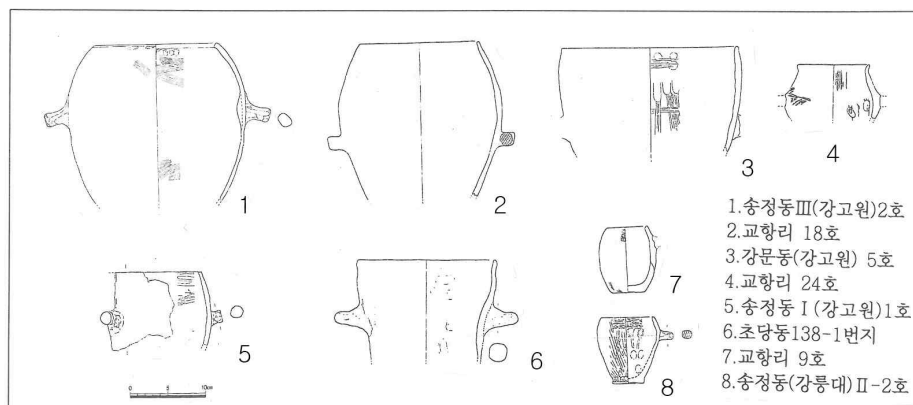
중도유형문화의 출현기 유적군을 검토한 결과, 주거구조는 장방형과凸자형주거지가 확인되었다. 토기는 점토대토기, 타날문토기, 중도식무문토기가 혼재되어 있으며 영동지역에서는 낙랑계토기도 공반된다. 이는 중도유형문화의 다원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먼저 중도유형문화의凸자형주거지의 계통에 대해서는 단결-크로우노브카 문화의 출입구 주거지와 관련되었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수보티나 2005; 유은식 2006). 이에 대해서 양문화의 주거지는 세부적으로 출입구의 위치가 다르고(심재연 2007), 노지의 위치와 출입구의 세부 형태에서 다르기 때문에 양자 간의 계보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송만영 2009). 비록 출입구의 위치와 형태에서 세부적인 차이가 있지만, 해당시기의 다른 지역에서는 출입구 주거지의 발견 사례가 없기 때문에 시·공간적으로 가장 가까운 단결-크로우노브카 출입구 주거지에서 그 계보를 찾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중도식무문토기의 여러 기종 가운데 출현기 유적에서는 내만구연옹, 짧은 구연이 살짝 외반하는 옹, 파수부토기가 주로 출토된다. 발표자는 이 토기를 단결-크로우노브카 토기와 관련지어 동북계토기로 명명한 바 있다(유은식 2006·2011). 특히 파수부토기는 동체 상위 양쪽에 주상파수(나무그루형파수)가 달린 토기로, 전형적인 단결-크로우노브카 토기로 보아도 무방할 정도로 기형이 유사하다. 이 토기는 구연 형태에 따라 내만구연토기(A류), 외만구연토기(B류), 유경옹(C류)으로 대별되는데 춘천, 홍천 등 북한강유역의 원삼국 전기 유적에서 집중 출토된다. 그 다음으로 출토빈도가 높은 지역은 영동지역으로 약 10여점이 출토되었다. 반면에 철원와수리 26호의 파수부심발토기, 하천리 Ⅱ-3호의 파수부편을 제외하면 남한강유역, 한강하류, 임진·한탄강유역, 경기남부의 유적에서는 거의 출토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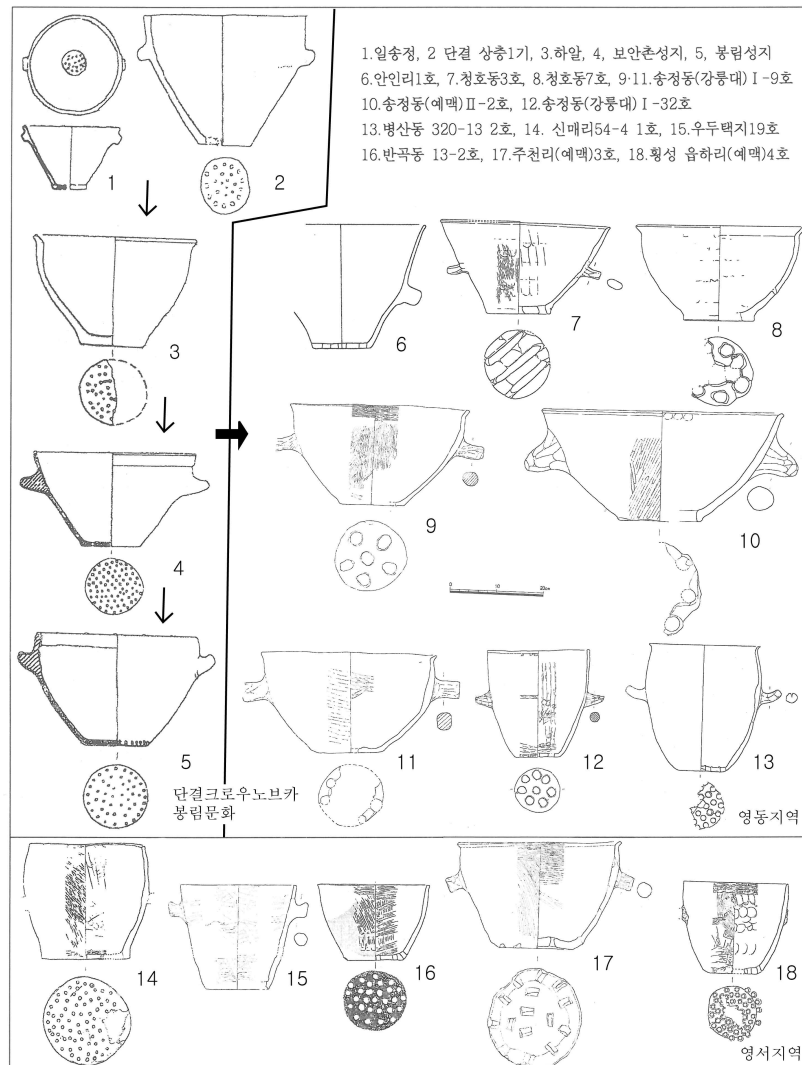


도면 6 영서지역 출토 파수부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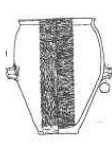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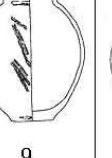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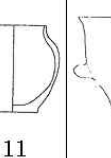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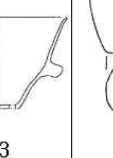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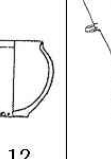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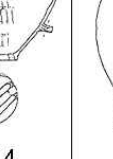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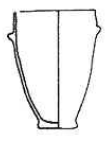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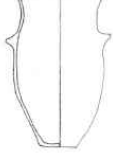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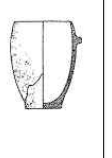




도면 7 영동지역 출토 파수부토기

출현기 유적군에서 출토되지 않지만 단결-크로우노브카 토기 전통을 충실히 반영한 중도식 무문토기 기종은 무문계시루이다. 특히 영동지역에서 출토되는 분형시루는 단결-크로우노브카 문화의 시루의 형태와 상당히 유사하다. 이 시루들이 속초 청호동 유적 등 기원후 3~4세기의 유적에서 주로 출토되는 점에서 단결-크로우노브카 토기문화의 유입시기와 경로는 단일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도면 8 강원도 출토 무문계 시루

	파수부토기				유경호	직구호	시루	일공토기
	내만구연웅	외반구연웅	유경웅	홀파수발				
중도식무문토기								
	1	3	5	7	9	11	13	15
								
	2	4	6	8	10	12	14	16
단결-크로우노브카 토기								
	17	18	19	20	21	22	23	24

도면 9 중도식무문토기(동북계)와 단결-크로우노브카 토기 비교

- 1: 신대대교부지 20호, 2: 신대리 54-4번지 1호, 3: 대성리(경기) 18호, 4: 울문리 75-2번지 1호,
5: 우두택지 77호, 6: 우두택지 131호, 7: 교항리 A-9호, 8: 송정동(강릉대)II-2호, 9: 교항리 A-2호,
10: 와수리 26호, 11: 화전리II-2호, 12: 중금리 1호, 13: 안인리 1호, 14: 청호동 3호,
15: 교항리 A-24호, 16: 청호동 1호, 17: 크로우노브카, 18: 鎭內, 19: 大城子 2호,
20-21-22: 호곡 6기, 23: 초도, 24: 大城子 2호

다음으로 중도유형문화 초기유적에서는 점토대토기가 출토량이 많지는 않지만 공반되는데 중도유형문화의 출현 이전에 점토대문화가 형성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 양 토기는 기형과 기종조합에서 차이점이 많기 때문에 점토대토기에서 중도식무문토기로의 계기적인 변화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생각된다.

타날문토기는 기왕의 연구에서 중도식무문토기보다 늦게 출현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른 시기의 유적에서도 출토되고 있어 양 토기는 출현 시기가 같거나 시차가 있더라도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타날문토기는 대부분 편으로 출토되며 승문계와 격자문이 모두 확인된다. 잘 알려져 있듯이 타날문토기는 서북한지역의 세죽리-연화보유형을 계승한 것이다. 이를 통해 중도유형문화 전체의 계보를 서북한지역으로 한정하는 근거가 되었다. 그러나 서북한지역의 일부 문화요소의 유입에 지나지 않것이다. 이를 보여주는 사례로, 대동강 상류의 삼각주지형에 위치한 북창 대평리유적이 있다. 이 유적은 3개의 문화층이 확인되었는데(정찬영 1974), 아래층과 가운데층에서는 노남리유형의 갈색무문토기가 주를 이루면서 소량의 회색노끈무늬토기(타날문토기)가 공반되었다. 다시말해 재지계토기(노남리형토기)에 서북한토기(타날문토기) 문화요소가 대동강 상류 내륙지역까지 확산된 것이다. 따라서 대평리유적과 같이 중도유형문화의 경우도 재지계토기(중도식무문토기)가 중심을 이루면서 서북한 문화요소가 복합된 것이며 여기에 선행토기인 점토대토기가 일부 잔존해 있는 것이다. 이것이 예의 문화성격이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중도유형문화의 확산과정을 살펴보겠다. 최근 중부지방에서 활발한 발굴조사에 힘입어 중도유형문화 관련 고고학자료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 모든 자료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편년체계를 마련하기 쉽지 않고 연구자간 이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편년연구 중에서 중도식무문토기, 탁날문토기, 낙랑계토기의 기종과 기형, 노지설의 조합양상을 통해 북한강 취락군, 남한강취락군, 한강 하류 취락군, 임진강취락군, 한탄강취락군 등으로 구분하여 각기 취락유적의 변화양상을 검토한 연구(박경신 2016)가 주목된다.〈표 4〉와 같이 원삼국유적을 I ~Ⅲ기로 분기하고 있는데, I 기의 세부 분기에 대해서는 발표자와 약간 차이가 있지만¹⁴⁾ II ~Ⅲ기의 유적 편년은 필자도 동의하고 있다.

14) 가평 대성리 제1주거군(B지구), 달전리 목관묘, 춘천 우두동목관묘 등에서는 중도식무문토기가 미공반되어 중도유형문화 유적으로 보기 어렵다.

표 4 중부지방 원삼국 취락유적의 수계별 편년(박경신 2016 일부 수정)

분기	북한강 취락군	남한강 취락군	한강 하류 취락군	임진강 취락군	한탄강 취락군	기타 취락군
원삼국 I기	○가평대성리제1주거군 ○홍천철정리ⅡA-5호					
	○분묘:가평달전리목관묘 ○분묘:춘천우두동목관묘 ○분묘:천전리·울문리(오수전)					
	○춘천천전리121-16 ○춘천신매리주거					
	○춘천신매리3주거군			○철원와수리		
원삼국 II기	○가평대성리2주거군 ○홍천철정리Ⅱ2주거군 ○양구고대리1주거군			○포천영송리		
	○가평대성리3주거군 ○춘천우두동 ○화천거례리1주거군 ○양구고대리2주거군					
	○가평대성리4주거군 ○화천거례리2주거군	○영월삼옥리	○구리교문동1주거군	○연천강내리1주거군 ○연천삼꽃리1주거군 ○연천합수리1주거군		○화성발안리1주거군
원삼국 III기	○춘천장학리 ○춘천울문리335-41주거군 ○춘천천전리(강문소)	○충주하천리F-1 ○횡성학답리 ○단양수양개 ○영월방림리	○하남미사리1주거군 ○남양주장현리1주거군 ○풍납토성(미래2·18·19주) ○구리교문동2주거군 ○광주장지동1주거군 ○광주신대리1주거군	○연천강내리2주거군 ○연천삼꽃리2주거군 ○연천합수리2주거군 ○연천삼꽃리적석분구묘 ○연천남계리	○포천중리1주거군 ○포천사정리1주거군 ○의정부낙양동	○화성발안리2주거군 ○수원서둔동
	○가평항사리제1주거군 ○가평마장리 ○춘천울문리335-4 2주거군 ○춘천하중도제1주거군	○평창천동리220 ○평창천동리 ○원주태장동 ○횡성둔내1주거군	○하남미사리2주거군 ○남양주장현리2주거군 ○풍납토성(3중환호) ○광주신대리2주거군	○연천강내리3주거군 ○연천합수리3주거군 ○문산당동리 ○연천초성리	○포천중리2주거군 ○포천사정리2주거군 ○포천중리303	○개성봉동 ○화성고금산 ○화성기안리 ○화성감배산
	○춘천울문리335-43주거군 ○춘천하중도제2주거군 ○춘천군자리, ○가평덕현리 ○가평청평리	○횡성둔내2주거군 ○여주연암리 ○원주가현동 ○이천효양산	○풍납토성현대나-6.8호 ○풍납토성경당지구101호 ○남양주장현리3주거군 ○광주신대리3주거군	○포천성동리 ○파주주월리96-7		○화성당하리 ○화성가재리
	○홍천성산리 ○춘천삼전동		○풍납토성197Ⅱ-2기 ○남양주장현리4주거군 ○광주장지동2주거군			
	○홍천하화계리		○풍납토성경당지구9호 ○풍납토성197Ⅲ기 ○광주장지동2주거군			

이 편년관을 통해서 보면 중도유형문화는 춘천 일원의 북한강유역 상류지역과 한탄강유역에서 출현하며, 원삼국 II기에는 영월 삼옥리유적, 구리 교문동유적, 화성 발안리유적에서 볼 수 있듯이 남한강 상류지역, 한강 하류지역, 경기 남부지역까지 확산된다. 이 시기에는 북한강유역에서는 대규모 취락유적이 조성되어 거점지역일 가능성이 높다. 원삼국 III기에는 한강하류를 포함한 영서지역 전 지역에서 유적이 폭발적으로 증가된다. 취락유적이 짧은 시간 내에 여러 지역으로 확산되는 배경은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주거지 방화풍습이라는 예의 문화전통(박경신 2018)도 그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V. 맺음말

지금까지 문헌기록과 고고학자료를 바탕으로 예의 문화성격의 일면을 살펴보았다. 이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는 영동칠현으로 대표되는 영동예와 단단대령 이서지역의 영서예로 구분되며 중심지역은 북한 중북부지역이지만 강원도지역도 일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 북한의 영서와 영동 북부지역과 남한의 강원도지역은 비파형동검문화, 세형동검문화, 낙랑계집단의 문화로 변화되는 점에서 동일한 문화권에 포함된다. 예의 시공간 범위와 겹치는 중도유형문화는 적극적으로 예의 물질문화로 해석할 있다.

셋째 중도유형문화의 출현기 유적군을 검토한 결과, 주거구조는 장방형과凸자형주거지가 확인되며 토기는 재지의 점토대토기, 타날문토기, 동북계토기(단결-크로우노브카 토기)가 혼재되어 있으며, 영동지역에서는 낙랑계토기도 공반된다. 이는 중도유형문화의 다원적인 계보를 보여주는 것이다.

넷째 중도유형문화는 북한강유역 상류지역과 한탄강유역의 경기 북부지역에서 출현하여 원삼국 Ⅱ기에는 남한강 상류, 한강 하류, 경기 남부까지 하천을 따라 확산된다. 원삼국 Ⅲ기에는 중부지역 전 지역에서 대규모 취락유적이 조성된다.

참고문헌

- 강인옥, 2017, 「한반도 청동기 사용의 기원과 계통」, 『동북아시아에서의 한국 청동기시대 문화』, 한국청동기학회 창립 1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발표집.
- 개성역사박물관, 1983, 「각지 고대유적 조사보고」, 『고고학자료집』 6,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궁성희, 1996, 「조선력사유적유물지명표(북만부편 11)」, 『조선고고연구』 1996-3호.
- 궁성희, 1996, 「조선력사유적유물지명표(북만부편 12)」, 『조선고고연구』 1996-4호.
- 궁성희, 1997, 「조선력사유적유물지명표(북만부편 14)」, 『조선고고연구』 1997-2호.
- 궁성희, 1997, 「조선력사유적유물지명표(북만부편 15)」, 『조선고고연구』 1997-3호.
- 권오영, 2010, 「馬韓의 종족성과 공간적 분포에 대한 검토」, 『한국고대사연구』 60, 한국고대사학회.
- 김동일·로철수, 2013, 「신명리 고대집자리발굴보고」, 『조선고고연구』 2013-4호.
- 김무중, 2017, 「북한강유역 원삼국~한성백제기 문화양상」, 『북한강유역 원삼국~한성백제기 물질문화』, 중부고고학회 2017년 정기학술대회 자료집.
- 김병준, 2015, 「낙랑군 동부도위 지역 邊縣과 군현지배」, 『한국고대사연구』 78, 한국고대사학회.
- 김성남, 2004, 「백제 한성양식토기의 형성과 변천에 대하여」, 『고고학』 3-1, 서울경기고고학회.
- 김장석·김준규, 2016, 「방사성탄소연대로 본 원삼국시대-삼국시대 토기편년-중부, 호서,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韓國考古學報』 90, 한국고고학회.
- 金在弘, 2015, 「生業으로 본 韓과 濊의 종족적 특성」, 『한국고대사연구』 79, 한국고대사학회.
- 김종혁, 1995, 「새로 발굴된 성천군 룡산리순장무덤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95-1호.
- 김준규, 2013, 「중도식무문토기 상대편년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준규·김영은, 2017, 「북한강유역 원삼국시대~한성백제기 토기 편년 시론」, 『고고학』 16-3, 중부고고학회.
- 김지철, 1998, 「새로 알려진 비파형단검과 좁은놋단검관계 유적유물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98-1호.
- 金昌錫, 2003, 「古代 嶺西地域의 種族과 文化變遷」, 『한국고대사연구』 51, 한국고대사학회.
- 김창석, 2014, 「문헌을 통해 본 4세기 이전 한반도 중부지방의 정치체와 정세 변동」, 『고고학』 13-2, 중부고고학회.
- 김창석, 2018, 「맥족의 분포와 영서 북부 지역의 고대 정치체」, 『고대 강원: 정치체와 물질문화』, 국립춘천박물관.
- 金澤均, 1985, 「春川 狔國說에 關한 研究」, 『白山學報』 30·31, 백산학회.
- 김택균, 2018, 「영서예설의 허구와 그 실제 영서맥」, 『고대 강원: 정치체와 물질문화』, 국립춘천박물관.
- 노혁진, 2013, 「백두대간의 관점에서 본 강원도 선사시대 취락의 형성과정」, 『고고학』 12-2, 중부고고학회.
- 량익룡, 1961, 「최근 강원도에서 발견된 원시 유적」, 『문화유산』 1961-6호.
- 량익룡, 1958, 「우리 나라 원시 유적의 분포 정형-평안남북도, 황해남북도편-」, 『문화유산』 1958-6호.

- 리장섭, 1958, 「원산시 중평리 원시 유적」, 『문화유산』 1958-6호.
- 李清圭, 1988, 「南韓地方 無文土器文化의 展開와 孔列土器文化의 位置」, 『韓國上古史學報』 第1號, 韓國上古史學會.
- 문창로, 2016, 「동예의 음락과 사회상-不耐濊國을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 81.
- 박경신, 2016, 「二條凸帶鑄造鐵斧의 編年과 展開」, 『韓國考古學報』 第98輯, 한국고고학회.
- 박경신, 2016, 「중부지역 원삼국시대 외줄구들의 편년과 전개양상」, 『고고학』 15-3호.
- 박경신, 2018, 「북한강 상류역 원삼국시대 취락과 지역 정치체」, 『고고학』 17-2호.
- 박경신, 2018, 「중부지역 원삼국시대 초현기 취락의 양상」, 『陽平 兩水里 537-1番地 遺蹟』, 한양문화재연구원.
- 朴淳發, 1996, 「漢城百濟 基層文化의 性格-中島類型文化의 歷史的 性格을 中心으로」, 『百濟研究』 26, 백제연구소.
- 박순발, 2009, 「硬質無文土器의 變遷과 江陵 草堂洞遺蹟의 時間的 位置」, 『강릉 초당동 유적』, (사)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 박중국, 2011, 「중도문화의 지역성-중도유형문화론의 재검토를 중심으로-」, 『中央考古研究』, 중앙문화재연구원.
- 박중국, 2017, 「원삼국~백제 한성기 북한강유역의 취락편년」, 『북한강유역 원삼국~한성백제기 물질문화』, 중부고고학회 2017년도 정기학술자료집, 중부고고학회.
- 박중국, 2017, 「여(철)자형 주거지와 화재주거지」, 『춘천 우두동유적』, 한강문화재연구원.
- 박진옥, 1974, 「함경남도일대의 고대유적 조사보고」, 『고고학자료집』 4,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서국태, 1965, 「영흥읍 유적에 관한 보고」, 『고고민속』 1965-2호.
- 서길덕, 2018, 「점토대토기. 중부지역 원삼국시대 여명기 물질문화」, 『점점 중부지역 원삼국시대의 여명』, 송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제15회 매산기념강좌 발표요지.
- 宋滿榮, 1999, 「中部地方 原三國 文化의 編年的 基礎」, 『韓國考古學報』 第41輯, 한국고고학회.
- 송만영, 2009, 「강릉 경포호 원삼국시대 주거지의 특징과 편년」, 『강릉 초당동 유적』, (사)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 수보티나, A., 2005, 『鐵器時代 韓國과 러시아 沿海州의 土器文化 比較研究-硬質無文土器를 中心으로』,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재연, 1998, 「강원지역 철기문화연구」, 『한국상고사학보』 제29호, 한국상고사학회.
- 심재연, 2009, 「경질무문토기의 발생-점토대토기문화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강원고고학의 새로운 쟁점과 시각』, 江原考古學會.
- 원산역사박물관, 1983, 「각지 고대유적 조사보고」, 『고고학자료집』 6,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유은식, 2011, 「동북계토기로 본 강원지역 중도식무문토기의 편년과 계통」, 『韓國基督教博物館誌』 제7호.
- 유은식, 2018, 『극동의 초기철기문화 연구』, 송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유은식, 2018, 「중도식무문토기. 중부지역 원삼국시대 여명기의 물질문화」, 『점점 중부지역 원삼국시대의 여명』, 송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제15회 매산기념강좌 발표요지.
- 유정준, 1958, 「자강도 내 원시 유적 및 옛날 돈이 발견된 유적」, 『문화유산』 1958-5호.
- 윤선태, 2013, 「‘東沃沮’와 ‘濊’지역의 歷史地理的 變遷」, 『삼국지 동이전의 세계』,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윤용구, 2010, 「낙랑군 초기의 군현 지배와 호구 파악」, 『낙랑군 호구부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 李丙燾, 1976,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 이성주, 2017, 「韓國考古學의 起源論과 系統論」, 『한국고고학보』 제102집, 한국고고학회.
- 이준호, 2003, 「토기의 형식분류론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문화재』 第三十六號, 국립문화재연구소.
- 이창희, 2018, 「탄소14연대. 중부지역 원삼국시대 여명기 물질문화」, 『점점 중부지역 원삼국시대의 여명』, 송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제15회 매산기념강좌 발표요지.
- 이현혜, 1997, 「동예와 옥저」, 『한국사』 4, 국사편찬위원회.
- 정상민, 2009, 「영동에 사회의 존재 양태와 주변국과의 관계」, 제108회 한국고대사학회 정기발표문.
- 정찬영, 1974, 「북창군 대평리유적 발굴보고」, 『고고학자료집』 4,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池賢柄, 1999, 「嶺東地域의 鐵器時代 研究-住居址를 中心으로」, 檀國大學校博士學位論文.
- 崔鍾圭, 2008, 「考古學文化의 實踐」, 『考古學探究』 4, 考古學探究會.

※ 국내 발굴보고서는 지면관계상 제외

강원도 말갈의 정체성과 고구려의 南進에 대한 고고학적 접근

신광철(국립경주박물관)

목차

I. 서론

II. 말갈 연구 略史

III. 고구려의 강원도 진출과 고고학적 현상

1. 고구려 진출 이전의 강원도
2. 강원도의 고구려 관련 고고자료
3. 소위 '말갈' 문화 변화상

IV. 결론: 提言을 대신하여

I. 서론

말갈은 한국고대사에 있어 중요한 존재인 만큼, 그동안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아직까지 그 실체에 대한 뚜렷한 정답은 없는 상황이다. 수십 년간의 연구에도 불구하고 그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이유로는 여러 문헌에서 광범위하게 파악되는 양상, 문헌사학과 고고학간의 괴리, 기록의 부재 등을 꼽을 수 있겠다.

일단 기록의 부재는 ‘가야’를 비롯해 소위 ‘영산강세력’ 등 『三國史記』에 단편적으로 등장하는 여타 정치체들에도 해당하는 것으로서 비단 말갈만의 문제는 아니며, 오히려 三國과 관련하여 문헌에 등장하는 빈도수는 말갈이 가야나 영산강세력보다 더 많다. 그 다음은 문헌사학과 고고학간의 괴리인데, 문헌에 단편적으로 등장하는 말갈의 활동지역에서 말갈의 존재를 증명해줄만한 뚜렷한 고고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기록의 부재를 고고자료가 충분히 메워주고 있는 가야·영산강세력과 큰 차이점이 아닐까 싶다. 무엇보다도 말갈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에 혼선을 주는 요인으로는 여러 문헌에 말갈의 단편적인 흔적들이 광범위하게 흩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선행 연구를 보면 말갈을 크게 국내 사료인 『삼국사기』에 등장하는 한반도 말갈과 중국 사료에 등장하는 중국 동북지역 말갈로 구분하고 있다. 전자는 다시 영서말갈과 영동말갈로 구분하는가 하면 僞靺鞨이라 하여 (동)예와 연결시켜 이해하기도 하고, 후자는 주로 고구려 후기~말해 건국과 관련해 종족 구성원 및 국가의 정체성에 주목해 다루어지고 있다. 한편, 양자 간의 관련성도 언급되는 것을 보면 그 실체가 얼마나 안개 속에 가려져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기본적인 시각 속에서 현재 말갈이라는 용어, 그리고 정체성에 대해서도 다양한 견해들이 나오고 있지만 대체로 말갈을 ‘삼국의 범주 밖에 있는 半獨立的·非國家的 존재에 대한 汎稱 또는 卑稱’으로 인식하는 데에는 큰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본고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말갈 관련 연구 경향과 상기 3가지 문제점을 감안하여 고고학적으로 말갈에 대해 접근해보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관련 문헌에서 말갈의 용례를 추출하고, 문헌상 말갈의 특징을 짚어낸 뒤 이를 지역별로 구분하도록 하겠다. 특히 4세기 후반 이후 광개토대왕이 이끄는 고구려 南征軍이 한반도 중남부 이남에서 군사작전을 펼침과 동시에 ‘당연히’ 고구려의 영토로 귀속된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 ‘강원도’ 지역의 말갈에 대해서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백제 건국 초부터 相爭을 거듭해 온 황해·경기도 지역의 말갈과 달리 강원도 지역의 말갈은 고구려에 별다른 적대행위 없이 귀속되어 고구려의 尖兵으로서 고구려 멸망기까지 행동을 같이 하고 있어 지역별로 말갈의 성격 혹은 구성 등에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강원도 지역에서 확인되는 고고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기존의 말갈 인식을 재검토하고 ‘강원도 말갈’¹⁾의 실체 및 고구려와의 遭遇 이후 말갈 사회의 변화 등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1) 4세기 후반은 130여 년의 공백기를 끝내고 다시 말갈이 활동하기 시작하는 때와 맞물리는데 이전의 말갈 활동 양상과 다소 차이가 있다. 특히 경기·황해도 일대에서 확인되는 말갈의 활동 지역이 백제의 성장으로 인해 소멸되면서 4세기 후반 이후 말갈이라고 불리는 집단은 강원도 일대에서만 그 흔적을 남기게 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4세기 후반~7세기 전반, 신라의 강원도 전역에 대한 영역화 과정이 진행되기 이전까지 강원도 일대에서 활동하던 말갈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강원도 말갈>이라고 명명하겠다. 필자의 이러한 구분이 영서·영동말갈처럼 또 하나의 학술적 편의를 위한 개념 설정이라는 우려는 되지만, 논지 전개상 특정 시기, 특정 지역에서 활동하던 집단에 대한 구분이 필수적이었기에 어쩔 수 없는 것이었음을 변명하고자 한다.

II. 말갈 연구 略史

선행 말갈 연구는 크게 지역에 따라 한반도 말갈과 중국 말갈로 구분해 진행되었다. 당초 한반도 말갈은 『삼국사기』를 통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 중국 말갈은 중국 정사 <외국열전>에 기반을 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시각은 이미 말갈에 대해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조선 후기 실학자들에서도 보인다.

일찍이 安鼎福은 중국 말갈과 한반도 말갈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옥저와 예맥 사이에 별도의 종족을 말갈로 지칭했을 가능성, 북방의 말갈이 배를 타고 한반도 남부까지 약탈했는데 이를 지칭했을 가능성 2가지를 모두 언급한 바 있다.²⁾ 韓鎭書는 이중 옥저와 예맥 사이에 있던 별도의 종족을 不耐藏之類로 보았고,³⁾ 이러한 그의 주장은 이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丁若鏞은 선학들의 시각을 보다 체계화하는데, 고구려사에 등장하는 말갈은 숙식-읍루계의 眞말갈이며, 백제·신라사에 등장하는 말갈은 훗날 신라인들이 북방의 말갈계 국가인 발해를 염두에 두고 불내에 집단을 말갈이라고 부른데서 시작되었다고 보았다. 이것이 소위 僞말갈설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⁴⁾.

이는 한국 학계에서 오랜 논쟁을 거치며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초기의 연구는 문헌사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문헌상의 濊·貊 관련 기사를 검토함과 동시에 隋代 이후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靺鞨을 앞선 시기의 종족·정치체와 연결시키는 계통론적 연구가 주로 진행되었다. 그와 함께 史書에의 등장 시점도 다르고, 등장 위치도 다른 두 말갈에 대해 분리해서 이해하기 시작했고, 茶山の 위말갈설과 결합하면서 한반도 말갈을 중국 측이 일찍부터 인식했던 (東)濊와 자연스럽게 연결시켰다. 이후에는 말갈이 실제로는 濊나 貊의 異稱이라는 전제 아래 논의가 세분화되기 시작했다. 말갈을 모두 濊系 집단으로 이해하던 시각과 달리 영동지역은 예계지만, 영서지역은 맥계라는 시각이 새롭게 대두되는가 하면, 말갈은 삼국 주변부의 모든 집단에 대한 汎稱으로 이해해 특정 종족과 연결시키는 것에 비판적인 시각까지 나왔다⁵⁾.

이후 한반도 중부에서 확인되는 고고자료를 통해 해당 유적을 영위하였던 집단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당대사와 결부시켜 이해하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⁶⁾ 초기에는 고고자료의 平面的 현상을 문헌상의 특정 집단(말갈, 예, 한 등)과 결부시켜 살펴봐왔으나, 점차 증가하는 고고자료를 통해 정치체의 분석, 낙랑 및 주변 문화와의 교류, 자체 문화에 대한 고찰 등 시대사적인 해석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 시작으로는 경질무문토기·타날문토기·회흑색무문양토기의 공반, 평면凸자 혹은 呂자형 주거지, 좁석식적석묘 등이 특징인 소위 中島類型文化를 기반으로 '말갈=예'를 이해한 朴淳發의 연구가 주목된다(1996). 이흥종 또한 박순발과는 문화 변천과정에 대해서 차이가 있지만, 중도식토기문화를 '말갈=예'와 연결시켜 이해한 바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중도계 유적 분포지가 축소되어 가는 현상을 말갈의 盛衰期와 연결시켜 해석하였다(1998: 19-20). 권오영은 주거지와 묘제를 분석하여 충청-전라지역의 韓과 영동지역의 濊는 종족적으로 구별되지만, 서울·경기·영서지역의 집단은 韓濊로 統稱되었을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백제의 국가 통합 과정에서 한은 성공적, 한예에 대해서는 불충분한 결과를 낳았다고 해석했다(2009).

이와 같은 기본적인 시각 속에서 한반도 중부를 크게 서울·경기지역, 강원도 영서지역과 영동지역 등으로 나누어 세부적인 접근이 이루어졌다.

2) 『東史綱目』附卷下 <靺鞨考>.

3) 『海東繹史續』卷7「地理考」第7 <新羅 北界沿革>.

4) 『與猶堂全書』卷6「地理」第2 <靺鞨考>.

5) 이러한 경향은 최근 국립춘천박물관에서 개최한 '고대 강원: 정치체와 물질문화'라는 주제로 열린 제1회 <강원 고대문화 연구 심포지엄>에서도 확인된다. 과거에 비해 고고자료를 통해 강원도 지역의 정치체 혹은 당대인들의 삶을 복원하려는 시도가 점차 증가하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말갈과 예, 맥 등 종족에 대한 접근 시도는 지속되고 있다.

6) 중국 말갈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는 한반도 말갈에 대한 연구에 비해 다소 늦은 감이 있는데 이는 자료 접근성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에는 한반도 말갈의 고고학적 연구 못지않게 중국 말갈 및 북방 諸집단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본고의 주제와 다소 거리가 있기에 재삼 논의하지 않겠다.

표 1 연구자별 말갈 연구 경향

구분	연구자	연도	내용		비고
			말갈의 의미	연구내용	
중국 말갈	정영진	1991	중국사서의 말갈 지칭	고구려, 발해, 말갈의 묘장제를 비교 분석. 문화의 일면만 살피지 말고 다양성을 강조	분묘를 통한 고구려~발해시기의 문화 교류현상 파악
	김영천	2008	숙신-읍루-물갈-말갈의 단일 계통으로 이해	『수서』의 말갈 7부를 사료와 고고자료를 통해 규명	말갈을 산재한 부족단위가 아닌 일정한 정치체로 이해
	강인욱	2009	발해 상층부와 이질적인 문화계통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말갈문화)	기존 말갈유적 및 문화에 대한 연구를 재검토하고, 2~4세기 말갈문화에 대해 논의	고고학적으로 말갈문화를 심도 있게 분석한 연구
	정석배	2009	발해 건국 전후에 그 지역에 거주했던 집단	러시아의 아무르 연해주 말갈 연구사 소개 및 검토	아무르 연해주 말갈 연구사 검토 및 연구방법론 제안
	강인욱	2015	종족명이나 정치체 명칭보다는 지역·시기 구분의 기준으로 사용(곤토령문화=봉림문화-말갈계문화)	심강평원에서 확인되는 여러 문화를 통해 물갈, 두막루, 말갈 등 문헌상의 정치체와의 관련성을 파악	고고학적으로 말갈문화의 성립에 대해 고찰
	강인욱	2018	연변 및 연해주 남부를 포괄하는 말갈 집단을 백산부로 이해	연변지역의 고구려계 유적 부재와 그 지역에서 파악되는 고고자료를 통해 고구려의 책성 지배에 대해 분석	고구려의 책성 지배에 대한 고고학적 접근
	이정빈	2018	물갈과 말갈을 동일계통으로 이해 원거주지를 떠난 물갈이 요서말갈로 역사상에 등장	6세기 요서지역의 거란 제부가 쇠퇴하고 말갈이 그 자리를 대신한 상황에 대해 자세하게 논증	물갈의 이주를 통한 요서말갈의 형성 주장
한국 말갈	유원재	1979	백제, 신라를 침범한 말갈을 동해안 방면에 있던濊족 세력으로 규정 중국 동북방에는 본말갈이 존재	사료상의 말갈 기사를 검토하여 문헌에 폭넓게 나오는 예와 말갈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음에 주목	본말갈과 僞말갈로 구분. 동에 기사가 말갈로 소급 적용
	이강래	1985	僞靺鞨說 지지	한반도와 중국의 말갈은 구분 필요 시기에 따라 백제, 신라, 고구려와 각각 연결되는 말갈의 실태 분석	말갈의 군사 활동에 대해 주목
	문안식	1988	지역에 따라 예계말갈과 맥계말갈로 구분되며, 6세기 중반까지 독자적인 세력을 유지한 재지계 집단	재지계 말갈 세력을 신라가 해체하자 고구려가 동북방의 계통이 다른 말갈세력을 徙民했다고 이해	말갈=위말갈설 비판 영서·영동말갈로 구분해서 이해
	김택균	1997	말갈을 맥계말갈(경기북부와 동부, 영서지역), 동예계말갈(영동 북부와 함남지역)로 구분해서 이해	「백제본기」의 말갈: 川石赤石冢의 축조집단=靺鞨系靺鞨 「신라본기」의 말갈: 東濊系靺鞨	말갈의 종족 구분에 대해 고찰
	이흥종	1998	말갈=예설 지지	중도식토기문화를 말갈과 접촉하여 이해함. 기원전 2세기 초 유입된 와질토기문화와 대립관계를 상정	말갈(예)에 대한 본격적인 고고학적 접근 시도
	이동휘	2003	중국에서 남하한 세력이 아닌 한반도 재지세력을 지칭 후세에 말갈 용어를 차용해 지칭	시기에 따라 말갈의 실체가 변화함을 언급. 재지계집단이 있다가 후에 북방에서 남하한 세력이 섞임	예국/맥국으로 대표되는 재지집단을 말갈로 인식
	김진광	2005	임진강·한강 상류에서 활동했던 규모가 크지 않던 세력. 기존에 지나치게 크게 인식해 오류 발생	말갈 기록을 출현 시기에 따라 5시기로 구분하여 세부적으로 파악	위말갈·진말갈설/예계 말갈설/비칭·범칭설 등 선행 연구 재고
	한규철	2103	어느 특정 내지 불특정의 종족집단이나 주민(정치)집단 모두를 호칭하는 용어	말갈이 출현하는 지역과 문화유형에 따라 그들의 종족계통이나 문화적 성격을 다르게 파악해야 함	말갈=(동)예/맥설의 부분 차용
중국+한국 말갈	권오중	1980	예계 말갈은 고구려에 부용하다가 고구려 멸망 이후 발해 건국 건국후 발해와 흡수말갈로 분리	말갈의 계통을 2원화하여 이해함. 읍루-흡수말갈 / 예(부여·옥저·동예)-발해말갈로 이해	말갈=읍루설 비판 동예, 옥저와의 관계성 강조
	한규철	1988	중국 동북방 이민족 주민에 대한汎稱·卑稱/고구려의 일부 피지배 주민에 대한 汎稱·卑稱	고구려사 속에서 확인되는 말갈의 다양한 요소들을 분석	말갈이 自稱에서 시작해 他稱되었다고 이해
	선석열	2010	4세기 이후 고구려 지배 아래에 있었던 지방의 예맥족을 불렀던 별칭	만주말갈과 한반도말갈은 별개의 집단임을 고증	한·중 문헌의 말갈 관련 기사 분석
	조이욱	2010	우두머리가 추장으로 삼국, 동예와 문화적 기반이 다른 집단	말갈=예설의 문제점 지적	말갈 연구사 검토 말갈 연구방법론 제안
	한규철	2015	한·중 사서 모두 변방주민을 비칭하던 종족명이 말갈이었음	사료상의 말갈 용어를 재검토하고 말갈=예설을 비판. 러시아에서 쓰는 말갈은 흡수말갈로 국한할 것을 지적	말갈=예설 비판

박중국은 기존에 중도유형문화의 3가지 요소로 알려진 것 중 ‘묘자형 주거지문화’가 중도문화의 핵심 요소라고 파악하고, 중부지역의 원삼국문화를 서해안 지역과 안성천 일대, 그 외 지역 등 3개 권역으로 구분하였다. 이후 쪽구들 유무에 따라 서울·경기의 韓, 영서·영동의 濊로 1차 大別한 뒤 낙랑과의 교류 여부에 따라 2차로 지역별 위계가 달랐을 것으로 보았다. 마지막으로 적석분구묘가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臣濱沽國과 伯濟國이 자리했을 것으로 이해하였다(2012). 이를 보면 한반도 중부를 포괄하는 중도문화 중에서 서울·경기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이렇다 할 정치적 구심점의 존재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시각인데, 濊國이나 貊國은 물론 靺鞨의 실체를 이해하는 데에 참고할 만하다.

김무중은 1세기 후반 이후가 되면서 낙랑지역으로부터 여러 토기 기종들이 반입되고, 2세기 대가 되면 영서지역의 북한강유역에서 토기 생산이 활발해짐을 지적했다(2017: 13). 해당 지역은 철기문화에서도 선진적인 면모를 보이는데, 특히 대성리유적은 철기의 계기적 발전 양상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거지 내에서 철기를 제작했던 흔적들도 확인된다. 최영민은 해당 유적이 낙랑이 주도한 철기유통망 안에서 안정적으로 철을 공급받았으며, 이후 철기의 생산과 유통을 담당하면서 성장했으나 백제의 성장에 대응하지 못하고 쇠퇴했다고 보았다(2010: 106-107).

북한강유역권의 원삼국시대 취락이 1세기 대까지 소규모로 산발적인 분포를 보이다가, 2세기 대부터 외줄구들의 출현으로 주거 구조가 변화하고 대규모 취락이 발생하기 시작하다가 3세기 대 묘자형(육각형) 주거지+점토띠노지가 세트를 이루는 취락들이 중심을 이루어 화천 원천리 취락의 사례처럼 5세기 대까지 유지된다는 주장(강세호 2017)을 보면 삼국의 발전에 발맞춰 해당 지역의 정치체 역시 성장함을 알 수 있다. 그와 달리 남한강 유역은 이른 시기에 지역을 아우르는 중심 취락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다가, 3세기 전엽~4세기 중후엽에 적석분구묘를 축조하는 집단의 존재가 두드러진다(이준민 2015). 관련 자료를 보면 특히 중주 지역의 적석분구묘 집단이 눈에 띄는데 성정용은 이들을 마한에 속하는 濊系문화의 소산으로 이해하여 서쪽에 위치한 미호천 중류역의 토광묘 축조 집단(韓系문화)과 구분하기도 하였다(2013).

한편, 삼척 등지에서 확인되는 고고자료를 통해 실직국의 존재를 증명하려는 연구도 있다(이상수 2014; 박지희 2016). 다만, 고고자료를 통해 국가 단계의 흔적들을 추출해내는 것이 아니라 삼척 및 인근 지역의 고고자료를 정리하여 통상적으로 삼척에 존재했다고 알려져 있는 실직국의 흔적과 연결시키고 있어 실직국의 실체에 본질적으로 접근했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한편, 영서지역이 낙랑의 浮沈과 백제의 국가 통합과정이라는 외부적 환경에 많이 노출되었다면, 영동지역은 신라의 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지적되어 왔다(李昌鉉·李裕梨 2010).

이처럼 중도문화로 대표되는 한반도 중부 원삼국시대 문화를 해당 지역의 집단과 연결시켜 이해하기 시작한 이래로 많은 논의들이 있어왔다. 이를 통해 대체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看取된다.

첫째, 한반도 중부지역의 원삼국시대를 대표하는 문화는 중도문화이다.

둘째, 중도문화는 서해안 및 충청-전라지역의 韓, 강원도 영동지역의 濊, 경기-서울 및 영서지역의 韓濊 등 다양한 문화권으로 구분된다. 특히 한예로 통칭되는 한반도 중부 일대는 다시 낙랑 및 주변 문화와의 교류 여부와 접근성, 대단위 취락과 분묘군으로 대변되는 고고자료의 수와 규모 등 몇 개의 기준에 따라 세분화된다. 이는 각 지역별 확인되는 고고자료를 단순히 문헌상에 기록된 몇몇 종족명과 일치시키기 어렵다는 의미가 되며,⁷⁾ 결론적으로 고고자료는 특정 종족 및 정치집단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인 구분의 기준이 됨을 의미한다.

셋째, 각 정치 중심지는 주거지와 분묘를 기준으로 구분 가능하며, 이들 지표를 통해 신분고국, 백제국 등 삼한에 속했던 몇몇 주요 국가의 정치적 중심지를 가려낼 수 있다. 이들 각 지역은 주변 문화와의 교류 및 자체 발전을 통해 성장하는데, 각국의 통합 및 발전 과정은 동일하지 않다.

넷째, 서울-경기 지역이 백제라는 이름으로 통합되어 갈 때 강원도 영서지역과 영동지역의 몇몇 중심 집단도 지속적인 발전단계를 밟는다. 단, 이들이 기존에 알려진 대로 소위 貊國, 濊國으로 성장했는지는 의문이며, 동예

7) 이미 馬韓에 대해 이와 같은 지적(권오영 2010)이 있었는데 강원도 말갈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시각은 유용하다.

나 옥저, 음읍벌국과 실직(곡)국 등 문헌상에 기록된 여러 국가 및 정치체와 등치시키기에도 무리가 있다. 또한 비록 속도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국가로 통합된 지역 이외의 지역들도 문명화된 사회로서 나름의 발전 과정을 거쳤다고 볼 수 있다. 즉, 문헌상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강원도 내의 정치체가 아무런 변화 없이 수백 년간 정체되어 있었다고 보는 시각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다섯째, 서쪽에서는 백제가, 남쪽에서는 신라가, 북쪽에서는 고구려가 각각 완전한 국가 단계로 나아가지만 강원도 일원은 그에 발맞추어 비등한 수준으로 성장하지 못한다. 삼국과 주변부(강원도/영산강유역/가야문화권) 간의 교류 양상을 보면, 문화 습득 및 변용, 內在化 과정에 있어 강원도 일원이 단연 뒤쳐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춘천과 홍천 등지에서 신라 고분군이 확인되는 6세기 후반, 선덕여왕 6년(637) 우두주가 설치되는 점을 고려하면 강원도 지역의 재지계 집단이 삼국 후기까지 나름의 전통과 문화를 유지하며 존속했음을 알 수 있다. 즉, 강원도 말갈과 영산강유역·가야문화권과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비슷한 점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상기 연구에서 흥미로운 점은 고구려와 말갈간의 관계가 고고학적으로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초창기 문헌사료를 기준으로 말갈이 연구될 때 가장 많이 거론되는 국가는 바로 고구려와 발해였다. 중국 말갈은 물론이고, 한반도 말갈이 훗날 고구려에 附庸된 존재로서 인지되었기 때문에 이는 어찌 보면 당연한 시각이다. 발해의 경우, 연해주와 아무르강 주변의 고고자료를 통해 말갈과의 연관성이 많이 거론되지만 정작 수백 년간 고구려의 충실한 尖兵으로 활약해 온 말갈과의 관계는 고고학적으로 살펴볼 여지가 많지 않다.⁸⁾

고구려가 한반도 중부 이남으로 남하하기 시작한 4세기 전엽이 되면, 한반도 중부지역의 韓濊로 통칭되던 문화권 중 서울-경기를 중심으로 한 西部는 백제가 통합을 완료하였으며⁹⁾ 東部の 강원도 일원에만 한예 문화가 지역별로 다양한 발전 과정을 거치며 잔존하고 있었다. 이후 고구려와 백제의 접촉(교류·전쟁·이주 등)은 문헌사료를 비롯해 금석문, 각종 고고자료(관방체계와 무기, 토기 등)를 통해 파악이 가능하지만 고구려와 강원도 일원의 한예 문화와의 접촉에 대해서는 알려주는 자료가 거의 없다.

문헌상으로는 130여 년 만에 갑자기 말갈이라고 불리는 강원도 일원의 집단이 등장해 백제·신라의 침입에 동원되는데 이는 고구려 등장 이전 백제·신라와 접촉하던 말갈의 행태와는 분명히 다르다. 고구려와 함께 하는 말갈이 어떤 전개 과정을 거쳐 고구려에 부용하게 됐는지도 알려진 바가 없으며, 강원도 일원에서 고구려 주거지와 고분이 小數 확인되었지만 그것이 강원도 일원의 재지계 사회에 끼친 영향을 대변해주지도 않는다. 고구려의 南進 이전과 이후 강원도 일원에서 문화접변 현상을 파악할만한 요소가 확인되지 않는데, 이는 4세기 중반부터 강릉 지역을 중심으로 신라의 영향이 뚜렷하게 확인되는 것과 분명한 차이가 있다.

8) 『高麗史』卷58「志」12〈地理〉3, “交州道, 本貊地, 後爲高句麗所有, 歷新羅, 至高麗.”

『朝鮮王朝實錄』卷153「世宗實錄地理志」〈江原道〉, “本濊貊之地, 後爲高句麗所有.”

『江原道志』卷1「建置沿革」, “本道, 古濊貊之地屬, 後漢置臨屯郡, 分屬一部於樂浪郡, 後合爲高句麗新羅領地.”

강원도 지역사에 대해서는 예로부터 대체로 「(예)맥-한군현-고구려-신라-고려」 순으로 영유되었다고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특히 강원도 내에서 고구려의 흔적이 많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문헌에는 고구려의 舊土임이 빠짐없이 명시된 점이 흥미롭다. 이중 고구려와 강원도 일원의 관련성에 주목한 연구는 금경숙 등의 연구서(2006)와 필자의 줄고(2015)가 거의 유일하다. 앞선 논고에서는 강원도 일원의 정치체를 중심으로 원삼국~삼국시대에 걸쳐 그들의 역사가 어떤 식으로 전개되었는지 살펴본 뒤 백제, 고구려, 신라 3국의 강원도 진출 방식을 비교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고구려 진출 당시 강원도 말갈을 중심으로 고고자료를 분석해 그들의 정체성을 파악하고 전후 역사를 고찰하되 주로 고구려 진출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다.

9) 충청·전라 지역의 韓, 영동지역의 濊와 달리 경기 북동부, 강원 영서, 충북 일부는 韓濊로 통칭되었으며 백제의 영역화 과정은 한과 한예의 통합 과정과 맞물린다는 견해가 있다(권오영 2009). 3세기경의 상황을 전하고 있는 『三國志』의 소국 위치를 비정했을 때 김초·한강·남한강을 잇는 선 이남의 경기지역과 충북지역, 강원도 일부 지역에는 어떠한 소국도 위치하지 않아 해당 지역이 백제의 직접 지배하에 들어갔다는 견해(이인철 2001: 425), 4세기 이전까지는 경기-강원도 각 지역에 균일하게 분포하던 인구밀집지역이 4세기 이후부터는 경기 남부와 영서의 화천지역을 중심으로 가장 높은 인구밀집지가 확인되고 있다는 견해(박지영 2017: 69-70) 등을 통해 이 시기 한성백제가 주변 지역을 강력하게 통제하면서 영역화를 추진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4세기 이후까지 독자적인 문화권을 형성하며 영서·영동지역에 존속했던 ‘강원도 말갈’과 고구려와의 관계, 고구려의 남진과 강원도 경영에 대해 살펴보고 말갈의 정체성에 대해 정리하는 것으로 논고를 마치도록 하겠다.

Ⅲ. 고구려의 강원도 진출과 고고학적 현상

강원도는 한반도의 중동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서보다 남북으로 긴 형상이다. 북쪽으로는 비무장지대(DMZ)를 따라 함경남도, 황해도와 경계를 이루고 서쪽은 경기도와 충청북도, 남쪽으로는 소백산맥을 따라 경상북도와 맞닿아 있다. 강원도는 대부분 산지로 이뤄진 산악지형으로서 전체 면적의 약 81.6%가 임야이고, 농경지는 약 8.4%에 불과하다. 일반적으로 태백산맥 중앙산맥을 기준으로 영동과 영서지역으로 구분하며, 영서 지역은 다시 북한강과 남한강 유역으로 세분할 수 있다(그림 1 참고)¹⁰⁾.

영동 지역은 隆起海岸으로 해안선이 단조롭고, 좁고 긴 해안평야가 발달되어 있다. 고성의 남강과 양양 및 강릉의 남대천 유역에는 깊은 골짜기가 이루어져 있으며, 하류 지역에는 평탄한 소규모 충적지가 형성되어 생활무대가 되고 있다. 문화 환경의 차이에 따라 고성·이북은 북부, 고성·양양은 중부, 강릉·삼척은 남부로 구분하며, 주요 생활권은 속초와 강릉이다.

영서 지역은 전체적으로 해발고도가 600~800m로 높으며 고위평탄면이 발달하였으며, 영동 지역과 달리 침식분지가 발달하여 이곳이 주 생활무대로 활용되고 있다. 영서 지역은 춘천을 중심으로 홍천, 인제, 양구, 화천을 포함한 북한강 유역과, 원주를 중심으로 횡성, 평창, 정선, 영월을 포함한 남한강 유역으로 크게 구분 가능하다(江原道 1995: 97-103). 본고의 논의도 해당 지역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진행되겠지만, 필요하다면 경기도 동부 혹은 남한강 하류역까지도 범주 내에 두고 서술을 진행하도록 하겠다.

10) 영서지역의 경우, 북한강 유역의 철원대지와 홍천강 유역을 세분화기도 하지만, 본고에서는 논지 전개상 큰 상관이 없기 때문에, 북한강과 남한강 유역으로만 분류하도록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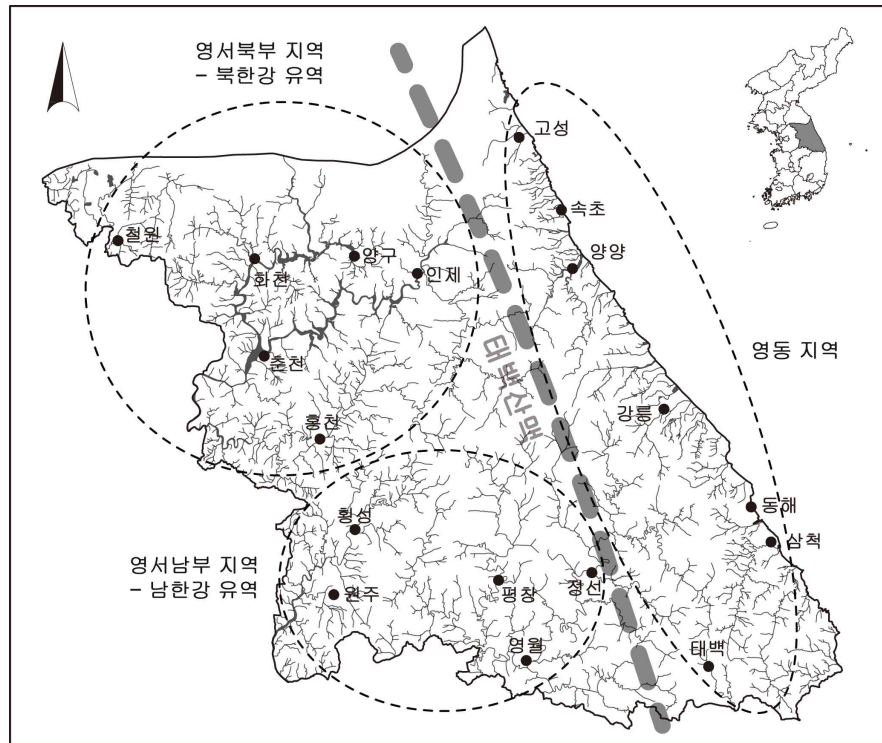


그림 1 강원도의 지형과 수계(필자 작도)

1. 고구려 진출 이전의 강원도

고구려 진출 이전의 강원도는 지형적인 특징 때문에 일찍부터 특정 지역에 인류의 터전이 자리 잡았다.

구석기시대 유적은 중기~후기에 걸쳐 온난-한랭한 기온 변화를 겪으면서도 전체적으로 중·고위의 하안단구(영서) 및 해안단구(영동)에 지속적으로 형성되었다. 다만 시기가 늦어질수록 저위도의 단구면까지 인류의 생활 범위가 확장되었다는 차이는 있다. 특히 하천(영서)이나 해안(영동)으로부터 500m 이내의 가까운 거리에 유적이 입지하고 있어 구석기인들에게 수운의 有無가 주거지 선택 시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음을 알 수 있다(崔承燁 2010: 302-3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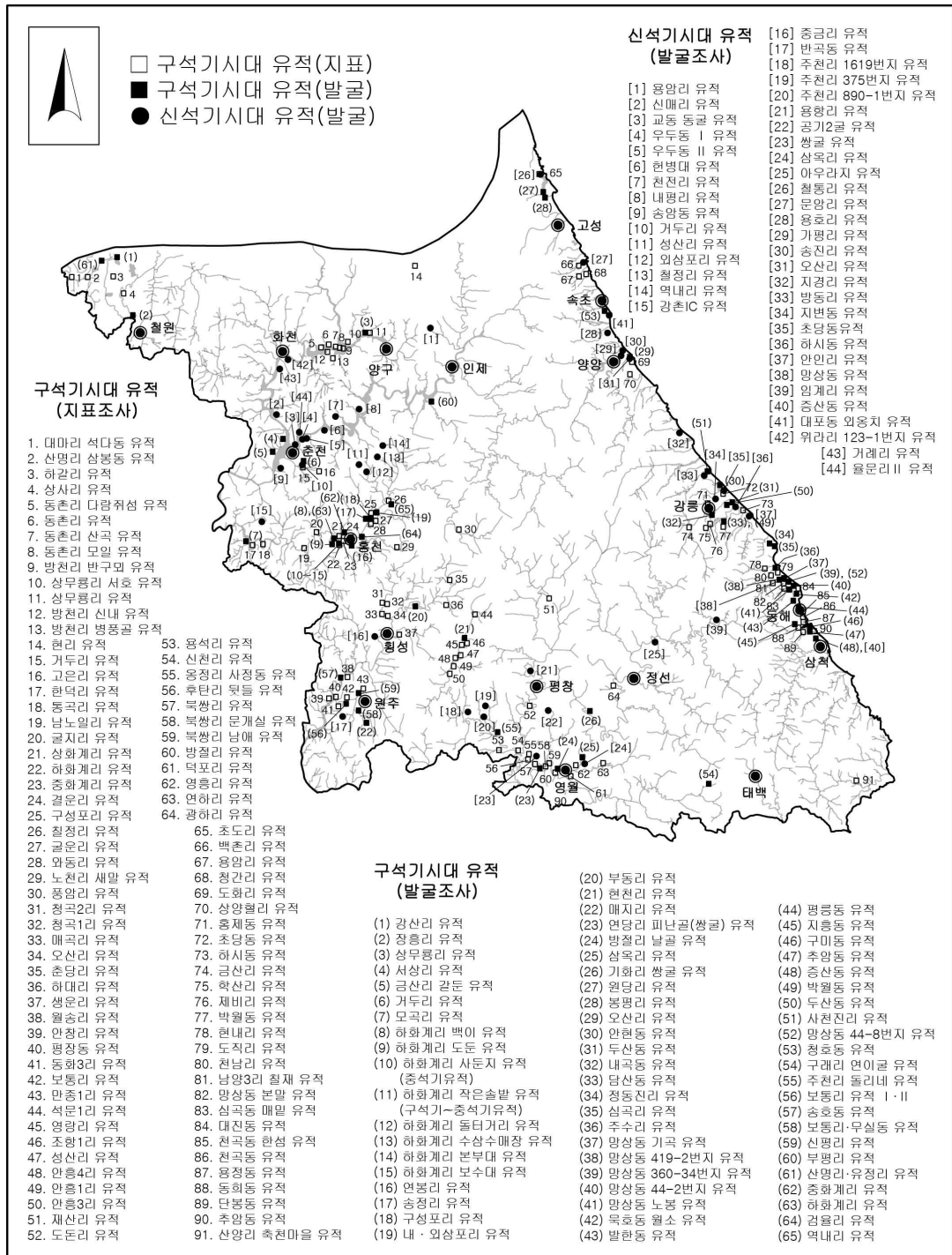


그림 2 강원도의 구석기~신석기시대 유적 분포도

(崔承燁 2010: 43-83; 李相勳 2013: 15-30; 李修眞 2010: 37-38 수장; 2012년 이후 유적은 보고서 참고)

하지만 신석기시대가 되면 석호나 하천의 하구, 인접한 해안사구(영동), 동굴이나 바위그늘(영서) 등이 주 생활공간으로 활용된다(李修眞 2010: 32-36; 李相勳 2013: 13-14). 한편, 한랭기 이후 신석기사회가 해체하는데, 과도기 단계 유적이 확인되지 않아 청동기시대 초기로 이어지는 과정이 단절적으로, 급격하게 이루어졌다고 이해된다(金權中

2012: 57; 裴眞晟 2003: 26).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영동·영서 거의 전 지역에서 다수의 유적들이 확인되고 있으며, 특정한 중심지나 유적 밀집지의 존재는 없다는 사실이다(그림 2 참고).

하지만 청동기시대가 되면 이와 다른 양상이 확인되기 시작한다. 청동기인들은 신석기시대 이래의 입지 유형은 유지되 海岸砂丘나 沿岸島嶼 등은 더 이상 선호하지 않게 된다. 이는 바다를 생업적 배경으로 한 취락이 거의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신석기시대 이래로 전개된 농경의 급속한 발달이 가져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崔憲燮 1998: 94-95). 또한, 해수면의 상승에 따라 開析谷底가 內灣 혹은 溺谷으로 바뀌어 신석기시대 이래의 주거 영역은 상대적으로 고도가 높은 구릉으로 이동하게 되는데(백흥기·오건환 1997: 158-159), 특히 영동 지역의 경우, 기후 환경의 변화와 취락 입지의 변화 사이에 밀접한 연관성이 확인되고 있다(白弘基 1991: 10-12). 다만, 해안사구에서도 청동기시대 유적들이 확인(沈載淵 2008a)되고 있기 때문에 일시에 청동기시대인들이 해안가에 대한 사용을 중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강원지역의 경우, 지형적인 특징 때문에 문화의 교류·전파에 있어 타 지역과 많은 차이가 있다. 청동기시대 중기의 송곡리유형도 강원지역으로의 확산 과정이 정확하지 않거나, 확산되더라도 타 지역과의 시기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는데(송만영 2013: 70) 이 역시 지형적 특징에 기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

이 시기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산간 협곡이 발달하고 강의 곡류가 심한 강원도의 지형에 따라 형성된 ‘단순족장사회’와 관련된 지석묘의 축조를 꼽을 수 있다(김규호 2009: 21; 노혁진 1998: 34-35; 송만영 2012). 지석묘는 농경정주문화 및 정치권력의 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김선우 2012; 李盛周 2012) 분묘 축조가 시작되면서 石劍이 상징적 무기로 부상되는 등 일정 사회집단의 지도자가 등장한다는 해석(裴眞晟 2006)을 참고한다면, 이를 화천 용암리유적과 같은 사회복합도가 높은 취락의 형성과 연결 지어 볼 수 있겠다.

한편, 이전 시기와 달리 청동기시대가 되면 춘천 지역이 인근 지역의 중심지로 주목받기 시작한다. 신석기시대 춘천에는 거주 인구도 많지 않고 정주도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청동기시대가 되면 내평리·천전리·신매리·우두동·중도 일대 등에서 유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타 지역을 압도하기 시작한다. 이들 지역공동체는 크게 3개의 中大形 지역공동체, 5-6개의 中小形 지역공동체로 구분 가능한데, 상호간 위계를 갖춘 느슨한 연맹관계를 이루었으며, 이는 초기 국가단계의 흔적으로 볼 수 있다(김창석 2015; 李亨求 2015).

이후 원형점토대토기 단계에 이르면 영동 지역의 하천이나 호수에 밀접한 구릉 및 고지에 점토대토기 단계의 취락들이 형성된다(朴榮九 2010). 이를 두고 집단 또는 취락간 긴장의 결과로 고지성 취락이 탄생(鄭澄元 1991: 38-39)했다는 견해 및 점토대토기 집단의 이주설(朴淳發 1993; 1997: 23) 등이 제시되었다. 그밖에 초기 재지집단과 마찰이 있었으나 점차 집단 간 교류를 통해 긴장이 완화됨에 따라 고지형 취락이 평지 주변의 구릉으로 이동했다는 견해(李亨源 2005), 점토대토기문화가 무문토기문화와 상호 일정한 관계를 두고 병존하다가 과도기적인 매개체 역할을 하지 못하고 철기문화의 성립과 함께 모두 소멸하였다는 견해(이숙임 2007: 78-80), 이주민과 토착민 간의 전면적인 전쟁 가능성을 상정한 연구(손준호 2010: 20), 고지성 취락은 제천 의례와 관련된 공간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는 주장(송만영 2013: 207-208) 등이 있다.

한편, 영서 지역의 경우, 유적의 숫자는 많지 않지만 주로 충적지에 입지한 저지형 취락들이라는 점을 상기한다면 같은 점토대토기 집단 사이에서도 지형에 따라 적절하게 취락을 형성했음을 알 수 있다(그림 3 참고).

마지막으로 청동기시대 후기에 이르면 인구의 과밀과 맞물려 산림 벌채에 따른 황폐화 및 자원의 고갈(오규진·허의행 2006: 196-197), 가경지 확보의 한계 혹은 기후변화(안승모 2006: 31-32) 등의 이유로 대형 취락들이 해체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송만영은 청동기시대 후기에 해체된 사회가 점토대토기 단계에 이르러 水系가 아닌 山地를 중심으로 한 취락들의 연결망으로 재편되었으며, 경제 구조도 농경 위주에서 수렵, 어로를 병행하는 혼합경제체제로 전환되었다고 보기도 한다(2013: 248-2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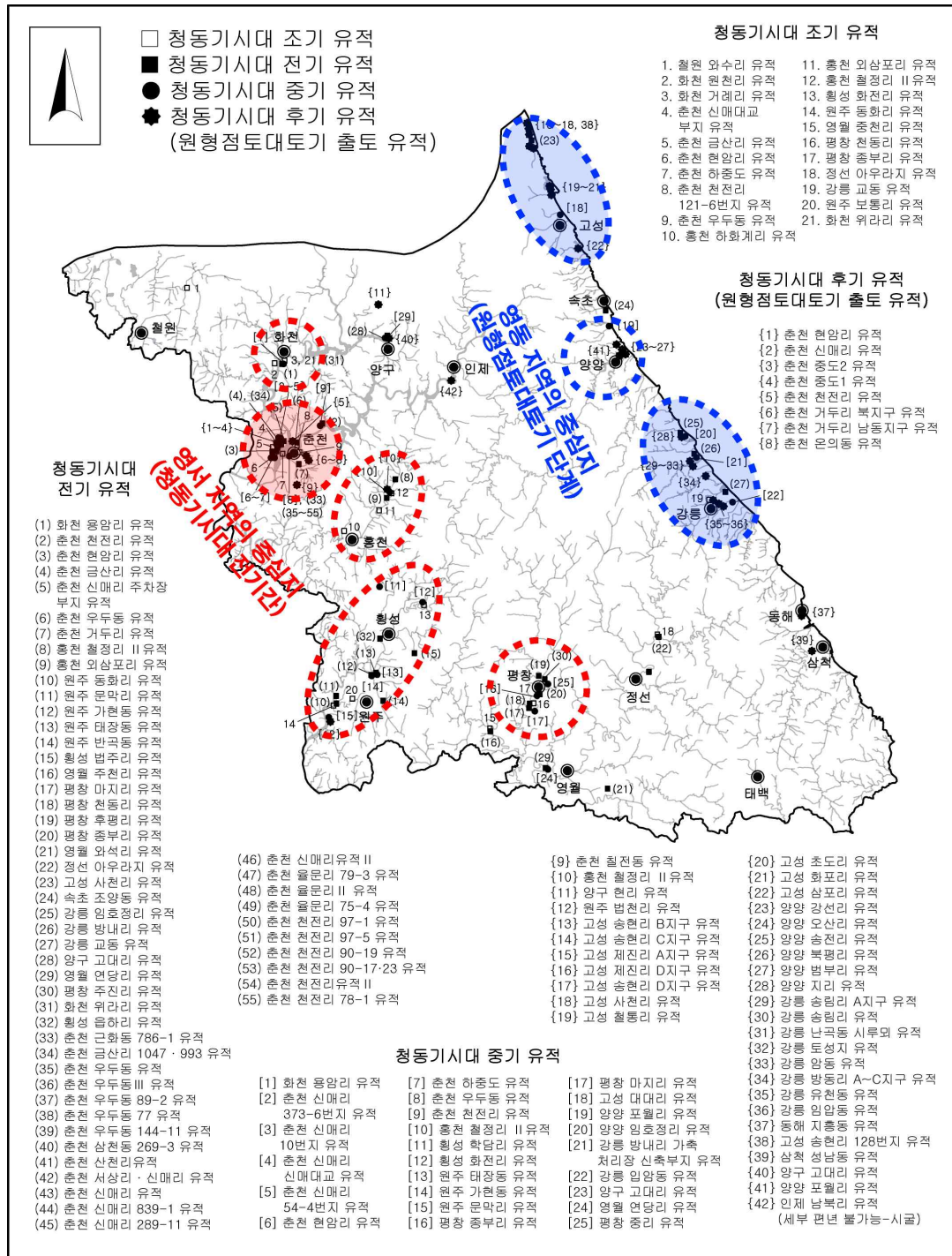


그림 3 강원도의 청동기시대 유적 분포도

(朴榮九 2010: 68; 송만영 2013: 37-84; 신수화 2014: 7; 최종모 2010: 18 수정; 2012년 이후 유적은 보고서 참고)

이처럼 청동기시대에 이르면 강원도 지역은 크게 ‘기후변화’와 ‘생업구조의 변화’, ‘인구의 증감’, ‘외래이주민인 점토대토기집단의 이주’ 등으로 인해 큰 사회 변혁기를 맞이하였다. 더불어 점토대토기문화의 출현과 확산 문제는 많은 과제와 의문점을 내포하고 있지만(노혁진 2009: 153-165), 상기 변혁기 속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유입된 외래문화

를 다양한 형태로 수용·발전(김범철 2001: 42-43)시킴으로써 사회복합도가 높아진 청동기시대 취락들이 이후 정치 집단으로 성장하게 될 基層文化를 형성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원형점토대토기 단계 영서 지역과 영동 지역의 상황을 보면 영서 지역은 재지계가 주체를 이루면서 외래문화를 소극적으로 수용하는 반면, 영동 지역은 외래계가 주체를 이루면서 재지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흔적이 확인되고 있다(李亨源 2015). 즉, 상호 교류라는 측면에서 보면 청동기시대 중기~후기에 걸쳐 강원도 전역에서 재지·외래계 문화가 융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지역별로 문화 양상에 차이가 있고, 같은 지역 내의 유적 사이에서도 세부적인 차이(재지·외래계 문화와의 융합 정도와 문화 도입에 대한 적극성 여부)가 확인되는 것으로 봐서 강원도 내의 각 집단 간 독립성이 인정되는 와중에 각기 다른 발전 양상을 꾀했다고 볼 수 있겠다. 이것이 향후 강원도 내 정치집단의 국가화 과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생각하며, 통상적으로 언급되는 영동濊와 영서貊, 혹은 영서·영동예의 문화 차이를 가져온 것은 아닐까 추정해본다.

한편, 박순발은 영동 지역에서 원형점토대토기 등장 이후 삼각형점토대토기 단독기가 분명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B.C.150년 이후부터는 경질무문토기¹¹⁾가 등장하고, 영서 지역은 B.C.100년보다 다소 소급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2009: 118-119). 朴榮九는 영동 지역을 두고 경질무문토기가 등장할 때까지 약 200여 년간의 문화적 공백 양상이 확인된다고 보았으며(2010: 83), 심재연은 비록 영동 지역 경질무문토기의 祖型과 이후 등장하는 경질무문토기의 변화 발전 과정이 계기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시간대의 공백이 존재하지만 계승성을 논의하기에 큰 무리가 없다고 하였다(2011: 37-38).

영동 지역의 해수면 변동으로 인한 유적 멸실 가능성, 영서 지역 점토대토기인들의 구릉에서 하천 충적평야지대로의 이동 사례들(심재연 2011: 37-39), 한정된 구제발굴 및 보존에 따른 유적 미확인 가능성(노혁진 1998 : 38-39; 심재연 2008b: 51) 등을 고려했을 때 강원도 일원에서 청동기시대 후기~초기철기시대의 과도기에 문화적 단절성 혹은 주민교체설 등을 거론하는 것은 다소 성급할 수도 있다. 한편, 영서 지역은 경질토기 문화가 4~5세기 대(김준규 2013: 70-73), 영동 지역은 4세기 대까지 존속(심재연 2008b: 50)하고 있어 백제·신라가 강원도에 진출한 이후에도 재지계 문화가 유지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시기 영동 지역의 유적 입지를 살펴보면, 신석기시대와 마찬가지로 사구를 중심으로 주위에는 소규모 평야지대와 작은 하천, 호수 등이 있고 바다를 전면으로 두는 반면, 영서 지역은 신석기시대 이래로 강변의 충적평야에 지속적으로 유적이 위치함을 알 수 있다. 이에 영동 지역은 신석기시대 이래로의 ‘해안어로형’ 중심의 문화, 영서 지역은 ‘내륙 혼합형’ 중심의 문화가 자리 잡았으며, 이후 배후습지를 이용한 농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沈載淵 1996: 75-78) 참고할 만하다(그림 4 참고).

이 시기 강원도 일원 주거문화의 특징을 꼽자면 (장)방형 주거지 이외에 새롭게 확인되는 ‘ㄴ’자·‘凸’자형 주거지를 꼽을 수 있겠다. 이들 주거지는 기본적으로 돌출된 출입부를 갖추고 있고, 부석형·아궁이형·부뚜막형의 노지, ‘一’자 혹은 ‘ㄴ’자형의 쪽구들, 2주열식 기둥을 갖춘 것으로서, 방형주거지에서 발전된 형태로 보인다(송만영 2013: 91; 沈載淵 1996: 42-49). 이러한 주거지의 기원을 기존에는 서북한 지역에서 찾았으나, 최근에는 동북 지역에서 찾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유은식 2014: 32-35). 단결-크로우노브카문화 계통의 쪽구들 문화가 한반도에 유입되어 기존의 주거 문화에 변화를 주었다는 것이 주장의 요지인데, 특히 한반도 중부지방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확인되는 북한강유역의 ‘ㄴ’자형 쪽구들과의 친연성이 두드러진다.

11) 경질무문토기라는 용어 사용에 반론도 있지만, 본고에서는 일반적인 견해(최성락 2002: 44-48)에 따르도록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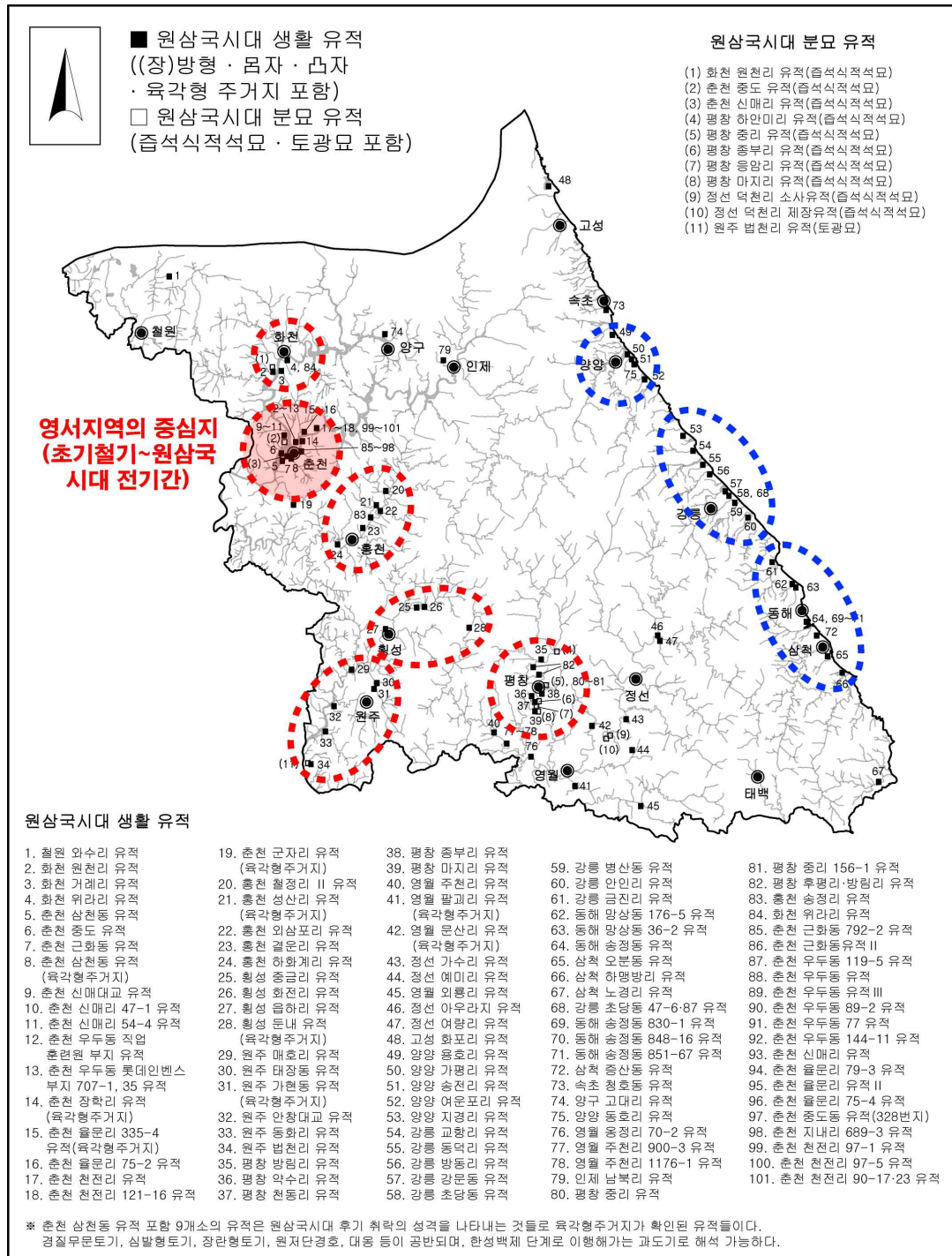


그림 4 강원도의 초기철기시대~원삼국시대 유적 분포도

(공석구 2006: 79-80; 송만영 2013: 90; 이일용 2009: 62-72 수정; 2012년 이후 유적은 보고서 참고)

유은식은 동북아시아의 초기 쪽구들 문화가 한반도 중부지방으로 확산되는 경로에 대해 한·중·러 국경지대→함경남도→추가령구조대→강원도 영서지역 경로(A)와 한·중·러 국경지대→동해안→강원도 영동지역 경로(B) 등을 언급한 바 있다(2015: 171). 이병훈 또한 춘천, 양구, 홍천 등 북한강 상류에서 처음 등장한 쪽구들이 하상 수계를 따

라 임진강·한탄강 상류 및 풍납토성 이동으로 확산해 간다고 보았다(2016: 55-61). 이러한 현상은 동북 지역에서의 일방적인 이주 또는 전파의 결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심재연 2009), 오히려 강원도 일원의 재지집단이 기후 한랭화에 따른 적응 잠재력이 뛰어난 결과, 주변 지역의 문화를 흡수해 발전·확산시킨 결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강인욱 2009).

북한강은 대부분 수로가 좁고 긴 하곡을 따라 흐른다는 특징이 있으며, 자연 상태에서의 풍화에 약한 대보화강암 지대인 춘천, 홍천, 양구 등에 넓은 내륙분지가 자리하고 있다. 특히 춘천의 우두벌은 북한강 본류와 소양강이 공급하는 운반물로 인해 유역 내에서 가장 넓은 평야가 발달하였는데(김종혁 1991: 6-10), 이러한 지리 조건이 초기철기 시대~원삼국시대¹²⁾에 강원도만의 독특한 문화 양태를 낳게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리하자면 청동기시대 이후 영동·영서 지역 간 문화 양상의 차이가 뚜렷해짐을 알 수 있다. 영서 지역의 경우, 청동기시대 이후 원삼국시대에 이르기까지 춘천이 일대의 중심지로 꾸준히 유지·발전되었으며, 화천과 홍천, 원주와 횡성, 평창 등지도 일대의 중심지로 당대인들이 계속 활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¹³⁾ 그에 반해 영동 지역은 원형점토 대토기 단계에는 고성과 강릉 등지를 중심으로 유적들이 집중적으로 분포하다가 초기철기~원삼국시대에 이르면 고성 이 더 이상 일대의 중심지로 주목받지 못하고 강릉 이남의 동해·삼척 등지의 유적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¹⁴⁾ 또한 춘천 지역에서의 유적 밀집도는 변함이 없는데 반해 영동 지역은 고성과 강릉의 유적 밀집도가 지역별로 분산되는 듯한 경향이 보여 다소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가 문헌상에 등장하는 강원도 일원의 소국들(맥국, 예, 실직국 등)의 형태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다.

2. 강원도의 고구려 관련 고고자료

『三國史記』를 보면 민중왕 4년(47)에 ‘동해인 고구려’가 등장하고, 태조왕 4년(56)에는 동옥저를 정벌해 영토가 동으로 滄海에 이르렀다고 한다. 또한, 『삼국사기』와 『後漢書』에는 고구려가 화려성을 공격한 때가 태조왕 66년(元初 5年, 118)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삼국지』에는 고구려가 후한 말(3세기 초)에 동예를 복속시켰다고 한다. 이를 통해 고구려가 1~2세기 무렵부터 두만강 유역의 자원을 토대로 함흥 방면으로 진출했으며(김미경 2000), 이를 기반으로 낙랑과 대방에 대한 압박을 지속했다고 보기도 한다(박노석 2000).

한편, 동옥저를 정복한 고구려는 그 나라 大人을 使者로 삼되, 相으로 하여금 主領하고 大加로 하여금 각종 조세(맥포, 물고기, 소금, 해산물 등) 및 미녀들을 관리하였다¹⁵⁾. 즉, 재지계 수장층에게 자치권을 부여하되 고구려에서 相과 大加를 파견해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收取權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동옥저를 통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正始 6年(245), 낙랑태수 유무와 대방태수 궁준이 동예를 복속시킨 고구려를 공격하자 不耐侯 등이 항복해 不耐濊王으로 봉해졌다는 기록¹⁶⁾을 보면, 濊 역시 동옥저와 비슷한 방식으로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불내후라는 재지계

12) 일반적으로 강원도 지역에서는 선사시대의 일반적인 시대구분이라 할 수 있는 ‘철기시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해당 시기의 시간적 범주는 B.C.200년 경, 타날문토기와 경질무문토기의 등장기에서 서울 지역의 부뚜막형 노지를 가진 타원형 주거지의 등장시기인 A.D.200년경까지의 약 400년간에 해당한다(沈載淵 1998: 46). 하지만 ‘점토대토기’, ‘세형동검’, ‘철기’의 등장 이 3가지 지표가 초기철기시대의 시작이라고 했을 때 초기철기시대는 용어 그대로 청동기 및 무문토기문화가 강하게 유지되면서 철기문화의 일부 요소가 유입되는 단계를 지칭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며(李亨源 2011: 82-83), 본격적인 삼국시대의 흔적이 확인되는 시점이 4세기 말인 점을 통해 B.C.300~B.C.100년까지의 기간을 초기철기시대, B.C.100~A.D.300년까지를 원삼국시대로 구분해도 해당 지역의 시기 구분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

13) 오강원은 영서지역 말갈족의 권역을 춘천권, 원주권, 평창권으로 구분한 바 있다(1996: 126).

14) 엄밀히 말해 강원도의 점토대토기인들과 중도문화인(呂·凸자형 주거지에 거주하는) 간의 계승성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근거는 없으며, 오히려 단절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현 단계에서 단정 짓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며, 설혹 단절적이라 하더라도 거주환경 선택에 있어서 유리한 지형은 변함이 없음에 주목하고자 한다. 즉, 동일 지역이 수백 년에 걸쳐 꾸준히 활용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곧 거주민의 혈연·종족적 동일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재삼 명시하는 바이다.

15) 『三國志』 卷30 「魏書 東夷列傳」 第30 <東沃沮條>.

수장층이 존재하고, 고구려에서 행정관리가 파견되는 방식이었을 것이다. 위의 기록들을 보면 고구려는 재지계 지배층을 통한 간접지배보다 한 단계 강화된, 해당 지역을 부분적으로 재편해 지배하는 방식(김현숙 2005: 136-140)을 채택했으며, 이는 행정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의 수취 체계가 분리된 분권적인 형태(徐毅植 1990: 127-128)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이른 시기부터 영동 지역을 확보한 고구려는 4세기 초~중반 낙랑·대방을 흡수하면서 백제와 국경이 맞닿았으며, 황해도 일원을 영역화한 뒤에는 4세기 후반 경기도 일원까지 남하한다(신광철 2011). 그 과정에서 영서 지역으로의 진출은 자연스러운 수순이었는데, 이는 영락 6년(396) 고구려의 대대적인 백제 정벌과 영락 10년(400) 신라 구원을 위한 步騎 5만 파견과 관련해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금경숙 2001: 45-46). 실제 4세기 후엽이 되면 춘천과 홍천, 강릉 등 강원도 중북부 지역에서 고구려와의 접촉 흔적이 확인되는데, 비슷한 시점에 파주 주월리유적에서도 소량의 고구려 토기가 출토되는 것을 보면 이 시기 대략 위도 37°선을 기준으로 고구려의 남진 한계선을 설정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1) 부형철촉

춘천 중도유적 주거지 및 홍천 하화계리 유적 6호 주거지를 비롯해 강릉 강문동 133번지 유적 14호 주거지, 강릉 병산동 취락Ⅱ 6호 주거지, 동해 망상동유적Ⅱ 8호 주거지에서 부형철촉이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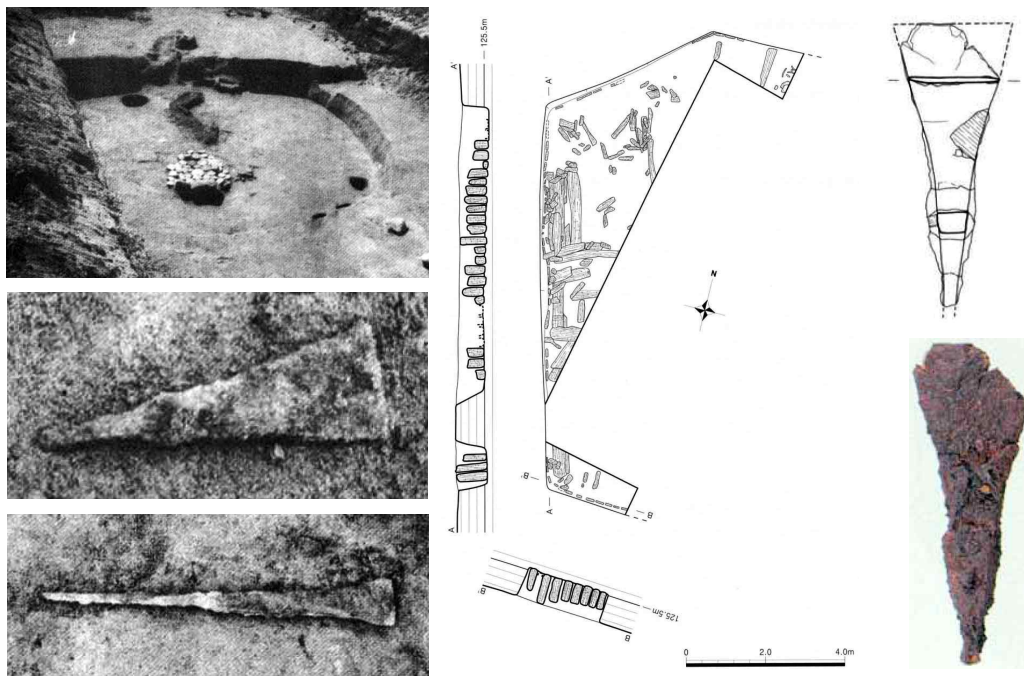


그림 5 춘천 중도유적 주거지 및 부형철촉(左)과 홍천 하화계리 유적 6호 주거지 및 부형철촉(右)

16) 『三國志』卷30「魏書 東夷列傳」第30 <濊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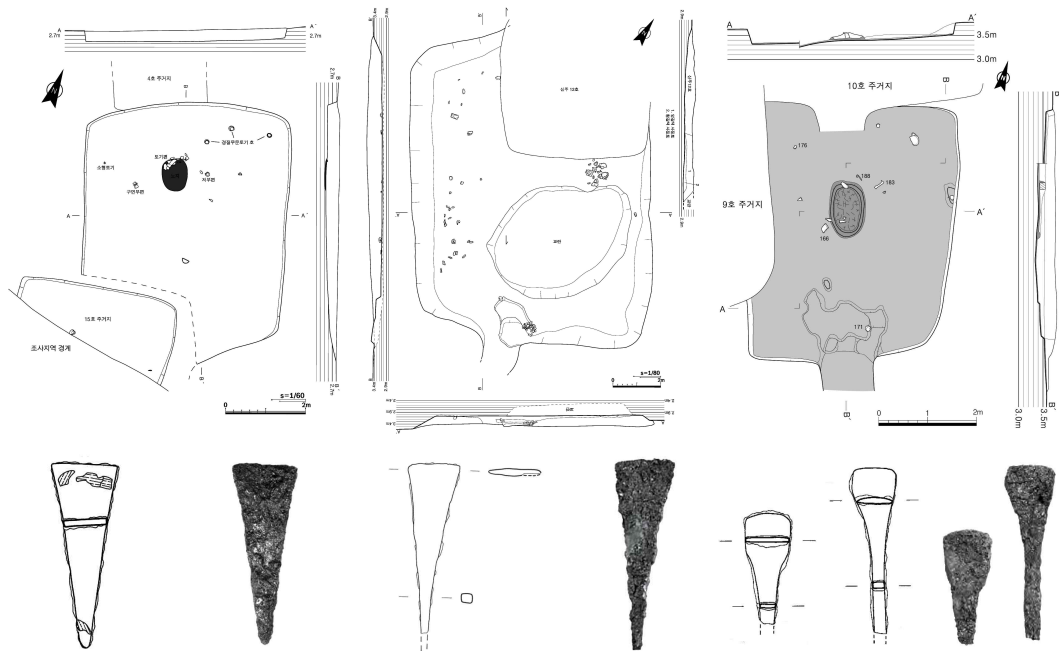


그림 6 강릉 강문동 133번지 유적 14호 주거지 및 부형철촉(左)과 강릉 병산동 취락Ⅱ 6호 주거지 및 부형철촉(中), 동해 망상동유적Ⅱ 8호 주거지 및 부형철촉(右)¹⁷⁾

해당 주거지들은 모두 4세기 후엽 경으로 편년 가능하며, 이른 시기 해당 지역의 재지계 집단이 고구려와 접촉했음을 알려준다(그림 5~6 참고). 한편, 통상적으로 영동 지역, 그중에서도 강릉 지역은 4세기 말 新羅化가 이루어지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으며, 경질무문토기 문화가 그때까지 지속되기는 하지만 ‘타날문토기의 장동화’, ‘도질의 타날문토기 출현’ 등을 신라의 영향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강문동취락에서 장란형토기의 조형으로 생각되는 장동형토기(3세기 중반)는 물론 백제문화의 특징적인 유물로 인식되는 직구호와 능형문의 도인이 찍힌 대옹이 확인되었으며, 동해 송정동유적과 강릉 병산동 취락에서는 호남 지방의 특징적인 재지계 토기인 조형토기(3세기 중반)가 출토된 바 있다. 더불어 이 시기 영동 지역에서는 낙랑토기를 비롯해 하지끼, 노형토기 등도 출토되고 있어 영동 지역의 재지계 집단이 신라에 복속되기 이전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고 주체적으로 주변 세력과 교류하였음을 알 수 있다(박지희 2016; (재)江原考古文化研究院, 2011: 181-182).

한편, 문헌 기사를 보면 4세기 후엽 경에 고구려와 강원도 지역의 재지계 집단이 ‘최초’로 조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강원도 일대에서 출토되는 부형철촉이 4세기 말 고구려의 대대적인 남진과 맞물려 유입된 것인지, 그 이전에 교역 또는 교류라는 방식을 통해 유입된 것인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지만, 현재 4세기 후엽보다 이른 시점의 고고자료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단, 타 지역과의 문화교류 흔적을 통해 강원도 일원의 재지계 집단이 고구려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주체적으로 임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러한 시각에서 고구려의 강원도 진출 과정을 복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봤을 때 4세기 말을 기점으로 고구려의 강원도 진출 과정이나 정책의 성격 등에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그림 7 참고).

17) 관련 보고서 참고((재)江原考古文化研究院, 2011; 2018; (재)예맥문화재연구원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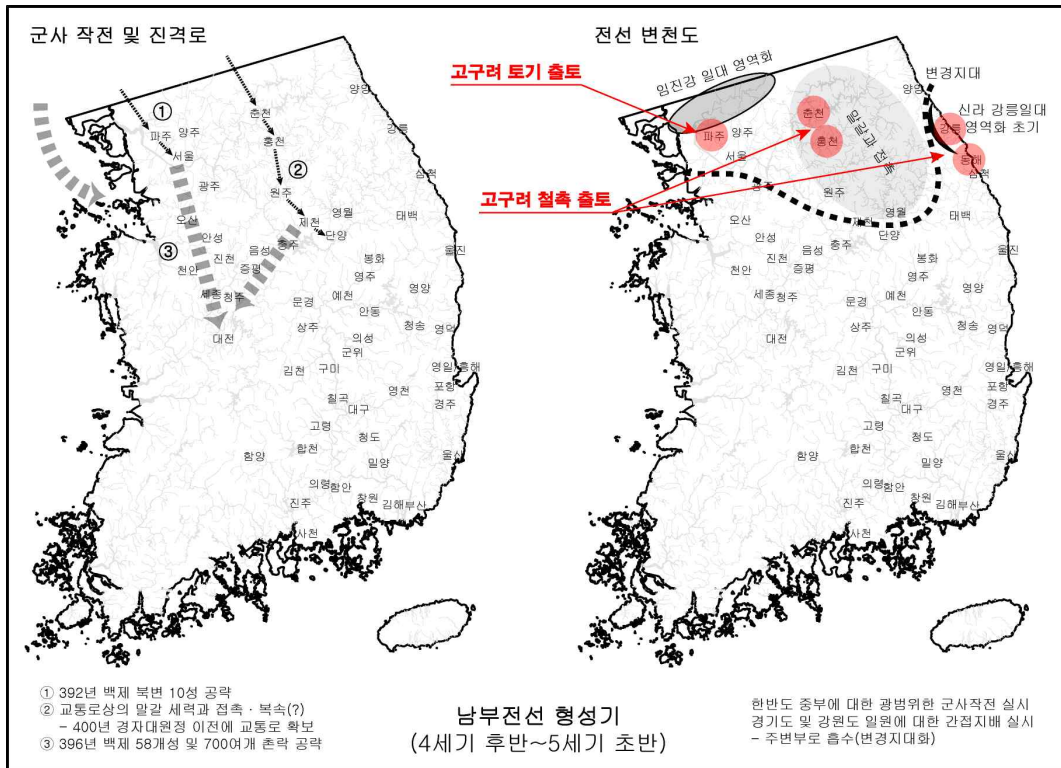


그림 7 남부전선 형성기 현황(신광철 2018: 7 수정)

2) 생활유적 및 토기



그림 8 양양 포윌리고분 관고리

4세기 말부터 영동 지역은 신라의 무력 진출에 뒤이은 복속화 작업이 진행되는데, 양양 포윌리고분에서 고구려 관고리가 확인되는 것을 보면 양양(고구려)과 강릉(신라)에서 상호간 대치 국면이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그림 8 참고).

실제, 영동 지역에서 확인되는 신라 고분의 최북단은 양양 원포리 고분군인데, 포윌리고분은 그로부터 북쪽으로 약 30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다. 원포리 고분군은 5세기 중엽~6세기 중엽으로 편년 가능하며(江陵大學敎博物館 2007) 그 이상 北進할 수 없었던 신라는 남쪽의 동해·삼척 일대에 대한 영역화를 진행한다. 5세기 후반이 되면 강릉 지역에 한정되던 신라의 흔적이 영동지역 거의

대부분과 영서 지역 일부에서도 확인되지만(朴守榮 2010), 여전히 영서 지역에서 고구려의 영역화 흔적은 확인되지 않는다.

대신 영서 지역 내 몇몇 거점지에서 고구려 토기를 공반한 생활유구가 확인된다(그림 9 참고). 흥천 철정리유적에서는 생산유구로 추정되는 수혈부 구상유구 2기가 확인되었는데, 내부에서 호 구연부편과 대상파수편, 시루 저부편 등 고구려 토기 3점이 출토되었다(江原文化財研究所·原州地方國土管理廳 2005: 275~278). 역내리유적에서는 총 5기의 삼국시대 주거지가 조사되었는데, 그중 4호 주거지에서 대상파수가 부착된 장동호가 1점 출토되었다(江原文化財研究所·原州地方國土管理廳 2005: 347~350). 마지막으로 남한강 유역에서 최초로 확인된 원주 건동리유적에서는 주거지 3기와 구상유구 등에서 장동호 및 파상문이 시문된 토기편, 대상파수가 부착된 토기편 등의 고구려 토기가

출토되었다(재)에맥문화재연구원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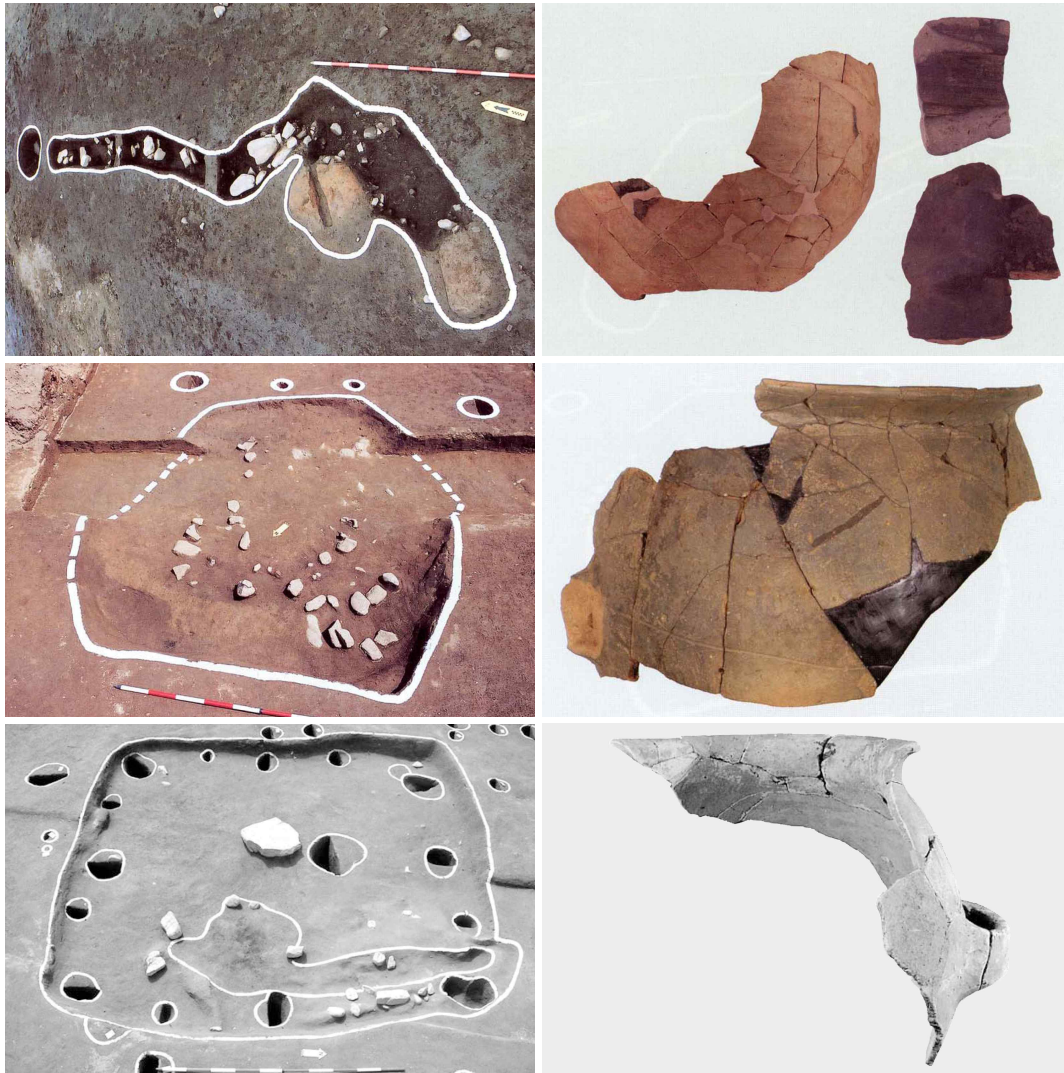


그림 9 홍천 철정리유적 구상유구 및 출토유물(上)과 홍천 역내리유적 주거지 및 출토유물(中), 원주 건등리유적 주거지 및 출토유물(下)¹⁸⁾

한반도 중남부 지역에서 출토되는 고구려 토기들은 크게 5세기 대와 6세기대로 구분 가능하며, 양자 간 제작기법에 일정한 차이가 있다. 몽촌토성과 은대리성, 남성골산성 등 5세기 대 유적에서 출토된 토기들은 표면이 황색조인 것이 상대적으로 적고, 니질태토라고 할지라도 고운 사립이 소량 섞여 있는 경우가 많다. 이들 유적의 토기에서는 비교적 많은 수의 토기에 문양이 시문되어 있으며, 문양의 종류도 음각 횡선문과 점열문, 중호문, 파상문 등이 단독 또는 결합하여 시문되고 일부 유적에서는 승문이나 격자문, 선조문 등이 타날되기도 한다. 그와 달리 아차산 보루군을 비롯한 6세기 대 유적에서 출토된 토기들은 표면색이 황색인 토기의 구성비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심발형토기를 제외하고는 완전한 니질태토의 토기가 대부분이다. 이들 유적에서는 음각으로 시문된 토기는 거의 없으며, 반대로 격자문이나 연속고리문 등의 암문이 시문된 토기의 비중이 이전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진다(崔鐘澤 2006: 289).

한편, 토기의 구단부 역시 5세기 대에는 둥글거나 직선으로 마무리된 형태의 비중이 높은 반면, 6세기 대 유적에서 출토된 토기는 구단부를 밖으로 말아 접은 형태의 비중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또한, 5세기 대 토기 중에는 동체부 성형 과정에서 점토띠의 접합을 위해 타날을 실시하고 회전대를 이용하여 물손질함으로써 타날 흔적을 지운 경우가

18) 관련 보고서 참고(江原文化財研究所・原州地方國土管理廳 2005a; (재)에맥문화재연구원 2008).

다수 발견되고 있어 주목된다. 하지만 한성을 점령할 때 고구려 군대가 본토에서 가져왔을 것으로 판단되는 몽촌토성의 고구려 토기에는 타날 흔적이 남아 있는 토기가 거의 없지만, 한강이남 지역의 고구려 고분이나 생활 유적, 임진강 및 한탄강 유역에서는 타날 흔적이 남아 있는 토기가 다수 발견된다. 아직까지 타날 기법을 이용한 고구려 토기의 성형 방식이 중국이나 북한에서 보고된 바가 없는데, 만약 이것이 남한에서만 확인되는 것이라면 고구려가 남진하면서 토기 제작에 현지의 백제 토기 장인을 보조시켰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밖에 다리가 달린 원통형 토기의 경우 삼족기에서 사족기로 변화한다거나, 통굽 혹은 굽을 붙여 만들거나 회전대를 이용하여 바닥을 깎아 만든 들린 굽이 부착된 토기들이 확인되는데 전자보다 후자가 시기적으로 후행한다고 볼 수 있다(양시은 2014).

강원도 일대에서 확인되는 고구려 토기들은 구단부가 밖으로 말린 것들이 없고, 대부분 세립의 장식과 석영, 운모 등이 포함되어 표면이 거친 것이 특징이며, 파상문과 횡침선, 격자타날 흔적 등이 확인된다. 그 외 암문이 확인되지 않는 점, 사이장경호 및 사이장경옹이 없는 점, 대상파수가 4개가 아닌 2개만 부착된 점 등이 주목된다. 상기 선행 연구를 기준으로 봤을 때 해당 토기들은 6세기 대 보루군에서 출토된 유물과는 차이가 있으며, 5세기 후반 대 고구려의 강원도 진출과 관련하여 남긴 흔적으로 볼 수 있겠다.

3) 분묘유적

생활유적 이외에 춘천 방동리 1~2호분·신매리고분·만천리 1~2호분·천전리고분, 홍천 철정리 고분군·역내리 1호분, 화천 거례리고분, 양양 포월리고분 등의 분묘도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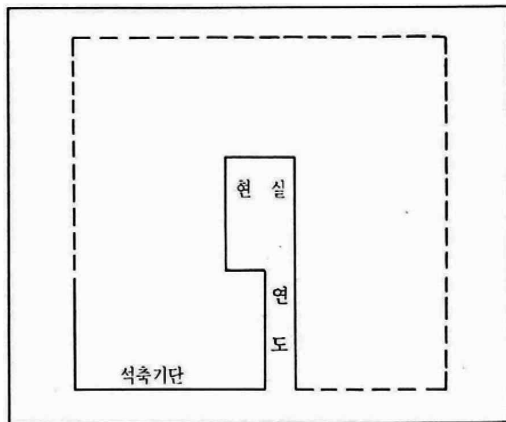


그림 10 방동리 2호분 구조 모식도
(盧熾眞·沈載淵 1993: 81)

먼저 춘천 방동리 1~2호분은 1981년에 최초 보고된 고분으로 일찍부터 평양 지역의 고구려 후기 고분과의 관련성이 언급되었다(金元龍 1981). 해당 고분 2기는 모두 말각조형식의 천정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방대상의 봉분 크기를 추정해보면 약 6~7m 내외였을 것이다.

2호가 먼저 축조된 뒤에 1호가 축조되었는데, 고분 내에서 회색 및 흑색의 니질태토를 가진 토기편들이 수습되었다. 특히 방동리 2호분의 독특한 석축 기단이 주목되는데(그림 10 참고), 기단식 적석총의 초층기단을 완성하고 그 중심에 동편 연도 단실묘를 축조하고 있어 후축한 방동리 1호분은 물론이고 인접한 춘천군 신매리 고분, 경기도 가평군 북면 이곡리의 고분 3기, 여주의 보통리 고분과도 축조 기법상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고분은 적당하게 다듬은 할석

으로 축조하였으며, 할석 사이에는灰의 흔적이 보인다(盧熾眞·沈載淵 1993: 그림 11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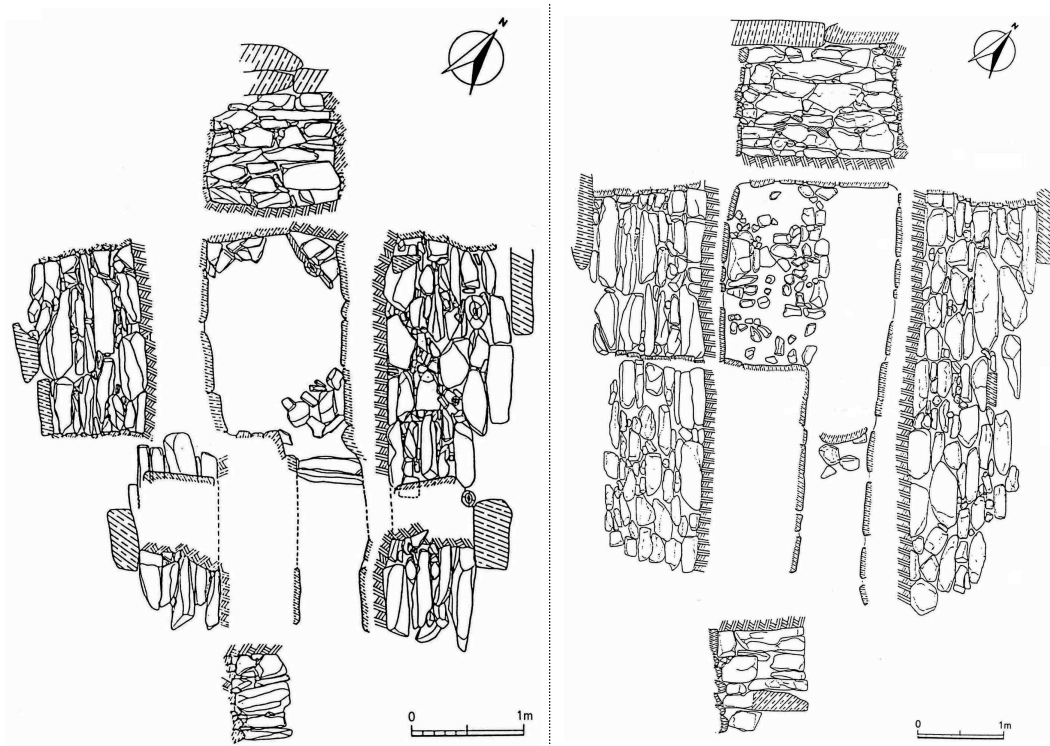


그림 11 춘천 방동리 1~2호분(盧熾眞・沈載淵 1993: 91/94)

춘천 신매리 고분은 1982년에 처음 알려졌는데, 방동리 석실분으로부터 직선거리로 4.3km 지점에 위치한다. 벽체는 할석을 5-8단 가량 약간 내경하여 축조하였으며, 벽체 축조시 각 단의 상면에 회를 두껍게 발라 벽체 바깥쪽에는 내부의 석재가 잘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천정은 말각조정식이며, 도굴되지 않은 탓에 내부에서 2기의 인골이 확인되었다. 인골 분석 결과, 1명은 노년의 여성(주인), 나머지 1명은 장년의 남성(노비)으로 추정 가능하며(金鎭晶・白先溶 1987), 조사자는 해당 고분의 축조시기를 6세기 중엽 이전으로 파악하였다(趙由典 1987; 그림 12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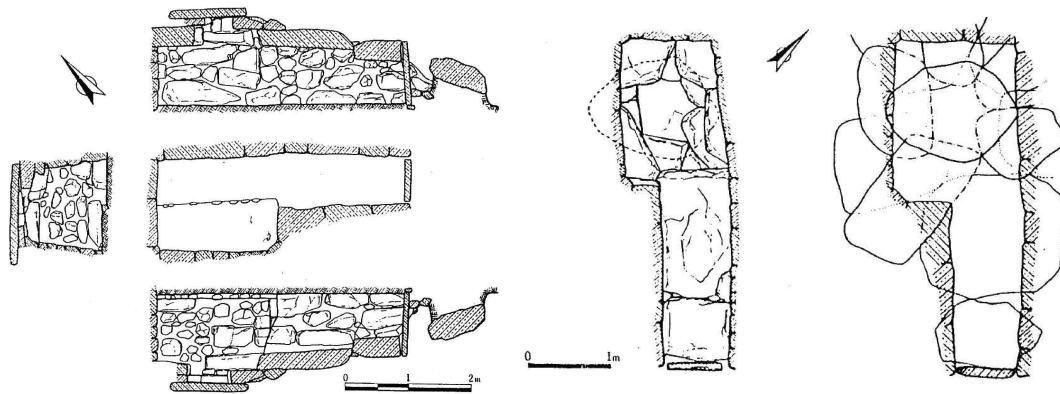


그림 12 춘천 신매리고분(趙由典 1987)

춘천 만천리 1~2호분은 1995년에 조사되었는데, 이미 도굴 및 자연 삭평 등으로 훼손이 심하게 진행된 상태였다. 1호분은 할석을 이용하여 축조하였으며, 봉토의 범위는 대략 6m 정도이다. 석실 상부의 모서리각을 줄인 흔적은 있지만 고분의 규모가 작아 말각조정식이 아니라 평천장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석실 내부에는 벽석 사이마다 회를 바른 흔적이 확인된다. 2호분 역시 할석으로 축조하였으며, 1호분과 달리 시상대가 거의 완전하게 남아 있었다. 천장 가구는 평천장으로 보이며, 석실 내부의 벽석 사이에서 회를 바른 흔적이 확인되었다. 두 고분 모두 바닥면에서 숯이

확인되어 매장 의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2호분 시상대 상부의 교란층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형태 불명의 청동 細片이 1점 출토되었으나 정확한 성격은 알 수 없다(한림대학교박물관 2000: 26-27; 그림 13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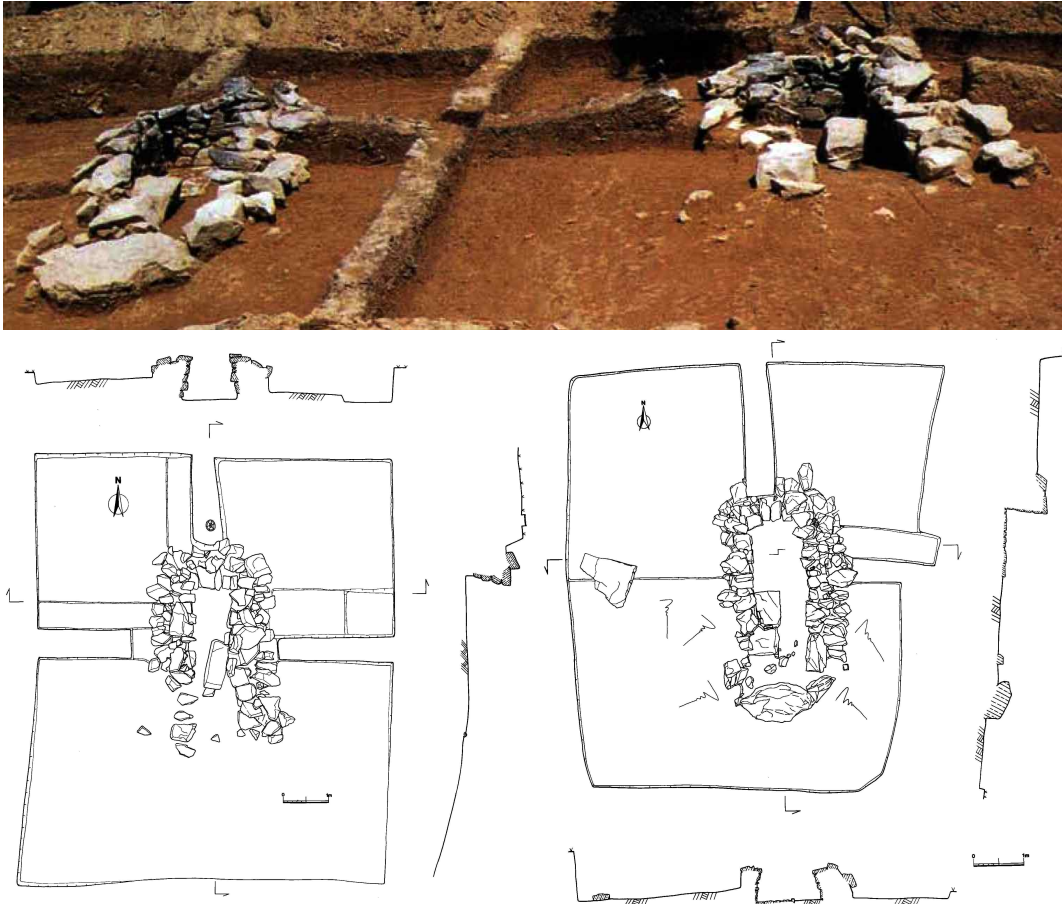


그림 13 춘천 만천리 1~2호분(翰林大學校博物館 2000)

춘천 천전리유적 B지역에서 발견된 횡혈식석실본은 상부 구조나 개석의 유무를 알 수 없다. 벽체에 회가 발라져 있으며, 유구 축조 이전에 의례행위를 한 흔적 등이 확인된다. 석실 주변에는 남쪽을 제외한 3방향에 ‘ㄷ’자형 주구를 설치하였다. 주구의 단면은 완만한 U자상을 띠며 내부에서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조사단은 비록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지만 전체적인 구조를 통해 인근 지역에서 확인된 춘천 방동리 1·2호분, 춘천 신매리 고분, 홍천 역내리 1호분 등과 유사한 점이 많아 이를 5세기 중후반~6세기 중엽 사이에 축조된 고구려 고분으로 해석하였다(江原文化財研究所 2008a: 146; 그림 14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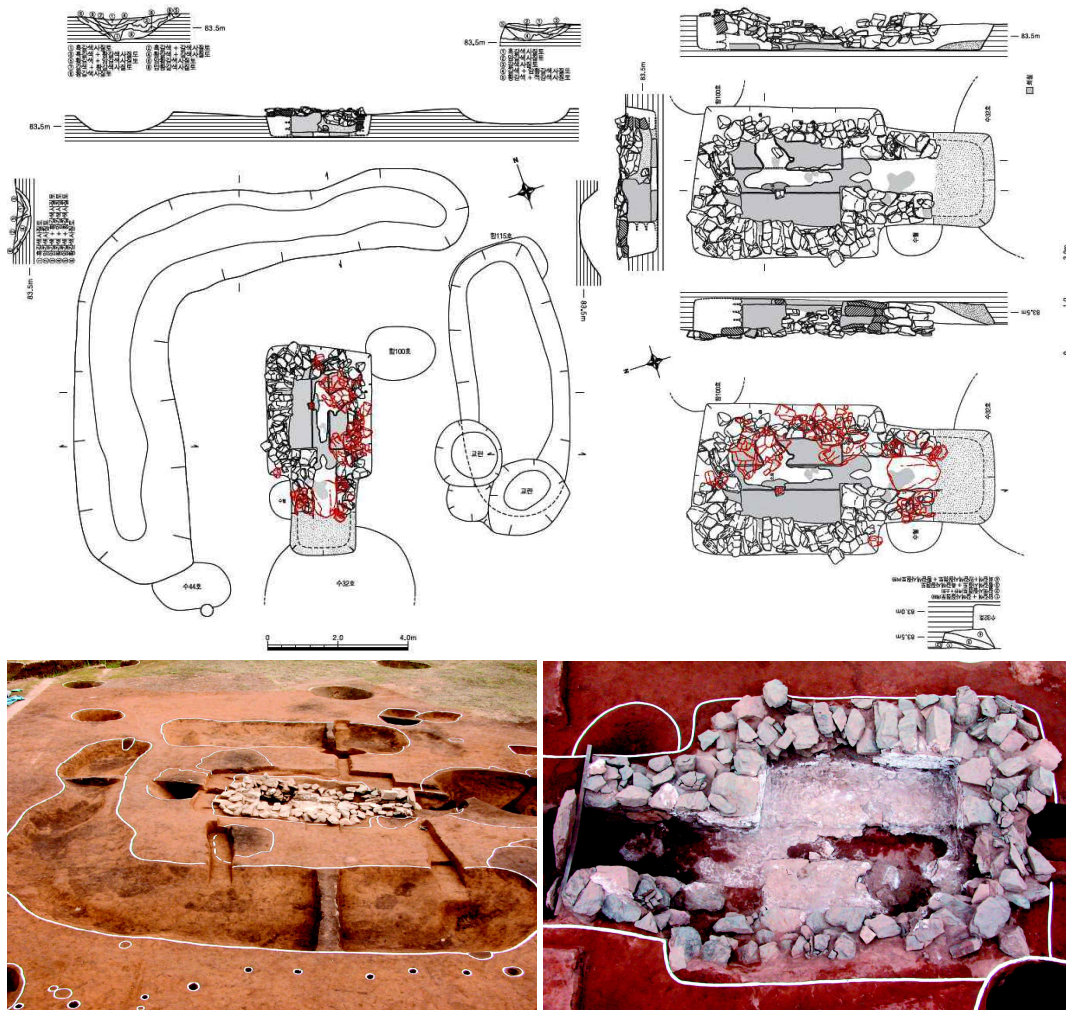


그림 14 춘천 천전리고분(江原文化財研究所 2008a; 2008b: 303-304)

흥천 철정리유적 C-2구역에서는 총 4기의 삼국시대 고분이 조사되었는데, 이중 수혈식석곽묘 또는 횡구식석실묘로 보이는 1호분을 제외한 2~4호분이 고구려 횡혈식석실묘로 확인되었다.

2호분은 조사 당시 상단부 대부분이 훼손되어 개석 유무는 알 수 없으며, 할석을 이용해 벽체를 축조하였다. 바닥에는 시상대가 확인되었으며, 도굴이나 추가장의 흔적은 없으나 내부에서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고분의 동쪽과 서쪽에 호상을 이루는 주구가 확인되었으며, 내부는 U자상의 퇴적 양상을 보인다. 3호분 역시 상단부 대부분이 훼손되어 개석 유무는 알 수 없으며, 추가장이나 도굴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할석을 이용하여 축조하였으며, 내부에는 시상대가 확인되었다. 4호분은 평면 장방형인 2~3호분과 달리 평면 방형이며 2~3호분에 비해 잔존 상태가 양호하지만 봉토는 확인되지 않았다. 양 단벽은 각각 1매의 판석을 이용하였으며, 양 장벽은 할석을 이용해 축조하여 2~3호분과 축조기법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도굴과 추가장의 흔적은 없었으며, 내부에서 유물도 출토되지 않았다(江原文化財研究所 2010: 132-136; 그림 15 참고)

철정리유적의 고분들은 모두 반지하식에 벽체에서 회철의 흔적이 확인되지 않아 주목된다. 단, 1호분은 구조나 축조기법상 천전리고분과 유사한 점이 많아 지역을 떠나 고분간 상관 관계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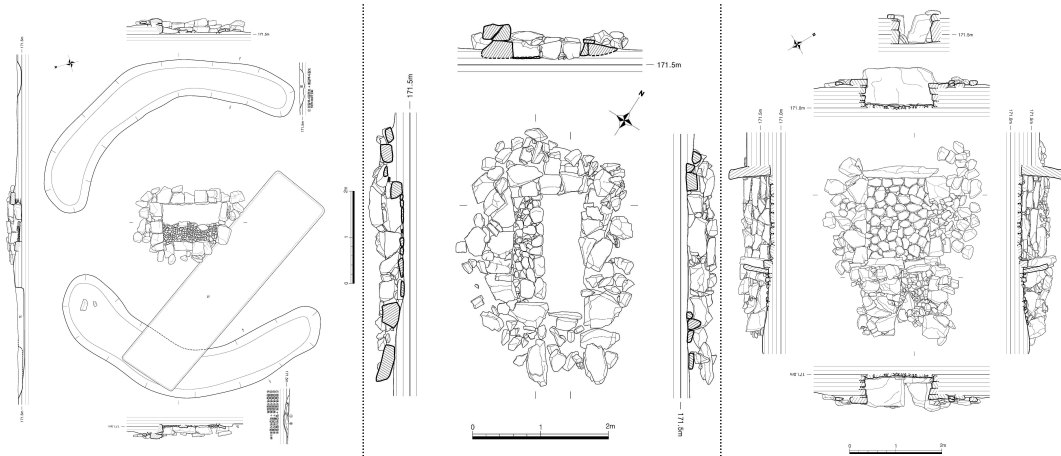


그림 15 홍천 철정리고분 2~4호분(江原文化財研究所 2010: 132-136)

홍천 역내리 고분군에서 총 14기의 고분이 조사되었는데, 그중 1호분만 횡혈식이고 나머지는 전부 횡구식이었다. 1호분은 봉토의 대부분이 삭평되었으며, 호석이나 주구 등은 확인하지 못 했다. 할석을 이용하여 벽체를 축조하였으며, 천정부는 판상할석을 이용하여 모두 3단으로 구성하였는데, 2단까지 네 모서리를 줄인 후 최종적으로 판상할석 1매를 덮어 마무리하였다. 석실과 연도의 경계부에 판상할석 3매와 대형 판상할석 1매를 이용하여 문틀시설을 설치하였으며, 판상할석 1매로 폐쇄하였다. 석실 북동 모서리 부근의 바닥에서 약 20cm 정도 뜬 상태로 鐵環 1점이 수습되었으며, 봉토 내 토층조사 시 토기편 소량이 수습되었다(原文化財研究所·原州地方國土管理廳 2005b; 그림 16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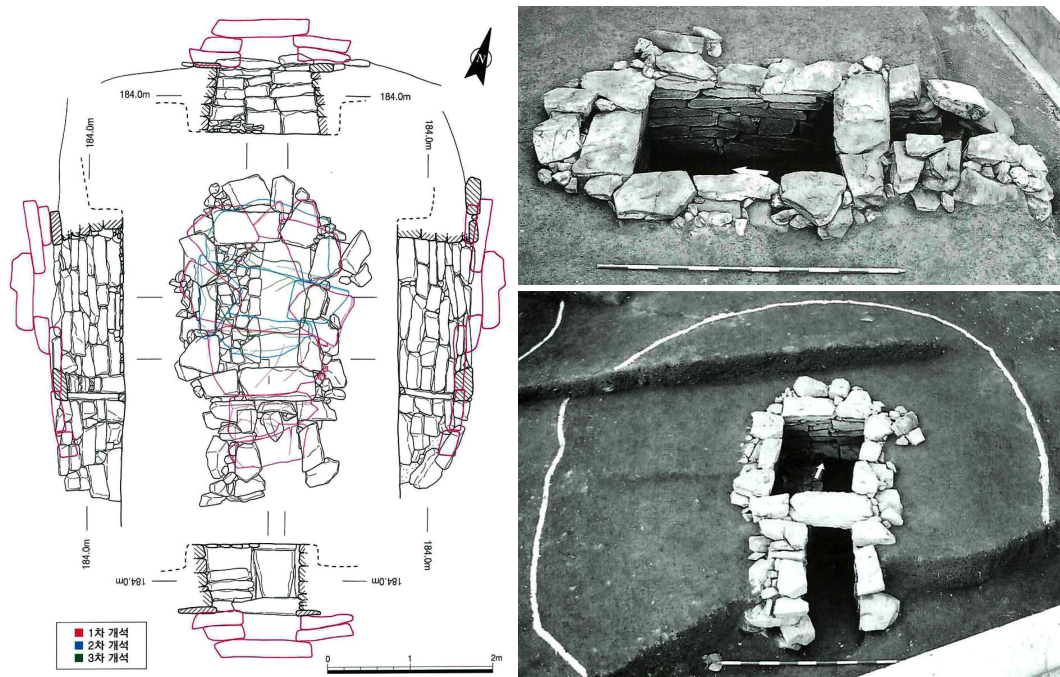


그림 16 홍천 역내리 1호분(江原文化財研究所·原州地方國土管理廳 2005a)

가장 최근에 조사된 화천 거례리고분은 황갈색 사질점토의 생토를 굴착한 뒤 굴착면 안쪽에서 면을 맞추어 사방으로 벽석을 쌓았다. 최소한으로 가공된 석재를 사용해 벽석을 쌓은 후 내부는 천석과 대형 판석, 2단에 걸쳐 시설하였다. 바닥시설은 묘실 내부의 바닥과 동일하게 천석을 촘촘하게 깔았으며, 출토 유물은 철정 이외에는 확인되지 않았다. 20여 점의 鐵釘은 일정한 위치 없이 묘실 바닥에 어지럽게 흐트러져 있었으며, 바닥에서 15cm 가량 뜬 채로 확인된 것들도 있었다. 남벽 일부가 훼손된 것과 철정의 출토 상황을 통해 봤을 때 이미 도굴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원주지방국토관리청·(재)한백문화재연구원 2013: 294). 조사단은 정확한 조성 주체나 시기를 파악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고분의 축조기법과 고구려에서 많이 확인되는 원두정(리광희 2005: 308)을 통해 봤을 때 고구려 고분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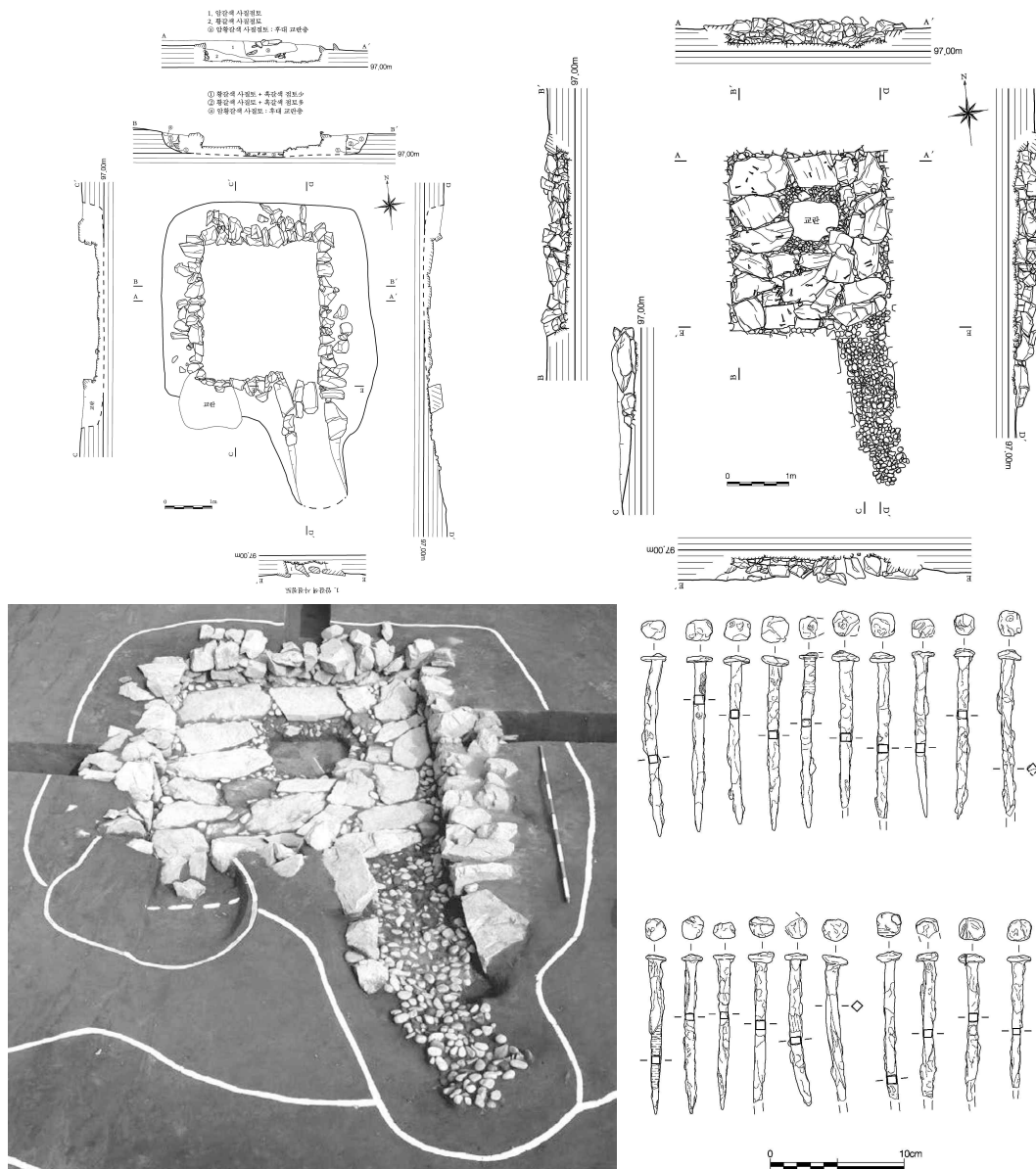


그림 17 화천 거례리고분(원주지방국토관리청·(재)한백문화재연구원 2013: 295-297)

마지막으로 양양 포월리고분은 조사 당시 신라시대 3호 고분으로 명명되었다. 고분 상단부는 대부분 훼손되었으며, 묘실 평면은 방형이다. 남편 석축에 인접해서 금동관고리 1점이 고리가 상면을 향한 채로 노출되었다. 관고리의 직경은 약 7.4~7.6cm이며 고리 밑에 부착된 금동판에 4개의 인동무늬가 장식되었고, 고리와 관을 연결하는 못은 고리를 감싸고 안으로 박혀서 빠지지 않도록 꺾어 놓았다. 퇴적토를 제거하자 추가로 관고리들이 확인되었고, 주변에서 길이 7cm 정도의 관정이 다수 수습되었다. 유구의 형태로 보아 추가장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며, 바닥면에서 고리만 남아 있고 장식은 부식되어 결실된 세환이식 1점이 출토되었다(江陵大學敎博物館·襄陽郡 2002: 94-98). 이와 비슷한 관고리가 연천 강내리 8호분에서 출토된 바 있기에 고구려 고분으로 분류 가능하다(그림 18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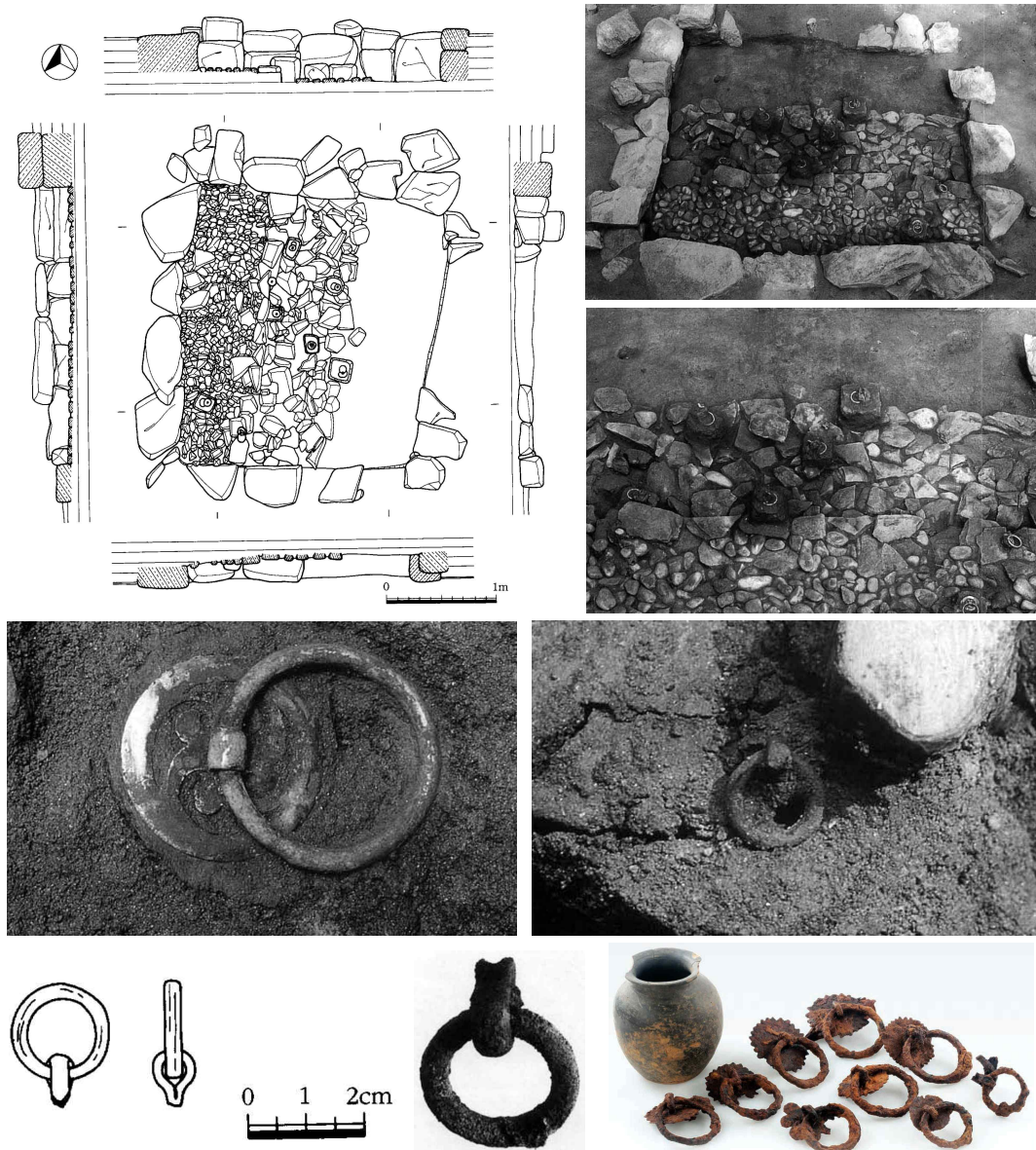


그림 18 양양 포월리고분(江陵大學校博物館·襄陽郡 2002) 및 연천 강내리 8호분 출토 관고리(右下)

이상 강원도 일원에서 확인된 고구려 고분은 총 12기로 지역별로 살펴보면 화천 1기, 춘천 6기, 홍천 4기, 양양 1기이다(그림 19 참고).

고구려 고분은 양양 포월리고분을 제외하면 모두 북한강 유역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 지역에서는 신라 석실분도 다수 확인되고 있어 양자를 구분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석실의 장단비를 기준으로 보면 고구려 고분은 면적의 大小를

떠나 장단비 평균이 1.37:1이지만 가평 대성리나 홍천 역내리 2~14호분 등의 신라 석실분은 장단비가 3.22:1로서 고구려 고분에 비해 월등히 세장함을 알 수 있다. 한강 본류역과 남한강 유역에서 확인되는 고구려 석실분의 장단비 또한 1.49:1로 북한강 유역의 석실분과 큰 차이가 없는 대신 면적은 다소 넓은 것으로 파악된다(황보경 2010).

또한, 고구려 석실분은 대부분 우편재이며, 말각조정식 천정구조인데 이는 신라 석실분과 뚜렷이 구분되는 특징이다. 그밖에 춘천 지역의 고분은 대부분 지상식에 모두 벽체에 회를 칠한 것이 특징이며, 바닥면에서 숯이 수습되어 의례 행위를 했음을 알 수 있다. 홍천 지역의 고분은 모두 반지하식에 벽체에서 회칠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고구려의 매장문화가 강원도에 유입될 때 지방색이 있었음을 알려준다. 특히 춘천 천전리고분과 홍천 철정리 2호분에서는 분묘 주변으로 주구가 확인되었는데, 이는 경계와 배수의 기능을 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지역을 떠나 유사한 매장문화가 각지에 자리 잡았음을 알려준다. 더불어 방동리 2호분처럼 타 지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창적인 축조기법을 보면 강원도 일원의 고구려 문화가 다양한 경로로 유입·접촉·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¹⁹⁾

이처럼 고구려 후기 중앙 양식의 석실분과 동일한 요소들도 있지만, 지역별로 독창적인 요소들도 확인되고 있는 것을 보면 고구려가 강원도 일대로 진출한 뒤 재지계 토착사회를 전면적으로 재편한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서로 다른 수준의 접촉·변화를 겪었음을 알려준다.

더불어 주거지 및 토기의 숫자가 적은 것 역시 고구려의 강원도 진출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려준다. 이는 대규모 군대를 동원한 군사적 진출보다는 고구려에서 파견된 일단의 집단(행정관료 및 외교사절 등)이 강원도 각지의 재지계 집단과 접촉하는 정치·외교적 진출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고려하게 해준다. 당시 강원도 일원은 고구려에게 있어 미지의 영역이 아니라 수백 년 전부터 이어진 교류로 인해 충분히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곳이었으며,²⁰⁾ 4세기를 기점으로 고구려가 강원도 일원을 무력으로 제압하기 보다는 강원도 지역에 대한 정책을 바꾸게 되면서 이와 같은 변화가 생긴 것이라고 생각한다.²¹⁾

또한, 해당 지역의 고구려 고분들을 보면 1~4기씩 모여서 위치하는데, 특히 2기씩 짝을 이루거나 한 봉분 안에 쌍실이 마련된 석실분들을 보면 피장자들이 친연성이 강한 부부 관계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강원도 지역뿐만 아니라 연천 강내리·충주 두정리 등지에서도 확인되는 사례인데, 부부가 동시에 사망해 매장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묻혔다면 이는 그만큼 강원도 일원이 당시 고구려인들에게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제공했음을 알려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남한지역 고구려 고분의 경우, 묘실 평면 형태를 기준으로 다시 세장방형과 장방형으로 구분 가능한데, 세장방형인 방동리 2호분은 5세기 중엽경, 장방형의 나머지 고분들은 5세기 후엽 경으로 편년된다.²²⁾ 흥미로운 사실은 세장방형의 경우, 형태나 구조적인 속성이 비교적 정형화되어 있어 편년에 문제가 없으나, 장방형의 경우 묘실의 평면 형태를 제외하면 여러 속성 간에 다양한 결합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崔鐘澤 2011: 165). 이 또한 고구려의 서울·경기 및 강원도 진출이 여러 형태·경로를 따라 이루어졌으며, 당대사를 단순화하여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을 대변해주는 것이라 생각한다.²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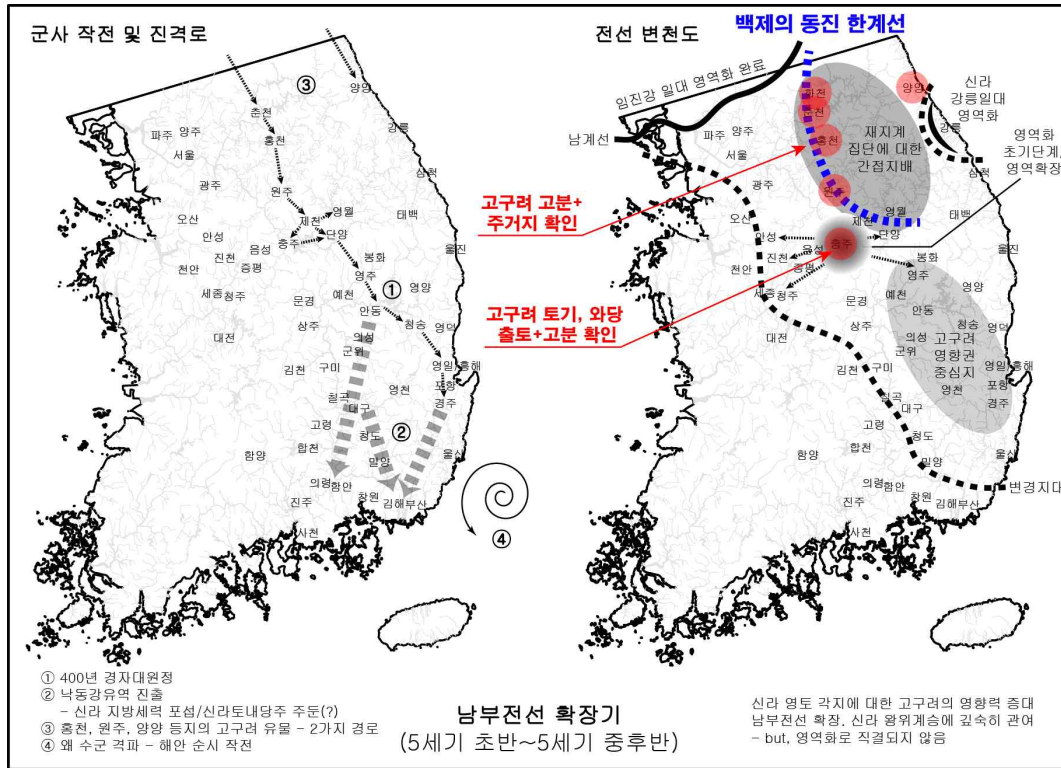
19) 단, 이것이 고구려 내의 분묘 축조기법상 차이를 보이는 다수의 집단이 강원도로 진출한 결과인지, 고구려의 분묘 축조기법이 강원도에 유입된 뒤에 춘천 혹은 홍천 재지문화와 결합하면서 나타난 결과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20) 『삼국지』 「동이전」과 『삼국사기』에 기록된 내용을 염두에 둔다면, 고구려가 당시 동해안 지역을 실질적으로 점유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그 지역과 장기간 교류를 했으며, 해당 지역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 이는 청동기~원삼국 단계에 이미 단결-크로우노프카 문화와 강원도 일원 재지계 문화가 서로 상관성이 깊다는 선행 연구와도 맞물리는 시각이다.

21) 필자는 기존에 고구려가 압도적인 국력을 바탕으로 강력한 남진을 시도하였고, 말갈이 고구려와의 '압도적인 힘의 차이'를 인식해 별다른 저항 없이 복속했을 것으로 이해하였다(신광철 2015: 97). 김현숙 또한 이와 비슷한 시각 아래 고구려의 진출에 맞춰 백제 권역 내의 濊가 고구려로 자진 귀부했다고 보기도 하였다(2005: 188). 하지만 고구려와 강원도 지역의 교류가 4세기 이전부터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시기 '무력'의 차이를 느껴 귀부했다기 보다는 고구려의 對남진정책의 변화에 순응했던 것으로 보고자 한다.

22) 백종오는 고구려의 심발형태기가 장동호로 대체되지 않고 6세기 이후에도 지속된다는 양시은의 연구 결과(2003)를 토대로 해당 고분들을 5세기 후반~6세기 초반 경으로 편년하였는데, 검토의 여지가 있다(2009: 243).

23) 오강원은 방동리 2호분을 5세기 중반 전후에 축조된 백제계 고분으로 이해하였으며, 신매리고분은 이 지역을 고구려가 다스리던 때에 조영된 것으로 이해해 5세기~6세기 중반 이전으로 편년하였다. 또한 만천리고분은 그 계통을 알 수 없으며 춘천 지역의 군사지휘자 또는 지배자의 무덤으로 보면서 조영시기는 6세기 중반 이후로 다소 늦게 보았다(1996). 현재



〈그림 19〉 남부전선 확장기 현황(신광철 2018: 7 수정)

현재 4세기 말을 기점으로 강원도 일원에서 고구려의 무력 행위에 기반한 진출 흔적은 확인할 수가 없는데,²⁴⁾ 이는 고구려의 강원도 진출이 백제·신라와는 달랐음을 알려준다. 화천(대단위 취락)과 원주(고분군)에서 백제가 직접 개척한 거점이 확인되었으며 춘천 중도 적석총을 비롯해 거두리·군자리, 홍천 하화계리·성산리유적 등에서 백제 주거지와 함께 토기·기와류가 확인되는 것(沈載淵 2006: 2010)을 보면 백제는 적어도 강 유역의 말갈은 무력으로 제압하고, 남한강 유역의 말갈(법천리 세력)을 후원하여 남한강 수로의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였다는 견해가 있다(서영일 2003: 34).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북한강 유역에는 여전히 춘천을 중심으로 한 재지계 문화권이 성행하였으며,²⁵⁾ 백제는 춘천 지역에서 그다지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 한다는 점이다. 실제 화천 원천리유적의 백제 유적을 보면 4세기 중반~5세기 중반으로 편년 가능한데(재)에맥문화재연구원 2013: 45), 분명 춘천의 재지계문화가 소멸기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동안 영서 지역의 중심지라 할 수 있는 춘천 지역으로 백제가 진출하지 못한 것은 의문이다(그림 20 참고).

해당 고분들은 모두 고구려가 축조한 것으로 보는 데에 큰 이견이 없지만, 이러한 주장이 나온 것을 보면 그만큼 고분 내 세부적인 요소들이 복잡하게 결합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24) 원삼국시대 유적 중 한성백제의 흔적(진출)을 의미하는 육각형주거지는 화천, 춘천, 홍천, 횡성, 원주, 영월 등 영서 지역의 서쪽 외곽에 위치한다. 특히 화천에는 대단위 취락이, 원주에는 위계가 높은 고분군이 축조되는 등 한성백제가 일찍부터 영서 지역으로의 적극적인 진출을 꾀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5세기 초중반이 되면 해당 지역의 백제 유적은 종말을 고하게 되는데 이는 고구려의 진출과 맞물려 이해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단, 그 과정에서 고구려라는 외부 세력의 개입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지, 靺鞨계 노선을 걸던 재지계 집단이 주도적으로 靺鞨고구려 노선으로 변경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25) 춘천 우두동 일대는 초기철기~원삼국시대에 해당하는 인근 지역의 중심지로서 유적의 중심시기는 1세기~3세기 중후반이며, 일부 기원전 1세기로 소급되거나 4세기까지 존속하는 유구들이 확인되고 있다(江原文化財研究所 2011; 2012; 2015; LH·(재)한강문화재연구원 2017; 한국문화재단 2016;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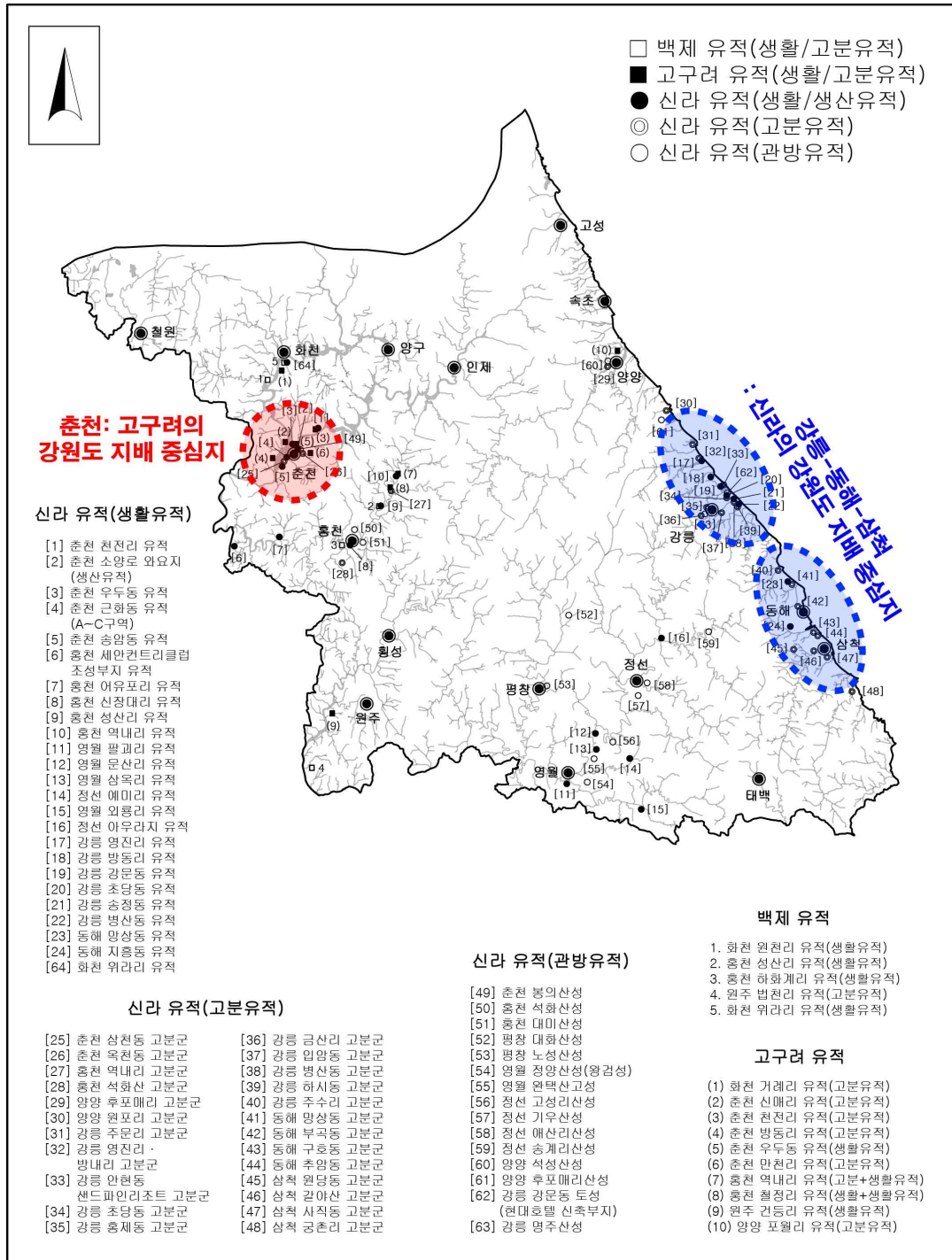


그림 20 강원도의 삼국시대 유적 분포도(서영일 2013: 43; 심재연 2008c
李昌鉉 2005: 21; 皇甫慶 2011: 70-72; 홍영호 2010 수정; 2012년 이후 유적은 보고서 참고)

이와 관련된 자료가 최근 조사된 화천 위라리 123-1번지 유적에서도 확인되었다. 화천 위라리 123-1번지 유적 5호 주거지에서 고구려 양이부호와 시루 등이 신라토기와 함께 출토되었는데, 조사자는 이를 교류를 통해 유입된 토기로 이해하였다.²⁶⁾ 그간 한성백제기 북한강 유역의 지배를 알려주는 표지유적으로 화천 원천리유적, 그 배후 거점 마

26) 조사자는 해당 주거지에서 출토된 대호를 두고 몽촌토성 동남 고대지에서 출토된 사이장경웅과 유사한 경부를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필자가 실물을 보지는 않았지만 도면과 도판, 유물 설명을 보면 경질 태도에 구단부 및 경부의 형태가 고구

을유적으로 위라리유적이 후보지로 언급되어 왔는데, 이번 조사를 통해서 북한강 상류지역의 거점마을 유적의 존재를 상정할 수 있게 되었다(심재연 2017: 98). 조사단은 해당 유적이 5세기 초반까지는 백제 영역이었으나 5세기 초 어느 시점에 고구려의 영향력이 점차 증가하게 되고, 이내 백제·고구려의 한강유역에 대한 쟁탈전이 극심해지면서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이 사라졌다고 보았다. 그러다가 5세기 중반~6세기 초반 경 신라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고 6세기 중반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이 지역에 신라가 진출하였다고 해석하였다(한국문화재단 2017: 268-269; 그림 21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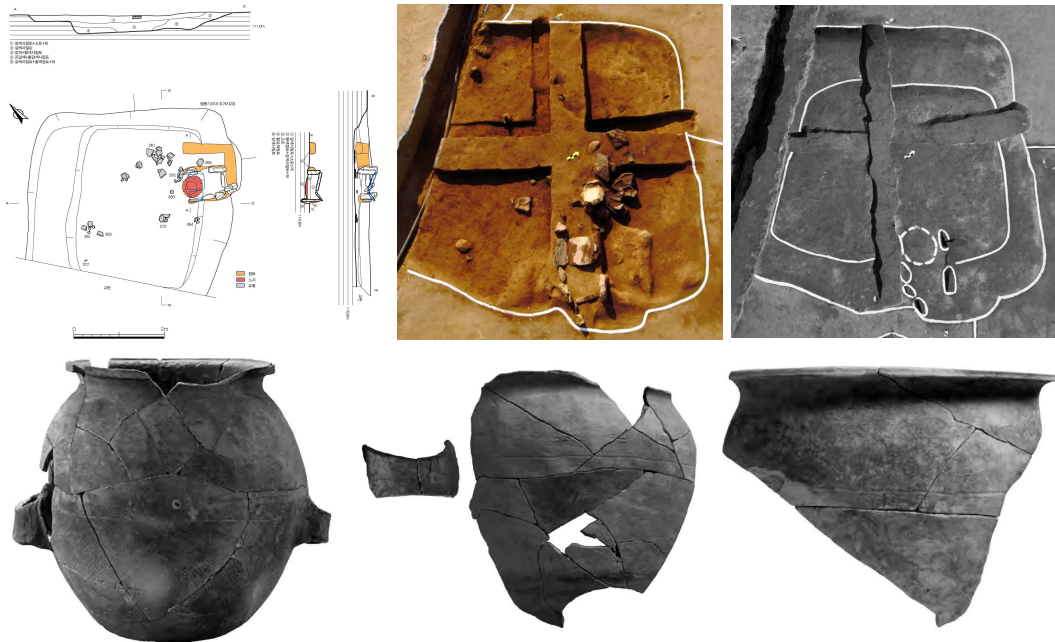


그림 21 화천 위라리 123-1번지 유적 5호 주거지와 출토 고구려 토기(한국문화재단 2017)

이처럼 화천 지역에 대한 백제의 지속적인 투자는 백제가 전통적인 영서지역의 중심지였던 춘천으로의 진출이 여의치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더불어 5세기 중반~6세기 초반에 이미 신라와 고구려의 흔적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것을 보면 대대적인 신라의 북진 이전에 이미 강원도 일원으로 신라 세력이 침투했음을 알 수 있는데, 중앙 정부가 아닌 소백산맥을 경계로 한 신라 외곽의 세력과 관련된 흔적 혹은 당시 영서지역이 고구려의 영향 하에 있었다고는 하지만 각 지역의 재지계 집단이 상당히 자율적인 행보를 견지했다면, 화천 위라리 지역의 재지계 집단이 백제-고구려-신라 순으로 외부 세력의 推移에 따라 교류 대상의 다변화를 꾀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이상 강원도 지역에서 확인되는 고구려 관련 고고자료를 검토한 결과, 지역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4세기 말~5세기 초까지 백제가 진출 혹은 백제의 영향 하에 있던 영서지역 서쪽 지역이 고구려 진출 이후에는 고구려의 흔적이 강하게 확인되기 시작한다. 특히 백제와 고구려의 세력 교체기를 짐작할만한 과도기적 단계가 확인되지 않는 것을 보면 일시에 백제 영역이 고구려 영역으로 변환된 듯한 양상이다. 그럼에도 백제와 고구려간 충돌, 고구려와 강원도 내 재지계집단과의 충돌을 엿볼 수 있는 문헌사료 및 고고자료의 부재를 고려하면 고구려의 강원도 진출은 무력에 의한 군사적 진출보다는 정치·외교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닐까 싶다. 이는 고구려와 강원도 일대의 諸세력들이 이미 수백 년 교류·접촉하면서 해당 지역의 정치체들이 고구려의 강력한 국력을 인지한 탓도 있지만, 상호간 문화적 동질성, 추구하는 실익 및 정책의 공통성 등이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일 것이다.

려 토기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제외하였다.

3. 소위 ‘말갈’ 문화 변화상

말갈의 시기별 활동 양상을 논한 연구는 그간 여럿 있어 왔으며(李康來 1985; 宣石悅 2006; 李東輝 2003), 최근 金鎭光은 문헌상 말갈의 등장 시점을 5기로 구분해 각 시기별 특징을 살펴본 바 있다(2009). 이를 참고하여 각 시기별 말갈의 특징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각 시기별 말갈의 특징

구분	연대	주적 대국	출몰 지역		전투 양상	병력		비고
						편제	규모	
1기	B.C.37~A.D.56	백제	강원도 철원과 김화, 경기도 영평과 연천, 파주, 여주	(대)부현, 청목산(령) 마수산(성), 병산책, 고목성, 구천, 술전성	공성전 야전	보병	수백~3천	낙랑과 말갈의 공동작전
공백기	57~107 (50년)	이후 백제와 말갈 교전 기사 확인 안 됨 백제와 일진일퇴 공방전을 벌이면서 큰 피해를 입지만 지속적으로 백제 공격						
2기	108~142	신라	남한강 중하류역	대령책, 장령(책)	공성전	?	?	말갈 정벌 시도
공백기	143~202 (59년)	이후 백제와 말갈 교전 기사 확인 안 됨						
3기	203~258	백제 신라	경기도 연천과 여주, 강원도 춘천	사도성+목책, 적현성, 술천, 우곡	공성전 야전	보병 勁騎	?	말갈의 석문성 공격 초고왕 전사?
공백기	259~386 (127년)	북부 진씨의 등장과 백제의 말갈 정벌 기사 확인, 일진일퇴 후 고이왕 즉위 258년 말갈 추장 나갈이 고이왕에게 良馬 10필 헌납 후 양자 간 장기간의 화평						
4기	387~395	백제 신라	한강 하류역 강원도 삼척	관미령, 적현성 실직지원	공성전 야전	?	?	고구려의 백제 공격과 궤를 같이 함
공백기	395~467 (72년)	본격적으로 고구려와 말갈이 공동작전 시행						
5기	468~507	백제 신라	서울과 경기도 광주 및 연천, 개성, 남한강 상류역과 경북	실직성, 호명성, 미질부, 니하, 한(산)성, 마수책, 고목성, 장령책	공성전 야전	?	?	고구려와 본격적으로 행보를 같이 함

■ 1기(B.C.37~A.D.56)와 공백기(57~107)

1기의 말갈은 경기도 북부와 동부, 강원도 영서지역 서부에서 주로 활동하는데, 외부에서 유입되어 한강 유역에 터전을 잡은 한성백제를 집요하게 공격한다. 당시 말갈은 낙랑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는데, 『三國志』와 『後漢書』를 보면 최소한 B.C. 75년에는 낙랑군의 직접통치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²⁷⁾ 이를 두고 임둔군의 15개현과 영동7현의 존재를 봤을 때 동시기 영서 지역에도 8~9개 현이 설치될 정도의 토착세력들이 존재했다는 견해가 있다(尹善泰 2001: 7). 이후 현도군과 임둔군이 폐지되면서 그중 일부만 낙랑군 동부도위에 속하게 된다. 漢은 建武 6년(30) 王調의 난을 진압한 뒤에 동부도위마저 폐지하고 단단대령 동쪽 지역을 모두 포기하면서 그 지역의 7개 군현이었던 不耐·華麗·沃沮 등을 侯國으로 삼는다.²⁸⁾

이를 통해 1세기 대에 영동 지역에 적어도 侯國으로 분류할만한 7개의 소국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²⁹⁾ 이들의

27) 『三國史記』 卷23 「百濟本紀」 第1 <始祖 溫祚王> 13年 夏5月條.

B.C.6년 당시 백제의 동쪽에는 낙랑, 북쪽에는 말갈이 있다(國家東有樂浪, 北有靺鞨)는 기록인데, 이를 그동안 방향이 서로 바뀐 것으로 이해해왔다. 하지만 낙랑과 말갈이 밀접한 관계에 있었고, 양자가 군사작전을 벌이는데 서로간의 경계가 불분명했다면 이와 같은 온조왕의 발언도 충분히 이해가 간다.

28) 『三國志』 卷30 「魏書 東夷列傳」 第30 <濊條>.

29) 영동·영서예를 나누는 지리적 기준인 단단대령을 태백산맥이 아니라 낭림산맥으로 이해하고, 지역집단으로서의 영동·영

통치자는 기존에 長帥·渠帥로 불리다가 이후 (縣)侯로 봉해졌는데, 각 소국들은 王 또는 侯, 伯長 등의 호칭을 쓰면서 각각의 발전 단계를 거쳤다.³⁰⁾ 한편 B.C. 44년에 1,150호에 불과했던 옥저가 3세기 무렵에 5천여 호로 성장한 것을 보면 각 소국들은 무력 충돌을 통해³¹⁾ 몇몇 유력 정치체로 통합됐을 가능성이 높다(이현혜 2010: 57-58). 이를 보면 1기의 말갈이 낙랑과 함께 백제를 공격했다가 낙랑의 지배력이 약화된 뒤 1기 공백기를 거치면서 경기~강원도 전역에서 내부적인 통폐합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

■ 2기(108~142)와 공백기(143~202)

2기가 되면 말갈이 신라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데, 영서지역과 달리 영동지역이 몇 개의 소국으로 통합되어 안정화된 결과가 아닐까 싶다. 이에 대해 李東輝는 말갈이 백제의 북쪽과 동쪽, 즉 오늘날의 임진강과 남한강 유역에 걸쳐 폭넓게 분포했던 集團群으로 이해하였으며(2003: 11-12), 金鎭光은 백제에 의해 격퇴된 말갈이 남한강 유역으로 이동하면서 이와 같은 기사가 등장한 것으로 이해하였다(2009: 31). 하지만 최근 조사된 춘천 우두동유적의 조사 결과를 보면 영서지역도 춘천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우두동취락은 B.C. 1세기부터 점유가 시작되어 3세기까지 존속하였는데, B.C. 1세기에는 유적의 북쪽 구역에 낙랑 지역 주민이 매장된 것으로 이해된다. 이후 A.D. 1세기부터 본격적인 취락의 점유가 시작되었고, 이전에 없던 鑿井 기술이 확인되었다. 우물의 규모는 크지 않지만, 피압대수층까지 굴착한 최초의 우물로서 낙랑토성에서 확인된 전축 우물과 유사하다. 이와 같은 착정 기술은 3세기 대 풍납토성에서 다시 확인될 때까지 기술적으로 전래되지 못 하는데, 桓靈之末 이전 낙랑과 濊 사회 사이에 수준 높은 기술 지원이 있었음을 알려준다. 우물 폐기후 구하도에는 경작이 행해졌으며, 1세기 후반에 제철 공방이 운영되기 시작해 2세기 대에 점차 공방이 대규모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제철공방의 운영을 바탕으로 춘천 분지를 장악한 재지계 집단의 존재는 낙랑·대방, 백제, 신라 등과 함께 병렬적으로 성장한 정치체가 있었음을 알려준다(그림 22 참고).

서예와 강원도 동부와 서부를 포괄하는 종족 개념으로서의 예를 구분한 연구가 있다(金在弘 2015). 하지만 전체 예계문화권 중 일부만 떼어내 낙랑 또는 임둔군에서 관리했는지 의문이며, 임진강과 강원도 서부의 예는 3세기 후반에 백제로, 강원도 동부의 예는 5세기 이후에 신라로 편제되었다는 논자의 주장에도 동의하기는 어렵다.

30) 『三國史記』 卷1 「新羅本紀」 第1 <儒理尼師今> 17年 秋9月條.

유리이사금 17년(40), 화려현과 불내현이 신라를 공격하자 貊國의 渠帥가 이들을 요격해 물리쳤다는 기록을 보면, 당시 7개 군현 이외에 영서지역에도 國이라고 불릴만한 정치체가 존재했음은 분명히 인지할 수 있다. 2년 뒤에도 맥국과 신라가 교류를 한 것을 보면 당시 소국들은 정치·군사·외교 활동을 통해 인접국끼리 대외관계를 형성·유지했음을 알 수 있다.

31) 『三國志』 「魏書 東夷列傳」, <東沃沮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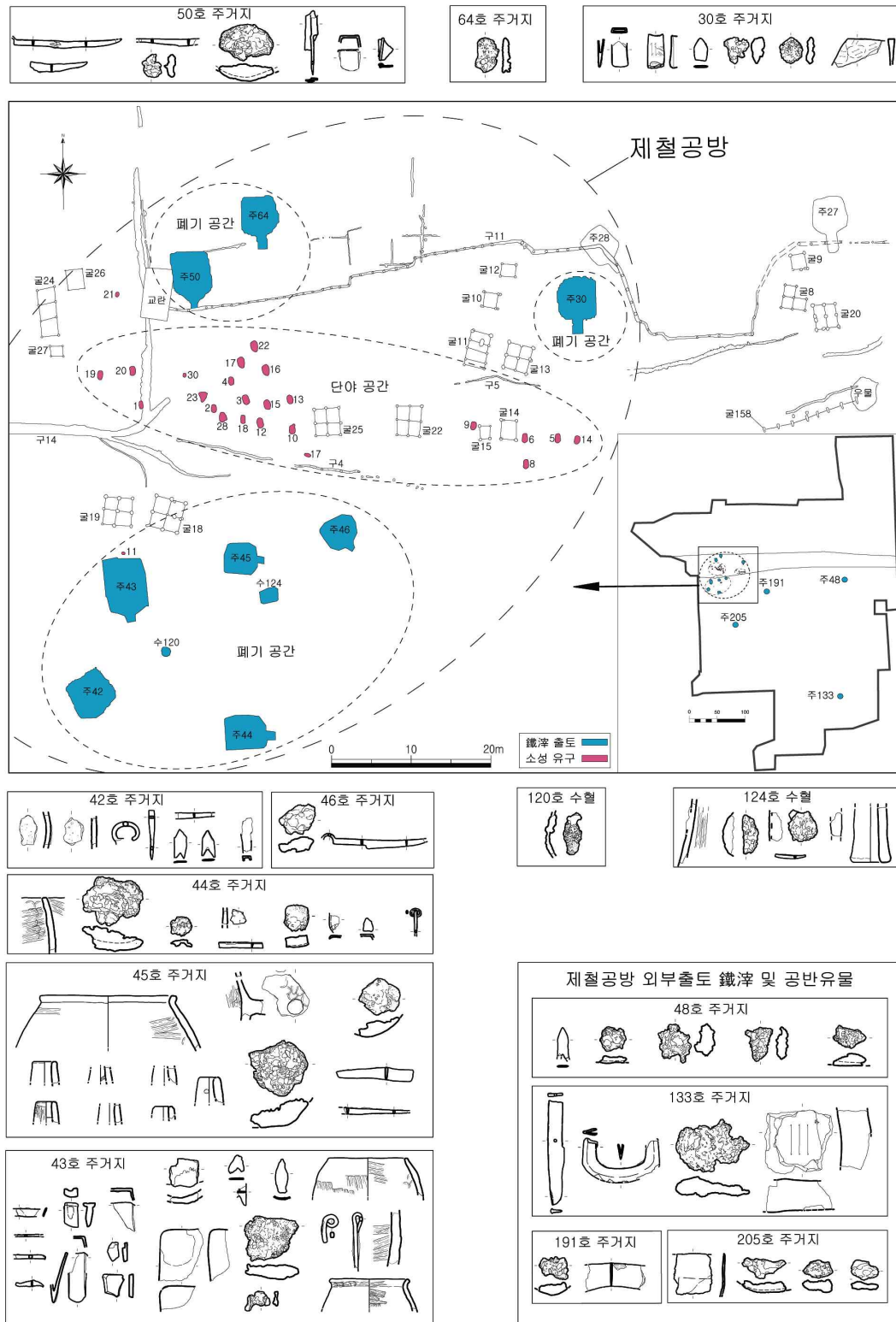


그림 22 춘천 우두동유적의 제철공방 구조 및 출토유물(한·(재)한강문화재연구원 2017: 299)

더불어 88호 주거지에서는 단결-크로우노프카 문화지역에서 보고된 철창이, 100호 주거지에서는 운성리 가말믹 2호 무덤 출토품과 동일한 鐵鑊이, 219호 주거지에서는 야요이시대 북큐슈를 중심으로 생산되는 환도도자 등이 출토되었

다. 비록 낙랑과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유물들에 비해 수량은 적지만 해당 유물들은 우두동 취락이 당시 국제교역의 결절지(武末純— 2010) 중 하나였음을 대변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LH·한강문화재연구원 2017: 200-305). 특히 우두동취락은 그간 북한강 유역에서 거의 공백에 가까웠던 1~2세기 대 양상을 설명해주는 중요한 자료로서 큰 의미가 있다(심재연 2017: 99).

2기 공백기는 문헌에서 말하는 桓靈之末(146~189)의 한예가 강성해져 군현이 능히 제어하지 못하는 시기. 建安 中(196~220)에 公孫康이 둔유현 이남의 荒地를 나누어 대방군을 설치한 후 다시 군현 통제를 실시한 시기와 맞물린다. 이 시기 강성해졌다는 한예는 경기 북부는 물론 영서·영동지역의 재지계 집단을 일컫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낙랑 주민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한예 지역으로 유입되면서 둔유현 이남이 항지화되고, 공손강은 대방군을 설치해 주민의 이탈을 막고 일대를 다시 군현 지배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다루왕 연간에 와산성을 사이에 두고 신라와 끊임없이 공방을 벌이던 백제는 기루왕 29년(105) 신라와 화친을 맺더니, 기루왕 49년(125)에는 말갈의 침입을 받은 신라에 5명의 장군을 보내 구원해준다. 그리고 신라에서는 일성이사금 9년(142)에 여러 대신들을 불러 말갈 공격을 논의하였으나 이찬 웅선이 不可하다고 하여 계획으로만 그치고 말았다. 왜 불가하다고 했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서로 攻防을 주고받던 백제와 신라가 화해한 이후 말갈의 침입에 공동 대응한 것을 보면 당시 말갈로 대변되는 경가-강원도 일원 韓濊의 강성에 대비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도 볼 수 있겠다.

■ 3기(203~258)와 공백기(259~386)

3기가 되어서도 한예의 강성은 지속됐다. 말갈은 백제와 신라뿐만 아니라 대방군도 공격했는데, 공손연 시절 ‘밖으로는 뜻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안으로는 고구려와 濊貊의 침입에 시달리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³²⁾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政始 6년(245)과 7년(247)에는 魏의 母丘儉이 고구려를 정벌하면서 동예와 예맥 등을 격파하게 되고, 景初 연간(237~239)에는 대방태수 유흔과 낙랑태수 선우사가 파견되어 바다 건너 두 군을 평정하고 韓의 여러 신지에게 읍군의 인수를 내리게 된다. 漢代 군현지배의 명맥을 잇고자 하는 의도였으나 중간에서 통역이 잘못 전달되는 바람에 현지의 신지와 한인들이 격분해 대방군의 岐離營을 공격하는 전투가 벌어지고 대방태수 궁준은 전사하는 등 고전을 겪었으나 두 군이 마침내 韓을 멸망시켰다고 한다.

해당 기록들은 삼국시대라는 혼란스러운 분열기를 지나 화북지방에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정권을 구축한 魏가 만주 일대의 고구려는 물론 桓靈之末 이후 강성해진 한예의 존재를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려 했음을 보여준다. 이 전투는 만주와 한반도 등지에 유례없는 충격으로 다가왔는데, 최근 母丘儉의 침입으로 인해 고구려 동북지역을 이루는 북옥저 계통의 올라문화가 붕괴되고 이후 백산말갈의 문화가 성립했다는 연구가 있어 주목된다(강인욱 2018: 55-58). 이처럼 고구려-위 사이에 대규모 전쟁이 벌어짐과 동시에 위가 자국 중심으로 국제관계를 재편해가는 사이 한반도 중부에서는 한성백제를 중심으로 통합의 움직임이 보인다.

초고왕 49년(214) 가을 9월, 백제는 北部의 眞果에게 군사 1천명을 거느리고 말갈의 石門城을 공격하게 해 이를 빼앗는다. 『삼국사기』에 나오는 유일한 말갈의 정주지 관련 기록³³⁾이자 말갈에 대한 선제공격 기록이다. 석문성 함락 직후인 겨울 10월, 말갈이 정예기병(勁騎)을 이끌고 우술천에 이르렀고, 초고왕이 죽었다는 다소 모호한 기록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초고왕이 戰死했을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겠다. 초고왕 49년에 등장한 북부인 진과는 다루왕 10년(37) 백제사에 처음 등장한 북부인 진희 이후 2번째 북부 진씨이다. 그리고 북부인 진씨 일족은 이후 고이왕 시절에 정계 주요직을 맡으며 역사 전면에 등장한다.

고이왕때 처음으로 眞氏(좌장 眞忠, 좌장 眞勿, 내두좌평 眞可)와 優氏(우보 優質?, 내신좌평 優壽, 내법좌평 優豆)가 등장해³⁴⁾ 주요 관직을 차지하더니, 고이왕 이전 백제가 말갈을 상대로 전략적 우위에 이를만한 사건이 없었음에

32) 『三國志』 卷8 「魏書」 第8 <公孫度傳>의 附淵傳 所引의 「魏名臣秦載中領軍夏侯獻表」.

33) 이곳이 말갈이 초축한 성인지, 韓 혹은 백제의 성곽을 말갈이 공취해 재사용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말갈 또한 일정한 정주지와 행정구역을 갖췄을 가능성이 있다. 이를 두고 말갈을 성읍국가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견해(김병남 2000: 46)도 있다.

도 불구하고 고이왕 25년(258), 말갈 수장[長]³⁵⁾ 羅渴이 良馬 10필을 바치면서 양자는 화해한다³⁶⁾. 이후 말갈과의 분쟁은 사라지는 대신 백제의 對新라전쟁이 가속화된다. 한편, 북부 진씨를 두고 파주 적성 일대의 유력 집단으로서 백제에 부용한 세력으로 보는 견해(정재운 2007: 16-18)와 백제 북쪽의 신분고국과 관련된 집단으로서 기리영 전투 이후 백제에 흡수된 세력으로 보는 견해(조관후 2014: 105-106)가 있는데, 백제를 한강 이남으로 밀어낼 정도로 강성했던 말갈을 臣濱沽國과 동일한 존재로 파악하는 주장(尹善泰 2001: 23-24)도 염두에 둔다면, 북부 진씨라 함은 말갈을 비롯해 경기 북부에 존재했던 신분고국과 낙랑·대방 등 군현 세력의 구성원들까지 일부 포괄하는 집단이 아니었을까 싶다.³⁷⁾

더불어 246년 위나라가 낙랑·삭방(대방?)과 함께 고구려를 공격한 사이 백제 고이왕이 낙랑의 변방을 공격해 변방민을 약탈하는 사건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고구려와 백제가 위나라의 침입에 공동 군사작전을 펼친 것인데, 그로부터 40년 뒤인 책계왕 원년(286)에는 고구려의 대방 공격에 책계왕이 장인의 나라(舅甥之國)인 대방을 위해 지원군을 파견하고, 이를 '고구려가 원망했다(高句麗怨)'고 한다. 3기의 강성한 한예(말갈)와 대립하던 백제는 고구려와 함께 중국 군현에 공동 대응하지만, 고이왕 즉위 이후 3기 공백기에 이르면 오히려 親말갈노선을 걷는다.

이와 관련해서 살펴볼 것은 책계왕이 즉위하기 전 대방왕의 딸 보과를 부인으로 맞이하였는데, 여기에서 대방왕(녀)과 대방국이 갑자기 등장한다는 점이다. 274~276년 사이 짧은 유주지역에 대한 지배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유주를 분할하여 평주를 신설하고 본래 유주 소속이었던 요동, 창려, 현도, 대방, 낙랑의 5개 군을 평주에 이관시킨다. 이때 평주자사가 동이교위를 겸임하게 되자 對동방정책에 있어 낙랑·대방 2군의 존재는 유명무실해졌다. 이처럼 중국 본토와의 연결이 끊어져 소국화된 채 존속하던 대방은 백제와 직접 영토가 맞닿게 되면서 親백제노선을 지향하는 등 낙랑과 다른 행보를 걷는다(宋知娟 2004: 12-13; 오영찬 2006: 238). 아마 대방국과 대방왕의 존재³⁸⁾는 이때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백제 북부에 인접해 있던 대방국의 구성원에는 중국 군현민은 물론이고 말갈, 신분고국을 비롯한 백제 북부의 마한계 주민 등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며, 고이왕 대부터 집중되는 북부 진씨의 중앙 정계 등장도 이와 맞물려 이해하면 적절할 것이다.

책계왕 13년(298)에는 漢(낙랑?)과 貊(영서예? 樂浪邊民?)이 쳐들어와 왕이 직접 싸우다가 전사했으며, 뒤이은 분

34) 「百濟本紀」를 보면 다루왕 10년(37), 北部 眞肅을 우보로 삼고, 초고왕 49년(214), 北部 眞果에게 말갈의 석문을 공격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이를 보면 眞氏는 국초부터 확인되는 백제의 북쪽 지역민(말갈과의 접경지대)이라 할 수 있다. 고이왕 이후 더 이상 북부인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 진씨가 중앙정계에 진출했다고 볼 수 있으며(정재운 2007), 이후 말갈과 화해 관계가 형성된 것을 보면 '북부 진씨'가 말갈과 정치적·혈연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35) 온조왕 18년(B.C.1) 백제를 습격해온 말갈의 지휘관은 酋長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나갈의 경우 長이라고만 기록되어 있다. <素那傳>을 보면 上元 2년(675) 아달성을 약탈하러 온 말갈의 지휘관을 추장이라고 적고 있는데 이를 보면 삼국 후기가 지 추장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즉, 나갈을 동일하게 추장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다소 성격이 달랐다고 봐야 한다.

36) 말갈의 濟·羅 침공은 낙랑의 세력 변천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고이왕대 '獻良馬' 기사는 한군현의 쇠퇴에 따른 결과로 보기도 한다(李康來 1985, 57~58). 하지만 백제와 낙랑의 대립 구도를 보면 3세기 중반이 낙랑의 쇠퇴기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37) 신라 내해이사금 8년(203) 말갈 침입 이후 2년 뒤(205) 眞忠이라는 인물이 일벌찬이 되어 국정에 참여한다. 그런데 백제 고이왕 7년(240) 다시 眞忠이라는 인물이 등장해 左將에 임명되어 内外兵馬事を 맡게 된다. 신라의 진충도 북부 진씨 출신이라면 당시 말갈의 활동 범위가 상당히 넓었다는 소리가 되며, 신라가 말갈과 접촉하면서 적대행위만 한 것이 아니라 말갈인을 등용하는 경우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백제가 말갈의 석문성을 공격한 주체도 북부의 진과였음을 고려한다면, 훗날 조-일전쟁시 조선에 항복한 降倭처럼 말갈의 진씨가 백제, 신라에 출사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던 것 같다. 또한 양자가 만약 동일인이라면 진충은 신라에서 먼저 出仕했으나 대우가 좋지 않아 신라를 떠나 수십년 뒤에는 다시 백제에 出仕한 셈이 된다. 이는 말갈인의 역동성과 당시 삼국과 말갈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으며, 4기 이후 고구려화된 뒤로는 이러한 역동적인 모습은 찾아볼 수 없게 된다.

38) 책계왕의 혼인과 관련된 선행 기사를 꼽자면 고이왕 25년(258) 말갈 수장 나갈의 獻良馬 기록이 유일하다. 이를 두면 보과는 나갈의 딸이며, 말갈 수장 나갈은 혼인 이후 어느 시점에 대방 지역에서 자립해 대방국으로 불렸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 고구려의 대방 공격 기사가 「고구려본기」 <서천왕> 17년조에 없는 이유를 보면 당시 고구려가 대방을 공식적인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남쪽 변방의 반란을 진압하는 정도로 인식했음을 알려주는데, 이는 위나라 및 공손씨 정권의 관계와 비교하면 좋을 듯하다. 한편, 기림이사금 3년(300) 낙랑과 대방 두 나라가 신라에 항복했다는 기록을 보면 대방국의 역사는 40여 년에 그쳤음을 알 수 있다.

서왕 역시 즉위 7년(304), 낙랑의 西縣을 빼앗은 뒤 낙랑태수가 보낸 자객에게 살해되었다. 이를 보면 3세기 말~4세기 초 한반도 중부 지역에는 ‘백제+말갈+대방’과 ‘낙랑+맥(영서예?)’의 대립 구도가 형성됐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보면 영서에 혹은 맥 집단이 말갈과 과연 동일시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

3기 및 공백기의 상황을 보면 경기도 일원에 존재하던 말갈 세력은 고이왕-책계왕-분서왕 치세를 겪으면서 낙랑·대방의 盛衰와 함께 백제에 최종적으로 흡수·통합되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렇게 봤을 때 3기 공백기 약 130여 년의 기간 동안 『삼국사기』가 더 이상 말갈에 대한 기록을 남기지 않은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이 시기는 강원도 일원의 재지계 문화인 중도문화의 존속 기간과 맞물린다. 당시 경기도 일대의 말갈을 위시한 마한계 집단, 낙랑·대방 등 군현세력이 한성백제와 복잡한 대외관계를 맺으며 盛衰를 거듭하다가 점차 한성백제의 영역화에 맞물려 흡수·통합된다.

일반적으로 풍납토성을 중심으로 경기도 연천과 경기 북부지역, 경기 남부지역은 韓의 영역으로 이해되고 있으며(박중국 2011), 영역화의 결정적인 근거인 성곽을 중심으로 봤을 때 한성백제의 영역은 임진강 유역, 북한강 및 남한강 상류의 무기단식 적석총 분포권을 배제하고 남으로는 목관(곽)묘권과 주구토광묘권 중 일부를 포함하는 정도에 해당한다(권오영 2009: 46). 또한 한성백제가 물질문화의 지표인 일자형 부뚜막-육각형주거지, 백제중앙양식토기가 모두 확인되는 유적은 흥천 성산리유적, 화천 원천리유적, 횡성 읍하리유적 3개소뿐인데, 이 유적들은 원삼국시대로부터의 전통적인 대형 취락이 아니라 한성백제기에 조성된 대형 신흥 취락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고구려의 남진으로 인한 북쪽과 동쪽으로의 진출 제약과 투여할만한 공력의 부족(심재연 2009: 62)이 이와 같은 결과를 낳았으며 이 유적들이 당시 한성백제의 東進 한계선이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물론 영동지역의 동해 망상동유적에서 육각형주거지와 백제계 시루편이 확인되었지만 이는 백제와의 지배 관계를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기타 백제중앙양식토기가 출토된 유적들 역시 한성백제의 직접지배 방식과 연계시키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한지선 2018: 190-191).

즉, 쪽구들이 아닌 노지가 설치된 주거지, 적석분구묘 등의 분포 범위를 기준으로 봤을 때 강원도 지역에 한성백제와 다른 一團의 정치체가 동시기 병렬적으로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들 집단을 별도로 ‘강원도 말갈’이라고 부르고자 하며, 문헌상 말갈이 사라진 130여 년의 3기 공백기야말로 강원도 말갈이 주변 각지의 집단과 활발히 교류하며 내재적인 발전 과정을 거친 시기라고 생각한다.³⁹⁾

■ 4기(387~395)와 공백기(395~467)

3기와 4기 말갈의 활동 범위를 보면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고고학적으로 이 시기는 육각형 구조의 여·철자형 주거지와 부뚜막, 타날문토기 취사용기의 조합 등이 완성된 중도문화가 해체되는 시점과 맞물린다. 그러면서 백제와 신라, 고구려 등 삼국의 흔적이 강원도 각지에서 확인되기 시작한다. 북한강 유역에서는 4세기 중반 이후 백제가 개척한 거점들이 확인되기 시작하며, 4세기 후엽에는 강원도 북부에서 고구려 부형 철촉이, 남한강 유역에서는 신라계 경부돌대화와 한성백제 양식 토기(광구단경호, 뚜껑) 등이 확인된다. 기존의 재지계 문화가 4세기 말 혹은 그 이후까지도 유지되는 지역은 있지만, 기존 사회가 재편되어 가는 과도기임은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문헌을 보면 이때에도 말갈은 이전 시기와 다름없이 활발한 군사 활동을 벌이고 있어 의아하다. 또한 당시 고구려의 대외전쟁 기사를 보면 마치 말갈이 고구려와 공동으로 군사작전을 벌이는 듯한 움직임을 보인다. 386년 고

39) 여기에는 서쪽의 한성백제와 남쪽의 신라가 영역화 과정을 거치며, 각국의 접경지대가 어느 정도 확연히 구분되기 시작한 점과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대방국의 존재에서 알 수 있듯이 각지의 정치체들은 고유 영역을 가진 국가 단계로 진입하는 등 자구책을 강구했을 것이며, 강원도 각지의 집단들도 그러한 노력을 했으리라고 생각한다. 초기철기~원삼국시대 영서지역을 봤을 때 화천, 춘천, 홍천, 원주, 횡성, 평창 등지에서 유적이 집중적으로 확인되는 것 또한 이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하며, 이 시기가 되면 소규모 습격에 의한 약탈전 대신 타국과의 교류·교역을 통한 실리를 추구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백제, 신라에 비해 국가화 단계가 수월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이는 중도문화가 3세기 후반 완성되면 서부터 곧 해체기를 겪어 4세기 후반까지 명맥을 잇는 것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박경신 2018).

구려의 백제 공격, 387년 말갈의 백제 관미령 공격, 389년 백제의 고구려 남쪽 변경 약탈, 390년 4월 말갈의 백제 北鄙의 적현성 공격, 390년 9월 백제의 고구려 도읍성 공격, 392년 광개토태왕의 백제 공격 및 관미성 등 10여성 점령, 393년 백제의 고구려 남쪽 변경 공격, 394년 백제의 고구려 침략, 395년 8월 패수에서 백제군 대파, 395년 8월 신라의 北邊인 悉直之原 전투 등 말갈은 고구려에는 적대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 대신 백제와 신라에 대한 공세를 멈추지 않는다. 130여 년간 대외군사활동을 중단했던 말갈의 이와 같은 행보는 고구려와 관련된 것이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다.

그리고 다시 공백기가 찾아온다. 한편, <광개토태왕비문>을 보면 396년 고구려가 백제를 공격해 58성 700촌을 얻었다는 기록이 보인다. 400년에는 경재대원정을 통해 낙동강 일대까지 군사작전을 펼치며, 404년에는 대방 연안을 침입한 왜를 궤멸시켰다. 그리고 등장하는 것이 守墓와 관련한 내용인데, 新來韓穢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이전부터 수묘 업무를 담당했던 舊民의 상황이 열악해지는 점에 대한 우려와 새로 들어온 韓穢가 수묘 법칙을 모를 것에 대한 염려로 인해 구민과 신래한예를 함께 수묘 연호로 편성하고 있다. 즉, 4기 공백기를 거치면서 고구려에 의한 본격적인 한예(경기-강원도 일원의 재지계주민) 사회의 재편이 이루어졌으며, 강원도 일원 또한 기존 사회가 어느 정도는 재편되었다고 생각한다.

이 시기 강원도 말갈은 고구려 內池化 작업을 거치면서 고구려인으로서 자유롭게 고구려의 영역을 이동할 수 있을 것이다. 이후 광개토태왕의 한반도 중남부에 대한 전면적이면서도 대대적인 공격에 말갈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은 아마 강원도 말갈 사회가 재편되는 과도기를 겪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공백기에 해당하는 5세기 중후엽에 강원도 각지에 고구려 고분이 만들어지고, 고구려 토기가 유적에서 수습되는 현상은 구민과 신래한예가 고구려라는 국가의 영역 아래 동질성을 갖고 하나로 혼재되어 감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와 더불어 주목되는 것이 재지계토기와는 계통이 다른 동북지역 말갈토기의 존재이다. 춘천 우두동 남단의 롯데 인벤스 우두파크 유적에서 재래의 경질무문토기와는 구연부의 시문방법이 다른 토기편 2점이 수습되었고,⁴⁰⁾ 풍납토성 미래마을 가-1호 주거지에서도 구연단에 각목이 시문되어 있으며 동체부에 점열문이 시문된 토기가 1점 출토되었다. 심재연은 이들 유적이 회령 오동유적 출토품과 유사하다고 보고 단결-크로우노프카문화 이후에 전개되는 문화 양상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2009: 64-65).

그밖에 속초 청호동에서 연해주 폴체문화의 특징인 고지성 집락과 유사한 유적이 확인되었으며, 주거지 내에서도 불로치까유적에서 출토된 외반구연옹과 유사한 토기가 출토되었다. 춘천 중도동유적에서는 토광묘 내에서 靺鞨罐 1점, 홍천 송정리유적에서는 말갈토기 동체부편 1점이 확인되었는데, 이 말갈토기는 양양 가평리유적, 춘천 우두동유적, 서울 몽촌토성과 풍납토성, 충주 장미산성 등지에서 확인된 바 있다. 이 일련의 토기들은 고구려토기로 보기도 하지만 토기의 태도, 구연부나 동체부에 각목문띠를 덧댄 것, 동체부에 점열문을 시문하는 것 등은 동북지역에서 확인되는 말갈토기의 특징이므로 구분해야 한다. 이러한 토기들의 출현은 대체로 6세기경으로 보지만 한반도 중부지역에서 확인되는 동반유물을 검토했을 때 일부 기종은 4세기 후엽 경부터 출현했다고 볼 수 있다(심재연 2017: 95; 그림 23 참고).

40) 춘천 우두동 롯데 인벤스 우두파크 신축부지 1호 주거지에서 출토된 구순각목이 시문된 구연편을 심재연(2009)은 原 말갈계토기라 하여 북방계로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춘천 우두동유적 조사자는 실측도를 살펴봤을 때 해당 토기가 상당히 대형품으로 북방 지역에서 비교할만한 크기의 제품이 확인되지 않으며, 오히려 고성 동외동유적이나 사천 녹도유적에서 확인되는 야요이토기 대응의 구연편에 가까울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한·한강문화재연구원 2017: 303).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필요함을 인정한다.



그림 23 볼로치카유적(1번) 및 청호동유적(2,3번) 출토품(左)과 춘천 중도동·홍천 송정리유적 출토품(右)

폴체문화는 대체로 B.C. 4세기에서 A.D. 4~5세기로 편년되는데, 고지성 집락과 ‘ㄱ’자형 혹은 ‘ㄷ’자형의 외줄구들이 설치된 주거지가 특징이다. 토기는 단경호, 광구호, 웅, 완, 외반구연호, 접시, 뚜껑이 있는데 특히 광구장경호가 특징적이며, 토기의 문양은 격자타날과 압인문 등이 있다. 관련 유적으로는 루다놉스코예, 시니에 스칼라이, 센키나 샤프카, 말라야 포두셰치카, 볼로치카, 글라조프카 유적 등이 있다. 그중 볼로치카유적은 호형토기가 주를 이루는 점, 문양과 문양 구성이 단순한 점, 문양 형태의 단일성을 특징으로 하며, 속초 청호동유적에서 유사한 토기가 나와 주목된다(홍형우 2017: 122-123).

정시 연간에 벌어진 고구려-위 전쟁으로 인해 연변-연해주 일대의 토착 옥저세력(올가문화)은 큰 타격을 입어 고고학적으로 3~4세기 이 지역 유적의 공백기가 찾아온다. 하지만 4세기가 되면 블라고슬로베노에 유적과 같은 후행 문화가 등장하고, 이러한 초기 말갈 유적은 폴체문화의 늦은 단계인 켈토야로프키와 매우 유사하여 이 지역의 말갈문화가 선행하는 토착화한 폴체문화를 기반으로 발전했음을 알 수 있다(강인욱 2018: 55-56). 이러한 백산말갈의 문화 형성 과정과 고구려의 책성 경영사를 살펴봤을 때 이미 책성 지역에서 수백 년 고구려화한 말갈집단이 4세기 말 고구려의 남진에 맞추어 강원도 일원의 재지계 집단과 접촉했을 가능성은 높으며, 고구려가 동북지역 말갈 세력의 일부를 신라 동북방 지역으로 사민하여 안착시키고 그 군사력을 이용하여 신라를 견제했을 가능성 또한 있다(文安植 1998: 179).

■ 5기(468~507)

5기의 가장 큰 특징은 고구려가 말갈과 공동으로 행동한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한다는 사실이다. 4기 공백기에서 언급했던 신라한예 사회에 대한 재편이 완성된 뒤에 고구려 ‘인’ 혹은 고구려 ‘국적’을 부여받은 말갈인으로서의 재등장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말갈인들은 자신들의 종족 혹은 혈연에 의거해 고유의 문화를 유지할 수 있었으며, 고구려인으로서의 정체성도 새롭게 부여받았을 것이다. 단, 5기에 등장하는 말갈이 4기 공백기에 고구려인으로서 재편된 신라한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칭하는 것인지, 동북지역에서 올가문화 또는 폴체문화를 영위하던 말갈 구성원들을 지칭하는 것인지, 혹은 양자가 혼재되어 있는 것인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말갈은 전투에서도 고구려군 편제로 재편되어 단일 부대로서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자비마립간 11년(468) 고구려와 말갈이 함께 실직성을 공격한 사례, 무령왕 7년(507) 고구려 장수 高老가 말갈과 함께 한성을 공격하고자 횡악에 주둔한 사례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때 말갈군은 고구려 중앙군과 별도의 편제 하에 別動隊처럼 운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무장 갖추어나 기타 군수지원은 이전과 비해 크게 달라졌을 것이다. 5기에서 말갈 단독의 군사 작전처럼 기록된 기사들이 그 이전과 다른 이유도 이런 곳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더불어 4~5기가 되면 말갈의 외교 관련 기록이 사라지고, 전투가 주로 공성전 형식으로 벌어짐을 알 수 있다. 전투의 규모도 커지는데 특히 481년에는 신라 북변의 7개성을 함락한 뒤 미질부까지 진격해 백제, 신라, 가야 3국 연합군과 싸우는 등 대규모 전쟁에도 참여

하는 모습을 보인다.⁴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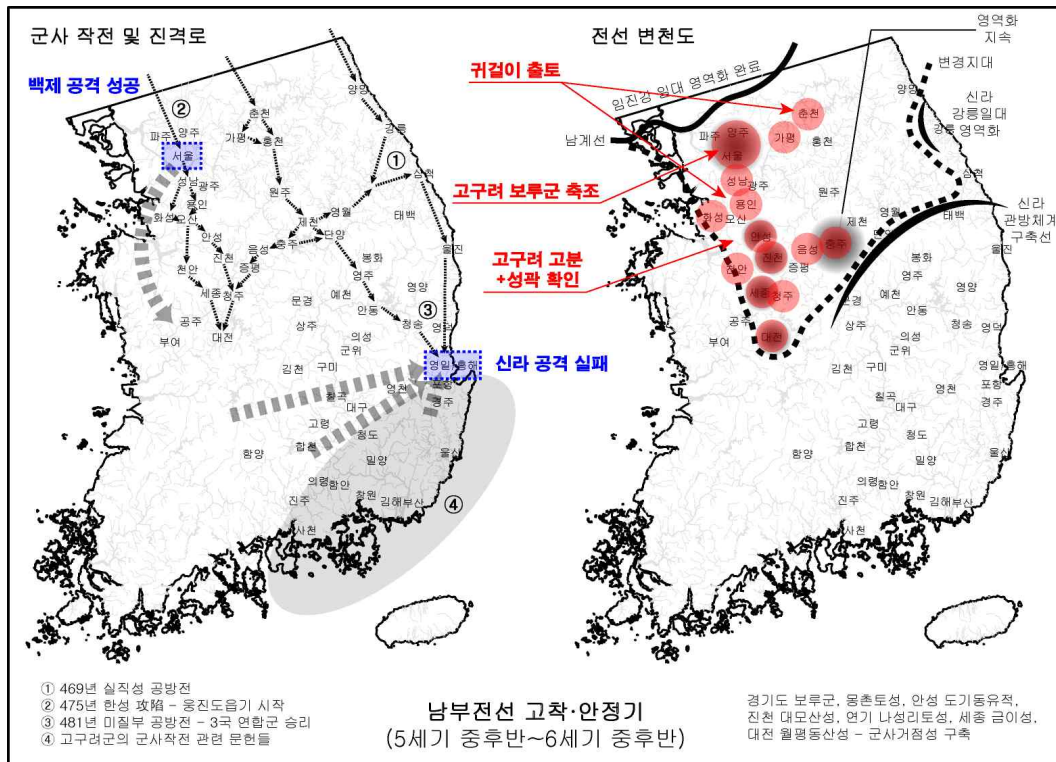


그림 24 남부전선 고착·안정기 현황(신광철 2018: 13)

게다가 이때가 되면 1기 말갈의 주요 공격 대상이었던 지역들이 다시금 주요 공격지로 등장한다. 이에 대해 다소 억측을 하자면 한성백제가 영역화를 거치면서 통합했던 舊 경기도 말갈과 마한계 세력, 낙랑·대방 출신 구성원들이 고구려의 지배 아래 재편되면서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군사전략을 수립한 것은 아닌가 싶다. 이 시기 서울-경기를 비롯해 중원지역과 강원도 각지에서 고구려 취락과 고분, 성곽 등이 축조되었으며 6세기 전반을 기점으로 아차산 보루군을 비롯해 경기 북부의 광범위한 지역에 보루를 중심으로 한 독특한 관방체계가 자리 잡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강원도 말갈의 구성원들 또한 경기도 각지와 강원도 일원 등 對백제·신라전선에 투입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문헌상 다양한 곳에서 그 흔적을 남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시기가 되면 한반도 중부지역 곳곳에서 고구려 귀걸이가 출토된다. 이들은 475년 한성 함락 이후 중원 지역을 장악한 고구려의 흔적으로 인식되는데(이한상 2008: 2018: 215), 통상적으로 귀걸이는 5세기 말~6세기 초에 해당하는 특정 시기에만 제작되며, 6세기 초가 되면 금동제 관모 장식과 허리띠 장식 등이 귀걸이를 대체하기 시작한다.⁴²⁾ 최근에 조사된 춘천 LEGOLAND 유적 C구역과 F구역에서도 고구려 귀걸이가 출토되었는데, 이를 보면 남부전선의 영역이 안정화되면서 고위급 군사지휘관 및 행정 관료가 중앙 정부에서 파견되었거나 재지계 수장층에게 그에 걸맞은 권한을 부여했던 것으로 보인다(그림 23~24 참고).⁴³⁾

41) 영양태왕 9년(598), 고구려는 말갈군 1만 여명을 동원해 요서를 공격한다. 이 말갈군이 신라한에 계통인지, 동북지역에서 유입된 백산말갈 계통인지 알 수 없으며, 양자를 고구려 내부에서 구분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다만, 6세기 말이 되면 말갈만으로도 독립 제대를 구성해 단독 작전을 수행할 만큼 편제가 완료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비단 군사 분야에만 국한된 현상은 아닐 것이다.

42) 전호태는 5세기 전반 고구려의 성공적인 대외군사 활동으로 인해 고구려 지배층의 財富가 증가하고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귀걸이가 위신재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고 보았다. 하지만 6세기 중엽 불상 제작이 활성화되면서 금귀 고리 대신 금동제 관모와 허리띠 장식 등이 더 중요시되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6세기 초까지는 동명성왕을 시조로 하는 고구려식 聖王論과 고구려식 천하관 개념이 불교의 적극적인 도입 이후 변화했고, 그것이 귀걸이로 대변된다고 이해하는 듯하다(2015).



그림 25 남한 출토 고구려 귀걸이

(서울 능동 유적 / 진천 회죽리 유적 / 청원 상봉리 유적 / 청원 남성골 유적 / 춘천 중도 C2구역 / 춘천 중도 F구역)

이상 문헌자료와 고고자료를 기반으로 말갈의 문화를 5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양자를 비교해 본 결과, 문헌상에서 확인된 말갈의 군사 활동과 고고자료 사이에 괴리감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삼국시대 초기 백제와 신라를 집요하게 공격했을 당시의 말갈은 낙랑의 통치 하에 있으면서 인적·물적 자원을 약탈하는 데에 집중했다. 한반도 중부 경기도~강원도 일원에서 폭넓게 확인되는 중도문화를 영위했던 집단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문헌에서 이들의 斷想을 정리하면 그중 일부는 신분고국과 같은 마한 소국으로, 일부는 한성백제의 기층문화 집단으로, 일부는 말갈로, 일부는 맥과 동예로 불리면서 한반도 중부에서 성쇠를 거듭했던 것 같다.

특히 1~2기를 거치면서 3기가 되면 한성백제의 성장과 영역화가 가속화되자 서울-경기 일대의 말갈 또는 마한 소국들은 한성백제로 흡수·통합되거나 대방국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한성백제와 혈연관계를 맺는 등의 행보를 취한다. 하지만 한성백제가 영서지역 서부(화천-춘천-홍천-횡성)를 잇는 선까지만 영역화를 진행하고 그 동쪽으로는 세력을 확장하지 못 했는데, 이는 고구려 진출 이전 시점으로 영서지역 동부와 영동지역의 재지계 집단의 내부 역량에 부딪혔다고 봐야 한다. 춘천 우두동취락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1~2세기 강원도 지역의 몇몇 지역은 낙랑으로부터 최신 기술을 지원받고, 한반도 각지와 연해주 지역, 일본 열도 등과 교류하는 등 내재적인 발전 과정을 거치며 성장하고 있었다(韓濊의 강성). 3기 공백기가 되면 문헌상 향후 130년간 말갈이 사라지지만 오히려 강원도 일원 각지에서 중도문화가 지속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백제·신라에 대한 침입 기사가 사라진 이유는 ‘강원도 말갈’ 역시 어느 정도 영역화 단계를 거치면서 약탈을 기반으로 하는 전쟁이 아닌 외교와 교류로 내부 성장을 꾀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⁴⁴⁾

4~5기가 되면 말갈이 다시금 백제와 신라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데, 이 시기는 고구려의 강원도 진출 시점과 맞물린다. 고고학적으로는 중도문화가 해체되어 명맥만 유지하는 단계에 돌입하지만 오히려 백제·신라에 대한 공세는 강화되고 고구려와 공동 군사작전을 벌이는 모습이 자주 확인된다. 즉, 3기까지 확인되는 말갈과 4~5기의 말갈은 명칭은 같지만 그 성격이 완전히 달랐다고 볼 수 있다. 4~5기의 말갈은 고구려 남진 이후 고구려화한 말갈로서 고구려 내부적으로는 新來韓穢로 분류되었다. 하지만 연해주 지역과 강원도 일원은 단결-크로우노프카 단계는 물론이고 후행하는 폴체문화 단계에서도 폭넓게 교류했던 지역으로서 백산말갈 계통의 집단들도 한반도 내부로 유입되어 활약했

43) 강원도 일원에서 확인되는 고구려 횡혈식석실분은 중앙에서 파견된 인물 또는 고구려화한 재지계 유력자가 매장되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중도 LEGOLAND 유적 C구역과 F구역에서 조사된 횡구식석곽묘는 중앙 정부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재지계 유력자가 매장되었을 가능성이 높다(재)예맥문화재연구원 2017: 86-89; 엘엘개발주식회사·강원문화재연구소 2017: 28-30). 이는 고구려 진출 이후에도 춘천 지역이 여전히 말갈 사회의 중심지로서 존속했음을 알려준다.

44) 당시 강원도 일원의 재지계 집단이 貊國, 濊國 등의 국가 단계로 성장했는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경산 지역의 임당지구와 신대부적지구를 보면 읍락수준의 소규모 國 단계로 상정 가능하다. 하지만 경산지역 전체를 아우를 정도는 아니었는데, 최근 하양읍 양지리유적에서 1세기 대 해당하는 최상위 수장급 무덤이 조사되기도 하여 주목된다. 한편, 목곽묘 단계까지는 양쪽 지구에서 각각 중심지적 기능을 수행하던 마을이 3세기 대 대형 목곽묘 축조 단계에 이르면 임당지구의 중심지적 기능이 확대되면서 한쪽으로 통합되고 더 크고 발전된 ‘國’이 성립하게 된다(張容碩 2018: 45-46). 하지만 강원도 일원에서 이와 같은 대규모 고분군의 존재는 확인되지 않는데, 이는 아마도 이 단계까지 이르지 못한 채 고구려의 남하로 지역 사회가 해체되고 재편되었기 때문은 아닐까 싶다.

을 가능성이 높다. 동북지역 말갈 집단의 이주가 고구려의 의도적인 정책의 결과물인지, 자연스러운 문화교류의 일환이었던지는 모르지만 이 차이가 4기와 5기 말갈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IV. 결론 : 提言을 대신하여

강원도 지역의 고고자료를 살펴보면 재지계 문화라 할 수 있는 중도문화가 3세기 후반 경부터 쇠퇴기를 맞이해 4~5세기대가 되면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삼국의 침투가 본격화된다. 문헌사료에서도 4세기 이후의 濊로 대표되는 강원도 일원의 정치체에 대한 정보는 사라지지만 『삼국사기』를 보면 6세기 대 말갈이라는 존재가 확인되고 있다. 즉, 삼국 초기부터 후기까지 한반도 각지에서 활약하는 말갈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확인된 문헌사료와 고고 자료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몇 가지 提言을 하고자 한다.

첫째, 3세기 말~4세기 초까지 강원도 일원에서 안정적인 영역을 확보하고 중도문화를 영위하던 집단에 대한 종족적 성격을 규명하는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지리적 위치에 따라 영서예와 영동에, 영서맥과 동예, 맥국과 예국 등으로 구분하지만 과연 현재 확인되는 고고자료를 갖고 문헌상에 看取되는 종족 혹은 소국 등과 등치시키는 것이 가능한지의 문제가 있다. 현재 강원도 일원의 예계문화권에서는 소수의 적석분구묘를 제외하고 별다른 분묘 유적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매장행위를 대신할만한 의례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는데, 토기도치매납, 토우, 미니어처 투기 행위 등이 영서·영동지역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는 곧 강원도 일원의 물질적인 물질자료의 구성 내용은 지역에 따라 수용과 계승의 형태로 빠른 차별화가 이루어지지만, 정신적인 행위의 동질성은 늦은 시기까지 공유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강원도 일원의 예계문화권 주변에 종족적 동질 의식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음을 알려주는 것으로서(박경신 2018) 해당 집단이 예와 맥 등으로 불렸다 하여 이것이 고고학적으로 구분이 가능한지, 그리고 그렇게 구분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고민할 필요성이 있겠다. 로마 공화정 말기 갈리아·게르만부족의 사례, 전남 동부에서부터 낙동강 좌안까지 분포하고 있는 가야지역의 문화양상을 참고했을 때 강원도 일원의 예계문화권 내에서 맥(국)이 차지하는 위상은 그리 높지 않았으며, 그 명칭 또한 그 집단의 혈연적인 측면을 100% 반영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즉, 상기 고고자료를 통해 확인된 정치체의 실체를 문헌의 무엇과 대비시키는 것은 현 단계에서 무리이다.⁴⁵⁾ 문헌상에 기록된 집단에 대한 뚜렷한 지리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한,⁴⁶⁾ 서로 상반된 주장이 되풀이되어 뉘 비우스의 피처럼 끝나지 않는 논쟁을 이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강원도 일원의 집단이 맥인지, 예인지, 예맥인지 여부는 추후 이 지역에서 타문화권에서 확인되는 소국 단계를 증명할만한 대규모 고분군이나

45) 김창석은 신라의 강원도 진출 과정에서 영동지역에 비해 영서지역으로의 진출이 150년 혹은 그 이상 차이가 나며, 그 과정에서 양지역의 차이를 종족적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오해하기 시작했다고 보았다. 즉, 영동지역은 일찍부터 진출해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는 익숙했으나, 영서지역은 6세기 중반 이후까지도 고구려의 영향권 아래 있었으므로 일찍부터 그 지역은 고구려와 같은 맥족의 나라, 즉, 맥국이 있었다고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주장의 골자이다. 이러한 신라인의 인식은 정설화되어 국가사서인 『國史』에 실렸을 것이고, 그것이 당에 전해져 『고금군국지』에 수록되었다가 고려 중엽 『삼국사기』에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실제 賁耽이 801년에 지은 『고금군국지』를 보면 '고구려의 동남쪽은 예의 서쪽으로 옛날 맥의 땅이다. 대개 지금 신라의 북쪽인 朔州이다.'라고 적고 있는데, 경덕왕 16년(757)에 우수주가 삭주로 개명된 것을 보면, 가담은 해당 정보를 8세기 중반 이후에 신라인을 통해 얻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김창석 2018: 149-151).

46) 단순히 춘천 혹은 강릉이 과거 예·맥의 중심지였다는 식의 서술이 아니라, 왕성 및 왕도의 존재, 정복전쟁을 통한 영역 확장과 疆域의 범위, 지방통치의 중심지로 존재했을 城의 존재 등에 대한 기록을 의미한다. 물론 자체 기록이나 왕력을 남기지 못한 집단이기에 이런 요구를 하는 것 자체가 무리이겠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고고자료상에서도 이러한 흔적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문헌상에 나타난 단편적인 조각을 통해 고대 종족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는 것은 학문적 연구방법론에 의해 필요하지만, 밑그림 위에 구체적인 채색을 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수 있겠다.

성지 등이 조사되었을 때 다시 논의를 진행해도 무방하리라 생각한다.⁴⁷⁾

둘째, 4세기 중후엽부터 시작된 백제, 고구려, 신라에 의한 강원도 일원에 대한 세력 확장 과정에서 재지계 사회가 재편되었을 가능성은 높다. 고구려의 경우, 母丘儉의 침입으로 배후기지가 할 수 있는 동북지역이 완전히 붕괴되면서 국가 성장에 큰 타격을 입었으며, 그 지역을 재건하는 데에 있어 재지계 집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측면이 있다. 특히 수백 년간 책성을 중심으로 한 두만강 일대를 경영한 경험은 그 지역과 문화적으로 이질적이지 않은 강원도 일원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는 강원도 일원과 동북 지역 간 문화 격차가 적고 상호간에 충분히 동질성을 발휘할만한 요소들이 많다는 전제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영동·영서지역에서 폴체문화와의 교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이 산견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셋째, 영서지역의 중심지라 할 수 있는 춘천 지역은 삼국의 흔적이 모두 확인되지만 백제가 영역화를 진행하며 세력을 확장했던 시기와 관련된 자료는 없다. 그와 달리 영동지역의 경우, 濊國의 중심지로 거론되며 이른 시기부터 정치·문화의 중심지로 존속해온 강릉 지역은 신라가 점유해 세력 확장의 거점으로 삼고 있어 양자 간 차이가 크다. 이후 강릉을 중심으로 동해-삼척 일대까지 영역을 확장했던 신라와 달리 백제는 영서지역 서부에서 더 이상 동진하지 못 했는데, 이때는 고구려가 남진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그 원인은 재지계 집단의 역량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봤을 때 영서지역의 정치체가 영동지역보다 강력한 힘을 가졌을 가능성, 백제가 광범위한 범위에 걸친 영역지배를 위해 영서지역 각지로 국력을 분산 투자한 것에 비해 신라는 강릉 일대에 대한 點적 지배만을 목표로 국력을 집중 투자했을 가능성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강원도 각지에 고구려 횡혈식석실본이 축조되지만 고구려 귀절이가 출토된 것은 정작 춘천 중도의 횡구식석곽묘 내부라는 점만 봐도 당시 고구려에게 있어 춘천 지역이 갖는 중요성은 타 지역을 압도하는데, 이 지역을 백제가 피해서 영역화를 진행했다는 것은 해당 지역의 자체 역량이 백제의 대외확장에 투입된 역량을 상회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넷째, 말갈의 명칭에 대한 부분이다. 말갈이란 명칭이 중국 사서에 처음 나타난 것은 北齊 武成帝 河清 2年(563)이며,⁴⁸⁾ 『隋書』에는 別傳으로 입전되었다. 그리고 이 시기는 『삼국사기』에서도 고구려에 복속한 이후의 말갈 기사가 등장하는 시점과도 맞물린다. 그렇게 봤을 때 중국사서의 말갈이 한반도의 말갈과 혼재되어 동일시되던 시점의 시각이 이전 시기의 역사를 서술할 때 일괄적으로 적용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삼국사기』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말갈 관련 기사가 동명성왕 원년(B.C. 37)의 말갈부락 공격 기사인 점을 감안하면,⁴⁹⁾ 고구려가 일찍부터 만주 지역에서 말갈로 불리는 집단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으며, 그와 유사한 집단에 대해 일괄적으로 말갈로 지칭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말갈’이라는 명칭이 고구려의 강원도 진출 이후에 붙여진 것이 선대 기록에까지 영향을 미쳤는지, 아니면 본래 한반도 내에 ‘말갈’이라는 집단명이 존재했으며, 이를 고구려가 차용해 후대에까지 사용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말갈

47) 일반적으로 유목사회의 경우, 여러 집단이 혼재되어 일정 세력권을 유지하되 대표 집단의 명칭은 주력 집단의 명칭으로 삼는다. 즉, 집단의 향방을 좌우하는 주력 집단은 바뀔지언정 그 휘하의 구성원에는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백제가 삼국 후기 남부여로 국호를 개칭한 일, 신라가 사로국과 신라 등 명칭을 개칭한 일, 고구려가 후기에 고려로 개칭한 일 등을 고려했을 때 국명의 변화가 곧 구성원의 전면 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봤을 때 강원도 일원 내에서 맥, 예, 예맥 등의 국명 또는 종족명이 확인된다고 해서 그 명칭에 따라 집단의 성격을 일일이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한 작업이 될 수도 있음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48) 『北齊書』 卷7 「帝紀」 第7 <武成>.

49) 『三國史記』 卷13 「高句麗本紀」 第1 <始祖 東明聖王>, “(전략) 四方聞之, 來附者衆. 其地連靺鞨部落, 恐侵盜爲害, 遂攘斥之, 靺鞨畏服, 不敢犯焉.”

이라는 집단명이 삼국시대 초기부터 후기까지 지속적으로 사용되었지만, 그 의미가 항상 일관되었다고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상 강원도 말갈의 정체성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강원도 일원에서 명확한 국가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고고자료가 나오기 전까지는 우선적으로 확인되는 고고자료를 통해 지역의 문화상을 파악한 뒤 일단 한·중 사서에서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韓濊 혹은 濊(濊), 濊貊, 東濊 등의 존재와 연결시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리라 생각한다. 주거지와 분묘 등을 통해 구분되는 문화를 韓과 濊, 韓濊 등으로 나눈다고 했을 때 예계문화권을 다시 영동·영서지역의 정치체로 구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인식 속에서 1~5기에 해당하는 말갈과 이를 둘러싼 집단의 정체성을 정리하는 것으로 본고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 ◎ 韓濊 : 한반도 중부를 포괄하는 문화 지리적 범칭이자 해당 구성원들을 포괄하는 개념
韓과 濊로 구분 가능하지만, 경기~영서지역의 경우 양자가 혼재되어 있어 반드시 이질적인 존재끼리의 범칭이라고 볼 수는 없음. 기본적으로 중도문화를 영위했던 집단과 동일한 개념
- ◎ 신분고국·백제 : 三韓이라는 정치체 중 한반도 중부 지역에서 한예 문화를 공유하는 주도적인 국가
- ◎ 대방·낙랑 : 재지계 한예문화권 일부를 강제성을 띤 외부(중국 왕조)의 힘으로 재편한 행정단위
재지계 국가와 끊임없이 교류하며 盛衰期를 겪음. 중국 왕조 입장에서는 外域의 군현이지만 시기에 따라 그 성격이 변화하여 한반도에서는 재지계 국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변모·존속한 정치체를 포괄하는 개념(대방왕, 낙랑국 등의 인식)
- ◎ 말갈 : 1~2기에는 한예의 하나로서 경기~강원도 일원에 넓게 분포. 낙랑, 맥, 백제, 신라 등과 相爭
3기에는 중국 군현의 쇠퇴와 맞물려 강성해졌으며, 한예를 대표하는 집단으로 부상. 서울-경기 지역의 말갈은 대방국 건국 후 親백제, 反고구려 노선을 고수하다가 신라에 흡수. 이후 백제의 영역화가 가속화하자 강원도 일원의 한예에 한정하는 명칭으로 한정
4기에는 고구려와 접촉한 강원도 일원의 재지계 집단을 지칭. 중도문화의 소멸·쇠퇴기와 고구려에 의한 재지계 사회 재편을 겪은 집단. 고구려화한 말갈로서 1~3기의 말갈과 차이가 있음
5기에는 동북지역의 백산말갈 중 일부가 유입되면서 연해주-두만강 유역-강원도 일원에 폭넓게 말갈문화가 형성. 4기의 말갈 구성원과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일부는 고구려화하고 일부는 말갈로 그대로 잔존함. 강원도 일원에 잔존한 말갈은 이후 신라에 복속. 나머지는 발해 건국에 참여

참고문헌

논고 및 저서

- 강세호, 2017, 「북한강유역 원삼국~한성백제기 주거와 취락구조」 『2017년도 중부고고학회 학술대회』.
- 江原道, 1995, 『江原道史 歷史編』.
- 강인옥, 2009, 「靺鞨文化의 形成과 2~4세기 挹婁·鮮卑·夫餘系文化의 관계」 『高句麗渤海研究』 33.
- _____, 2015, 「三江平原 滾兔嶺·鳳林문화의 형성과 물갈·豆莫婁·靺鞨의 출현」 『高句麗渤海研究』 52.
- _____, 2018, 「고고자료로 본 백산말갈과 고구려의 책성」 『동북아역사논총』 61.
- 공석구, 2006, 「강원도 동해안지역의 고대 정치세력」 『강원도와 고구려』, 집문당.
- 권오영, 2009, 「원삼국기 한강유역 정치체의 존재양태와 백제국가의 통합양상」 『고고학』 8-2.
- _____, 2010, 「馬韓의 종족성과 공간적 분포에 대한 검토」 『한국고대사연구』 60.
- 權五重, 1980, 「靺鞨의 種族系統에 관한 試論」 『震檀學報』 49.
- 금경숙·임기환·공석구 編, 2006, 『강원도와 고구려』, 집문당.
- 金權中, 2012, 「강원 영서 지역 청동기시대 초기-전기문화의 편년」, 『청동기시대 광역편년을 위한 초기-전기 문화편년』, 제6회 청동기학회 학술대회.
- 김규호, 2009, 「남한강 유역의 고인돌 연구 - 강원도 지역을 중심으로 -」, 『인문과학연구』 21.
- 김무중, 2017, 「북한강유역 원삼국~한성백제기 물질문화의 연구 성과와 과제」 『2017년도 중부고고학회 학술대회』.
- 김범철, 2001, 「남한지역 후기무문토기문화의 성격 연구-서울지역 연구를 위한 시론적 고찰-」 『서울학연구』 16.
- 김병남, 2000, 「『三國史記』 初期 記錄의 靺鞨에 대한 再檢討」 『全北史學』 23.
- 김선우, 2012, 「한반도 중서부 지방 주거지와 지석묘의 공간분석에 대한 시론-환경요인(environmental elements) 분석을 중심으로-」, 『先史와 古代』 36.
- 김영천, 2008, 「靺鞨의 成長과 高句麗의 靺鞨 服屬」 『高句麗渤海研究』 32.
- 金元龍, 1981, 「春川郡 芳洞里의 高句麗式 石室墳二基」 『考古美術』 149.
- 金在弘, 2015, 「生業으로 본 韓과 濊의 종족적 특성」 『한국고대사연구』 79.
- 김종혁, 1991, 「북한강 수운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준규, 2013, 「중도식무문토기 상대편년 연구-경기 북부·강원 영서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金鎭光, 2009, 「『三國史記』 本紀에 나타난 靺鞨의 性格」 『高句麗渤海研究』 35.
- 金鎭晶·白先溶, 1987, 「春川郡 新梅里 高句麗式 石室墳 出土 人骨」 『三佛金元龍教授停年退任記念論叢』 I.
- 김창석, 2015, 「3세기 이전 춘천 지역의 취락 양상과 정치체의 형성」 『신라문화』 46.
- _____, 2018, 「맥족의 분포와 『삼국사기』 소전 ‘맥국’에 관한 고찰」 『한국고대사연구』 91.
- 金澤均, 1997, 「『三國史記』에 보이는 靺鞨의 實體」 『高句麗研究』 3.
- 김현숙, 2005, 『고구려의 영역지배방식 연구』, 모시는 사람들.
- 노혁진, 1998, 「江原道 靑銅器 및 鐵器時代의 諸問題」, 『韓國先史考古學報』 5.
- _____, 2009, 「남한 청동기문화 조사연구의 성과와 과제-점토대토기문화를 중심으로-」 『동북아 청동기문화 조사 연구의 성과와 과제』, 학연문화사.
- 盧赫眞·沈載淵, 1993, 「江原道 春川郡 芳洞里의 特異構造 石室墳」 『古文化』 42·43.
- 리광희, 2005, 『고구려유물연구』,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文安植, 1998, 「『三國史記』 羅 濟本紀의 靺鞨 史料에 대하여-靺鞨勢力의 地域的 分布 및 種族 構成上의 차이와 變化를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 13.
- 박경신, 2018, 「북한강 상류역 원삼국시대 취락과 지역 정치체」 『고고학』 17-2.

- 朴守榮, 2010, 「4-5世紀 嶺東地域의 考古學的 研究-住居址와 墳墓資料를 中心으로-」, 嶺南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朴淳發, 1993, 「漢江流域의 靑銅器 · 初期鐵器文化」 『한강유역사』, 민음사.
- _____, 1996, 「漢城百濟 基層文化의 性格-中島類型文化의 歷史的 性格을 中心으로-」 『百濟研究』 26.
- _____, 1997, 「漢江流域의 基層文化와 百濟의 成長過程」 『韓國考古學報』 36.
- _____, 2009, 「중서부지역 원삼국시대 토기 편년의 재고(再考)」, 『백제百濟, 마한馬韓을 담다』 토기특별전 도록, 백제역사문화관 ·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 朴榮九, 2010, 「嶺東地域 粘土帶土器文化의 展開樣相」 『韓國靑銅器學報』 7.
- 박중국, 2011, 「원삼국기~백제 한성기 중부지역 묘자형 주거지의 변천과 지역성-쪽구들 주거지를 중심으로-」 『고고학』 10-1.
- _____, 2012, 「중도문화의 지역성-‘중도유형문화론’의 재검토를 중심으로-」 『중앙고고연구』 11.
- 박지영, 2017, 「원삼국~삼국시대 마한·백제 권역 취락 분포의 시공간적 변화-방사성탄소연대와 GIS를 이용한 시험적 검토」 『韓國考古學報』 104.
- 박지희, 2016, 「삼척지역의 철기시대문화와 실직국」 『이사부와 동해』 12.
- 裴眞晟, 2003, 「無文土器의 成立과 系統」, 『嶺南考古學』 32.
- _____, 2006, 「석검 출현의 이데올로기」 『石軒 鄭登元教授 停年退任紀念論叢』, 釜山考古研究會 · 論叢刊行委員會.
- 白種伍, 2009, 「南韓內 高句麗 古墳의 檢討」 『高句麗渤海研究』 35.
- 白弘基, 1991, 「遺蹟調査概要」 『江原嶺東地方의 先史文化研究』, 江陵大學敎博物館.
- 백흥기 · 오건환, 1997, 「중부동해안지역 선사유적의 분포 특성과 지형환경 - 주문진-양양지역을 중심으로 -」, 『古文化』 50.
- 徐榮一, 2003, 「漢城 百濟의 南漢江水路 開拓과 經營」 『文化史學』 20.
- 선석열, 2006, 「『三國史記』 百濟·新羅 本紀에 보이는 靺鞨 認識」 『지역과 역사』 19.
- _____, 2010, 「중국정사의 말갈7부와 삼국사기의 말갈」 『高句麗渤海研究』 37.
- 성정용, 2013, 「中原地域 原三國時代 墳墓 築造集團의 性格」 『고고학』 12-3.
- 손준호, 2010, 「청동기시대의 전쟁의 성격」, 『고고학』 10-1.
- 송만영, 2012, 「강원 영서, 영동 지역 청동기시대 편년 병행 관계 - 석촉 형식 분류를 중심으로 -」, 『崇實史學』 29.
- _____, 2013, 『중부지방 취락고고학 연구』, 서경문화사.
- 宋知娟, 2004, 「帶方郡의 盛衰에 대한 研究」 『史學研究』 74.
- 신광철, 2015, 「고구려의 강원도 진출과 의의」 『韓國上古史學報』 88.
- _____, 2018, 「아차산 보루군의 축조시기와 운영체계」, 『아차산 일대 보루군 종합정비 기본계획을 위한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중랑구청 · (재)고려문화재연구원.
- 신수화, 2014, 「남한강유역 청동기시대 주거지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沈載淵, 1996, 「江原 嶺東·嶺西地域의 鐵器文化研究」, 翰林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_____, 1998, 「강원지역 철기문화 연구」 『韓國上古史學報』 29.
- _____, 2006, 「한성백제기 북한강 중상류지역의 양상에 대하여」 『湖西考古學』 14.
- _____, 2008a, 「江原 東海岸 地域 砂丘地帶 靑銅器時代 遺蹟의 存否에 對한 研究」 『江原史學』 22 · 23.
- _____, 2008b, 「江原 嶺東地域 鐵器時代 上限과 下限」 『동북아 문화연구』 18.
- _____, 2009a, 「한성백제기의 영동·영서」 『고고학』 8-2.
- _____, 2009b, 「강원도 중도식토기 문화에 보이는 동북지방 요소」 『철기시대 한국과 연해주』, 주류성출판사.

- _____, 2010, 「한성백제기 한강 중·상류 지역의 적석총에 대한 연구」 『서울학연구』 39.
- _____, 2011, 「경질무문토기의 기원-점토대토기문화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고고학』 10.
- _____, 2017, 「최근 조사 성과로 본 영동·영서지역과 북방지역의 상호 작용-철기~삼국시대를 중심으로-」 『한국 시베리아연구』 21-1.
- 안승모, 2006, 「동아시아 정주취락과 농경 출현의 상관관계」 『한국신석기연구』 11.
- 양시은, 2003, 「한강유역 출토 고구려 토기의 제작기법 검토」 『韓國考古學報』 49.
- _____, 2014, 「남한지역 출토 고구려 토기의 현황과 특징」 『湖南考古學報』 46.
- 吳江原, 1996, 「春川地域 石室墳유적에 관한 연구-古墳의 系統과 築造集團문제를 중심으로-」 『江原文化史研究』 1.
- 오규진·허의행, 2006, 「청동기시대 주거지 복원 및 실험 -전기주거지를 중심으로-」 『아외고고학』 창간호.
- 오영찬, 2006, 『낙랑군 연구』, 사계절.
- 俞元載, 1979, 「三國史記 僞靺鞨考」 『史學研究』 29.
- 유은식, 2014, 「한반도 북부지방 토기문화를 통해 본 중부지방 원삼국문화의 계통-소위 ‘중도유형문화’를 중심으로」 『고고학』 13-3.
- _____, 2015, 「동북아시아 초기 쪽구들의 발생과 전개」 『고고학』 14-3.
- 尹善泰, 2001, 「馬韓의 辰王과 臣濱沽國 - 嶺西地域 지역의 歷史的 推移와 관련하여 -,」 『百濟研究』 34.
- 李康來, 1985, 「『三國史記』에 보이는 靺鞨의 軍事活動」 『領土問題研究』 2.
- 李東輝, 2003, 「『三國史記』 靺鞨의 활동범위와 성격」 『釜大史學』 27.
- 이병훈, 2016, 「중부지방 원삼국시대 외줄구들 유형의 변천과정 재검토-중도유형문화권을 중심으로-」 『고문화』 88.
- 이상수, 2014, 「考古資料를 통해 본 悉直國」 『이사부와 동해』 8.
- 李相勳, 2013, 「江原道 嶺西地域 新石器時代 遺蹟 研究」, 江原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李盛周, 2012, 「儀禮, 記念物, 그리고 個人墓의 발전」 『湖西考古學』 26.
- 李修真, 2010, 「강원도 동해안지역의 신석기문화」 江原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이숙임, 2007, 「강원지역의 점토대토기문화 고찰」 『고문화』 69.
- 이인철, 2001, 「1~3세기경 백제의 군사전략과 영토확장」 『軍事』 44.
- 이일용, 2009, 「江原地域의 原三國文化 研究-嶺東·嶺西地域 考古資料의 比較를 中心으로-,」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빈, 2018, 「6세기 중·후반 요서말갈(遼西靺鞨)과 돌궐-고구려」 『동북아역사논총』 61.
- 이준민, 2015, 「남한강 유역 원삼국시대 취락의 편년과 변화」,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한상, 2008, 「한국 고대 귀걸이 감정을 위한 착안점-제작지와 연대를 중심으로」 『服飾』 58-5.
- _____, 2018, 「삼국시대 귀걸이의 양식 창출과 확산」 『고대인의 멋, 귀걸이』, 복천박물관.
- 이현혜, 2010, 「沃沮의 기원과 문화 성격에 대한 고찰」, 『韓國上古史學報』 70.
- 李亨求, 2015, 「春川 中島の 古代 共同體社會」 『韓國古代史探究』 21.
- 李亨源, 2005, 「松菊里類型과 水石里類型의 接觸樣相-中西部地域 住居遺跡을 中心으로-」 『湖西考古學』 12.
- _____, 2011, 「中部地域 粘土帶土器文化의 時間性과 空間性」 『湖西考古學』 24.
- _____, 2015, 「住居文化로 본 粘土帶土器文化의 流入과 文化變動-江原 嶺東 및 嶺西地域을 中心으로-」 『한국청동기학보』 16.
- 이흥종, 1998, 「『三國史記』 ‘말갈’기사의 고고학적 접근」 『韓國史學報』 5.
- 張容碩, 2018, 「押督國에서 新羅 地方社會로의 轉換」 『최신 연구성과로 본 압독국』 사적 제516호 경산 임당동과 조영동고분군 가치조명 학술세미나, 경산시·경북신문.

- 전호태, 2015, 「고구려인의 화장과 장신구」 『역사문화연구』 55.
- 정석배, 2009, 「아무르·연해주 지역의 말갈-연구현황과 과제-」 『高句麗渤海研究』 35.
- 鄭永振, 1991, 「高句麗·渤海 靺鞨 墓葬形制 比較研究」 『百濟研究』 22.
- 정재운, 2007, 「初期 百濟의 成長과 眞氏 勢力의 動向」 『역사학연구』 29.
- 조관후, 2014, 「백제 한성기의 왕계 변화와 대방군과의 관계」 『한국학논총』 42.
- 趙由典, 1987, 「春川郡 新梅里 高句麗式 石室墳 一例」 『三佛金元龍教授停年退任記念論叢』 1.
- 조이옥, 2010, 「한국고대사의 주변 : 말갈에 대한 연구현황과 과제」 『溫知論叢』 24.
- 최성락, 2002, 「철기시대 토기의 실체와 연구방향」, 『지방사와 지방문화』 5-2.
- 崔承燁, 2010, 「江原地域의 舊石器文化 研究」, 江原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 최영민, 2010, 「원삼국시대 한반도 중부지역 철기문화의 변천」 『고고학』 9-2.
- 최종모, 2010, 「강원도 청동기문화 전개에 있어서 조기문제의 제기」 『고고학』 9-1.
- 崔鐘澤, 2006, 「南韓地域 高句麗 土器의 編年 研究」 『先史와 古代』 24.
- _____, 2011, 「南韓地域 高句麗古墳의 構造特徵과 歷史的 意味」 『韓國考古學報』 81.
- 崔憲燮, 1998, 「韓半島 中·南部 地域 先史聚落의 立地類型」,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韓圭哲, 1988, 「高句麗時代의 靺鞨 研究」 『釜山史學』 14: 15.
- _____, 2013, 「『三國史記』의 靺鞨문제」 『인문학논총』 31.
- _____, 2015, 「三國과 渤海史에서의 靺鞨」 『韓國史學報』 58.
- 한지선, 2018, 「한성백제기 강원지역의 물질문화와 지역정치체」 『고대 강원의 정치체와 물질문화』 제1회 강원 고대문화 연구 심포지엄, 국립춘천박물관.
- 황보경, 2010, 「4~6세기 북한강 유역 고분의 특징과 축조배경 고찰」 『高句麗渤海研究』 37.
- 홍형우, 2017, 「연해주의 고고 문화와 강원도」 『江原史學』 29.
- 武末純(禹枝南 譯), 2010, 「11. 金海 龜山洞遺蹟 A1區域의 彌生系土器를 둘러싼 諸問題」 『金海 龜山洞 遺蹟 X』, 慶南考古學研究所.

보고서 및 약보고서

- 江陵大學敎育博物館, 2007, 『江陵 領津里 古墳群』.
- 江陵大學敎育博物館·襄陽郡, 2002, 『襄陽 浦月里 住居址』.
- 江原文化財研究所, 2008a, 『泉田里-A지역-』.
- _____, 2008b, 『泉田里-B지역-』.
- _____, 2010, 『洪川 哲亭里Ⅱ 遺蹟』.
- _____, 2011, 『春川 牛頭洞遺蹟Ⅰ』.
- _____, 2012, 『春川 牛頭洞遺蹟Ⅱ』.
- _____, 2015, 『春川 牛頭洞遺蹟Ⅲ』.
- 江原文化財研究所·原州地方國土管理廳, 2005a, 『下花溪里·哲亭里·驛內里 遺蹟(Ⅰ)』.
- _____, 2005b, 『洪川 驛內里 古墳群』.
- 國立中央博物館, 1980, 『中島』.
- 엘엘개발주식회사·강원문화재연구소, 2017, 『춘천 중도 LEGOLAND KOREA Project F구역 내 유적 발굴(정밀)조사 약식보고서』.
-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재)한백문화재연구원, 2013, 『화천 거례리 유적』.
- (재)江原考古文化研究院, 2011, 『江陵 江門洞聚落』.
- _____, 2018, 『江陵 柄山洞 聚落Ⅱ』.

- (재)에맥문화재연구원, 2008, 『原州 建登里遺蹟』.
- _____, 2010, 『東海 望祥洞遺蹟 II』.
- _____, 2013, 『華川 原川里遺蹟-第IV卷: 본문 3·부록-』.
- _____, 2017, 『춘천 중도 LEGOLAND KOREA Project C구역 내 유적 정밀발굴조사 약식보고서』.
- 한국문화재재단, 2016, 『춘천 우두동 77번지 유적』.
- _____, 2017, 『화천 위라리 123-1번지 외 1필지 유적』.
-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13, 『춘천 우두동 144-11번지 유적』.
- 翰林大學校博物館, 2000, 『春川市 東面 萬泉里 古墳 發掘報告書』.
- LH·(재)한강문화재연구원, 2017, 『춘천 우두동유적-본문 ④-』.

함경도·연해주 일대 여진(女眞)과 말갈 유적에 대하여

홍형우(강릉원주대학교)

목차

- I. 머리말
- II. 말갈·여진(女眞)과 함경도
- III. 일제강점기 도리이 류조(鳥居 龍藏)의 조사 사례
- IV. 연해주 유적을 통해본 말갈·여진 문화
- V. 맺음말

I. 머리말

여진은 중국의 ‘동북삼성’ 중 주로 송화강(松花江)·목단강(牡丹江)·흑룡강(黑龍江)유역과 동만주 해안지방에 살았던 민족으로 말갈의 후예로 알려져 있다. 이 지역은 중국 만주 지방의 동부와 동북부로 창바이 산맥(長白山脈)과 장광차이링(張廣才嶺) 등 삼림지대에 해당하며, 부여·읍루·속신·말갈 등 통구스계 수렵민들이 살았던 지역이다.¹⁾

여진의 명칭은 시대에 따라 춘추전국시대에는 속신(肅慎), 한(漢)나라 때에는 읍루(挹婁), 남북조(南北朝)시대에는 물길(勿吉), 수(隋)·당(唐)시대에는 말갈(靺鞨)로 불렸으며, 10세기 초의 송나라 때 처음으로 여진이라 했고, 청나라 때에는 만주족이라 칭하였다.²⁾

말갈의 존재는 이미 북위 말과 수당 초기부터 알려졌으며, 수서에 따르면 백산부(白山部)·속말부(粟末部)·백돌부(伯咄部)·안거골부(安車骨部)·불녕부(拂涅部)·호실부(號室部)·흑수부(黑水部)라는 7부의 말갈이 있었고, 수·당대 이후에는 7말갈 이외에 월희(越喜)나 철리(鐵利)와 같은 말갈도 등장한다.³⁾

이 중 흑수말갈이 8세기 발해 건국 즈음에 동북방에서 강력한 세력으로 부상하였다. 이들은 10세기 초 발해가 멸망한 뒤 남하하여 종래 말갈이라는 명칭 대신에 스스로를 ‘주르첸’이라 부르기 시작하였다. 한자로는 주리진(朱里眞) 혹은 여진(女眞)이라 하였다. 이들 가운데 완안부 출신인 아쿠타가 ‘금(金)’이라는 국가를 건설하였다. 여진제국의 강역은 만주와 장성이남의 북중국을 포괄하였으며, 한반도의 동북부지역을 포함한다.⁴⁾

따라서 한반도 동북부 지역인 현재의 함경도 지역에는 말갈·발해·여진의 삶의 흔적이 다수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지금까지 함경도 일대에 대한 고고학조사·보고는 상당히 미흡하여, 정확히 말갈, 여진의 유적으로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

이에 본고에서는 향후 북한 지역, 특히 함경도 지역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연구에 대비하기 위해, 말갈·여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일제 강점기에 조사·보고된 자료를 통해 그 흔적을 찾아보고, 다음으로 러시아 연해주 일대에서 기왕에 조사·연구된 말갈·여진의 유적에 대하여 살펴보고, 말갈·여진 고고학적 문화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II. 말갈·여진(女眞)과 함경도

말갈의 존재는 『북제서(北齊書)』 무성제(武成帝) 하청(河淸) 2년(563)의 기록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며, 이미 북위 말과 수당 초기부터 알려졌다.

『수서(隋書)』에 따르면, 백산부(白山部)·속말부(粟末部)·백돌부(伯咄部)·안거골부(安車骨部)·불녕부(拂涅部)·호실부(號室部)·흑수부(黑水部)라는 7부의 말갈이 있었다고 전한다. 말갈 7부의 위치에 대하여는 기록과 고고학 자료를 바탕으로, 속말부가 길림시를 중심으로 한 송화강 중

1) 김호동, 2016, 『아틀라스 중앙유라시아사』, 사계절출판사, 118쪽.

2)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여진」,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81276&cid=46621&categoryId=46621>

3)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말갈」,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45423&cid=46620&categoryId=46620>

4) 김호동, 2016, 『아틀라스 중앙유라시아사』, 사계절출판사, 118쪽.

류지역, 백돌부는 부여현일대, 안거골은 아십하구역, 불열부는 흥개호일대, 호실부는 우수리강 중류일대, 흑수부는 흑룡강 중하류일대, 백산부는 연변지구와 백두산일대로 비정되고 있다.⁵⁾

고구려 당시 말갈은 대부분 고구려에 복속되어 있었다. 신라를 공격하거나 당과의 전쟁에 동원되기도 하였으며, 고구려 멸망 이후에는 고구려부흥운동에 참가하였다. 따라서 함경도 지역에는 고구려에 복속되어 있던 말갈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다.

926년 발해가 거란에게 멸망당하자 고려가 다수의 발해 주민들을 받아들였지만, 발해의 영토 대부분은 포괄하지는 못하였다. 고려는 성립 초부터 고구려를 계승하였음을 표방하여 복진 정책을 추진하여 청천강 이북으로 영토를 확대하려하였다. 이 과정에서 거란과의 갈등이 불가피하였다. 발해 유민이 세운 정안국을 먼저 정복(980년)한 거란은 3차에 걸쳐 고려로 침입하였다. 고려는 거란과의 전쟁 이후 북방의 침입에 대비하여 천리장성을 쌓았다. 천리장성은 압록강 입구에서 함경도 영흥에 이르는 성으로, 덕종 2년(1033)에 착공하여 정종 10년(1044)에 완성하였다.⁶⁾

이후 천리장성 동북方面에는 여진족이 살았다. 이 지역에는 10세기 초 발해의 멸망 이후 흑수말갈이 남하하여 살았는데, 이때부터 여진으로 불리었던 것이다.⁷⁾ 여진족은 농경과 수렵을 병행하는 민족으로서, 발해의 지배하에 있다가 10세기 초 거란족이 이 일대의 패권을 장악한 이래, 그 지배를 받았다. 요(遼)의 귀속 정도에 따라 북쪽의 생여진(生女眞)과 남쪽의 숙여진(熟女眞)으로 구분된다. 여진족 발흥의 중심은 생여진의 완안부였다.⁸⁾

여진족은 함경도는 물론이고 두만강 유역이나 흑룡강·송화강 유역에도 거주하고 있었다. 금을 건국하기 이전에 여진은 고려에게 칭신하며 조공을 바쳤다. 『금사(金史)』에서는 그 시조가 고려에서 건너왔다고 하였다. 여진족은 완안부의 강성으로 고려에 복속했던 여진 촌락을 완전히 점령하고 정평의 장성 부근까지 출몰하였다. 고려는 임간, 윤관을 출동시켰으나 패전하여, 정평·장성 밖의 여진 촌락은 모두 완안부에 들어갔다.

이후 고려는 예종 2년(1107) 10월 윤관을 중심으로 하여 여진 정벌에 나섰다. 고려군은 총 135개를 점령하고 5000명을 포로로 사로잡는 대승을 거두었고, 점령 지역에 함주, 영주, 웅주, 길주, 복주, 공협진, 통태진, 송녕진, 진양진 등 성 9개를 쌓고, 남쪽의 6만 9000여 호를 옮겨 살게 한 바 있다.

5) 권은주, 「靺鞨 7部の 實體와 渤海와의 關係」, 『高句麗渤海研究』35집, 2009, 53쪽. 최근 김락기는 다른 의견을 발표하였는데, 7부의 구체적 위치는 상이하나 상대적 위치는 유사한 것으로 파악된다. 김락기, 「6~7세기 靺鞨 諸部の 내부 구성과 거주지」, 『高句麗渤海研究』36집, 2010.

6) 한국고원대학교 역사교육과, 2004, 『아틀라스 한국사』, 사계절출판사, 74-75쪽; **한성주, 2011, 「고려 시대 東女眞·東眞兵의 강원지역 침입에 대하여 - '東女眞 海賊'의 침입을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30집,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22-224쪽.

7) 이들 중에는 발해의 유민들도 있었을 것이다.

8) 김순자, 2012, 「12세기 고려와 여진·금(金)의 영토 분쟁과 대응」, 『역사와 현실』 83집, 한국역사연구회, 143-154쪽; 김호동, 2016, 『아틀라스 중앙유라시아사』, 사계절출판사, 118쪽; 나영남, 2016, 「遼代 女眞의 起源과 分類」, 『역사학연구』, 62집, 호남사학회, 237-24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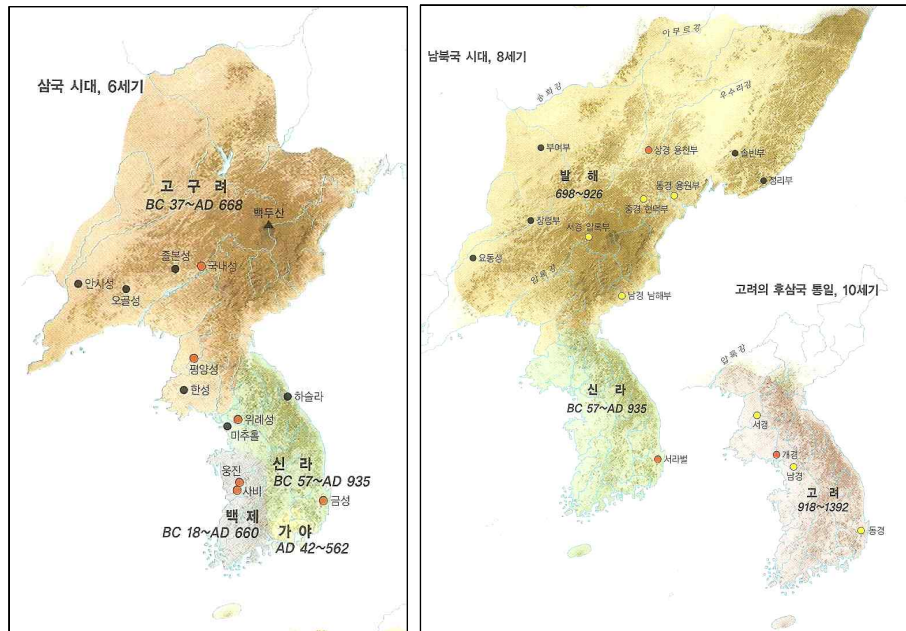


그림 1 삼국 시대 이후의 영토 변화
(한국고원대학교 역사교육과, 2004, 『아틀라스 한국사』, 69쪽에서)



그림 2 여진 제국의 발전(12세기)
(김호동, 2016, 『아틀라스 중앙유라시아사』, 121쪽에서)

9성의 위치에 대하여는 크게 3가지 학설이 있다. “첫째는 공험진의 위치를 두만강 이북으로 잡아 그 이남부터 정평까지 함경도 일대에 걸쳐 있었다는 설, 두 번째는 길주 내지 마운령 이남부터 정평까지 주로 함남 일대로 비정하는 설, 셋째는 함관령 이남 정평 이북의 넓은 의미의 함흥 평야 일대로 보는 설이다.”⁹⁾ 윤관의 9성은 오래 유지되지 못하고, 개척한지 1년 만에 포기하고 주둔했던 군사와 백성들을 모두 철수 시켰다. 이후 완안부 여진은 더욱 강성하여 예종 8년(1113)에는 만주 대부분을 점령하고, 2년 후에는 금을 건국한다. 완안부 출신 아쿠타(阿骨打, Akuta)가 금(金, 1115~1234년)이라는 국가를 건설한 것이다. 송화 강의 지류인 아르추

9) 한국고원대학교 역사교육과, 2004, 『아틀라스 한국사』, 사계절출판사, 74-75쪽.

가가 여진어로 금을 뜻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⁰⁾

이렇듯 고려시대에는 장성 이북의 땅은 고려 말까지 여진족의 땅이었다. 이후 공민왕 때 동북면 출신인 이성계가 이 지역의 여진족을 평정하여 두만강 하류를 영토로 편입시키고, 세종 16년(1434)부터 10여 년에 걸쳐 김종서 등이 두만강 유역의 여진족을 정벌하고 경원·종성·회령·경흥·온성·부령 등 6진을 설치한 바 있다.¹¹⁾

정리하면, 말갈이 언제부터 연해주, 함경도지역에 살고 있었는지 확실하지 않으나, 고구려 당시 말갈은 고구려에 복속되어 간접 지배를 받으며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이 지역은 발해의 땅에 속하게 된다. 발해 시기의 말갈에 대하여도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 말갈이 발해의 다수의 피지배 주민을 형성하고 있었다거나, 발해가 말갈족에 의해 건국된 왕조였다는 견해 등 다양하다. 또한 말갈을 당과 신라 등에서 동북방 및 북방의 미개 부락에 대한 통칭으로 보기도 한다. 발해 멸망 이후 10세기 초 흑수말갈이 남하하여 살았는데, 이때부터 이들이 여진으로 불린다. 이후 함경도 지역은, 학설에 따라 다르지만 윤관의 9성 설치로 잠시 함경도 지역(일부 또는 전부)을 차지하였다가 바로 되돌려 준 바 있으나, 고려 말·조선 초까지 여진의 영역이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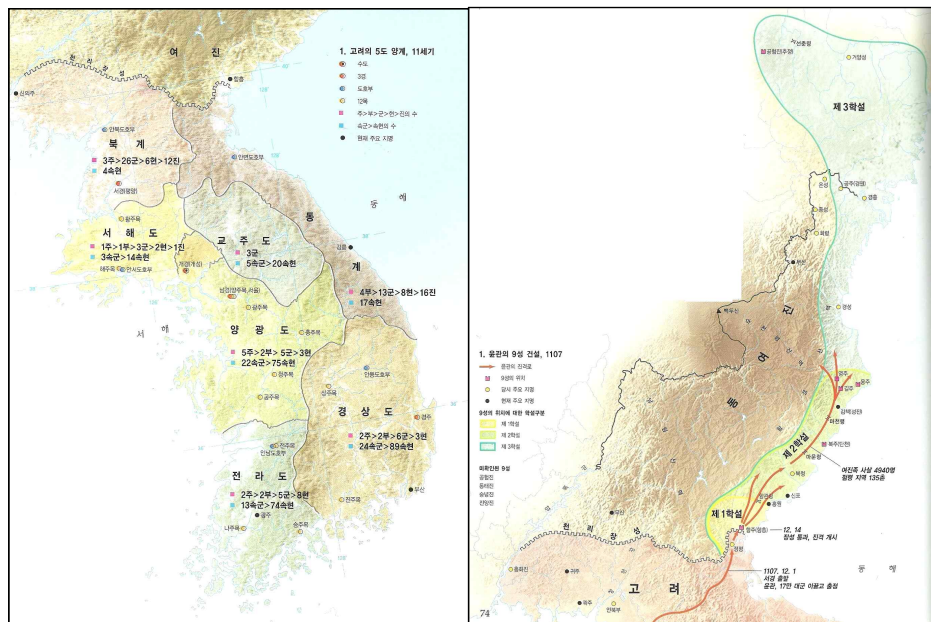


그림 3 고려의 5도 양계(11세기, 좌)와 윤관의 9성 건설(우)
(한국고원대학교 역사교육과, 2004, 『아틀라스 한국사』, 74쪽에서)

Ⅲ. 일제강점기 도리이 류조(鳥居 龍藏)의 조사 사례

- 10) 김호동, 2016, 『아틀라스 중앙유라시아사』, 사계절출판사, 118쪽; 조복현, 2010, 「12세기 초기 고려-금 관계의 전개와 상호 인식」, 『중국학보』, 한국중국학회, 56-61쪽.
- 11) 이와 같은 영토에 대한 인식은 중국학계의 시각과는 다소차이가 있다. 이에 대하여는 김순자, 2010, 「고려~조선초 한·중간 영토에 대한 현대 중국학계의 시각」, 『역사와 현실』 76집, 한국역사연구회 참조.

도리이 류조(1870~1953)는 일본의 고고학자, 인류학자, 민속학자이다. “도리이는 일본은 물론 대만·중국·내몽고·한반도·사할린·동부 시베리아를 비롯하여 브라질·페루·볼리비아 등 남미에 이르기까지 정력적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한 인물이다.” “만주와 몽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던 도리이가 한반도까지 조사영역을 확대하였는데, 1910년 여름, 데라우치를 만난 도리이는 조선 총독부 촉탁으로 ‘고적조사, 석기시대 조사, 조선인 생체 측정’ 등에 관한 조사 계획을 협의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약속받는다.”¹²⁾

도리이 류조의 한반도 조사기록은 1910년 예비조사를 시작으로 1932년까지 확인된다.¹³⁾ “조선총독부박물관 설립 이전인 1916년 이전까지는 학무국 편집과 촉탁으로 1회~5회의 사료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916년 이후에는 박물관협의원, 고적조사위원 촉탁으로 활동하면서 조사사업을 계속한다.” “도리이 류조의 한반도 조사 관련 자료는 유리건판, 출장복명서·조사 보고 등 조선총독부 박물관 보고서, 인류학회에 보낸 통신, 논문, 츠보이 쇼고로(坪井正五郎) 아래서 함께 수학했던 이시다 슈조(石田收藏)에게 보낸 엽서와 그의 『手記』 등을 들 수 있다.”¹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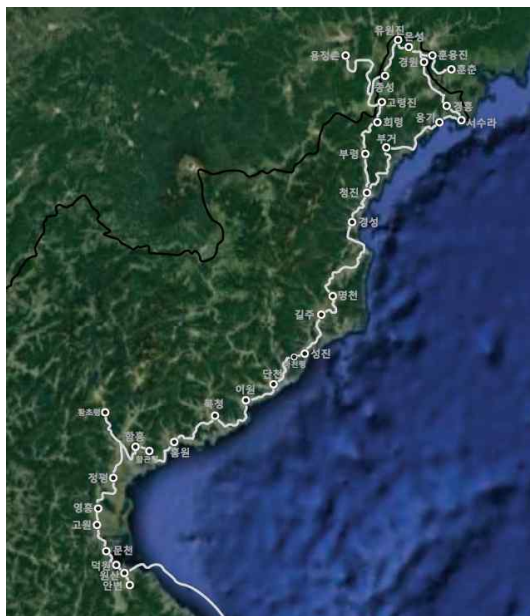


그림 4 도리이 류조의 제1회 조사경로
(국립김해박물관, 2016, 『석기시대 조거용장조사 유리건판』, 33쪽에서)

이러한 자료 중 1회 사료조사는 1911년에 함경남북도, 두만강유역, 만주 일대에 대한 조사 자료이다.¹⁵⁾ 조사내용은 석기시대 유적 조사와 고구려·여진 유적조사로 대별되는데, 원산 석총군(石塚群), 청진 여진문석비(女眞文石碑), 고구려 산성, 석기시대유적, 생체측정 등이 그것이다.¹⁶⁾ 참고로 국립김해박물관에서 편찬한 『석기시대 조거용장 조사 유리건판』에서 정리한 도리이 류조의 한반도 조사 현황을 보면, 함경남북도 일대 역사시대 유적이 조사된 것은 제 1회 조사 자료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제1회 사료조사보고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제1회 사료조사는 함경도 일대와 만주 일부 지역에 대한 조사였다. 이 때 조사된 함경도 지역의 유사이전 석기시대 조사는 앞선 언급한 국립김해박물관에서 편찬한 『석기시대 조거용장 조사 유리건판』, 26~56쪽에 상세히 수록되

- 12) 도리이 류조의 조사사례는 국립김해박물관, 2016, 『석기시대 조거용장 조사 유리건판』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건판 8집과 『第1回 史料調査報告』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국립김해박물관, 2016, 『석기시대 조거용장 조사 유리건판』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건판 8집, 9쪽.
- 13) 국립김해박물관, 2016, 『석기시대 조거용장 조사 유리건판』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건판 8집, 12쪽.
- 14) 국립김해박물관, 2016, 『석기시대 조거용장 조사 유리건판』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건판 8집, 22쪽.
- 15) 도리이 류조(鳥居 龍蔵), 『第1回 史料調査報告』,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 16) 국립김해박물관, 2016, 『석기시대 조거용장 조사 유리건판』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건판 8집, 24쪽.

어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역사시대만 살펴보기로 한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되는 것은 도리이가 유사이전의 유적에서 옥저를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립김해박물관에서 정리한 제1회 사료조사 목차를 보면, 024 유사시대의 유적 신라, 032 고구려 및 발해 고분유적(고려 및 이조의 고분을 제하고), 046 옥저족의 묘소, 048 현도군치의 유적의 유무, 052 성벽, 061 고려와 여진, 031 여진의 언어 082 蒲鮮萬奴 등이 있어 주목된다. 이 중 고구려, 옥저, 발해, 여진과 관련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¹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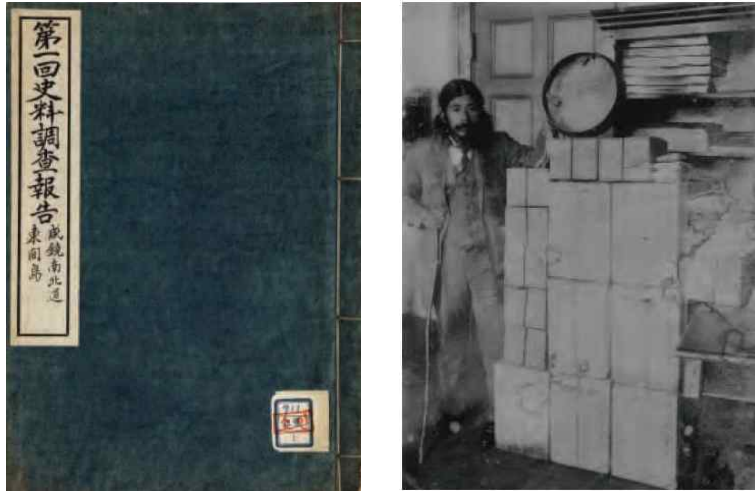


그림 5 1회 조사를 마치고 채집품과 함께 기념촬영을 한 도리이 류조
德島隱立鳥居龍藏記念博物館 소장(좌),
『第1回 史料調査報告』국립중앙도서관 소장(우)

먼저, 고구려 및 발해 고분유적에 관한 것이다. 함경도에는 많은 고분이 존재하며, 이들을 6종의 형식으로 분류하였다. 도리이의 설명만으로 6종의 고분이 어떤 고분을 지칭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그는 제1종을 가장 오래된 것으로 분류하고, 제2종과 제3종이 그 다음으로, 제4종과 제5종, 제6종순으로 보았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부거에 존재하는 고분은 제6종이 많으며, 이를 발해시대의 것”으로 본 점과 “제3종 및 제5종을 여진과 관련된 것으로 본 조선인”의 전언을 소개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물론 서술된 형식으로 보아 고구려의 고분과 관련된 것이 상당수 일 것이나, 향후 발해, 여진과 관련하여 이 지역에 분포하는 고분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다음은 옥저족의 묘소 부분으로, 『위지』의 「옥저전」의 기록 “其葬作大木槨 長十餘丈 開一頭作戶 新死者皆假埋之 才使覆形 皮肉盡 乃取骨置槨中 舉一家皆共一槨 刻木如生形 隨死者爲數 又有瓦甕 置米其中 編縣之於槨戶邊(그들은 장사를 지낼 때 큰 나무 껍을 만든다. 길이가 10여 丈이다. 한쪽 머리를 열어 놓아 문을 만든다. 갓 죽은 자는 모두 가매장을 하는데, 겨우 형체가 덮일 만큼 묻는다. 가족과 살이 다 썩으면 이에 뼈를 추려 껍 안에 둔다. 온 집안이 모두 하나의 껍을 공유한다. 나무를 산 사람 모습처럼 깎는다. 죽은 사람만큼 그 수를 만든다. 또 瓦甕(질술)이 있는데 그 안에 쌀을 둔다. 이것을 槨 문 곁에 엮어 매단다)”을 언급하며 옥저의 槨은 나무로 되어 오늘날까지 남아 있을 수 없다고 보았다.

17) 제1회 조사보고에 대하여는 강인욱 교수의 도움이 컸다. 자료와 번역을 보내준 강인욱 교수에게 감사드린다. 지면 관계로 원문을 다 소개하지 못하는 점이 아쉽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성벽’에 대한 부분이다. 요약하면, 함경도에는 수많은 성터가 존재하는데, 크게 두 가지 형식이 있다. 가장 오래된 형식은 산꼭대기를 이용하여 정상 주위에 인공을 가한 곳곳에 돌로 쌓은 것으로 옥저족 또는 말갈족의 손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단천의 증봉산(시루봉), 간도의 소막반산 등이 그 예이다.

여진의 성은 산성과 토성으로 나뉜다. 먼저 산성은 後女真人에게서 사용된 것으로, 오늘날 함경도에 남아 있는 산성의 대부분은 이들 산성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것은 원래부터 金 시대에 설치된 것도 있지만, 오랜 시대의 성에 修築을 하여 사용한 것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 성은 함경도 각지에 존재하는데, 두드러진 것으로는 회령의 운두성, 회령의 산성, 길주 산성리의 산성, 명천 재덕산의 산성, 경성의 남산성, 북청의 여진고성 등이 있다. 이러한 형식은 간도에서도 볼 수 있어, 그 표본으로 두드러진 것은 국자가(局子街)의 동포이합도하(東布爾合圖河) 강안에 있는 성자산성 및 혼춘천 상류에 있는 산성 등이 있다. 한편 평지성은 대부분 토성으로, 북청의 토성은 숙신의 토성으로 보이며, 금 시대의 토성은 대부분 요(遼)나라 축성을 모방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고려와 여진’ 부분이다. 여기서는 함경도가 원래 여진인의 땅임을 강조하고 있다. 장성(長城)과 함께 윤관(尹瓘)의 9성(城) 부분에서는 『여지승람』 등에는 윤관의 여진 정벌 때 가장 북쪽에 쌓았던 공험진의 유적은 두만강 북쪽에 있다고 하는 데, 이는 조선 초에 이르러 칭송하려고 만들어 낸 것으로, 그 이전에는 그렇지 않은 것은 앞의 사실에 의해서 분명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정평 이복의 땅은 고려 말부터 조선에 이르러 점차 정복되어진 것이지만, 조선인의 유적, 유물은 고려시대의 것은 매우 드물다. 그 다수 남아 있는 것은 여진인 즉 금인(金人)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저 북청에서의 토성, 성진 북쪽에서의 토성 내지 각지에 산재한 산성 등이 저들의 것이라는 것은 조금도 이상하지 않은 것으로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고 하였다. 또한 도리이는 여진 비문에 대하여도 언급하고 있는데, 북청 해안의 비문, 두만강 건너 경성군 동관지의 전방, 이른바 남경 고성의 여진 소자(小字)의 비문, 산성내의 여진문(女眞文)을 찍은 기와 등을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파괴된 석탑과 사원의 초석 등이 남아 있는 성진의 북쪽 탑평리 유적을 금 시대 절 유적으로 보고 있다.

“평지에 설치된 성이 있다. 이것은 대다수 토성으로 성벽을 흙으로 쌓고 그 주위 및 성벽의 각 곳에는 문을 쌓은 것이다. … 먼저 남쪽부터 거론하면 북청의 토성이다. 이것은 이제까지 조선의 학자에 의해서 숙신의 토성이라고 일컬은 것이다. 또한 하나는 성진의 북쪽에 존재하는 토성으로, 이 토성은 규모가 가장 크다. 또 강을 사이에 두고 하나의 토성이 있다. 다시 두만강을 건너면 토성은 곳곳에 존재하지만, 먼저 두드러진 것을 열거하자면, 동간도에서의 토성자, 서성자의 두 성 및 애단성이다. 다시 혼춘평원에서의 토성, 경성으로부터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건너편 언덕의 토성 이른바 남경고성 등이다.”

“여진인의 성은 2종류의 성을 사용하였는데, 하나는 산성이고 하나는 토성이다. … 토성의 경우는 금 시대에 遼나라 축성으로부터 모방한 것으로, 그 영향으로는 토성이 조선에도 축조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무덤 유적도 언급하고 있는데, “이중 예부터 호기(胡妃)가 묻힌 것이라고 불리었다. 나는 이것을 발굴했는데 가운데 목관을 묻고 그 안에 사체를 감싼 것은 자작나무 껍질로 하였다. … 이 분묘는 그 부장품의 모양에서 보면 금인(金人)인 듯하며 고려인은 아니다. 이것은 귀에 걸린 귀걸이 등에서도 증명된다. 오늘날 이 지방 사람들(토착인)이 호기의 무덤이라고 한 것은 그 사실을 전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 분묘는 그 부근에 존재하는 토성과 깊은 관계를 가지는 것 같다고 여겨진다. 이 토성은 또는 합라로와 관계를 가지는 것은 아닐까. 요컨대 이

부근에 흐르는 남대천 유역은 가장 금나라 연구에서 주의해야 할 바이다.” “또한 여진의 일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분묘이다. 여진인의 분묘는, 조선인은 저 길주 부근에 남아 있는 것과 같은 석총 즉 이탄(夷坦)으로써 이것에 해당하지만, 고려와의 관계가 있는 시대의 여진인이 이미 금인이 된 때의 분묘는 이처럼 간단한 것은 아니고 가장 진보한 것이 되었다. 그 표준은 또한 간도에서 많이 보이는 바의 것이다. 예를 들면 저 용정촌의 서쪽에 존재하는 동토성의 근방에 있는 무덤 같은 것, 아니면 국자가(局子街)의 북쪽에 있는 분묘 같은 것이다. 지금 이 형식을 서술하면 1개의 돌로써 작은 돌널을 만들고, 그 돌널에 일종의 모양을 새긴다. 그런데 이를 지상에 두고 그 위에서 흙을 덮어 흡사 흡만두와 같이 되었다. 그 주위에는 石人, 石羊, 石虎를 세웠다. 이것은 적어도 금 시대 금인의 무덤이다.” 하였다.

끝으로, 포선만노(蒲鮮萬奴) 부분이다. “금나라 최후의 영웅으로 포선만노가 있다. … 그는 일시에 이런 세력으로 장백산 방면으로부터 만주, 조선의 북쪽에서 웅비했지만, 다시 원인(元人)의 손에 체포되어 마침내 동진국은 멸망으로 끝이 났다. 오늘날 그가 웅비한 유적은 간도부터 두만강을 건너서, 조선의 북부에도 그 면모가 남아 있다. 예를 들면 수년 전 일찍이 국자가(局子街)로부터 동쪽, 포이합도하안(布爾合圖河岸)인 성자산의 석성에서 동인(銅印)이 출토된 것에서도 명백하다. 이 동인에는 천태의 연호가 적혀 있었다. 그런데 천태란 그가 칭한 연호로, 즉 이 성이 그의 손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명백하다.” “또한 오가와(小川)박사의 『경도사학회지(京都史學會志)』 「장백산 부근 지세 및 송화강 수원」이 기록한 바에 의하면, 회령의 서쪽 운두성에도 그들이 웅거한 것으로 보이는 ‘천왕(天王)’이란 문자가 있는 기와가 존재한다고 전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 나의 조사에 의하면 이것과 같은 기와가 북청의 여진산성 및 함흥의 임도원에서도 발견된다. 이들 사실로부터 보면 그는 적어도 함흥 부근까지 세력을 떨친 것을 알기에 족하다. 또한 저 북청에 존재하는 여진글의 비문에 황호(黃虎) 7월 29일이라고 있다. 이 황호의 해는 어떠한 연호에 해당하는가라고 말하면, 여진의 소자(小字)가 만들어진 것부터 금나라가 멸망하기까지의 사이에서 2가지가 있다. 즉 하나의 무인(戊寅)은 1158년(역자 주: 원문의 1858년은 오키)에 해당하며, 금의 정륭(正隆)이고, 일본의 보원(保元) 3년이다. 이것은 고려에서는 의종, 송에서는 남송의 고종 5년에 해당한다. 그 다음 무인은 1218년으로, 금의 선종 흥정(興定) 2년에 해당하고, 고려에서는 고종 5년, 남송에서는 영종 가정(嘉定) 11년, 일본에서는 건보(建保) 6년이다. 이 두 가지의 무인(戊寅) 가운데 어느 것이 위 비문에 관계를 가지는 것인가라고 하면, 만약 후자의 무인이라고 하면 포선만노가 관계되는 것이 된다. 이들은 크게 주의해야 할 것이다.”

전체적으로 도리이는 함경도에 분포하는 많은 유적 중 고분과 성터, 그리고 사원 유적 중 상당부분을 여진(금과 동하국)과 관련하여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이 명확히 구분된 것은 아닐지라도 고려와 여진의 당시 강역을 생각해 보면, 장성 이북 지역에는 상당수 여진의 유적이 분포할 가능성이 높으며, 향후 이 지역 조사·연구에 있어 참고할 부분이 많다고 판단된다.

IV. 연해주 유적을 통해본 말갈·여진 문화

1. 연해주의 말갈 문화

고고학적으로 말갈은 소위 ‘말갈관(靺鞨罐)’이라 부르는 적갈색 연질 수제(手製)토기로 구분·연구되어 왔다. 말갈 7부를 고고학적으로 구분하려는 시도는 류샤오둥(劉曉東)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그는 중국은 물론 아무르 유역의 유적들에서 출토되는 말갈관(靺鞨罐)의 특징을 구분하여 모두 13종으로 분류하고, 이를 근거로 속말말갈, 안거골, 불열, 흑수말갈을 구분한 바 있다.¹⁸⁾ 유효동은 연해주의 말갈을 H그룹 즉 속말말갈로 구분한 점이 주목된다.

표 1 말갈유적 명칭 및 연대, 류샤오둥 2007에서 재편집
(홍형우, 2012, 「토기를 통해 본 동(東)아무르 지역 중세문화의 전개」, 『고구려발해연구』 42집)

그룹	명칭	위치	연대	비고
A	老河深上層	吉林 榆樹	6~7세기	속말
	楊屯三期	吉林 永吉	6~8세기	“
B	黃家崴子	黑龍江 舍尔滨(하얼빈)	6~7세기	안거골
C	廂蘭頭	黑龍江 望奎	6~7세기	흑수
D	河口四期	黑龍江 海林	6~7세기	불열
	振興四期	黑龍江 海林	6~7세기	“
	渡口二期	黑龍江 海林	6~7세기	“
E	團結	黑龍江 蘿北	6~7세기	흑수
	同仁遺址一期 초기	黑龍江 綏濱	6~7세기	“
	四十連	黑龍江 綏濱	6~7세기	“
	布拉戈斯洛夫文(블라고슬로벤노예)	러시아 유태자치주	5~7세기	“
F	帽儿山(沙普卡山,샤프카산)	아무르주 미하일로프카지구	7~9세기	흑수
G	奈費爾德(나이펠트)	러시아 유태자치주	5~7세기	흑수
H	查里巴	吉林 永吉	6~8세기	속말
	石場溝	黑龍江 樺林	6~8세기	“
	羊草溝	黑龍江 樺林	8~9세기	“
	二道河子	黑龍江 樺林	8~9세기	“
	北站	黑龍江 樺林	8~9세기	“
	老山頭	黑龍江 賓縣	8~9세기	“
	通江	黑龍江 望奎	8~9세기	“
	虹鱒魚場	黑龍江 寧安	8~9세기	“
	大城子	黑龍江 東寧	8~9세기	“
	磚廠	黑龍江 東寧	8~9세기	“
	黃魚圈二層	吉林 舒蘭	8~9세기	“
	永安	吉林 渾江	8~10세기	“
	東清	吉林 安圖	8~9세기	“
	涼水果園	吉林 圖們	8~9세기	“
	六頂山	吉林 敦化	8~9세기	“
	契爾良基諾(체르냐티노)	러시아 연해주	8~10세기	“
I	同仁一期晚段	黑龍江 綏濱	10~12세기	“
	特羅伊茨基(트로이츠크예)	러시아 아무르주	8~10세기	흑수
	科奇科瓦特卡(코치코바트카)	러시아 하바롭스크주	5~7세기	“
	奧西李-塔拉坎(우스티-달라칸)	러시아 아무르주	10~12세기	“

연해주의 말갈 문화에 대하여는 O. V. 디야코바, Ya. E. 피스카료바 등에 의해 주로 연구되었다. 특히 Ya. E. 피스카료바는 연해주의 말갈 토기를 1)말갈 유적들, 2)발해 시기 유적들, 3)10~11세기의 말갈 유적이라는 3개의 범주로 구분한다. 말갈 유적들은 한카 그룹, 해안

18) 劉曉東, 「靺鞨文化研究」, 吉林大學 석사학위논문, 2007.

그룹, 카발레로보 그룹, 라코브카 글부이라는 4개의 그룹과, 별도로 아우로브카 성으로 구분하고, 발해시기와 10~11세기 유적들도 각각 수 개의 그룹 및 별개의 유적들도 세분한 바 있다.¹⁹⁾ 연해주의 말갈 문화를 지역적으로 세분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연구로, 두만강 유역과 관련된 연해주의 최 남부 지역의 말갈 문화는 해안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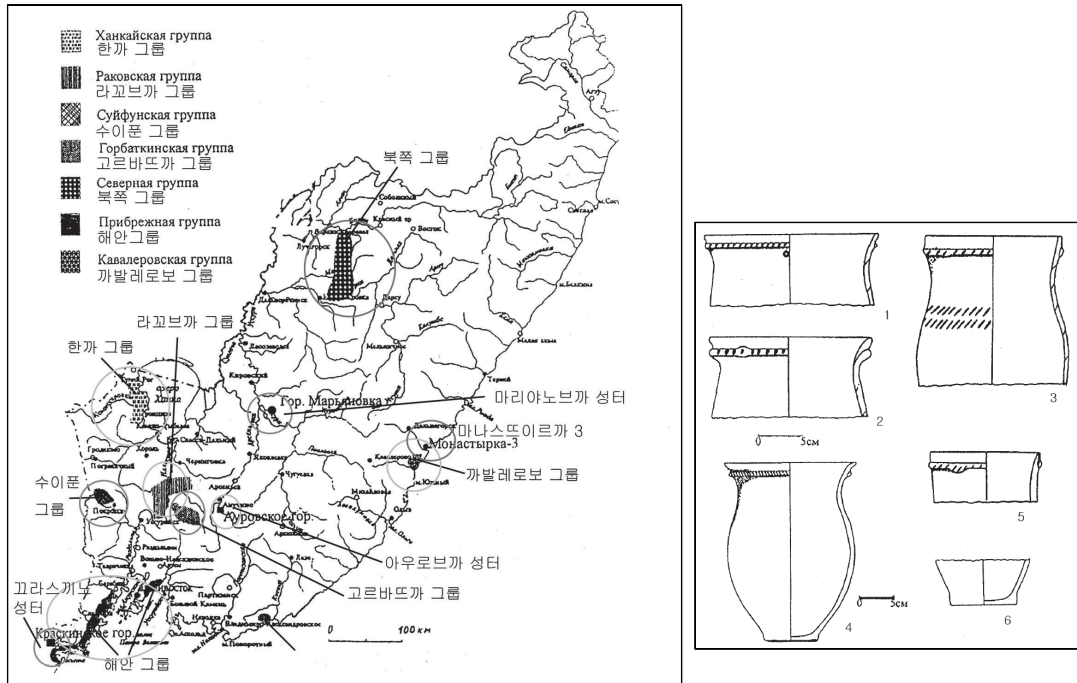


그림 6 Ya. E. 피스카료바의 연해주 지역 말갈유적 그룹(좌)과 해안 그룹 토기(우)
(정석배, 2009, 「아무르·연해주 지역의 말갈 - 연구 현황과 과제」, 『고구려발해연구』 35에서 재인용)

해안 그룹 말갈토기는 유연한 곡면을 이루는 기형에 용기대 시문된 토기가 기본이며, 용기대가 없는 토기도 소량 있다. 토기의 문양의 구연 아래, 목, 동체부, 혹은 저부에 위치한다. 기벽에는 타날의 흔적이 있고, 표면은 마연하였다. 수제 토기가 대부분이나 트로야차 항의 가마 유적에서는 회전판을 사용한 토기들도 소량 확인된다.²⁰⁾

필자 또한 말갈문화를 속말말갈계와 흑수말갈계로 구분하여 연해주를 비롯한 주변지역의 말갈문화를 검토한 바 있다.²¹⁾ 최근 영동지역에서는 연해주 철기시대의 폴체와 말갈의 문화의 토기가 확인되어 주목된다. 말갈 토기는 춘천 중도동 토광묘에서 1점, 홍천 송정리 유적에서 동체부편 1점이 출토되었다. 이러한 토기는 양양 가평리 유적, 몽촌토성, 춘천 우두동 유적,

19) Ya. E. 피스카료바, 2005, 「연해주 말갈 유적들의 국지적 그룹들」, 『고대와 중세의 러시아 극동, 발견들, 문제들, 가설들』, 블라디보스톡. (Пмскарева Я.Е., Лакальные группы мохэских памятников в Приморье // Российский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в дреуности и средневековье. Открытия, пробл емы, гипотезы. Владивостек, 2005)

20) Ya. E. 피스카료바, 2005, 「연해주 말갈 유적들의 국지적 그룹들」, 『고대와 중세의 러시아 극동, 발견들, 문제들, 가설들』, 블라디보스톡, 420쪽. (Пмскарева Я.Е., Лакальные группы мохэских памятников в Приморье // Российский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в дреуности и средневековье. Открытия, проблемы, гипотезы. Владивостек, 2005)

21) 홍형우, 2011, 「서(西)아무르 지역 말갈(靺鞨)토기의 특성과 그 전개 -최근 발굴 유적을 중심으로-」, 『한국상고사학보』 제74호, 45~80쪽; 홍형우, 2012, 「토기를 통해 본 동(東)아무르 지역 중세문화의 전개」, 『고구려발해연구』 42.

풍납토성, 장미산성 등에서도 확인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²²⁾ 이 토기는 고구려토기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동체부에 각목띠를 덧대거나 동체부에 점열문을 시문하는 것으로 보아 말갈토기로 보는 것이다. 대략 4세기 후반 경으로 편년되는데, 이 경우 폴채문화 말(4세기 경)에서 말갈토기로 이행하는 과정에 있는 시기와 맞물려 있어, 이행기의 말갈토기로 보는 것이다.²³⁾ 다소 유연한 곡면을 가진 다소 세장한 동체부나 용기대문 등에서 해안 그룹의 토기와 유사성이 엿보인다.



그림 7 영서 지역 말갈토기(1. 춘천 중도동유적, 2. 홍천 송정리유적, 심재연 2017에서)

2. 연해주의 여진 문화

여진족이 세운 금(金)은 1115년에서 1234년까지 존속하였다. 전성기의 영토가 만주와 북중의 대부분, 그리고 러시아 연해주 지역과 한반도의 북부에 이르렀음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다. 한편 동하(東夏)는 몽골과 반목하던 금이 내부적으로 혼란한 틈을 타서, 1215년 요동에서 여진군을 지휘하던 포선만노(蒲鮮萬奴)가 세운 나라로, 연해주의 중·남부를 중심으로 만주 동부와 한반도 동북부에 위치하였다.²⁴⁾ 금과 동하 모두 여진족이 세운 나라로, 고고학적으로는 여진문화에 속한다.²⁵⁾

연해주 지역에는 현재 약 300개소가 넘는 중세 유적들이 발견 조사되었다. 이중 확실히 여진 제국에 속하는 유적은 52개가 알려져 있다.²⁶⁾ 1960년대 초 E.V. 샤브쿠노프는 연해주의 중세유적은 4개의 역사·문화적 시기로 구분한 바 있다. 즉 1) 8~10세기 유적, 즉 발해 시기(크글라야 소프카 성 하층, 南우수리스크 성 하층, 크라스키노 성), 2) 9~12세기 초의 유적들, 즉 여진 종족들의 결집 시기(예카테리노프카 성, 쉬클라예보 성, 노보포크로프카 성, 추구예프카 성, 산바르스코예 성), 3) 12~13세기 초의 유적들, 즉 연해주 지역이 여진의 금 제국에 포함된

22) 심재연, 2009, 「한성백제기 영동·영서」, 『고고학』 8-2호, 중부고고학회. 51~68쪽.

23) 심재연, 2017, 「최근 조사성과로 본 영동·영서지역과 북방지역의 상호작용 - 철기~삼국시대를 중심으로 -」, 『시베리아연구』 제21권 1호, 20~21쪽; 홍형우, 2017, 「연해주의 고고 문화와 강원도」, 『江原史學』 제29집, 125~126쪽..

24) 한성주, 2011, 「고려시대 東女眞·東眞兵의 강원지역 침입에 대하여 - '東女眞 海賊'의 침입을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30집,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44-247.

25) 부산박물관·한성백제박물관, 2014, 『러시아연해주문물전 프리모리에』, 189쪽.

26) N.G. 아르페미예바 지음, 정석배 옮김, 2011, 『연해주 여진의 주거 건축』, 학연문화사, 41쪽.

시기(크라스노야르 성, 西우수리스크 성, 샤이가 성, 보구슬라브카 성, 고르노이 후토르 성, 콕샤로프카 성 등), 4) 13세기 후반~14세기 전반기의 유적들, 즉 몽골 억압기(소시노브카 주거유적, 테레호프카 주거유적)이 그것이다.²⁷⁾

연해주의 여진 유적들은 성들과 주거유적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가장 수가 많고 조사가 활발히 진행된 것은 성이다.

성들은 그 입지에 따라 산성과 평지성으로 나뉜다.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니콜라예스코예 성, 南우수리스크 성, 西우수리스크 성, 스테클라누하 성, 추구예프카 성, 크라스노야르스크 성, 샤이가 성, 아나니예스크예 성, 콘스탄티노프카 성, 라조프카 성, 예카테리노프카 성, 스칼리스트오예 성 등을 들 수 있다. 이중 연해주에서 가장 크고 가장 잘 조사된 유적으로는 샤이가 성이다. 샤이가 성은 파르티잔스크 지구에 위치하며, 구릉 양측을 인공적으로 깎아서 계단 형태로 만든 후 성벽을 축조하고, 성 안에 가옥과 수공업 생산시설을 만들었다. 가옥은 평지에 온돌을 설치한 구조이며, 한쪽에는 고상창고가 있었다.²⁸⁾

스토야킨 막심에 따르면, 금시기 수분화와 우수리 강 하·중류 유역의 성곽은 크기에 따라 대, 중, 소로 나뉜다. 대형(50-100ha) 성곽은 南우수리스크 성이 유일하며, 이는 행정치소로 부의 중심지로 추정된다. 중형(10-50ha) 성곽은 주의 중심지로, 니콜라예프카 성과 추구예프카 성이 해당한다. 소형(1-10ha) 성곽은 금시기의 현의 중심지로 마리아노프카 평지성, 마이스코예 평지성, 스토클라누하-1 성, 사라토크-레두트 유적, 콕샤로프카-2 평지성 등이 이에 속한다. 이 지역에 위치한 금시기 성곽은 대부분 판축기법을 이용해 축조되었다. 성벽 외부에는 해자가 설치되었으며, 성벽위에는 치, 각루, 옹성이 포함된다.²⁹⁾

동하국 시기의 연해주의 성곽은 주로 우수리 강 유역과 연해주 연안지역에 집중적으로 위치한다. 이 시기 성곽은 30기 이상이 확인된다. 성곽은 연해주 전역에 위치하며, 금시기 성곽과 마찬가지로 주로 강을 따라 분포되고 있어 교통로를 감시하는 기능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동하국 시기의 성곽은 규모에 따라 소형, 중형, 대형, 특대형 등 4유형으로 구분된다.

특대형(180ha 이상) 성곽은 크라스노야르 산성으로, 동하국의 수도인 카이위안시로 비정된다. 성곽의 내성에는 큰 테라스가 있는데 주춧돌과 기와가 많이 출토되어 행정 건물지로 본다. 내성의 행원 관리원의 구획 구간이 있어 고급 행정 건물이 위치한다. 대형(30ha 이상) 성곽은 노보네지노 산성, 스몰라니노프카 산성, 키시네프카 산성 등이다. 이 성곽 중 샤이가 산성은 면적 45ha로, 부(府)와 같이 동하국 시기 높은 행정 지위를 가졌다고 생각된다. 이것은 수도의 조직운영체계를 알려주는 인장, 동하국 황제의 사자에게 전권을 부여하는 은제 패찰의 출토를 통해 추정가능하다. 중형(10-30ha) 성곽은 스토코바야 소프카 산성, 유르코프카 산성, 아나니예프카 산성 등이 있다. 소형(1-10ha) 성곽으로는 콘스탄티노프카-3 산성, 세클라예보 산성 등이 있다. 동하국 시기 성곽에도 치, 각루, 옹성이 설치되었으며, 판축공법으로 축조하였다. 토축 성벽을 쌓는 방식은 여진시기 건축 방식을 따른 것이다.

동하국 시기 산성에서는 수공업 생산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데, 토제품(회색 윤제와 수제 토기, 기와, 벽돌), 철제품(솥, 화살촉, 창촉, 철갑, 도자, 금속제품, 마구), 청동제, 은제, 잔, 팔찌, 신상, 거울 등이 발견된다. 동하국 시기 산성은 생산 기능뿐 아니라 군사 및 행정 중심

27) N.G. 아르페미예바 지음, 정석배 옮김, 2011, 『연해주 여진의 주거 건축』, 학연문화사, 42쪽에서 재 인용. 현재의 시점에서 보면 세부적인 차이, 즉 南우수리스크나 콕샤로프카 성 등의 비정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4시기로 구분한 점은 참고할 만하다.

28) N.G. ,아르페미예바, 2005, 「연해주 여진의 성」, 『고대와 중세의 러시아 극동』, 542~591쪽.

29) 스토야킨 막심, 2015, 「아무르-연해주 지역의 중세시대 성곽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60-164쪽.

지의 역할도 수행했다. 예를 들어 아나니예프 성은 여진의 군사-농경 유적인 모극(謀克)과 동일시되고 있다. 목단강 유역에 동하국 시기 성곽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으나, 경박호성자후산성(鏡泊湖城子后山城)은 동하국 수도로 추정되기도 한다.³⁰⁾

스토야킨 막심은 여진의 성곽을 말갈, 발해의 성과도 비교하고 있다. 말갈의 성은 대부분 단애성으로 입지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며 평면형태가 불규칙하다. 말갈 성벽은 특별한 공법 없이 흙으로 성벽을 쌓은 반면, 여진의 성은 판축공법이 보편적이다. 말갈 성이 아무런 보호 시설이 설치되지 않고 환호로 보호된 반면, 여진 성은 웅성, 치, 각루 등 다양한 부속시설이 많은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발해 성곽은 평지성과 산성이 있는 반면, 여진의 성은 평지성이 중심이다. 동하국 시기의 성은 산성 중심으로 축조되어 이것 역시 발해 성곽의 입지 선택과 큰 차이를 보인다. 성의 평면 형태에도 일정한 차이를 보이는데, 발해 성은 입지에 따라 규칙 또는 불규칙한 형태가 많으나, 금시기 성곽은 규칙적인 방형이나 장방형으로 축조된다. 동하국 시기는 주로 산성이므로 불규칙한 형태이다. 축조재료 면에서 발해는 목책, 토축, 석축, 토석혼축 등 다양하나, 금 시기 성곽은 대부분 토축이며 판축공법으로 쌓았다. 대체로 금시기의 성벽이 발해의 성벽보다 높다. 부속시설 면에서도 발해시기는 그 비율이 낮은 반면, 금과 동하국 시기의 성벽에는 웅성, 치, 각루의 설치가 보편적인 양상이다.³¹⁾

한편, 이병건은 발해국 영역 내 추정 요금시기 평지성 유적을 건축학적으로 검토한 바 있는데, 목단강지구에 3개소(寧安 西營城子古城, 林口 三道通古城, 林口 烏斯揮河口古城), 연변지구에 3개소(琿春 裴優城, 汪清 羅子溝溝古城, 和龍東 古城), 그리고 搭虎城(松原市 소재)을 분석한 것이다. 그는 요금시기 평지성은 대체로 넓은 개활지에 위치하며 평면형태가 반듯한 장방형으로 치소성(治所城)의 성격이 강하며, 판축 내지는 유사판축으로 축성되었으며, 해자는 물론이고 웅성, 치, 각루 또한 견고하고 높게 구축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 한 바 있다. 한편 치의 경우 발해시기에는 발해의 도성급 평지성에서 치가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발해의 ‘南京南海府’ 소재지로 추정되는 북청 청해토성에서 치가 확인되고, 길림성 발해 평지성에서도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치는 고구려→발해→요→금나라로 계속 유지되어 왔던 것으로 보았다.³²⁾ 이와 같은 특징들은 앞서 살펴 본 연해주 지역의 여진성의 특성과 대체로 일치한다.

여진의 주거 건축의 특징은 N.G. 아르테미예바의 연구를 통해 살펴 볼 수 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여진의 집들은 이른 시기와 늦은 시기로 세분된다. 이른 시기는 작은 면적(16~20 m²)으로, 보조 아궁이가 없고, 평면상 ‘ㄷ’자, ‘ㄱ’자, ‘C’자, 그리고 곧은 모양의 작은 쪽구들이 설치되어 있으며, 돌학과 같은 다른 구조물이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늦은 시기 집들은 기본적인 구조적 기법들은 변함이 없어, 평면상 ‘ㄷ’자, ‘ㄱ’자, 그리고 곧은 모양의 쪽구들이 존속하며, ‘C’자 모양의 쪽구들이 사라진다. 이 시기에는 서로 대칭적으로 배치된 2개의 쪽구들이 하나의 집에 시설되기도 하고, 넓은 쪽에 입구가 있는 5개 섹터의 쪽구들이 사용되기도 한다. 이밖에도 돌학, 경제 구덩이, 생산 구조물이 나타나는 것도 늦은 시기의 특징이다.³³⁾ 또한

30) 스토야킨 막심, 2015, 「아무르-연해주 지역의 중세시대 성곽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67-170쪽.

31) 스토야킨 막심, 2015, 「아무르-연해주 지역의 중세시대 성곽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6-207쪽.

32) 이병건, 2014, 「발해 상경성 주변 금시기 평지성 유적의 건축적 검토」, 『한국건축역사학회 2014년 추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한국건축역사학회; 이병건, 2016, 「연변지구 내 추정 요금시기 평지성의 조영과 성곽시설 고찰」, 『고구려발해연구』 56집, 128-137쪽. 고구려발해학회; 이병건, 2016, 「발해국 영역 내 추정 요금시기 평지성 유적의 건축적 검토」, 『한국건축역사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한국건축역사학회, 85-87쪽.

여진문화의 몇몇 마을유적에서는 불탄 집, 불탄 곡식이 남아 있는 헛간, 흩어져 있는 포탄 등이 발견되는데, 이는 여진인의 마을이 몽골 침략으로 갑자기 폐허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여진의 유물로는 단야·금속가공용 도구와 철, 청동제품과 금·은을 상감한 제품 등이 있고, 특히 무기와 함께 농구·공구·마구·철술 등이 대량으로 제작된다.

먼저, 주목되는 것은 인장이다. 샤이가 산성 174호 주거지에서 출토된 인장은 인장의 손잡이 쪽에 상(上)가 새겨져 있으며, 측면에는 치중지인(治中之印)이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다. 치중은 금나라 관료의 명치이라는 견해가 있는데, 이 인장의 출토로 샤이가 산성이 등급상 주변이 아닌 중앙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여진의 기와의 생산에 대한 연구는 S.E. 사란제바를 통해 볼 수 있다. 여진의 기와 제작 기술을 제작 방식, 성형 기법, 외면 정면, 소성 특성 등에서 일정한 특성을 보여주는데, 태토는 자연 모래가 약간 포함된 점토에 내화토 포함, 화도는 800도의 환원 분위기, 절두 원추형과 원통형 와통, 외면 성형후 문지르기, 암키와의 드림부의 특징, 도시 외곽에서의 기와 소성 등이다.³⁴⁾

여진 문화의 토기는 발해토기의 기형과 유사하나 태토와 색조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기종은 대형의 호형토기를 비롯하여 다양한 토기 기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호형토기 건부에 파상문 등 문양이 시문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밖에 여진 문화에는 흑유완, 흑유항로, 청자항로 등도 출토되고 있어 교류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V. 맺음말

이제까지 함경도·연해주 일대 여진 문화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여진은 중국의 ‘동북삼성’ 중 주로 송화강(松花江)·목단강(牡丹江)·흑룡강(黑龍江)유역과 동만주 해안지방에 살았던 민족으로 말갈의 후예로 알려져 있다.

이들 가운데 완안부 출신인 아쿠타가 ‘금(金)’이라는 국가를 건설하였다. 여진제국의 강역은 만주와 장성이남의 북중국을 포괄하였으며, 한반도의 동북부지역을 포함한다. 말갈이 언제부터 연해주, 함경도지역에 살고 있었는지 확실하지 않으나, 고구려 당시 말갈은 고구려에 복속되어 간접 지배를 받으며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발해 멸망 이후 10세기 초 흑수말갈이 남하하여 살았는데, 이때부터 이들이 여진으로 불린다. 이후 함경도 지역은, 학설에 따라 다르지만 윤관의 9성 설치로 잠시 함경도 지역(일부 또는 전부)을 차지하였다가 바로 되돌려 준바 있으나, 고려 말·조선 초까지 여진의 영역이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도리이 유조(鳥居 龍藏)의 1911년 조사 자료에 따르면, 함경도 일대에 분포하는 많은 고분과 성터 그리고 사원 유적 중 상당부분은 여진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비록 최근의 조사 자료를 확보하지는 못하였지만, 향후 북한 지역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연구에 참조가 된다.

말갈·여진의 고고학적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만강 이북 지역인 연해주 남부의 자료를

33) N.G. 아르제미예바 지음, 정석배 옮김, 2011, 『연해주 여진의 주거 건축』, 학연문화사, 206-207쪽.

34) S.E. 사란제바 저, 정석배 옮김, 2011, 「연해주 여진(12~13세기)의 기와 생산」, 『고구려발해연구』 40집, 고구려발해학회, 267-268쪽.

참고할 수 있다. 연해주의 말갈문화는 지역별로 다소의 차이를 보이는데, 가장 남쪽에는 ‘해안 문화’로 명명된 그룹이 분포한다. 최근 영동지역에서 이와 유사한 토기가 발견된 점으로 보아 함경도 지역 등 북한 지역에도 말갈문화의 유적이 상당수 분포할 가능성이 높다.

연해주에는 금(115-1234)과 조선만노의 동하국(1215-1234)의 유적이 많이 분포한다. 금과 동하국은 모두 여진이 세운 나라로, 고고학적으로는 여진문화에 속한다. 연해주에 분포하는 유적 중 가장 조사가 많이 된 것은 성곽 유적이다. 여진의 성은 방형 또는 장방형 평면을 가진다. 축조재료 면에서 발해는 목책, 토축, 석축, 토석혼축 등 다양하나, 금 시기 성곽은 대부분 토축이며 판축공법으로 쌓았다. 대체로 금시기의 성벽이 발해의 성벽보다 높다. 부속시설 면에서도 발해 시기는 그 비율이 낮은 반면, 금과 동하국 시기의 성벽에는 웅성, 치, 각루의 설치가 보편적인 양상이다.

여진 문화에서 특징적인 유물로는 샤이가 산성에서 출토된 치중지인(治中之印) 명문이 새겨진 인장을 들 수 있다. 여진 문화의 토기는 발해토기의 기형과 유사하나 태토와 색조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기종은 대형의 호형토기를 비롯하여 다양한 토기 기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호형토기 견부에 파상문 등 문양이 시문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밖에 여진 문화에는 흑유완, 흑유향로, 청자향로 등도 출토되고 있어 교류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연해주에 분포하는 말갈·여진 문화는 향후 북한 지역, 특히 함경도 지역에 분포하는 고고문화를 이해하는 데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하겠다.

참고 문헌

- 국립김해박물관, 2016, 『석기시대 조거용장 조사 유리건판』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건판 8집.
- 권은주, 2009, 「靺鞨 7部の 實體와 渤海와의 關係」, 『高句麗渤海研究』 35집.
- 김락기, 2010, 「6~7세기 靺鞨 諸部の 내부 구성과 거주지」, 『高句麗渤海研究』 36집.
- 김순자, 2010, 「고려~조선초 한·중간 영토에 대한 현대 중국학계의 시각」, 『역사와 현실』 76집, 한국역사연구회.
- 김순자, 2012, 「12세기 고려와 여진·금(金)의 영토 분쟁과 대응」, 『역사와 현실』 83집, 한국역사연구회.
- 김호동, 2016, 『아틀라스 중앙유라시아사』, 사계절출판사.
- 나영남, 2016, 「遼代 女眞의 起源과 分類」, 『역사학연구』, 62집, 호남사학회.
- 부산박물관·한성백제박물관, 2014, 『러시아연해주문물전 프리모리에』.
- 스토야킨 막심, 2015, 「아무르-연해주 지역의 중세시대 성곽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심재연, 2017, 「최근 조사성과로 본 영동·영서지역과 북방지역의 상호작용 - 철기~삼국시대를 중심으로 -」, 『시베리아연구』 제21권 1호.
- 이병건, 2014, 「발해 상경성 주변 금시기 평지성 유적의 건축적 검토」, 『한국건축역사학회 2014년 추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한국건축역사학회.
- 이병건, 2016, 「연변지구 내 추정 요금시기 평지성의 조영과 성곽시설 고찰」, 『고구려발해연구』 56집, 고구려발해학회.
- 이병건, 2016, 「발해국 영역 내 추정 요금시기 평지성 유적의 건축적 검토」, 『한국건축역사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한국건축역사학회.
- 조복현, 2010, 「12세기 초기 고려-금 관계의 전개와 상호 인식」, 『중국학보』, 한국중국학회.
- 최정혜, 2009, 「중국 금나라 수막새에 대한 검토」, 『한국기와학회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한국기와학회.
- 한국교원대학교 역사교육과, 2004, 『아틀라스 한국사』, 사계절출판사.
- 한성주, 2011, 「고려시대 東女眞·東眞兵의 강원지역 침입에 대하여 - ‘東女眞 海賊’의 침입을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30집,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홍형우, 2011, 「서(西)아무르 지역 말갈(靺鞨)토기의 특성과 그 전개 -최근 발굴 유적을 중심으로-」, 『한국상고사학보』 제74호.
- 홍형우, 2012, 「토기를 통해 본 동(東)아무르 지역 중세문화의 전개」, 『고구려발해연구』 42.
- 홍형우, 2017, 「연해주의 고고 문화와 강원도」, 『江原史學』 제29집, 125~126쪽.
- 劉曉東, 「靺鞨文化研究」, 吉林大學 석사학위논문, 2007.
- N.G. 아르쎬미예바 지음, 정석배 옮김, 2011, 『연해주 여진의 주거 건축』, 학연문화사.
- S.E. 사라쎬바 저, 정석배 옮김, 2011, 「연해주 여진(12~13세기)의 기와 생산」, 『고구려발해연구』 40집, 고구려발해학회.
- Ya. E. 피스카료바, 2005, 연해주 말갈 유적들의 국지적 그룹들」, 『고대와 중세의 러시아 극동, 발견들, 문제들, 가설들』, 블라디보스톡.(Пискарева Я.Е., Лакальные группы мохэских памятников в Приморье // Российский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в древности и средневековье. Открытия, проблемы, гипотезы. Владивосток,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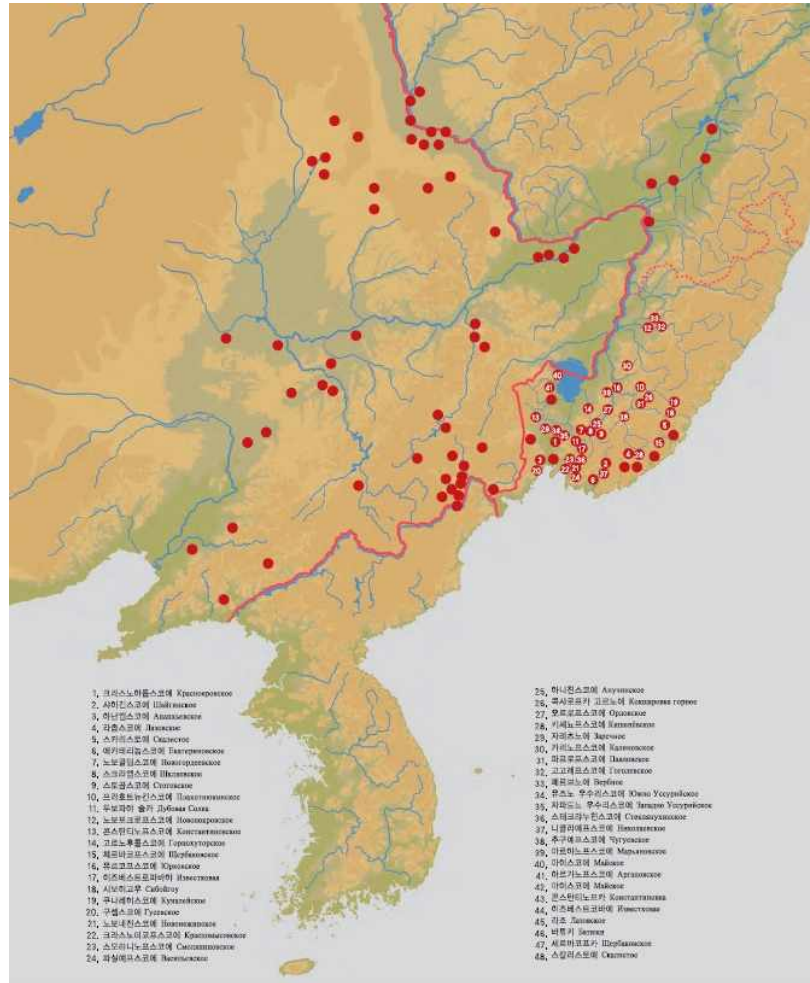


그림 8 연해주 여진 유적 분포도
(부산박물관·한성백제박물관, 2014, 『러시아연해주문물전 프리모리에』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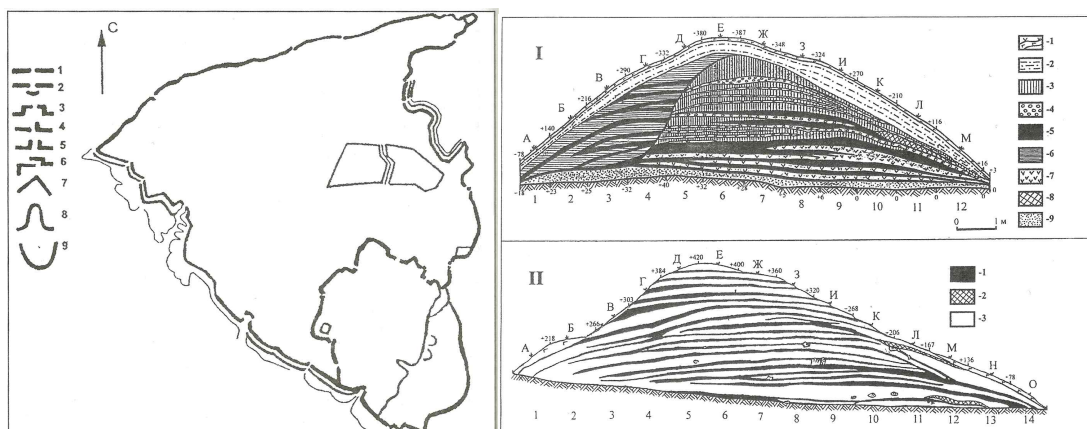


그림 9 크라스노야르스크 성 평면도(좌) 및 성벽 단면 토층도(우)
(N.G., 아르테미예바, 2005, 「연해주 여진의 성」, 『고대와 중세의 러시아 극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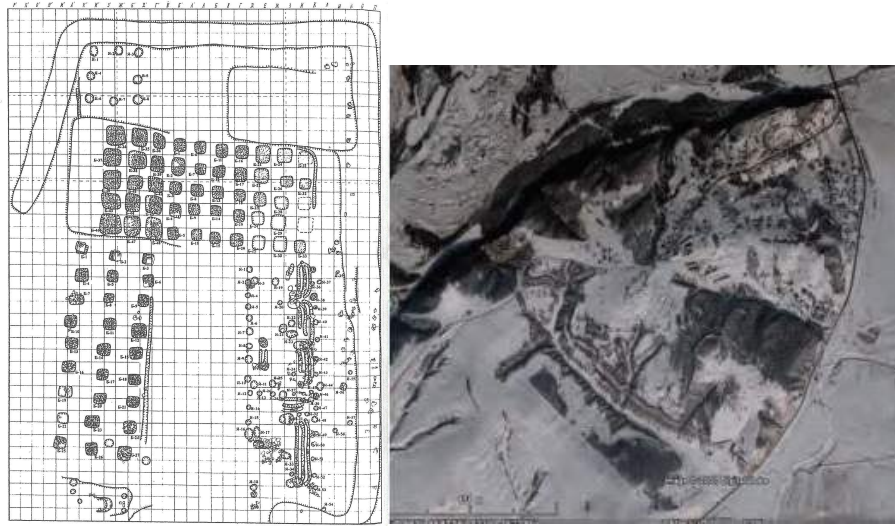


그림 10 크라스노야르스크 내부 건물지 평면도 및 사진
(N.G., 아르테미예바, 2005, 『연해주 여진의 성』, 『고대와 중세의 러시아 극동』 및
부산박물관·한성백제박물관, 2014, 『러시아연해주문물전 프리모리예』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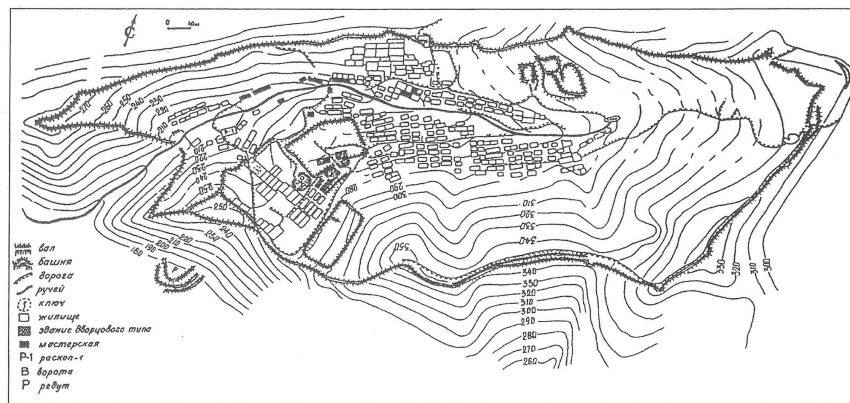


그림 11 샤이가 성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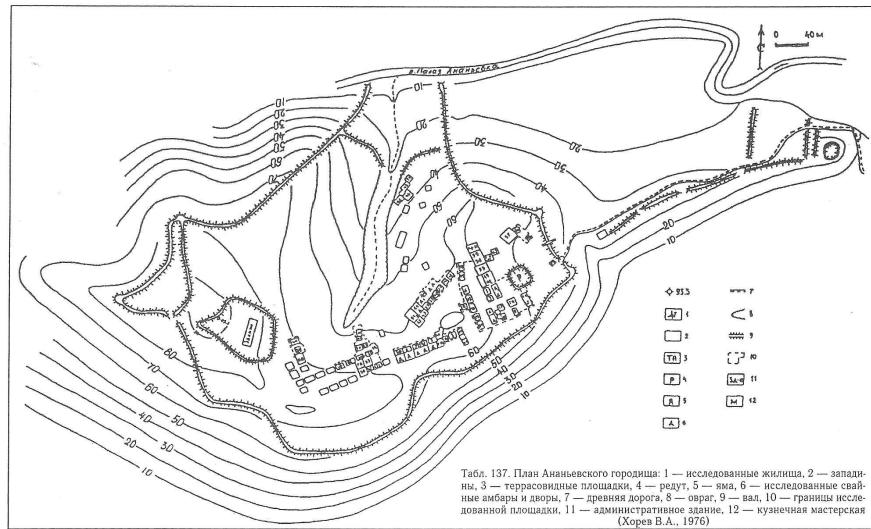


그림 12 아나니예프카 성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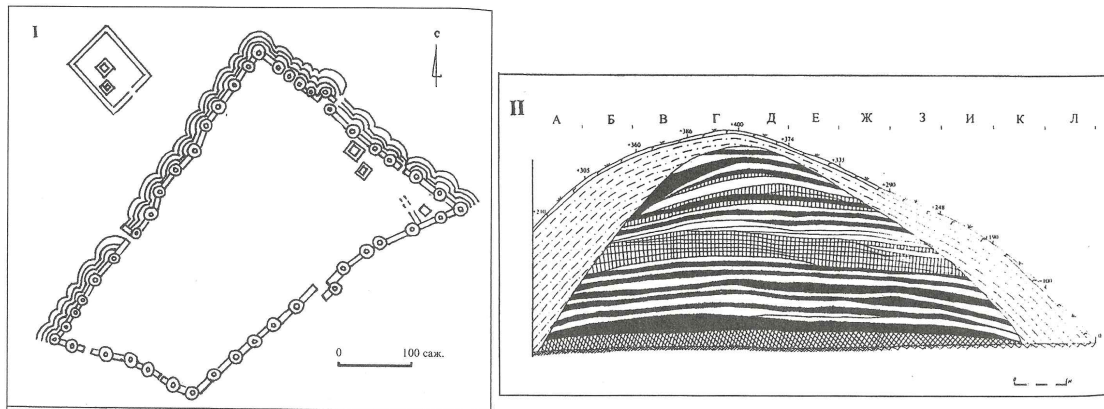


그림 13 南우수리성 평면도(좌) 및 성벽 단면 토층도(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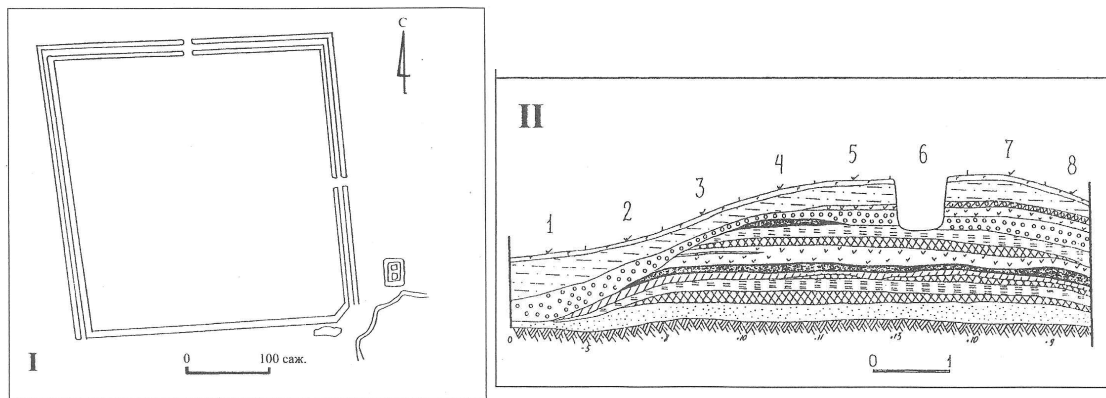


그림 14 西우수리성 평면도(좌) 및 성벽 단면 토층도(우)



그림 15 여진의 인장
(샤이가 성 174호 주거지 출토)
(부산박물관·한성백제박물관, 2014,
『러시아연해주문물전 프리모리에』에서)



그림 16 여진 토기
(부산박물관·한성백제박물관, 2014, 『러시아연해주문물전 프리모리에』에서)



그림 17 여진 토기
(부산박물관·한성백제박물관, 2014, 『러시아연해주문물전 프리모리예』에서)



그림 18 여진 토기
(부산박물관·한성백제박물관, 2014, 『러시아연해주문물전 프리모리예』에서)



그림 19 여진 병(좌상), 흑유완(우상), 흑유향로(좌하), 청자향로(우하)
(부산박물관·한성백제박물관, 2014, 『러시아연해주문물전 프리모리예』에서)



그림 20 여진 청동거울추
(부산박물관·한성백제박물관, 2014, 『러시아연해주문물전 프리모리예』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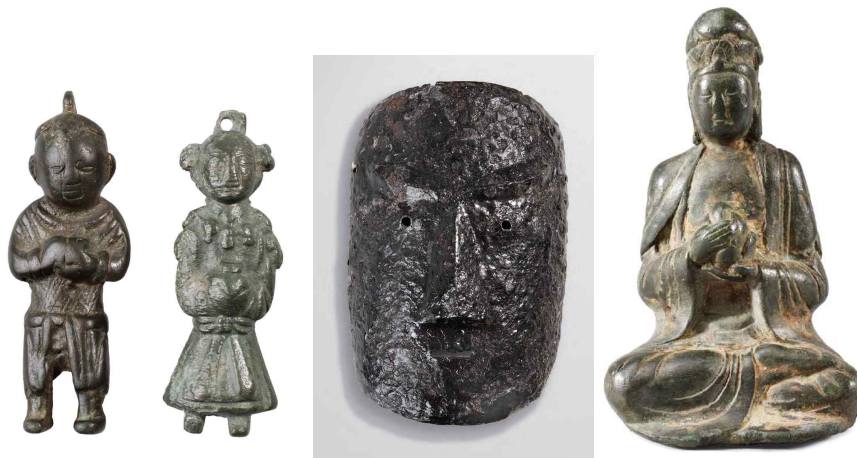


그림 21 여진 청동인물상(좌), 가면(중), 금동보살상(우)
(부산박물관·한성백제박물관, 2014, 『러시아연해주문물전 프리모리예』에서)

한국상고사학회

한국상고사학회 운영위원회

회	장 김재홍	국민대학교
부 회 장	김범철	충북대학교
총 무 이 사	이기성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출 판 이 사	임상택	부산대학교
연구 이 사	성형미	동양대학교
	박성현	계명대학교
기획/정보이사	강인욱	경희대학교
재정/섭외이사	이영철	대한문화재연구원
감 사	양시은	충북대학교
지역이사(중부)	신희권	서울시립대학교
	지현병	강원고고문화연구원
	홍형우	강릉원주대학교
지역이사(호서)	김경택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김무중	중원문화재연구원
	조상기	중앙문화재연구원
	홍보식	공주대학교
지역이사(호남)	김민구	전남대학교
	유 철	전주문화유산연구원
	천선행	전라문화유산연구원
지역이사(영남)	김도현	동양대학교
	김용성	한빛문화재연구원
	김창억	세종문화재연구원
총 무 간 사	김민영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출 판 간 사	이재한	부산대학교

33115 충남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367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융합고고학과 내 한국상고사학회
전화 041-830-7356, 팩스 041-830-7359, <http://www.sanggo.or.kr>

제49회 한국상고사학회 정기학술대회

인 쇄 : 2018년 12월 14일

발 행 : 2018년 12월 14일

편집인쇄 : 2018년 12월 14일

※ 이 책은 고려문화재연구원, 기호문화재연구원, 백두문화재연구원, 서울문화유산연구원, 세종문화재연구원, 성림문화재연구원, 울산문화재연구원, 전남문화재연구원, 전라문화유산연구원, 전주문화유산연구원, 중앙문화재연구원, 충청문화재연구원, 한강문화재연구원, 한빛문화재연구원, 호남문화재연구원의 학술지원에 의하여 출판되었음.